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3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7장 인민의 세상

8장 반일의 기치높이

9장 북만원정

제7장



인민의 세상

보금자리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국제당파견원
백마에 대한 추억

■ 시기 : 1933. 2 ~ 1934. 2

1. 보금자리

우리는 1933년 2월 중순에 마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왕청유격구로 향하였다. 20일 동안 산전막에서 정치토론만 하며 갑갑하게 지내던 18명의 유격대원들은 행길에 나서자 신바람이 나서 걸음을 다그쳤다. 겨우내 겪어온 시련의 흔적들이 채 가셔지지 않았건만 대오는 청신하고 생기발랄하였다.

지금 왕청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의 특징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현장의 연설이 길고 소학교의 길이가 길고 골짜기가 긴 것으로 유명합지요 하는 기지 있는 말로 대답하곤 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농질을 즐기는 왕청지방 해학가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어낸 말인 것 같다.

1933년 당시의 나에게 만일 그런 명구가 있었다면 모진 곤경을 치르고 난 전우들에게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왕청이 어떤 고장입니까?≫ 하는 대원들의 물음에 그저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대답밖에 해주지 못하였다.


북로군정서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말은 혁명가가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왕청은 간도의 여러 현들 중에서도 일찍부터 반일독립운동이 가장 백열화된 지방의 하나였다. 백전노장 홍범도가 일본군 ≪토벌대≫를 대패시킨 전장도 여기에 있었고 서일,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의 활동기지도 이곳에 있었다. 이동휘는 이 일대에서 독립군 인재 양성에 심혼을 바쳤다.

독립군의 맹활약과 독립운동자들의 출몰은 이 지방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진시켰고 그들을 반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독립운동이 조락단계에 들어서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연해주지방과 소만국경일대로 자취를 감춘 다음부터 왕청지방에서의 민족해방투쟁 영도권은 점차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었고 투쟁의 주류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걸구어온 애국애족의 토양 위에서 새 사조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운동의 동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압도적 다수는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대열 내에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다가 사상개조 과정을 거쳐 점차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런 주의에도 관계하지 않은 말쑥한 새 사람들만 가지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발전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계승과 혁신의 원리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의 사상이고 공산주의운동이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 가운데서 최고단계의 혁명운동이라고 하여 이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서 발생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어쨌든 왕청은 반일투쟁역사가 깊고 군중토대가 좋으며 정치적 지반도 튼튼한 곳이었다. 조국의 육읍지구와의 거리도 가깝고 간도지방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중심지인 연길, 용정 지구와도 이웃하고 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고장에 혁명가들이 많이 집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학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고, 홀레브를 먹으려면 쏘련으로 가고, 혁명을 하려면 간도로 가라는 유행어는 동만을 광복운동의 최전방으로 보고 그 곳을 끝없이 동경하던 당시 조선청년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간도로 가는 것은 화구앞으로 가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기 위하여 그 화구앞으로 주저없이 돌진하였다. 유격구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도 경쾌했던 것은 거기에 기름진 음식이나 푹신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이 있고 인민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디디고 다닐 땅이 있으며 일본천황의 칙령이나 총독제령으로써도 뒤집어버릴 수 없는 우리 식의 참세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삼도만유격구역

우리가 마 노인을 앞세우고 전각루로 향하던 1933년 2월은 동만 각지에서 유격근거지 창설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그 생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뒤였다.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그 사상을 제시하고 방침으로 채택했던 중심과


요영구유격구

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그때 무력항쟁을 하자면 진지를 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진지란 유격근거지를 의미하는 우리 식의 소박한 표현이었다. 우리가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논의된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창설에 관한 문제를 독립적인 의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방도를 다시금 진지하게 모색한 것은 1932년 봄의 소사하회의에서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간도 여러 지방들에 유능한 지도핵심들을 파견하여 농촌혁명화를 다그쳤다. 이것은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었다.

혁명화된 농촌지역은 유격구가 꾸려질 때까지 반일인민유격대가 발을 붙이고 활동할 수 있는 임시 거점으로 되었으며 유격근거지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겨울 명월구회의에서 이상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도,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의 산악지대들인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어랑촌, 대황구, 연통라자를 비롯한 여러 고장들에 유격근거지가 속속 건설되었다.


안길

간도의 산악지대들에 건설된 유격구역들에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견인불발의 노력과 그들이 겪은 피어린 진통이 깃들어 있다.

두만강 연안의 유격근거지들을 꾸리는데서 양성룡, 이광, 장룡산, 최춘국, 주진, 박동근, 박길, 김일환, 차룡덕, 강석환, 안길, 이국진, 이봉수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선혈과 노고는 역사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국내와 해외에서 한다하는 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에 집결하였다. 왕청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백룡, 조동욱, 최성숙, 전문진을 비롯한 북만의 공산주의자들도 소왕청으로 찾아왔다.

소왕청의 새주민들 가운데는 연해주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도 있었고 적구에서 다년간 지하활동을 해오다가 정체가 탄로되어 투쟁무대를 바꾼 사람들도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중심이 간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월경 탈출한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맑스주의 신봉자들도 있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로는 이처럼 혁명에 참가할 각오가 되어 있거나 실천투쟁속에서 직접적으로 단련된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정수분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주민구성도 대왕청하의 청수처럼 깨끗하였다.

그 기개와 담력으로 말하면 전부가 일당백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책원지가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항일근거지들에서 유격대오를 늘리고 당, 공청을 비롯하여 반제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 아동단, 적위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계층별 조직들과 반군사조직들을 내옴으로써 전민항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선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




어랑촌유격구역(위)과 소왕청유격구역(아래)

던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인민에게 주고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정권이 유격구역마다에서 태어나 인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혁명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노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만민평 등의 이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격구에는 개화장을 짚고 거들먹거리는 부자고 없었고 빚과 세금에 짓눌려 세상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격근거지들에는 그 어떤 수난이나 고통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래치는 희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사회악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민들의 낭만이었다. 인민혁명정부가 나누어준 분여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은 간도의 불모지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해낼 수 있었던 세기적인 화폭이며 천지개벽이었다. 끝없는 유혈과 희생을 동반하는 시련에 찬 생활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다.


이국진

적들의 그 어떤 도발이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동방 일각에 거연히 솟아 민족해방의 장엄한 새 역사를 개척해가는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은 조국 인민들의 찬탄과 동경을 자아내는 낙원으로, 지상천국으로 되었다. 조선민족은 그 거주지와 이념에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피로써 쌓아올린 이 성새를 조국해방의 유일한 등대로 바라보며 충심으로 지지성원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구는 사람들이 낭만과 희열과 희망에 넘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며 수천 년을 두고 꿈꾸어온 인민의 숙망을 꽃피워준 이상향이었다.

유격근거지의 존재는 도쿄 대본영의 우두머리들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우환거리로 되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노선의 북부지대와 잇닿아 있는 이 지대를 그들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간도 일대를 ≪반만항일의 심장부이며 북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공산당의 동맥이기도 하다.≫고 한 다까기 다께오의 표현은 적중한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동만의 유격근거지를 가리켜 ≪동양 평화의 암≫이라고 불렀다. 이 말속에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 집단의 공포심리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을 ≪동양 평화의 암≫이라고 본 것은 이 일대의 영역이 특별히 넓거나 이 지방에 관동군을 제압할 만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무력이 진을 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간도에서 던진 작탄이 도쿄의 궁성이나 대본영의 지붕위에 날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간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위험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




처창즈유격구역(위)과 연통라자유격구역(아래)

일감정이 극렬한 조선사람들이고 그 조선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혁명성이 강한 주민들이라는데 있었다.

간도지방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의 9할 이상이 조선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지배층이 이 지대의 유격구역들을 만주통치에서의 최대의 두통거리로 여기게 된 까닭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을 반대하여 국내와 만주 광야에서 십 년 유여의 항쟁을 계속해온 의병시대의 용장들과 독립군 잔류 세력의 대부분도 이곳에 남아 화승대로 일본군경들을 겨누고 있었다.


차룡덕

조중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정과 혈연적 유대의 본보기도 여기에서 창조되어 만주전토와 전 중국적인 판도에로 확대되고 있었다.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은 ≪동양 평화의 암≫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꽃이며 등대였다.

유격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은 항일무장투쟁을 그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토벌≫에 의하여 엄중한 시련에 부딪쳤다. 그러나 적의 초토화작전은 오히려 간도 땅에서 유격근거지의 창설과정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1932년 봄 관동군과 노선군은 이른바 간도처리방책이라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것은 조선군 소속의 임시파견대를 투입하여 간도지방의 혁명운동을 탄압하려는 흉악한 모의였다. 이 모의에 따라 나남사단 소속의 일본군 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경원수비대, 기병, 야포병, 한 개의 비행중대까지 포함한 간도 임시파견대는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동만 4개 현의 모든 촌락들과 시가지들을 과녁으로 삼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궐기한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들에 사정없는 포화를 들씌웠다.

1932년 4월 초의 대감자 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왕청의 산과 들도 피바다에 잠겼다. 대감자는 한때 이광이 이웅걸, 이용범등과 함께 추수투쟁을 지휘하던 곳이고 김철, 양성룡, 김은식, 이응만, 이원섭 등 투사들이 공안국을 습격하여 무장을 탈취하던 부락이다. 대포와 기관총, 비행기로 무장한 나남 19사단의 대병력이 물밀 듯이 쓸어들어오자 이 부락에 주둔하고 있던 왕덕림 휘하의 구국군 부대는 마반산을 넘어 서대파로 황급히 철수하였으며 마을의 보위대도 저항을 포기하고 ≪토벌군≫에 투항하였다.

대감자를 점령한 일본군은 연이어 비행기로 왕청시가를 들부수고 주민가옥들에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왕청시내에서 제일 큰 지주이고 부호인 이항종의 집도 점령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그 다음은 덕원리와 상경리가 불바다로 변하였다.

이 ≪토벌≫이 얼마나 잔학무도하고 광란적인 것이었던지 왕청 사람들은 그 때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1932년 4월 6일
대감자에서 반일전쟁 개막되었다
대포알은 앞뒷산에 들들 울리고
기관총과 유산탄은 빗발같도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

무산대중 학살을 능사로 한다
대두천에 화염은 하늘에 닿고
덕원리의 농촌은 재터뿐이다
무죄양민 주검은 들에 널리고
왕청들엔 인적이 고요하구나
만주땅에 살고 있는 무산대중아
일치단결 일어나 싸워나가자
우리들은 끓는 피로 전쟁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리라


장룡산

소왕청과 대왕청 골안으로는 야수들의 ≪토벌≫에 집을 잃고 혈육을 잃은 피난민들의 분류가 그칠 새 없이 흘러들었다. 일본의 비행기들은 일반 주민들밖에 없는 그 인파를 향해서도 폭탄을 마구 던졌다.

수정같이 맑은 왕청의 강물은 삽시간에 선혈로 물들었다. 어떤 날은 그 강물로 학살된 사람들의 창자가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마노인이 우리를 데려다준 전각루도 간도 임시파견대 살인마들의 행패가 심했던 고장이였다. 이 고장에 달려든 적들은 수십 명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불붙는 집에 걷어 넣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 ≪전각루 침입에 대하여 전체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이 배포되어 돌아간 것만 보아도 이 ≪토벌≫의 규모와 야만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간도혁명의 중요한 발원지들의 하나인 소왕청과 나자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각루는 일찍부터 항일투쟁의 세례를 많이 받아온 고장이였다. 수천 명의 농민들과 뗏목꾼들, 채벌노동자들이 한데 뒤섞여 와글와글하는 이 골안에는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과 함께 계층별로 되는 혁명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 조직들이 군중을 동원하여 춘황투쟁 때에는 마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보위단을 들부수기까지 하였다.

군중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은 보위단원들은 그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토비가 되고 말았다.

투쟁은 승리하였으나 혁명군중은 13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투쟁의 와중에서 전각루는 우수한 혁명가들을 배출하는 온상으로 됐다. 왕청유격대 3중대장이었던 장룡산도 전각루에서 삼차구까지 다니는 뗏목꾼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이광이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활동하던 하마탕은 이 마을로부터 수십 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적들은 공산당원 한 명만 있어도 그 부락 주민들을 전멸시켰다. 공산당원 1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군중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 일본군경들이 제창한 구호였다.

중일전쟁 때 화북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오까무라 야스지가 화북지방의 해방구들을 공격할 때 적용했다는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약탈하는 정책)은 사실상 1920년대의 간도 ≪토벌≫에서 벌써 감행되었고 193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역들을 초토화하는 본격적인 실천 행동으로 그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일제가 제창한 3광정책과 이른바 ≪비민분리≫를 목적했

던 집단부락 정책은 알제리의 항쟁세력을 탄압하는 군사작전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용되었고 월남 땅에서 미군에 의해 더욱 완성되었다.

삼도만, 해란구, 용정, 봉림동을 비롯한 연길현의 이름있는 혁명촌들도 모두 주검으로 덮였다. 훈춘현의 삼한리 일대에서는 1,600여 호의 집들이 불에 타버렸다. 연길 한 개 현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만 해도 무려 1만여명에 달하였으니 간도 임시파견대의 죄행을 무슨 말로 다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일본군은 간도 인민들의 생명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초보적인 생존수단인 화식도구까지 모조리 파괴하였다. 밥도 못해먹게 가마를 깨뜨리는가 하면 노전을 들어내고 구들장을 파헤쳤다. 나중에는 집을 허물고 달구지들을 끌고와 재목들을 대두천 시내로 실어갔다. 사람들은 풀막에서 잠을 자고 가마 대신 자갈돌을 달구어 밥을 지어먹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감자나 대두천과 같은 시가지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토벌군≫의 강압적인 퇴거령은 지주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항일무장부대들이 소비하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적지 않은 몫이 지주나 자산가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니었다. 적들은 이 원천마저 봉쇄함으로써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혁명군은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것이었다.

≪토벌대≫의 검질긴 추격을 피해 혁명군중은 끼니를 번지며 산중에서 헤매었다. 그러나 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막바지까지 가면 더 들어갈 곳이 없었다. 막바지가 나지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수림속에 몸을 숨기곤 하였는데 이런 때에 어린애들이 울음소리라도 내면 몰살을 당하는 판이었다. 어떤 여인은 ≪토벌대≫가 근처에 와서 돌아칠 때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가봐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품에 꼭그러 안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의 총구앞에 놓여있는 수십수백 명에 달하는 혁명군중의 신변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토벌대≫가 돌아간 다음 아기를 보니 그 어린 것은 벌써 숨져있었다.

이런 비극은 간도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에나 다 있었던 비일비재의 일화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어떤 고장에서는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이기도 하였다. 아편을 먹이면 아이들이 잠에 취해서 울지 못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거듭되는 적의 ≪토벌≫에 성화를 먹다못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유격구의 혁명군중과 전우들을 위하여, 목숨보다 더 귀중한 항일의 위업을 위하여 이 나라 여인들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렀다.

부르주아 인도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성애를 두고 비난할 것이다. 자식들의 운명에 그처럼 무심한 여자들이 어디 있고 자식들의 생명앞에서 그토록 무책임한 모성들이 어디 있는가고.

그러나 그 애어린 육체들에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책임을 이 나라 여인들에게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기 자식의 햇솜같은 육체를 가랑잎으로 묻을 때 그리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떼두고 갈 때 유격구여인들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패였는가를 안다면 간도 땅에 살인백정의 무리들을 파견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여인들의 모성애에 참을 수 없는 시련을 강요한 죄악은 전적으로 일본군국주의 살인마들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었다.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자면 반드시 이런 죄악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자지가 저지른 범죄의 자취를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물론 유쾌한 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아무리 쓰고 굴욕적인 것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바자밑에 자기의 살붙이를 떼두고 가든가 어린 자식의 목구멍에 아편 덩이를 밀어넣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을 누이들이 느끼던 그런 고통보다야 훨씬 가볍지 않겠는가.

일본 지배층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무슨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본군에 의해 참살된 수백만 조선사람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모독으로 될 것이다.



양성룡

혁명군중앞에는 왜놈들의 요구대로 도시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그 요구를 거역하고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하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간도 땅에 온 조선 사람들치고 왜군이 도사리고 있는 시가지에 가겠다고 응해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겠는가.

간도 주민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인하여 경제적 지반을 잃고 율도국과 같은 이상형을 꿈꾸며 살길을 찾아 남부여대의 길을 떠난 영세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관헌들과 토착지주들에게 등껍질을 벗기우면서도 노야령, 할바령 산줄기들의 비탈과 골짜기들에서 억척스럽게 돌을 추어내고 나무뿌리를 뽑아냈다. 화전농사는 고되고 가난은 변함없었으나 왜놈의 등쌀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흉악무도한 왜군을 따라 도시로 내려가라고 하니 어느 누가 피땀으로 걸구어온 자기 집 터전에서 선뜻 발길을 떼겠는가.

이것은 대살륙의 참변을 겪은 왕청골 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대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벌군≫의 행악질에 겁을 먹은 일부 주민들은 한 집, 두 집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세상을 열렬히 동경하고 갈망하는 절대다수의 군중은 적들의 공갈을 무릅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어젯날까지 한동네에서 혁명을 위해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서 동고동락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 산과 도시로 흩어져 가게 되었다.

그 때 산중에 남은 사람들은 현성(백초구)로부터 100리나 떨어진 소왕청과 대왕청의 대수림 지대로 깊숙이 이동하였다. 이치백 일가가 중경리에서 마촌으로 옮겨간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공산당 왕청현위를 비롯한 현급 기관들은 소왕청에 본거지를 정하였다. 연길현 세린하와 태평구, 왕우구, 북동 등지로 장소를 바꿔가며 활동하던 동만특위도 1933년 봄에는 소왕청골 안으로 들어와 이수구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소왕청은 간도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수도로 되었다. 우리와 중국당, 우리 혁명과 중국혁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왕청유격근거지는 요영구를 포괄하는 1구와 마촌, 십리평을 포괄하는 2구를 비롯하여 5개의 혁명조직구로 이루어져있었다. 그 당시의 왕청유격대 역량은 3개 중대였는데 그 대표적인 지휘관들은 이광, 양성룡, 김철, 장룡산, 최춘국, 이응만 등이었다.

이것이 내가 왕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체적인 예비지식이었다. 나에게 이런 예비지식을 넣어준 사람은 왕청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양성룡과 현당서기 이용국이었다. 1932년 가을에 내가 부대를 데리고 이 고장에 와서 유격근거지의 실태를

요해할 때 바로 그들이 나의 안내를 담당하였다. 나는 그 때 왕청현 안의 여러 유격구들을 돌아다니며 기층당 조직들의 사업과 반일회, 반일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또한 반일부대들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의 사업정형도 청취하였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동만각 현의 병기공장 성원들과 유격대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작탄강습을 진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당시 왕청간부들은 식량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농호가 수십 호밖에 되지 않던 소왕청의 좁은 골 안에 1000명도 넘는 인파가 단번에 쓸어들었는데 유격구에는 그들을 먹여살릴만한 식량 예비가 전혀 없었다.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이따금씩 식량을 노획해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지 주민들의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다. 유격구의 척박한 뙈기밭들에서 거두어들인 한 해 수확량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일제토벌에 의해 불타버린 자리에 다시 집을 짓는 유격구의 인민들

이렇게 되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타개책으로 중간지대의 추수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중간지대란 적 통치구역과 유격근거지 사이에 놓여 있는 무인촌을 말한다.

소왕청과 대왕청 어귀에도 빈 부락들이 여러 개 생겼다. ≪토벌대≫가 달려들어 살판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유격구와 적구로 갈라지고 중간지대에는 곡식만 남게 되었다. 그런 곡식들 중에는 적구로 내려간 지주들과 반동들의 것도 있고 ≪토벌대≫의 종탁에 밀려 백초구나 대두천 같은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농민의 것도 있었다.

중간지대의 곡식에 대해서는 적구에서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적구의 지주들과 반동들은 무장을 한 자위단의 엄호를 받으면서 마차와 달구지들을 끌고 날마다 중간지대에 나타나 낟알을 걷어냈다. 어떤 날은 그들이 탈곡장 근처에까지 와서 총질을 해댔다.

우리는 그때 이런 실정을 파악한 데 기초하여 모든 유격구들에서 추수대를 조직하여 근거지 인민들의 총동원으로 중간지대의 가을걷이를 지체없이 끝낼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왕청 사람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상론하였다. 추수대는 소왕청어귀에서 곡식을 베면서 대두천 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날 벤 곡식은 그날로 털어서 창고에 넣고 유격구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3호촌 아래부터는 적위대가 보초를 서주어야 추수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5연발로 무장한 자위단의 습격을 면할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추수대가 새하얗게 달라붙어 곡식을 베고 있는 포전을 사이에 두고 적위대와 자위단 사이에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 줌의 낟알을 위해 야밤삼경에도 쉬지 못하고 결사적인 추수전을 벌이는 왕청시민들의 모습은 우리를 무척 감동시켰다.

비록 간고하기는 하지만 근거지에서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소왕청을 떠났다.

나는 유격근거지로 되돌아가면서 자기앞에 두 가지의 큰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는 유격대오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활동 무대를 두만강 연안으로 옮기게 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사업과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자는 것이다.

마 노인은 우리를 전각루까지 안내해주고 나자구로 돌아갔다.

마 노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안내한 성미가 걸걸한 반일회원은 왕청유격대의 소부대들이 그 동안 요영구와 사수평에서 일본침략군 ≪토벌대≫를 답새긴 데 대하

여 옛말처럼 구수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날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왕청 1구의 소재지인 요영구 유격구역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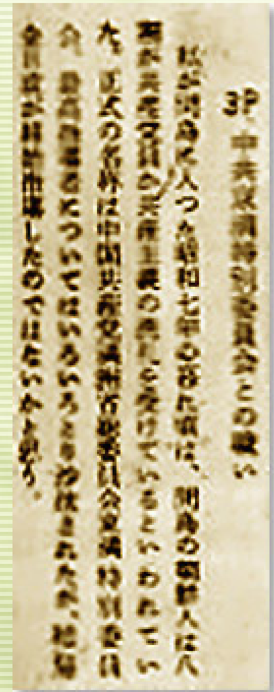
훗날 내 곁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한 최금산의 숙모 홍영화가 스무나문 명 되는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신작로에 뛰어나와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열광적으로 마중해 주었다. 그 여자는 왕청 1구 당위원회 산하에서 부녀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유격대와 반일부대에 대한 후원을 잘하여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날 요영구 인민들은 우리에게 기장떡도 해주고 메밀국수도 눌러주었다. 저녁에는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공연도 해주었다.

≪**김일성**부대에 대한 소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돌았습니다. 남만에 나갔다가 북만에 들어와서 돈화와 액목을 쳤다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김**대장부대를 눈이 까매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오락회를 하고 있을 때 내 곁에서 그 광경을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던 왕청 1구 당위원회 조직부장 이웅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오락장을 떠나 구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격구사업을 장시간 논의하였다. 논의의 초점으로 된 것은 전각루와 같은 고장들에서 우리의 당조직과 혁명조직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과 유격구의 전체 인민을 어떻게 무장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담화가 유격구보위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적구에서 통신원 한 사람이 비밀쪽지를 가지고 요영구로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내일 대흥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수비대놈들이 유격구를 ≪토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유격구역에서 당조직활동과 관련한 조선총독부 관리의 회상

≪지난 해 섣달에 얻어맞은 분풀이를 하려고 올테지요. 저 악귀같은 놈들이 글쎄 수천리 길을 걸어온 귀빈도 몰라봅니다 그려. 우린 사실 **김**대장부대를 여기서 며칠간 푹 쉬다 가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일이 공교롭게 됐습니다≫

이웅걸은 마치 일본군이 요영구를 토벌하러 오게 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송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공교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달 동안 싸움을 하지 못해서 모두들 손이 근질거리던 판인데 마침 잘됐습니다. 대감자와 전각루, 덕원리, 삼한리 참변에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받아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광에게 부대를 데리고 요영구에 속히 와달라는 연락을 보냈다. 이웅걸도 등이 달아서 마라초를 연방 태우다가 오락회장에 있는 적위대장을 불어들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표정을 살펴보니 총동원령이라고 내릴 듯한 기상이었다. 나는 이웅걸의 팔소매를 잡고 웃으면서 그를 걸상에 끌어다 앉혔다. ≪웅걸동무, 적위대원에게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오락회가 절정에 이른 것 같은데 흥이 다 깨질 수 있으니 그냥 놀게 놔두시오. 그 대신 한 시간 후에는 적위대원들을 모두 집에 보내 새벽까지 푹 재웁시다. 나도 오늘밤에는 우리 동무들을 일찍 재우겠습니다.≫

토벌대의 기습계획을 알리는 긴급통보앞에서 우리가 인차 임전태세를 취하지 않고 군민의 오락회가 계속되도록 태연스럽게 방임해둔 것은 사실 군사 실천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상식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당위원회에서 조직부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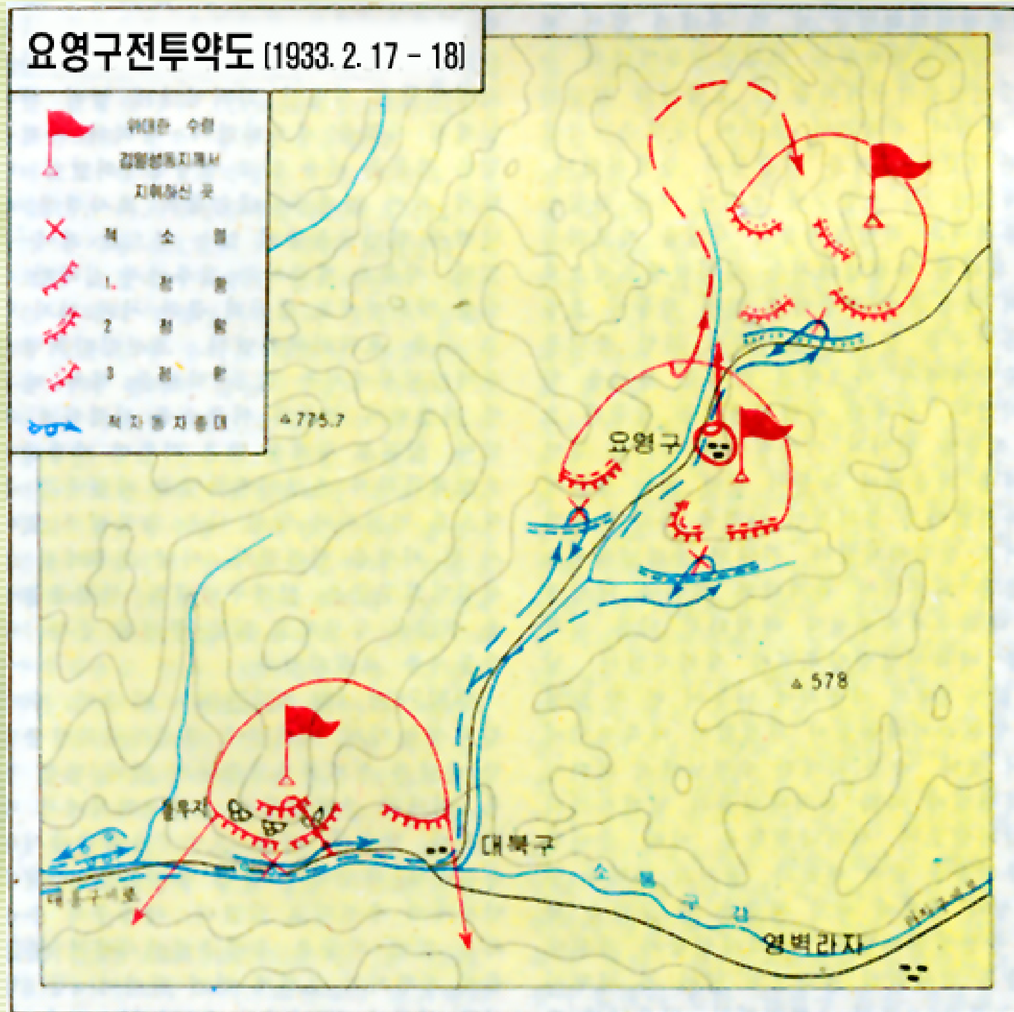
과 함께 군사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웅걸이 초조해하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본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대원들이 오락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들에게 적구에서 온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로에 지친 대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투정황이 일단 제시되고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철심장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밤만은 제발 수면시간을 침해하지 말자. 이 겨울에 그들이 잠인들 제대로 잤는가.≫

이것이 그날 밤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었다. 유격대를 영솔하는 지휘관으로서는 삼가야 할 그런 인정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밤 11시까지는 모든 대원들이 숙소에 돌아가 잠에 곯아떨어졌다.

우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던 전각루의 반일회원과 적구에서 온 연락원은 나의 처사가 미타해서인지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웅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거렸다. 나는 그에게 귓속말로 넌지시 물었다.

≪아까 행군을 해오면서 보니까 요영구어귀의 앞 뒤 고지들이 묘하게 생겼던데 싸움을 거기서 벌이면 어떻겠소? 그 앞으로 자동차길이 나 있지?≫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이웅걸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북구 서산말입니까. 그곳이야말로 싸움을 해볼 만한 금성탕지이지요.≫

나와 이웅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요영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구 서산으로 올라갔다. 적위대장과 전각루에서 온 반일회원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서산평행으로 뻗은 강을 소통구라고 불렀다. 서산고지에는 바윗돌들이 많았다. 그 바윗돌들은 유격대가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천연 방어축성물≫들이였다.

우리는 벼랑과 벼랑 사이에 여러 개의 돌무지를 쌓아놓은 다음 요영구 적위대 병력과 우리 부대 대원 전원, 별동대의 일부 성원들을 모두 서산으로 불러올렸다. 그리고는 언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게 하고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곳을 선조들은 금성탕지라고 하였다. 방비가 철통같이 튼튼히 성지라는 뜻이다. 공격자에겐 불리한 곳이지만 방어자에겐 얼마나 유리한 명당인가. 그러나 금성탕지도 좋지만 나는 동무들의 솜씨를 더 믿는다. 동무들, 참변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몇 백 배로 받아내자. 피는 피로써!


婦女, 兒童團代表도參加

延吉○○○○結成

間島各地에緊張活動

유격근거지 창설에 관한 당시 신문자료

나의 전투명령은 이런 선동열설로 끝났다.

그날 4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요영구 골안으로 쳐들어오던 80여 명의 일본군은 우리의 매복전술에 걸려들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홍구의 일본수비대는 다음날도 있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요영구로 쳐들어왔으나 무리죽음을 내고 도주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간도지방의 유격구역에 와서 우리가 치른 첫 전투였다.

역사책에는 아마 요영구유격구방위전투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날 저녁 요영구사람들은 대북구마을에서 전투승리를 기념하는 경축행사를 조직하였다. 이 행사가 지금도 내 인상에 남아 있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며 축하연설을 하였는데 그 열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도 물론 그날 밤 격조높은 연설을 하였다. 내가 요영구에서 오진우를 만난 것이 아마 그 해 겨울이던지 그 전해 가을일 것이다. 그 때 소북구 마을 인민들은 오진우가 아동단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동단 학교에서 우리에 대한 환영회를 열었다. 오진우는 그 환영회 때 내가 38식보총을 짚고 연설하던 광경이 제일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나와 처음으로 상봉하던 때를 종종 감회깊이 회상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인가 16살쯤 되었던 것 같다. 그 때 그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 싸창을 자꾸 만져보았다. 총이 몹시 탐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는 모두가 38식보총이 아니면 성능이 높은 최신식 권총들이었다. 나는 오진우에게 유격대에 들고 싶은가고 물었다. 그는 들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다음해였던지 그 다음해인지 그를 왕청 4중대에 받아들이고 북만원정에도 참가시켰다. 우리가 요영구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유격구의 당사업과 군중단체들의 사업까지 요해하고 나서 소왕청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에서 중요한 군사문제를 두고 상론한 일이 있으니 마촌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별이 왔다.

우리는 인차 요영구를 떠났다. 우리가 소왕청에 도착하였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왕윤성과 그밖의 다른 두 사람이었다. 왕윤성을 일명 마영이라고도 하였는데 사람들은 본명보다도 그를 ≪왕다노대≫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다. ≪왕다노대≫란 머리가 유별나게 크다는 뜻이다. 나는 ≪따거우재≫를 비롯한 유격구 간부들의 안내로 마촌 북쪽 산기슭에 있는 이치백 노인네 집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동만

당 대표들을 만났다. ≪따거우재≫란 이용국의 별명인데 키꺽다리라는 뜻이다. 그 당시 그는 왕청현당에서 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촌에 ≪유동객장소≫라고 부르는 독신자들의 합숙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많고 번잡하여 머무를 곳이 못된다고 하면서 소왕청사람들은 나를 한사코 이치백노인네 집에 있게 하였다. 이치백은 김중권의 장인되는 분이었다. 그 노인의 부인을 서성녀라고 하였다. 이치백노인네 가정은 온 일가가 혁명을 하는 애국적인 가정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다부산자를 입고 왕윤성 일행과 담화를 하였다.

≪왕청입성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왕다노대≫의 첫 인사말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틀어잡고 반갑게 답례하였다. 왕청과 같이 서름서름한 고장에 와서 왕윤성과 같은 구면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왕다노대≫를 맨 처음으로 만난 것은 남만진출을 끝내고 안도에 돌아와 반일부대와의 사업에 부심하고 있던 때였다. 그 때 왕윤성은 진한장과 함께 맹탄장부대에서 구국군 공작을 하고 있었다. 북만 일대에 있던 맹탄장부대가 안도지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목적은 요녕 일대의 당취오자위군과 연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합작을 성사시키자는데 있었다. 구국군 부대에서 오의성과의 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북만 항일군의 연합을 통하여 만주 전역에서 반일투쟁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오의성이 안도에 맹탄장 부대를 보낸 다른 하나의 목적은 아편을 입수하여 군자금을 충당하자는데도 있었다. 안도 일대는 아편과 인삼의 주요한 산출지였다. 당취오도 부하들을 파견하여 안도의 아편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돈을 대신하는 위력한 등가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근거지에서 출판된 정치학습자료

≪구국군이 돈화와 액목에서 **김일성**동지네 부대와 함께 성시를 칠 수 있은 것은 아편 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에서 아편을 대량 구입하여 나누어 준 것이 대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계기로 되었거든요.≫

이광의 집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할 때 왕윤성을 농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벌써 이런 비밀을 서슴없이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되었었다. 왕윤성은 안도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호진민이나 주보중한테 보내는 연락도 그가 하였고 주보중이나 호진민이 나에게 보내는 연락도 그가 맡아주었다. 왕윤성은 구국군 부대에서 선전간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연대부나 대대부, 중대부 같은 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나와 구국군에 파견된 공산당원들 사이에서 전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사범학교 계통 출신의 인텔리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왕윤성도 허우대는 크지만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였다. 그는 영안에서 사범학교를 다닐 때 베이징, 남경, 천진과 같은 대도시들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동창생들의 영향을 받아 혁명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가 직업적인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성위의 영향도 컸다고 한다.

≪동만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김일성**동지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당사업, 유격대사업, 구국군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만혁명이 유능한 전략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김일성**동지가 왕청에 온 것

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는 동만과 북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변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만당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문제들을 두고 나와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날의 논의에서 절박한 문제로 상정된 것은 각 유격구역들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중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군사역량을 질량적으로 시급히 확대강화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 동장영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왕청의 유격대 중대들은 대대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 후 동만의 다른 현들에서도 중대들을 총괄하는 대대들을 내오고 지휘관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개편과정을 거쳐 유격운동의 본격적인 활성기를 준비하였다. 우리의 왕청입성은 이처럼 인상적인 세부들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인차 왕청풍토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활동무대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항시적으로 느끼곤 하던 서먹서먹한 감정은 인차 새 고장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으로 바뀌어졌다. 1933년 당시의 나는 사실상 혈혈단신이나 다름없는 몸이었다. 어머니의 상실은 우리 삼 형제를 고아로 만들었고 그 삼 형제의 보금자리였던 소사하 갈밭 부락의 정든 집에 거미줄을 내리게 하였다. 나에게 남은 것이란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는 두 동생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고향집의 지붕밑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라에 바치고 쓸쓸히 살아가고 계시는 조부모님들 뿐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무시로 떠오르는 그 고향에 대한 애잡짤한 향수뿐이었다. 조부모님들에게 바치고 싶은 나의 효도는 고향집 토방에까지 가닿을 수 없었고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나의 욕망은 속절없는 걱정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제 내가 정을 기울일 곳이란 유격구밖에 없었다. 유격구의 인민은 나의 조부모, 나의 부모, 나의 동생들을 대신하게 될 혈육이었다. 나는 서성녀 어머니의 모습에서 곧 우리 어머니의 인덕과 사랑과 은정을 되찾았다.

적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거듭되는 토벌속에서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처음부터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고뇌도 많았던 잊지 못할 역사의 땅 왕청, 어떤 날은 한 유격구에서 희생자가 수십 명씩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가옥들과 병실들이 수십 채씩이나 불에 타버리기도 했다. 병원들은 부상자들과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어데서나 겪게 되는 식량의 결핍,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기근은 숱한 아사자를 냈다. 때로는 전염병 때문에 간도전역이 무리죽음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상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장사군도 없는 세계유일의 비상업지대, 여기서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가치법칙이 은을 내기 못하였다. 주민들의 옷과 신발은 군대의 전리품으로 충당하였다. 좌경의 전횡으로 유격구의 공기는 이따금씩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근거지의 생활에서 주되는 것이 아니었다. 유격구의 생활에서 주도적 흐름을 이룬 것은 비록 제한 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는 하지만 적의 폭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과 낙천적인 정신상태였다. 곤란은 막심하였으나 군민의 기상은 백두의 멧부리처럼 도도하였다. 일본과 만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절해고도와 같은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와 도덕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유격근거지를 사랑하였다.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영웅적 미거는 동만 땅에서 매일처럼 발현되었다.

싸움속에서 해가 뜨고 싸움속에서 날이 저무는 북간도 오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속에서도 새 생활, 새 윤리의 고고지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유격근거지는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되었다.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왕재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는 마촌에 와서도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요영구의 승전소식이 간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가던 때여서 우리에 대한 소왕청인민들의 환영열도 대단히 높았다.

적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유격구의 생활은 우리 일행을 몹시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신천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아니였다. 간도혁명을 움직이는 일부 지도자들의 일본새와 사고방식 가운데는 우리의 불만을 자아내는 점도 없지 않았다.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한 것은 동만지방 혁명가들의 활동에서 열병처럼 만연되고 있던 좌경바람이였다.

좌경병은 유격근거지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명월구, 소사하 회의들에서 유격근거지 창설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이미 그 형태를 완전유격구, 반유격구, 활동거점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형태 설정에서 균형을 잘 보장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동만지방의 일부 열성 공산주의자들은 행방지구 형태의 완전유격구를 건설하는데만 몰두하고 반유격구나 활동거점을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낯을 적게 돌리고 있었다. 초기에는 왕청에서도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만 건설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역만 보더라도 오늘의 우리 나라 한 개 군 면적과 맞먹는 땅덩어리가 모두 혁명세력이 관할하는 해방지구 형태의 소비에트구역으로 되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완전유격구를 소비에트구역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넓은 땅에다 공농정권을 상징하는 소비에트깃발을 띄워놓고 간부들은 ≪혁명!, 혁명!≫하면서 무사분주하게 돌아갔다. 유격구역 밖에 나가서 싸움은 별로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독재니, 무산자사회건설이니 하는 허공 중에 뜬 구호만 연방 외치면서 얼렁얼렁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념일이 오면 병실 마당이나 운동장

같은 데 모여 러시아식 댄스도 하고 메이데이가도 불렀다. 어떤 날은 동만특위와 현간부들이 한 데 모여서 목청을 돋구어가며 논쟁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사실 우리도 그 해 봄을 덩덩해서 보냈다. 그러나 점차 유격구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던 일련의 좌익소아병적인 편향도 포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와 전술도 모색하게 되었다.

유격구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창기에는 왕청근거지에만도 수천 명의 피난민과 망명자들이 와 있었다. 훈춘, 연길, 화룡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부침땅이 적은 산골 안에 수천 명이 모여들어 와글와글하니 먹을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전부가 콩죽을 먹었다, 망에 콩을 갈아서는 쌀을 좀 넣고 죽을 쑤어 먹곤 하였는데 그것도 있을 때는 더러 타발도 하였지만 없을 때는 양잿물에 끓인 송피를 두드려서 송기떡을 만들어 끼니를 에우든가 고사리, 닥지싹, 도라지, 더덕, 둥굴레뿌리 같은 것을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하고서는 혁명가를 부르고 주먹을 흔들면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친일파를 타도하고 놀고먹는 기생충의 무리들을 타도하라고 연설하는 것이 초시기의 근거지 생활이었다.

물론 소소한 전투도 여러 번 하였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후방물자를 실은 마차수송대도 들이치고 유격구역에 침습해오는 ≪토벌대≫를 제끼고 무기를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인민들은 깃발을 들고 만세도 불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는 많이 하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초를 서든가 피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

땅덩이는 컸으나 총도 적고 무장인원도 적다나니 유격대원들은 총을 몇 자루씩 나눠가지고 근거지를 보위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늘리려고 하면 무슨 서기요, 위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소리로 혁명군은 통일전선군대가 아니니 노동자, 농민의 정수분자들만 흡수하여야지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이게 되면 오합지졸의 무리가 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막아나섰다. 그 당시는 항일유격대가 소비에트구역 안에 있는 무장력이라는 데로부터 그 명칭도 공농유격대라고 하였다. 공농유격대란 노동자, 농민의 군대라는 뜻이다.

몇 개 중대밖에 안 되는 유격대역량으로 몇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방어밀도가 설피니 일단 ≪토벌≫만 시작되면 적이 우리의 방어진을 뚫고 종심 깊이에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 수천 명 인민이 봇짐을 이고 지고 피난을 가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이런 피난소동이 매일과 같이 유격구사람들을 들볶았다.

좌경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해방지구 영토의 크기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표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아의 역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도 없이 주관적인 욕망만을 앞세우면서 터를 넓게 잡고 유격구역을 고수하는데만 전념하였다. 그들은 지어 유격구역과 적 통치구역을 ≪적색구역≫, ≪백색구역≫이라는 간판밑에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반동군중≫, ≪양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적구인민들과 중간지대인민들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배척하였다. 국내인민들도 역시 ≪반동군중≫의 대접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

≪적색구역≫에서는 여성들이 단발머리를 함으로써 ≪백색구역≫과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말도 글도 노래도 학교교육도 출판물도 적백이 서로 달랐다. ≪백색구역≫에서 ≪적색구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단속을 했고 취조를 한 다음에도 집으로 잘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백색구역≫에서 오는 사람은 덮어놓고 적의 간첩으로 치부하라는 상급의 지령이 아동단 조직에까지 떨어졌다. 왕청현당의 일부 사람들은 소왕청골 안에 있다가 도시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늘 악의를 품고 있었다.

한번은 동일촌에서 망원보초를 서던 적위대원들이 소를 사려고 유격구에 온 대두천의 농민을 붙잡아다가 심문한 일이 있었다. ≪백색구역≫에서 수상한 농민 한 명이 나타나 적위대의 심문을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현당의 좌경분자는 그 농민이 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바른 대로 대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정체를 실토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주리를 틀어도 농민은 스파이가 아니라고만 대답하였다. 그 농민은 사실 스파이도 아니었고 주구도 아니었다. 그러나 좌경분자들은 농민이 가지고 온 현금을 압수하고 불문곡직으로 악행을 가하였다.


최봉송

왕청에서 다녀간 공청사업을 해본 최봉송은 언제인가 좌경으로 인하여 빚어진 유격구 시절의 비사들을 회고하는 좌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좌경이라는 말만 들으면 초기 유격구시절이 자주 앞에서 서물서물합니다. 간도에서의 좌경이 정말 지독했습니다. 한번은 유격대원들이 왕청령에서 일본군의 소금달구지를 노획해가지고 소왕청으로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거지가 생긴 초창기이니 아마 수령님께서 남만진출을 하실 때 일 것입니다. 달구지꾼은 삯일을 하여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최하층의 조선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좌경분자들은 ≪양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를 죄인처럼 다스렸습니다. 일본놈의 소달구지를 끌었으니 역적이라는 거지요. 유격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격구를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적아를 구별하지 않고 기본군중까지도 서슴없이 처형하는 이와 같은 무지한 망동은 다른 현의 유격구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받을 행위들이 모두 혁명이란 신성한 간판밑에서 거리낌없이 감행되어 항일을 하겠다고 따라나섰던 수많은 혁명군중을 ≪백색구역≫으로 밀어던지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낸다는데 있었다.

유격구의 좌경분자들은 지어 온성땅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의 제사를 지내려고 상경리에 온 이치백노인의 친척까지도 ≪반동군중≫이라고 하면서 붙잡아가는 추태를 부렸다.

이런 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는 온몸과 넋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느꼈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가 반동이라는 감투를 씌워 무고한 백성을 마음내키는 대로 처형한다면 그는 벌써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특급범죄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왕청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만 하여도 이런 특급범죄자들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특급혁명가≫로 행세하면서 군중을 아무렇게나 망탕 다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소비에트만 가지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근거지도 고수하고 혁명도 발전시키자면 폐쇄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유격구사수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인 활동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큰 정예부대를 꾸려가지고 자유자재로 기동하면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군대가 본격적인 군사작전에로 이행하자면 근거지 방위에서 안고 있는 부담을 줄여야 했는데 이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완전유격구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 반유격구들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이러한 반유격구들이 유격구를 옹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유격구를 창설하는데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나는 중국관내에서의 유격구건설경험을 참고할 목적으로 동장영과도 여러 번 진

지한 담화를 하였다.

1931년 가을 중국 강서성 서금에서는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소비에트구역을 창설하였다. 동장영의 말에 의하면 중국혁명의 수뇌부가 집결되어 있는 소비에트중앙구는 그 면적이 대단히 넓고 주민도 수백 만을 헤아리며 무력도 몇 개 군을 이룰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었다. 동장영 자신도 하남성에서 소비에트 구역을 창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홍군은 10여만 명에 달하였고 그 관할지역은 강서성 남부로부터 광동성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지휘부 귀틀집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영토와 인구상으로 볼 때 어지간한 한 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중국의 소비에트구역 건설 경험을 두만강 연안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는 것과 간도를 활동기지로 삼고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책원지를 튼튼히 사수하고 유격전쟁을 판이 크게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완전유격구 주변과 북부조선 일대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반유격구창설의 필요성은 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광대한 영역을 사수하자니 힘이 달렸고 힘이 달리는 그 타개책을 빨리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만일 유격전을 해보지 않고 고전이나 뒤적거리며 러시아 볼세비키들이 어떻게 했소, 중국 서금의 경험이 어떻소 하는 식으로 탁상공론만 하였더라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유격근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그 창설을 그토록 절감하고 빨리 다그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반유격구문제는 근거지에 대한 단순한 형태상의 고찰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에서 주체적 대를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사상적 입장 문제였으며 좌경에서 벗어나 지난날 ≪양면파군중≫이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광범위한 인민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군중관점 문제였고 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혁명역량편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반유격구란 우리도 통치하고 적들도 통치하는 지역, 형식상으로는 적의 통치지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관할지역으로서 항일유격대에 대한 지원조건도 지어주고 그 후비원천을 비롯한 혁명역량도 키워내며 적구와 유격구 사이에서 중간연락소의 역할도 담당하는 그런 곳을 말한다. 좀더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낮에는 적들이 통치하지만 밤에는 우리가 관할하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혁명근거지 건설에서 반유격구 형태는 우리의 투쟁실정에 맞는 것이었다. 이런 형태는 다른 나라들의 유격전쟁 경험에도 별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혁명의 발전노정은 반유격구 창설을 정상한 과제로 내세웠다.

우리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급속히 앙양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33년 3월 중순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 일대에 진출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는 것은 항일대전을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전략적 목표였고 우리의 가슴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불변의 신념이었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육읍 일대를 비롯한 북부조선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는 것이었다. 반유격구를 잘 꾸려놓으면 유격구 건성에서 나타나고 있은 이러저러한 좌경적 편향도 능히 청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셋째섬에 활동기지를 두고 있는 왕청대대 2중대 성원 40명과 각 중대들

에서 선발된 10명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로 국내진출 대오를 편성하고 박태화소대장과 그 밖의 몇몇 대원들로 구성된 선발대를 온성지구에 파견하였다.

그 당시 동만당조직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 있던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국내로 나가는데 대하여 몹시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각방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들은 중국 연내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조선연장주의≫ 경향이라고 비난하였으며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국내진출도 애당초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민족적 임무에 충실한 것이 곧 국제주의적 임무에도 충실한 것으로 되면 조선의 혁명가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자기나름의 배짱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였으며 변함없이 국내진출을 준비하였다.


왕재산밀영

이런 때에 항일유격대의 국내진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건져주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국내와의 연계를 위하여 온성지방에 나갔던 2중대의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자마자 김성도라는 사람에게 체포되어 동만특위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그 당시 2중대장은 안기호였고 정치지도원은 최춘국이었다. 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허둥지둥 마촌에 뛰어와 내앞에서 중대지휘관들도 모르게 유격대원을 함부로 붙잡아간 김성도의 월권행위를 두고 의분을 터뜨렸다.

성미가 첫날 색시처럼 얌전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남의 흉이라고는 좀처럼 보지 않는 최춘국이 ≪외눈깔왕가≫라는 별명까지 입에 올리며 김성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함구무언으로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였다. 김성도에 대한 파악이 별로 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그가 공청 동만특위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만당특위로 갓 소환되어온 사람으로서 각현으로 순시를 다니는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동만당 조직에는 상급조직의 간부들이 하부조직을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는 것을 순시라고 하였다.

나는 최춘국이 김성도를 이름 대신 상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춘국동무, 동무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고약한 버릇을 배웠소? 김성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탈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무한테는 그래 그의 인격을 존중해줄 만한 아량도 없단 말이요?≫

최춘국은 비판앞에서 허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담고 송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언행이 조금이라도 불손했거나 무례했다면 용서해주십시오.≫

≪유격구도 인간들이 모여사는 곳이니 별명이 없을 수 없겠지. 그런데 그 별명은 너무도 야비하구만. 외눈깔이라고 하다니 ≫

나는 김성도가 2중대의 대원을 체포해간 것보다 당장은 왕청 사람들이 그를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어째서 김가를 왕가라고 하는가고 물으니 최춘국은 조선사람인 김성도가 중국사람 냄새를 너무 내고 간부들앞에서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꼬와서 간도 사람들이 그에게 ≪왕가≫라는 성을 붙여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동만특위로 가던 길에 현당에 잠깐 들였더니 거기서도 김성도를 이름 대신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현당 사무실에서 이용국이 나에게 들려준 말에 의하면 김성도는 1927년에 벌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만주총국의 어느 세포위원을 하다가 일본영사관 경

찰에 체포되어 매도 맞고 감옥밥도 먹어본 노당원이라고 하였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는 재빨리 중국당에 전당하여 특위급 간부로 승진되었는데 곯아빠진 한쪽 눈의 허물을 감추느라고 그러는지 늘 색안경을 끼고 다부산자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었다.

이용국은 김성도를 ≪날아가는 까마귀발에 버선이라도 신길 수 있는 수완가이고 변설가≫라고 평가하였다.

나는 동만특위 사무실에서 3시간쯤 김성도와 담화를 하였다.

정작 마주앉고 보니 그의 월권 행위를 문책하려던 결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측은한 감정부터 앞섰다. 곯아버린 눈과 몹시 지치듯해 보이는 컴컴한 얼굴표정으로부터 환기된 동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불우한 신체적 조건을 무릅쓰고 간도의 험산준령을 넘나드며 혁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얼마나 장하고 눈물겨운 일인가.

≪순시원동무, 동무는 우리와 토론도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공작 중에 있는 유격대원을 함부로 체포해갔소?≫

나는 음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예절있게 물었다.

김성도는 안경너머로 나를 유심히 보았다. 언감 특위순시원도 몰라보고 당돌하게 문책을 들이대느냐고 사뭇 못마땅해 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게 참 이상하구만. 그 대원의 월경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모순되는 민족주의의 표현이라는 것 모를 리 없겠는데 우린 그를 ≪민생단≫으로 보고 있소.≫

≪무슨 근거로?≫

≪조선에 갔다왔으니 민족주의인 것이고 민족주의의 오류를 범했은즉 그거야 ≪민생단≫이 아니고 뭐겠소.≫

≪그게 동무의 생각이오?≫

≪그렇소. 나의 상급도 그렇게 보고 있소.≫

나는 김성도가 이런 대답을 하였을 때 그가 괘씸하다는 생각보다도 가련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무런 과학적 타당성이나 진리성도 없는 망발에 분노를 표시하고 쇠망치와 같이 드센 논리로 그 망발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할 그런 정황에서 분노와 경멸 대신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 있는 허황한 편견과 유치한 사고방식이 동만특위 순시원이라는 요란한 직급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를 더욱더 가련한 존재로 보이게 하였던 것 같다.

(육체적 불구에 정신적으로 불구까지 겹쳤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 색안경으로 밀정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애꾸눈을 가리우고 혁명을 위해 투신하는 그 기개야 물론 찬양받을 만한 것이지. 그 기개에 건전한 넋까지 담겨져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 저 사람의 정신은 저렇게도 참혹하게 병들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보다 음성을 더 낮추어 조용조용 그를 타일렀다.

≪동무는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양자를 감히 한 천평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소. 박석윤이나 조병상, 전성호와 같은 몇몇 민족주의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민생단≫을 조직했다고 해서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는 것이야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삼단논법이 아니겠소. 내가 알기로는 동무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단체에 들었다가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동무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우면 납득이 가겠소? 어떻소?≫

김성도는 ≪그거야 어떻게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나는 그가 반성해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었다가 조리 있게 설복을 계속하였다.

≪동무가 상부라고 한 것은 동장영서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나는 그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만일 동장영서기가 그런 실정을 잘 몰라서 일시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조선의 물정을 잘 아는 동무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가 옳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

김성도는 그 말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였다.

체포당했던 2중대의 대원을 데리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나는 김성도가 가련하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숙반공작을 진두지휘하기 전까지 이론투쟁 때문에 여러 번 충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조국진군의
첫 발자욱을 남긴
타막골

그러나 김성도가 ≪민생단≫숙청의 간판밑에 견실한 혁명가들을 무수히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더는 동정하지 않았다. 훗날 그 자신도 결국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처형되었다. 테러는 테러한테 망하고 좌경은 좌경의 심판대에서 죽는다는 것. 신념과 줏대가 없이 간에 붙었다 섶에 붙었다 하는 사람에게 차례지는 운명은 자멸이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치는 동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인생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초순에 마촌을 떠나 온성군 타막골 대안에 도착한 국내진출 대오는 솔골이라는 곳에 숙영지를 정하고 온성 땅에 침투한 선발대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가량 이 일대를 혁명화하여 반유격구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낮에는 송동산 서쪽 기슭에 가서 전투훈련을 하였고 밤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속에 지하조직을 꾸리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만주국의 말단 행정책임자들인 십가장, 백가장들과의 사업도 하였다. 우리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혁명군대의 복무조례에 맞게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때 솔골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어떤 대원들은 산에서 싸리나무를 해다가 주인집 울타리까지 고쳐주었다.

박영순의 회상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끼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이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에 생긴 일이였다.

어느 날 나는 중국사람인 주인집 노인 부처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도끼와 물초롱을 들고 두만강가로 나갔다. 이 지방 주민들은 겨울에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도끼나 곡괭이 같은 것으로 얼음을 깨고 구멍을 낸 다음 초롱에 물을 퍼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곧 음료수가 되었다.

나도 그런 얼음구멍을 내려고 도끼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얼음을 다 까내려갔을 때 그만 자루가 빠지면서 그 구멍속에 도끼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긴 장대기를 가지고 몇 시간동안 강바닥을 훑어보았으나 도끼는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나는 주인집 노인에게 도끼값을 후히 치러주고 재삼 사과하였다. 노인은 대장어른께서 새벽마다 자기네를 도와 물을 길어 주신 것만도 고맙고 황송한 일인데 이 늙은 것이 힘이 없어서 혁명군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도끼값까지야 어떻게 받겠는가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지만 나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고장을 떠나가버리면 내가 대장으로서 혁명군의 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노인에게 값을 넉넉히 치뤄주었지만 내 머리에서는 얼음 구멍에 빠진 그 도끼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갚아주어도 손때 묻은 연장을 잃어버린 주인들의 아쉬움이야 어떻게 가셔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59년 봄에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떠나갈 때 그들에게 양수천자의 그 노인을 만나면 나를 대신하여 사과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답사단이 양수천자에 찾아갔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그 노인은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일행이 선발대의 안내를 받으며 왕재산마루에 오른 것은 오후 4-5시경이였다.

그때 육읍지구에서 온 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산능선과 이깔나무 수림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나는 애어린 참나무들이 빼곡이 서 있는 그 산마루에서 한참 동안 주변의 풍경을 부감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이 고장의 일각은 3년도 되기 전에 옛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두루봉에서 국내당조직을 무을 때 볼 수 없었던 탕관의 버럭더미도 새로 생긴 풍경이였고 웅기(선봉)-온성선을 타고 달리는 열차 역시 1930년 가을이나 1931년 봄에는 볼 수 없었던 온성의 새 모습이었다.

산천과 함께 사람들도 성장하고 혁명도 전진하였다. 우리가 이 고장을 다녀간 후 육읍일대와 그 주변에서는 새로운 반일혁명조직들이 연속적으로 태어나 활동을 개시하였다.

육읍지구의 투사들은 치안통치를 담당한 일본군부와 경찰수뇌들이 국경경비의 만전을 자랑하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혁명조직이라는 거대한 강철그물로 적의 통치기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우리의 무장투쟁도 성장하였다. 유격대 무력은 동만지방만 보더라도 대대급으로 발전하였다. 각 현에 있는 대대들은 오래지 않아 연대로도 되고 사단으로도 될 것이다. 유격전쟁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력은 남만에도 있고 북만에도 있다. 우리의 사단들과 군단들이 조국 땅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철추를 내릴 그날은 머지 않았다. 벌써 우리가 그 선견대로 이렇게 온성땅에 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창덕학교시절에 외할아버지한테서 배운 남이장군의 한시를 입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았다.

백두산석 마도진 (白頭山石 磨刀盡) **두만강수 음마무** (豆滿江水 飮馬無)
남아이십 미평국 (男兒二十 未平國) **후세수칭 대장부** (後世誰稱 大丈夫)

이 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된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외할아버지는 그때 나에게 남이장군이 북관의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20대에 벌써 병조판서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주도 크거들랑 왜놈치는 대장이나 선봉장이 되라고 말씀해주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이 장군이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데 대하여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크면 남이 장군처럼 외적을 치는 선봉에 서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싸우리라고 결심하였다.

(남이 장군이 육진에 의거하여 북적을 막았다면 우리는 육읍의 반유격구에 의거하여 무장투쟁 국내로 깊이에로 확대하고 일제가 멸망할 함정을 파놓으리라!)

나는 왕재산마루에서도 이런 맹세를 다졌다.

왕재산에 모인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은 나에게 국내형편과 그 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하였다.

나는 육읍을 비롯한 북부국경지대에서 항일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고무해주고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앞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이 반유격구 창설과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는 그때 온성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의 여러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고 동시에 무성한 청림지대들에 비밀연락장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거점들을 마련함으로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쌓으려고 하였다.



왕재산회의장소를 찾으시어

왕재산 회의에서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과업과 대중운동과 당창건 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국내 혁명조직들의 과업도 토의되었다.

유격대의 온성 진출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서막으로 되었으며 민족해방투쟁 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 진출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임무이며 절대적인 권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념과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온성진출과 왕재산회의의 전 과정은 완전유격구 주변과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할데 대한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과 간도와 육읍일대에 반유격구를 건설할 수 있는 주객관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왕재산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경원(새별)의 유다섬과 박석골, 종성군 신흥촌 금산봉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곳에 진출하여 회의도 하고 강습도 하고 정치공작도 하였다. 이 진출의 주요목적은 국내 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지하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배워주려는데 있었다.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혁명가들을 자주 만난 것은 그들을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사업방법으로 무장시켜 복잡한 실천투쟁을 용의주도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자는데 있었다. 국내 혁명조직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은 반유격구를 성과적으로 꾸리기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그 당시 우리가 파견한 지도핵심들은 국내 깊이에 침투하여 반일항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노조, 농조들에 뿌리를 뻗쳤으며 도처에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부조선 일대에도 줄을 늘렸다.

육읍지구의 반유격구들을 튼튼히 꾸리고 국내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두만강 연안에 꾸려진 당조직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동만의 지도간부들은 반유격구건설에 관한 우리의 제안을 방침으로 채택하고 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명시하였다. 반유격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대하여 우경이라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비

평은 즉석에서 신랄한 반격에 부딪쳤다.

동만의 소비에트구역들에서는 1933년 봄부터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나자구, 다홍왜, 전각루, 양수천자 등 왕청지구와 연길, 훈춘, 안도, 화룡 지구의 넓은 지역에 반 유격구가 꾸려졌다. 이 시기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항일무장투쟁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완전유격구들 가운데서 방어하기에 불리한 일부 지역들도 반유격구로 전환하였다,

만주국이 내세운 툰장들 가운데는 우리를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자구 같은 곳은 시내에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다 우리 세상이고 우리 편 사람들이었다.

반유격구 건설 경험과 그 노선의 정당성은 그 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유감없이 증명되었다.

반유격구라는 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1930년 후반기 압록강 연안에 나와서 백두산 일대를 개척할 때에도 우리는 혁명군이 주둔하는 곳들에만 밀영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유격구로 만들어놓았다. 적백을 가리지 않고 군중들속에 혁명조직을 박고 거기에 일군들을 파견하였다. 우리는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지 않고 적들이 이 지구를 주목하면 저 지구로 옮겨 앉고 저 지구를 주목하면 또 다른 지구로 옮겨가곤 하였다. 그 사품에 정동철, 이훈, 이주익(이취)과 같은 애국구장, 애국백가장, 애국십가장, 애국면장, 애국순사, 애국자위단원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그때 적의 하부말단 통치기관들에 똑똑한 사람들을 공작원으로 많이 박아넣었다. 우리가 파견하지 않은 적잖은 하부말단 관리들까지도 혁명을 지지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낮에는 만주국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열성을 부리는 척 하였지만 해가 떨어지면 혁명군의 길 안내도 하고 낮에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혁명군 공작원들도 만나고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 수집도 하였다. 동만과 국내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해방지구의 군대와 인민들을 보호하며 거기에 수립될 인민의 정권과 민주주의적 시책의 열매들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위성들로 되었다.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가 진행된 곳

완전유격구 주변의 넓은 지역이 반유격구로 전환된 다음부터 항일유격대는 적구 깊이 침투하여 군중을 혁명화하고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들과 각종 대중조직들을 확대해나감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소극적인 방어전으로부터 적극적인 공격전에로 이행할 수 있었다. 항일전쟁을 주동적인 공격작전에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전을 타파하고 유격구생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식량 문제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반유격구의 건설은 적백구역의 설정으로써 많은 군중을 적의 편으로 밀어던지던 좌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왕청지방의 반유격구들 둥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나자구와 양수천자였다.

나자구를 반유격구로 건설하는데서는 이광의 공로가 컸다. 이광은 나자구에 파견되어 반일부대 공작도 하고 독립군출신들과의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여 놓았다.


유다섬전경

나자구는 1920년대 초부터 이동휘일파가 독립운동의 주요기지로 개척한 고장이였다. 그때 이동휘를 따라다니며 독립군운동에 관계했던 영감들이 나자구지방을 쥐락펴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광은 그들을 통하여 이 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할 수 있었다.

나자구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려고 그때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이 이 지방에 많이 파견되어 갔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대오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나자구를 혁명화하는데서 큰 공헌을 한 최정화도 거기서 희생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지대장이었던 박길송과 최광은 그 당시 나자구에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적들이 이 고장에서 협화회나 협조회와 같은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조직하여 혁명세력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일회와 같은 큰 그릇의 대중조직들을 만들어 모든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웠다. 나자구는 왕청의 혁명군중을 먹여 살리는 식량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에서는 식량사정이 곤란할 때마다 나자구 혁명조직에 사람을 파견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 나자구에서 혁명조직 성원들이 십리평 돌문 안까지 쌀을 등짐으로 지고 와서 왕청사람들에게 인계해주었다. 적들이 나자구를 점령한 조건에서도 해방지구들에서는 계속 그 고장의 쌀을 가져다 먹었다. 유격대가 해산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북만원정을 떠난 1953년 하반기부터 왕청현 내의 혁명가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나자구의 식량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의 ≪토벌≫을 피하여 한동안 나자구 서산에 가 있던 일부 혁명군중과 왕청 3중대 군인들도 이 지방 인민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을 소비하면서 1953년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나자구가 이처럼 왕청혁명가들의 식량공급소와도 같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은 것은 거기가 원래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기장밥을 해먹인다는 비옥한 곡창지대라는데도 있었지만 그 지방 혁명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막히고 그 조직들이 일상적으로 대중교양을 잘하였기 때문이다.

나자구의 백호장 김용운은 만주국이 신임하는 말단행정 심부름꾼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조직원이었다. 그는 백호장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혁명가들에 대한 방조를 많이 주었다.

적들은 유격대 공작원들의 성시침투를 막고 인민들이 혁명군과 내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반출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한편 청년들을 도시경비에 상시적으로 동원시켜 출입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게 되었다. 경비에 동원되는 청년들에게는 곤봉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그 곤봉은 만주국이 발급한 일종의 신임장과 같은 것이었다.

혁명군이 나자구에 식량공작을 가는 날은 김용운이 일부러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청년들만 엄선하여 경비에 내보냈다. 식량공작을 담당한 사람들이 성시 주변에 나타나면 경비에 동원된 청년들은 그들에게 곤봉을 넘겨주고 마을에 달려가 백호장의 지휘밑에 쌀을 모아가지고 돌아와 식량공작원들에게 넘겨주곤 하였다.

나자구에서는 혁명조직 성원들이 위만군들을 구슬려서 수만 발의 탄알까지 뽑아냈다. 그 당시 나자구시내에는 혁명조직에서 운영하는 개인 상점이 있었다. 그 상점 주인은 오랜 공청일군이었는데 성시에서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를 자유롭게 뽑아내 가기 위하여 위만군 병사들과 결의형제까지 무었다.

돈에 환장한 어떤 만주국군인은 다른 지방에 가서 물건을 염가로 사다가 값을 몇배로 올려가지고 그 상점에 찾아와 자기 대신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군인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질하는 것이 알려지면 처벌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부득불 상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군인은 상점주인과 결의형제를 무은 다음 그에게 탄알까지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탄알 한 발에 25전씩 사서 혁명군에게 넘겨주었

는데 그 수량은 무려 5000여 발에 달하였다.

이것은 반유격구 건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는 왕청 남부지역에 창설된 양수천자반유격구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수천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해방지구에서 쓸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그때 쌀, 피복, 성냥, 약품, 화약, 소금 등 유격구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의 많은 몫을 온성과 양수천자의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유격구에서 제일 귀한 것은 소금이었다. 죽을 다섯 숟가락쯤 먹고는 인단알말한 소금을 한 알씩 깨물고 억지로 간을 맞추는 형편이였다. 적들은 그때 유격구에 사는 생명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식량과 소금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가을이면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쌀을 자리네가 관리하는 집단부락의 창고에 고스란히 가져다 넣게 하고 식구 수에 따라 하루동안 먹을 만한 식량만 내주었다. 농민들에게 식량의 예비가 생기면 그 식량이 곧 항일유격대나 유격근거지 인민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적들은 소금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집사대라는 소금경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가옥들에 대한 수색을 무시로 하였다. 된장, 간장이 조금만 많아도 세금을 부과시키고 ≪볼기채≫라고 부르는 세모난 나무몽둥이로 무섭게 후려갈겼다. 우리는 1934년 가을에 근거지의 소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중대 성원 30여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군민들과 아동들로 구성된 공작대를 양수천자에 파견하고 거기에 말들까지 따라보냈다. 왕청에서 양수천자까지는 왕복 200리 길이었다. 사전에 우리의 통지를 받은 양수천자의 혁명조직에서는 온성 지하혁명조직과 남양운송부를 통해 넘겨받은 많은 양의 소금을 두만강변에 쌓아놓고 공작대를 맞이하였다. 공작대는 말 한 필에 소금가마니를 두세 짝씩 얹어가지고 셋째섬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머지 소금을 한 사람당 20-30킬로그램씩 등짐으로 져서 유격근거지까지 날라왔다. 일부 소금은 나자구에 가서 밀가루와 바꾸어왔다.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지하혁명 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때 주변나무에 쓴 구호

양수천자 조직이 우리에게 보내준 후방물자는 대부분 온성을 비롯한 육읍지구에서 넘어온 것이었다. 그곳 인민들은 우리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많은 몫을 도문과 용정 일대에서 해결하여 보내곤 하였다. 적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국내에서는 일용필수품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 국내 조직들은 도문이나 용정같은 상업지구들에 슬슬 건너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두었다가 제정된 통로를 통하여 항일근거지들에 보내주었다.

도문과 용정은 사실상 우리의 후방을 담당한 믿음직한 근거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문이나 용정이나 백초구와 같이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조밀하게 박혀있는 고장들은 함부로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 동무들이 백초구를 한 번 들이친 일이 있었는데 그 습격전투가 있은 직후 이광의 아버지가 연통해오기를 민족적 양심이 있는 부자들을 통일전선에 끌어들여야 하겠는데 그들이 몹시 놀랐기 때문에 후과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백초구와 같은 고장을 치지 않았다. 왕청과 그밖의 해방지구 군민들을 먹여 살리는데서 육읍 일대의 반유격구는 실로 역사책에 대서특필해야 할 공적을 쌓아올렸다. 우리는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 외에도 적통치구역에서 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과 연락을 보장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거점들을 무수히 꾸려놓았다. 지하혁명조직들과 연락소들로 이루어진 이 활동거점들은 기동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띠는 유격근거지의 한 형태로서 용정, 훈춘, 도문, 노두구, 백초구를 비롯한 적 통치지역의 큰 도시들과 철도 연선지대들에 많이 꾸려졌다. 간도와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

을 회상할 때마다 내 추억속에 가장 뚜렷이 떠오른 인물은 오중화이다.

서대문 형무소를 출옥하기 바쁘게 북행열차에 몸을 실은 그는 도문에 건너오자 회막동 근처에 있는 처갓집에서 며칠간 정양을 하고는 인차 석현으로 돌아와 나를 찾아왔다. 오중화가 감옥살이를 끝내고 왕청으로 돌아온 것은 남북만 원정을 마치고 유격구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는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고 위안으로 되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바쁘게 큼직한 과업을 하나 맡겨 달라고 하였다. 병색이 짙은 얼굴을 보아서는 몇 달 정양을 더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일거리를 달라고 자꾸 간청하는 바람에 가야허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하였다.


유격구의 나날처럼 오태희노인의 집을 찾으시어

오중화가 속해 있는 제5구는 양수천자, 도문, 연길, 백초구, 대두천 등 적의 주요 토벌 거점들과 잇닿아 있었고 가야허에는 일본영사관 경찰분서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1933년 정월초 류재구가 적의 습격을 받았고 그 후에는 사수평이 두 차례나 토벌을 당하였다. 오중화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 나왔으나 적의 꼬리가 계속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업을 받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중화에게 가야허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한 것은 그 지역들이 적의 군사요충지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또 적의 공격목표로 지목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과업이었으나 나는 오중화를 믿었다.

1930년 가을의 첫 상봉 때 그는 벌써 나에게 지울 수 없는 믿음을 남겼다. 그때 나는 오중화의 집에서 그와 진지한 담화를 하였다. 담화를 끝내고 밖에 나오니 울타리 밖에 억대우 같은 청년들이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서 있었다. 동구 밖에도 그런 청년들이 여러 명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오중화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풍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수완은 군중을 끄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중화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이발기를 하나 갖추어놓고 가위계라는 조직부터 먼저 내온 다음 거기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다 망라시켰다. 그 당시 일반 이발소의 이발요금은 15전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5전씩 받았다. 그 돈으로 책을 사서는 계에 망라된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었다. 사람들은 눅은 값으로 이발을 하고 책을 보는 멋에 계에 열심히 모여들었다. 오중화는 그런 틈을 타서 계원들을 교양하였다. 가위계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을 초보적으로 계몽시킨 다음 이전날의 동창회, 학우회, 친목회 등 계몽단체들을 통합하여 영동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 친목회는 돈화와 할바령, 동쪽 지구인 연길, 훈춘, 화룡, 왕청 일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 조직이었다.

오중화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연극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면 한 개 분대도 넘는 4촌들이 달라붙어 배역도 나누고 장치도 만들고 저희들끼리 연출도 하여 미끈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군중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놓고는 자기 가문 사람들로부터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마을사람들을 다 조직성원으로 흡수하였다. 겨울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는 강상준, 조창덕, 유세룡 등과 함께 항일유격대 결성준비 작업의 중요고리의 하나인 무기획득 공작에 참가하였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취해낸 무기들은 최인준, 한흥권, 강상준, 김은식 등의 투사들이 망라되어 있는 별동대원들을 무장시키

는데 큰 밑천으로 되었다. 오중화는 우리의 의도에 맞게 적의 1차 공격목표로 지목되어 있는 5구의 일부 지역을 반유격구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는 적 통치구역에 활동거점을 꾸리는 과업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도문의 천일인쇄소는 그가 꾸려놓은 중요한 활동거점으로서 혁명군의 귀와 눈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적들은 오중화와 그의 가문을 눈에 든 가시처럼 보고 그 일족을 멸살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다. 1933년 봄에 유격대의 한 소조는 용정영사관에서 석현경찰서에 보내는 비밀문건을 압수하였다. 그것은 오씨일가를 전멸시키라는 살인지령서였다. 우리는 그 정보를 받은 즉시 유격대를 출동시켜 구제공작을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31명이나 되는 오씨네 식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십리평으로 소개시켰다.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투지를 가지고 단거리 육상선수와도 같이 숨가쁜 속도로 일생을 줄달음쳐 살아오던 오중화는 1933년 여름 북봉오돈의 비밀아지트에서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체포현장에서 무참히 그를 살해하였다. 오중화가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마쳤고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목격한 증견자는 없다. 그와 그의 동료들을 처형한 살인마들만이 그것을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고 학살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오중화

오태희노인이 주먹을 부르쥐고 십리평에서 북봉오동으로 뛰어갔을 때 오중화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비밀아지트 주변에 눈을 뜬 채 쓰러져있었다. 생명의 불꽃이 아직 채 꺼지지 않은 그 눈동자에는 그가 살아서 그렇게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자주 쳐다보던 유격구의 푸른 하늘이 비껴있었다.

그러나 입만은 생시보다 더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오태희노인은 그 입매만 보고서도 아들이 조직의 비밀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장해서 노인은 더 슬프게 울었다. 세상에 태어나 34해밖에 살지 못한 아들이였지만 그 아들은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오래 산다고 더 큰 낙을 누린다는 법이야 없지. 그렇지만 아들아. 너는 너무도 일찌이 이 애비의 곁을 하직하였구나. 너를 그렇게도 아끼는 **김일성**장군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그때 노인은 아들이 시체를 부둥켜안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오중화가 학살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평소에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도 많은 걸음을 걷고 그렇게도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불같이 살아오던 사람이 이다지도 조용히 가버릴 수 있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오중화의 곁에는 그를 바래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대지 위에 쓰러졌다. 그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 반유격구건설도 끝났으니 또 새로운 과업을 맡고 싶었노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오중화가 살아 있었더라면 나는 그에게 더 큰 중책을 맡겼을 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의 윤리에서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이 최대의 사랑이고 최고의 믿음이다. 우리 혁명은 간도 일각에서 만사람의 총애를 받던 또 한 명의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인민에게는 긍지를 주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성실하고 강직한 동량지재를 잃었다. 그것은 동만 땅에서 노도치며 전진해가는 우리 혁명의 앙양을 위해 정녕 가슴 아픈 손실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그 장렬한 죽음으로써 군중을 각성시키고 궐기시켰다. 그는 희생되었지만 그가 피로 적시고 간 반유격구들에서는 항일대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왕재산 기념비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왕재산혁명사적지 - 원호 편



왕재산 혁명사적지 - 타말골 도강장소



타말골 혁명사적비 - 불멸의 자욱이여 길이 빛나라



왕재산혁명사적지 - 송가상1



왕재산혁명사적지 - 송가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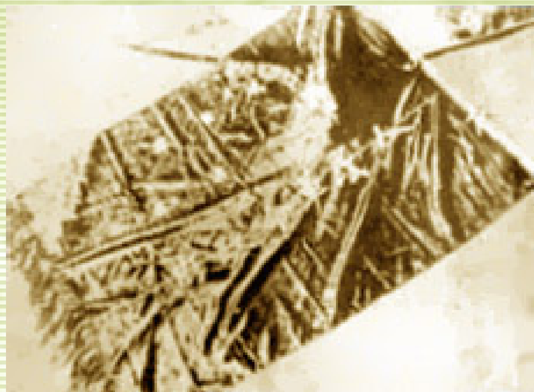


왕재산혁명사적지 - 피바다상



왕재산혁명사적지 - 전투 편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깃발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건설 분야였다.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 편향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소부르주아적 조급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건설노선과 소비에트의 명의로 실시된 일부 시책들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었다.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ㅌ·ㄷ≫시절부터 우리의 논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정권 문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 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 것이고 또 국권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이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정권 문제가 우리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거리로 되었던 것은 길림시절이였다. 길림의 정치무대에서 독립 후의 국가 형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때란 거의 없었다. 3부 계통의 독립군 지도자들이 왕조정치나 부르주아공화제를 주장하며 기염을 토할 때 김찬, 안광천, 신일용과 같은 구공산당 계열의 정객들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르짖었다.

박소심도 고전의 명제에 집착되어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운운하였다. 그는 노농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지지하면서도 독재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머리를 내저었다.

길림청년들은 그 준비정도와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왕조정치를 지지하기도 하고 부르조아공화제에 미련을 가지는가 하면 쏘련식 사회주의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혁, 차광수, 계영춘, 신영근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군영감들이 왕조복귀를 운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열을 내였다. 즉시적인 사회주의 실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실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토론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던 청년학생들의 연단에서 정권 문제를 크게 상정시키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한 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

조정치나 부르주아의회제 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 말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31년 12월의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정권 문제가 논의될 때 우리가 표명한 주장도 본질상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혁명에서는 정권건설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정에 올랐다.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자면 그 영역 내의 인민들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을 건설해야 하였다.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구에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도 없었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수도 없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가을부터 유격구역들에서 정권수립을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 들어섰다. 그 해 10월 혁명기념일을 계기로 왕청현 가야허에서는 군중대회를 열고 소비에트정부수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 왕우구와 삼도만에서도 소비에트가 수립되었다. 유격구역에 혁명정권이 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시켜주는 의의 있는 사변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에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당시는 ≪소비에트열풍≫이 온 동만 땅을 휩쓸던 때였다. 소비에트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유행되고 전파되었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시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금의 중화소비에트와 월남의 느구엔-딘 소비에트의 수립은 그 좋은 예증이 된다.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본 사람들도 노농소비에트정권을 논하였다.

국제당 본부에 가 있던 조선의 최성우 등이 국제당 집행위원회에서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군들(꾸우씨넨, 마지야르, 오까노)과 함께 작성하였던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은 조선의 완전독립과 함께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국가 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소비에트노선을 지지하고 그를 혁명실천에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의문의 여지조차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으며 혁명적, 공산주의적 입장과 기회주의적 입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 되고 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들과 공산주의 조직들에서도 소비에트정권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실로 소비에트는 전세계 무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소비에트가 그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은 것은 그것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절대화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권형태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꿈꾸어온 염원이고 이상이었다.

러시아에 수립된 청소한 소비에트정권은 전복당한 착취계급의 반란을 분쇄하고 제국주의 연합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실로 이 세상 그 어떤 정권도 이루어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소비에트사회주의의 이러한 개선행진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숭상을 환상의 경지에까지 떠밀어가게 하였다.

인류가 쏘련을 등대로 바라보고 소비에트를 모든 정권 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무리가 아니였다. 쏘련과의 접경지대였고 또 신생 쏘련의 영향을 이모저모로 많이 받고 있던 강조지방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남북만원정을 마리고 왕청에 돌아온 나는 소비에트의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유격구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무심히 스치고 지나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두서없는 뒷소리들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곧 간파하게 되였다.

나는 유격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민들이 소비에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요해하기 시작했다. 수십수백 명의 인민들과의 부단한 접촉, 그들과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담화는 나로 하여금 소비에트정권이 빚어놓은 좌경적 시책의 후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유격구사람들이 소비에트를 시답잖게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 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낫, 호미, 걸이대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때부터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재산의 공유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다음 유격구 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소비에트 급진론자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던 ≪아르쩰리≫생활이라는 것이였다.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한 셈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또한 큰 지주, 작은 지주, 친일지주, 반일지주를 가리지 않고 유격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주들과 부농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마소와 양식까지도 일률적으로 수탈하였다.

동만땅이 소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분리된 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구역에 남은 지주들은 대체로 반일감정이 강한 애국적인 지주들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왕청골 안에서 무장대오를 꾸릴 때 그들은 유격대에 대한 후원도 잘하였다.

그런 지주들 가운데 장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적인 중국인 지주도 있었다. 1932년 봄의 대≪토벌≫ 때 간도임시파견대는 그의 집 쌀창고까지 불태워버렸다. ≪토벌대≫가 총대를 휘두르며 강제철거령을 내렸지만 장시명은 그때 대두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 일본사람들에 대한 장지주의 원한은 그 봄부터 더 깊어졌다. 그는 지주였지만 유격구 사람들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었다.

≪유격구 어른들, 나는 왜놈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골 안에 그냥 남은 사람이웨다. 저 악귀 같은 놈들을 대두천시내에서만이라도 좀 몰아내주시우다!≫

유격대원들이 모연공작을 가면 장시명은 이런 부탁을 하였다.

유격구 인민들은 그 지주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소비에트정권은 이 지주마저 적구로 쫓아버렸다. 장시명이 유격구역에서 내려가지 않게 사정을 봐 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소비에트는 그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소비에트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었다. 당신이 반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사업을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착취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고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지주에게 내린 소비에트의 선고였다.

혁명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던 장시명의 재산은 즉석에서 수탈되어 소비에트정부가 관할하는 창고로 모조리 들어갔다. 알몸이 된 장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두천으로 내려갔다.


소왕청일대전경

그 당시 숙청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주들의 장궤속에 있는 아이들이 꽃신까지도 다 털어갔다. 중국사람들한테는 집에 여자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간 다음 날을 어린애에게 신길 신발까지 미리 다 만들어두는 재미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신발을 꽃신이라고 하였다. 돌전 애기 것부터 시작하여 한 살, 두 살 올라가면서 문수가 다른 꽃신들을 연방 만들어 장궤속에 간수해두곤 하였는데 그런 신발 가운데는 골무만치 작은 것도 있었다.

이런 신들까지도 다 수탈해 갔으니 그것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이 유격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하였겠는가.

소왕청골 안에는 유산자들한테서 몰수한 마소가 우글우글하였다. 어지간한 목장을 꾸리고도 남을만한 양이어서 근거지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말을 타고 다녔다. 소비에트 치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멋이라면 멋이었다.

좌경분자들은 중국 여자들이 전족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까지 투쟁대상으로 삼았다.

1930년대 전반기는 동만지방에서 좌경의 전성기였고 좌경의 전횡속에서 신성한 혁명적 원칙들이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어떻게 되어 좌경바람이 이처럼 동만땅을 휩쓸 수 있었던가. 간도의 유격구역에 모여 있던 혁명가들이 모두 망종이었거나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유격구를 다스리던 절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숭고한 혁명적 이상과 따뜻한 의리를 지닌 훌륭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의로운 것을 열렬히 지향했다. 그런데 그처럼 인정에 무르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좌경노선의 제창자, 집행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던가?

우리는 그 원인을 노선에서 찾았고 그 노선을 작성한 사람들의 사상적 미숙성에서 찾았다.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서 고전의 일반적 원칙과 선행자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현실성이 없는 지령들을 마구 만들어 내려보내다나니 실천상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 닥치는 대로 청산하고 타도하고 매장하는 것이 가장 철저

한 계급성으로 인정되고 가장 선봉적인 혁명가의 표징으로 평가될 때였다.

좌경이 얼마나 신성시되었으면 왕청농민들이 한때 과부가 길쌈을 해서 벌어 얼마간 변돈을 놓은 것까지 고리대라는 딱지를 붙여 그 채용증을 소각해버리고 본전마저 떼먹었겠는가. 지도자들의 배후조종이 없이는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강짜를 부리지 못한다.

나는 언제인가 왕청에서 이응만 중대장이 무장대로에 가입한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초기에 무장단에서는 자기 대오에 노동자 출신들과 빈고농 출신들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응만이네 집에는 1만 평가량 되는 척박한 산전이 있었다. 이 1만 평 때문에 그는 빈고농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무장대오에 받아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동무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번 퇴박을 놓았다. 1만 평이면 중농이라는 것이다.

이응만은 고심 끝에 부모들 모르게 밭을 팔아 장만한 돈으로 브로닝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무장대오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때에야 동무들은 그를 무장대오에 받아주었다. 이응만은 유격대원이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땅 1만평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은 생존의 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다.

좌경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에야 일생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 간도시절의 체험은 해방 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으로 되었다.

번지르르한 혁명적 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탱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 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겼다. 많은 가정들이 소비에트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2중대 정치지도원 최춘국이 있는 셋째섬으로 가다가 유격구를 버리고 솔가도주하는 한 장년의 가족을 만났다. 대낮에 떠나가다가 붙잡히면 반혁명의 딱지를 쓸 수 있으니 밤시간을 택한 것이다. 식구는 다섯이나 되었는데 짐짝들을 얼마 없고 알몸에 가까운 차림새였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셋이 올망졸망 달려 있었다.

50에 가까운 그 장년은 총멘 군인들을 알아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격대 지휘관한테 발각되었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댁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세 아이를 한 아이, 한 아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격구를 떠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였습니까? 적구에 가면 여기보다 숨이 더 막힐텐데.≫

≪우리가 왜놈들의 등쌀에 못이겨 유격구에 들어왔는데 그 몹쓸 놈들한테야 어찌 다시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을 찾아가서 화전이라도 일구

어 연명을 해갈가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편할 게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마촌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고 내일의 생계조차 기약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과연 마음편한 생활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토도 되지 않고 풀도 돋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끼니를 댈 차비새가 돼 있습니까?≫

≪있기는 뭣이 있겠습니까. 가서 기력이 진할 때까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그저 그런 거지요. 이제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막 귀찮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문득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그러자 내 품에 안겼던 세 아이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삼키면서 어둠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다 떠나고 나면 구경은 누구를 믿고 혁명을 한단 말인가?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처량한 막바지에 다달았을까? 소비에트의 무모한 시책이 빚어낸 후과는 이처럼 파국적인 것이었다.


최인준

≪이제 얼마간 있으면 세월도 바로잡히게 될 터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국이 평정될 날을 기다려봅시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노상에서 만나 그 가족을 집에 데려다주게 하고 2중대 병실에 가서 자려던 예정계획을 변경시켜 서대파에 있는 최자익노인을 찾아갔다. 이왕 가슴아픈 일을 당한 바에는 유격구의 민심이 어떤지 더 속속들이 캐고 들려는 것이었다. 최자익은 왕청별동대의 대원으로 유격대 생활을 시작한 후 중대장을 거쳐 독립여단 연대장으로까지 승진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한 최인준의 아버지인데 내가 셋째섬에 올 때마다 꼭꼭 잊지 않고 만나곤 하는 노인이다.

이 노인이 서일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서 서기까지 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식견이 높은 데다가 성미가 활달하고 솔직하여 만나기만 하면 참고가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노인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의 인사에 최자익은 ≪사니까 사는구나 하지요.≫하는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퉁명스러운 어조가 유격구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노인님, 유격구생활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최자익은 그런 질문을 받자 언성을 높여 벌컥 화를 내었다.

≪소비에트정부에서 역축과 농쟁기를 거둬갈 때까지만 해도 난 참았댔네. 아라사에서도 농업집단화라는 걸 할 때 그런 놀음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는다고 짐작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공동식당을 경영한다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거둬가는 걸 보고서는 침을 뱉았네. ≪그래 우리 늙은이들이 공동식사 때문에 하루 세번씩 자기 집 온돌방을 두고 한지로 왔다갔다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살겠다. 꼼무나인지 아르젤리인지 그런 귀신단지 같은 세상을 만들겠거든 젊은 것들끼리나 해라. 우리는 숨이 차서 더 따라 못 가겠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이번에는 봉건숙청이요 뭐요 하고 노인들을 군중대회장에 내다놓고 며느리들한테 비

판을 시키지 않겠나. 우리 나라 역사가 자그만치 5천 년이라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인준인 그래두 나보고 소비에트를 비방하면 안된다구 야단질이 아니오. 그래서 내 그 녀석의 사등뼈를 꺾어 놓으려구 했네.≫

유격대 지휘관의 아버지가 소비에트의 시책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면 다른 주민들의 동향은 더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 유격구에서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던 공포시기와 유격구의 해산을 앞두고 군대와 인민이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던 그 쓸쓸한 나날에 이 노인을 만났을 때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시국을 통탄하던 그의 하소연을 자주 회상하였다.

소비에트정부가 수립된 후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조중인민의 관계는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산된 지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 지주들이었던 것만큼 5.30폭동 때와 같은 갈등이 재연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일부대들은 이전 날처럼 또다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일본군대와 만주국군대는 물론 구국군도 적이 되고 중국지주도 적이 되었다.

항일유격대는 소규모의 비밀유격대처럼 남의 집 뒷골방에 숨어 있던 창건 초기의 처지와 꼭같은 처지에 빠져 조선사람들이 사는 부락에 조심스레 배겨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동대라는 간판을 부활시킬 수도 없었다. 구국군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꼬리빵즈≫라고 답새겼다. 유격대의 활동이란 반지하투쟁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1933년 5월에 썼던 논문을 정리하여 발표한 소책자

우리가 1년 남짓하게 투쟁해서 쌓아올린 모든 공적들이 억울하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시책을 놓고 우리 동무들 가운데서도 분해작용이 시작되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러시아에 가서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배워가지고 와서 새 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간도사람들 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이고 뭐고 다 망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같지도 않은 혁명을 할 바엔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효도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동무 한 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쏘련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다른 중국동무 한 명은 쏘련에 보내주었다.

이런 사태하에서도 유격구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책전환을 단행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동만특위가 지도기관으로 존재하였지만 국제당의 시정방침에 수정을 가할 만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우경의 모자를 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일어나 혼란한 시국을 평정하고 유격구를 붕괴의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자면 소비에트좌경노선에 맞설 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테제가 필요하였다. 내가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논문을 소책자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나는 정권건설 문제를 가지고 마촌에서 동장영과 논쟁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런데 이용국현당서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였다. ≪소비에트 건설사업 대강에 관한 동만특위의 결의≫가 이미 하달되었고 또 사수평에 소비에트정부도 수립된 것만큼 아무리 논쟁을 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었고 논쟁이 잘못 번지면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용국은 김백룡이 소비에트를 잘못 건드렸다가 우경분자로 몰리던 사건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김백룡은 북만에서 한때 현위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간도지방에서 소비에트조직을 앞두고 선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해서인지 동만특위를 거쳐 소비에트정부수립의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왕청 5구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5구에서 소비에트정부를 내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동만에서 소비에트를 내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경기회주의자의 감투를 쓰고 투쟁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나중에는 북만땅으로 쫓겨가게까지 되었다.

이용국이 나에게 김백룡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34년 겨울에 아는 영안현 팔도하자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김백룡은 거기서 구당서기로 공작하고 있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김백룡은 소비에트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가 우경투항주의자의 감투를 쓰던 1932년 가을을 쓸쓸하게 회상하였다. 이미 동만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노선이 시정되고 인민혁명정부들이 유격구의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랜 때여서 그는 좌경망동적인 소비에트노선의 제창자들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평하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똑똑하고 대가 바른 동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김백룡은 ≪그 이유란 간단한 겁니다. 가야허에 가 있을 때 농민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소비에트가 무엇인지 그 말뜻조차 모르지 않겠습니까. 인민이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무모한 짓 같아서 시기상조라고 했지요.≫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인민들이 소비에트란 무엇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은 그 당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구 소비에트 선거에 참가했던 가야허의 노인들은 소비에트를 속새포와 혼돈하고 있었다.

≪소비에트가 나온다 하기에 왜놈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속새포가 나오는가부다 하고 책상만 쳐다보았더니 웬걸 속새포는 안 나오고 붉은기가 나옵디다 그려.≫

그 노인들의 말이었다.

왕청 2구 소비에트창립행사에 참가한 마촌사람들 가운데는 소비에트를 쇠버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소비에트가 어떻게 생긴 겐지 잘 보고 오게. 큰 겐지 작은 겐지.≫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란 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물캐러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소비에트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 것은 무식이 빚어낸 응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해설제강이라는 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 투성이로서 ≪소비에트란 무엇인가?≫, ≪콜호즈란 무엇인가?≫, ≪코뮌이란 무엇인가?≫하는 따위의 것들이였는데 소비에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좌경의 독소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도처에 세워놓고 노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 된 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나는 왕청동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장영을 정권형태 문제에 대한 논쟁에로 끌어들였다.

≪간도 일각에서 혁명정권이 태어나 온 세상에 자기 존재를 선포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영동지, 나는 이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영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다니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명월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데 대한 노선을 내세우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몇 년동안 국내와 만주지방에서 피어린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습니다. 그 군중들속에는 애국적인 종교인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하급관리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시책은 그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혁명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던 그들이 오늘은 혁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조중인민들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동장영은 웃으면서 내 팔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정권이 인민들이 바라던 것을 죄다 해결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혁명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절대다수의 군중은 소비에트정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겁낼 게 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만 있으면 어떤 혁명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소수의 손실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밀어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총적인 전략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대중은 모두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습니다. 5.30폭동을 계기로 저락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체면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조성된 불화도 천신만고하여 제거해 놓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또 조성되였습니다.≫

≪**김일성**동지. 너무 비관적으로 문제를 고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만사를 낙관적으로 대하는데 버릇된 사람입니다. 혁명은 물론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영 동지, 동만에 조성된 좌경적 시책의 후과에 대해서는 심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만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시책을 낳고 있는 정권형태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동장영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모으고 못마땅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동지, 소비에트정부의 시책에는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형태는 불가침입니다.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앙의 노선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였다.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의 고집하면서 소비에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 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날의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것은 소비에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 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이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소비에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소비에트의 일부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동지는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달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소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소비에트를 대신할 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소비에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였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노동계급의 정권형태는 코뮌과 소비에트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 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고전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입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었다.

≪동장영동지, 프랑스노동계급이 코뮌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소비에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의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비에트는 역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 쌈지를 꺼내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녔는데 노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 때문에 유격구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동장영을 만난 후 나는 이용국, 김명균, 조창덕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소비에트를 대신하는 혁명정권을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형태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그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인민을 위한 투사들이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충복들인 것만큼 우리가 수립하게 될 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동무들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각계각층 인민이라는 범주속에는 노동자와 빈고농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이 포괄되겠는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는 통일전선적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전선적 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권으로 될 것이다. 그런 정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고 하면서 환성을 울렸다.

나는 통일전선적 정부를 세우되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역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노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정권건설노선이다. 가결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만지방에 적합한 정권형태로 인민혁명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알맞고 인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정권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에서 찾고 인민의 이익을 얼마나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데서 찾았다.

이처럼 정권형태를 인민혁명정부로 결정한 다음 우리는 어느 한 단위에서 먼저 시범을 창조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다른 혁명조직들에도 일반화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시범 단위로는 5구가 결정되었다.

나는 왕청 5구에 내려가서 이용국, 김명균 등과 함께 인민혁명정부 제5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사수평으로부터 10리쯤 떨어진 하모다니촌에서 진행되었다. 그날은 모쁘르기념일이었다. 모쁘르란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약칭이다. 1923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는 희생된 혁명투사 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모쁘르기념의 날로 정하였다. 5구소비에트정부 회장인 조창덕은 소비에트정부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는 그 집에서 20명가량되는 가야허지방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소비에트정부 대신 새 정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러 분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수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소비에트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과 이 정부는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 것이라는데 대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주시고 인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 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노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가야허의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는 인민혁명정부의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에 앞서 소비에트정부가 몰수했던 개인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모조리 되돌려주었다. 몰수 후 파손되었거나 소비해버린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양성룡은 목재소를 치는 전투까지 조직하였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소와 말로 농민들은 그 해 봄 분여받은 땅에서 밭갈이를 하였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수평마을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현당 서기 이용국의 모습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춤판에 뛰어들어 축제의 기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춤판에서 슬그머니 떨어져나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서기동무, 모두가 춤을 추는데 이게 웬일이오?≫

이용국은 두 볼에 흘러내린 눈물자국을 씻을 염도 없이 한숨을 무섭게 내쉬었다.

≪저 사람들이 어째서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지 모르겠소. 왕청 사람들이 좌경 때문에 고통을 받은게 다 나 대문이 아니겠소. 그런데 이 고장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란 말이오.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이야 **김**대장이 아니오.≫

≪우리 인민은 인정이 무른 대범한 인민이오. 그들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서기동무에게 감사를 드린 것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이제는 우리 다같이 내일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껏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소. 동무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었소. 인민을 위해 살자! 평범한 이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소. 나는 평생 이 구호를 잊지 않겠소.≫

이용국은 내 손을 그러잡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이 맹세를 생활에서 만족스레 구현할 수 없었다. 동만특위가 그를 현당 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특위에서는 이용국이 원래부터 엠엘파라고 하면서 왕청현당이 소비에트노선 집행에서 극도의 좌경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임시켰는데 그에게는 ≪민생단≫ 혐의도 있다고 하였다.

이용국이 엠엘파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소리였다. 세린하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던 그를 동만특위공청서기로 추천한 사람이 과거 엠엘파에 관계했던 인물이었을 뿐이다. 극좌적인 소비에트노선의 집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후과의 책임을 현당서기 한 사람에게만 들씌운다는 것도 무리하고 비도덕적인 처사였다. 이용국에게 철직책벌을 적용한다면 소비에트노선을 내려먹인 사람들과 그 집행을 강요한 당사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책벌을 주어야 하는가.

이용국이 ≪민생단≫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당치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가 종파도 아니고 민생단도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오의성과의 담판을 위하여 나자구에 가 있을 때 이용국은 끝내 ≪반혁명분자≫라는 감투를 쓰고 처형당하였다. 그가 살아온 경력을 보면 민생단으로 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한 때 체포의 선풍을 피하여 망명해간 연해주에서 이용국은 망명객으로 일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 다시 간도땅에 돌아와 태풍속에 몸을 내던졌다. 이처럼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어 민생단 모자를 쓰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5구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얼마 후 동장영은 나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김일성**동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국제당파견원동지의 참석하에 노선전환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5구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도 있으니 정권문제와 관련된 기본발언을 **김일성**동지에게 부탁합니다.≫

그 해 여름 노선전환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노선전환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동만지방에 온 국제당파견원도 참가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부로서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내놓고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안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 안에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안은 국제당의 새로운 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국제당 파견원은 우리가 제창한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심각한 논전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날짜를 끌며 여러 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인민혁명정부노선에 기초하여 소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를 개편하고 유격구의 모든 지역들에서 소비에트노선의 좌경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가 있을 후 동만지방의 모든 소비에트들은 인민혁명정부로 개편되었다.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과도적 형태로 농민위원회를 내오고 점차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사유재산 철폐의 명목밑에 몰수하여 유격구 인민들이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민혁명정부가 현금과 현물로 보상해주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정부로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였다.

가야허에서의 인민혁명정부 수립과 노선전환 회의를 계기로 하여 동만 각 현의 혁명조직구들에는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가 출현하였다. 구인민혁명정부들에는 회장, 부회장, 9-11명의 집행위원을 두었으며 토지부, 군사부, 경제부, 식량부, 통신부, 의료부 등의 부서들을 두었다.

이것이 해방 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원형이었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 안의 모든 곳에서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소왕청유격근거지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채벌노동과 유벌노동, 숯구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중 500여 명은 2구 소재지인 셋째섬에 있었고 나머지 500여 명은 방초령에서 마촌으로 넘어가는 영밑에서 노동하였는데 8시간 노동제의 혜택을 받았다.

인민혁명정부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개인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종전의 2배나 되는 노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주변의 산림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목재를 한 대도 베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조치가 발표를 보기 시작하자 대두천에 있는 친화목재소의 일본인 소장과 중국인 목재상은 유격구에 찾아와 채벌허가를 얻기 위한 담판을 요청하였다. 그 담판이 있은 다음부터 목재업자들과 목재상들은 나무 한 대에 1원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피복, 식량, 일용품들을 유격구에 납부하고 목재를 채벌해갔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부락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이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남녀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유격구에서는 출판소, 재봉소, 무기수리소도 운영하였다.

유격구의 문화는 우리 인민이 수천 년을 두고 부를 명가요들을 수많이 창작해냈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로 이어지는 연극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몰인정과 수탈의 상징으로 되었던 소비에트란 말은 과거를 추억케 하는 하나의 작은 파편으로만 남게 되었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등에 대통을 꽂고 자유롭게 마을돌이를 다녔다. 유격구는 또다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웃음소리 낭랑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었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산천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천만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활이 어찌나도 부러웠던지 채사령부대가 소왕청에 인질로 데려온 한 지주의 아들은 유격구에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4. 국제당 파견원


국제당파견원
이기동(반경유)

우리가 유격근거지에서 좌경과의 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던 1933년 4월경에 동장영은 다부산자 차림을 한 중년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차림새와 행동거지가 퍽이나 점잖고 세련된 중년의 그 사나이는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미소를 짓고 인사의 표식으로 머리 위에 한쪽 손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내가 알고 있는 구면 손님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만큼 다가오는 사나이의 눈동자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보니 구면은 아니었다. 이상한 일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알지 못한 손님이 어째서인지 구면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이 수수께끼같은 손님이 바로 국제당 파견원(순시원) 반성위였다. 반이란 성이고 성위는 이름이 아니라 만주성 당위원이란 직책을 이르는 약어였다. 위증민을 로위라고 부르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로판이라고 불렀다. ≪판≫은 ≪반≫의 중국식 발음이다. 중국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성앞에 ≪로≫자를 붙이는 좋은 예절을 가지고 있었다. 반성위를 본명대로 이기동이라고 부르거나 반경유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성위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자들속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혁명가였고 당활동가였다.

나에게 반성위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것은 왕윤성이었다. 9.18사변후 반성위가 영안현당 서기로 공작할 때 왕윤성은 그밑에서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가 영안현당에서 선전위원의 직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은 것도 반성위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반성위는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중국의 무창폭동과 북벌전쟁에도 참가하였고 쏘련에 가서 공부도 한 바 있는 능력있는 노간부라는 것이었다. 한때는 수녕중심현위 서기로도 활약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반성위의 인간미와 예리한 통찰력에 매혹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의 존경심은 보통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접에서 반성위와 같은 우수한 혁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 후에는 최성숙, 조동욱이 북만에서 나와 또 반성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최성숙은 자기를 왕청에 가라고 추동한 사람이 반성위였다고 하면서 그의 지도밑에 영안시가에서 5.1절 시위를 하던 때의 일을 재미나게 말해주었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자연히 왕윤성과 최성숙에 대한 이야기에 적잖은 시간을 바치게 되었다.

≪영안에서 온 최성숙동무가 잘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는 반성위의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반성위의 특출한 장점이라고 하던 최성숙의 말이 되살아 오르며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건강합니다. 북만에서 오자마자 대왕청소비에트 대표로 선출되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소왕청구부녀부 위원으로 선거되어 부녀회사업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무가 여기 와서도 말을 탑니까?≫

≪탄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혁명군에 들어가서 기병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승마기술

입니다. 아주 담차고 이악한 처녀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왕청 사람들이 호박을 잡은 셈이구만요. 북만에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그의 가족들이 북만에 있지만 나는 그를

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만주지방 혁명투쟁의 중심이야

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고 싶거든 왕청에

거기엔 인민의 세상으로 된 근거지가 있다. 나도 간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나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최성숙

나는 반성위가 동만지방을 조선혁명의 기본적인 책원지라고 평가하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유격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경망동적인 사태를 목격하게 되면 그가 간도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 반성위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 같은 것은 아직 미지수나 다름없었다. 반성위가 정치적 시야가 넓고 투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가 무조건 좌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는 법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과 최성숙의 평가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은 반성위가 아랫사람들을 대하는데서 절대로 편견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과 주견을 가지고 매사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노숙한 일군이라는데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나의 첫 인상도 무척 좋았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풋인사나 하고 그쳤다. 우리는 훗날 다시 만나서 본격적인 담화를 나누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다. 국제당 손님은 시간을 잘못 선택한 셈이었으니 나는 부대를 데리고 파도식으로 달려드는 수천 명의 ≪토벌군≫ 무력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투장으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부대를 따라 전투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허술한 총이나 한자루 주시오.≫

반성위는 동만에 왔다가 싸움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면 국제당 파견원으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고 일생 후회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니 하루동안의 참군이야 허락하지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냥 대열을 따라오려고 하였다.

≪반동지, 총알은 국제당 파견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싸움구경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 오늘은 노독이나 푸시지요.≫

나는 반성위를 설복시키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적들은 소왕청유격구를 삼면으로 포위하고 연 3일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우리는 완강한 방어전으로 그 공격을 견제하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토벌군≫은 그때 관문라자(돌문안) 방향과 뾰족산 방향에서 봄 안개를 이용하여 은밀히 유격구로 기어들었다가 자기편끼리 맞불질을 하는 희비극까지 연출하였다. 이 망원 전투가 한동안 소왕청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반성위도 그 소식을 듣고는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왕청 사람들에게서 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제당
제7차대회
회의장

소비에트 좌경노선을 국제당의 시정방침으로 보고 국제당의 명령 일하에 재채기도 하고 하품도 하는 사람들은 로판이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출현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제창하는 사람들에게 우경의 딱지를 붙이고 그들이 다시는 정권형태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노선을 좌경이라고 비난하면서 인민혁명정부노선에 의한 새 형태의 정권수립을 부단히 추구해온 사람들은 소비에트를 반대해온 자기들의 입장이 로판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에게 국제당의 명의로 되는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반성위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반성위의 출현이 소비에트노선으로부터 방금 해탈하기 시작한 유격구의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로 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전자가 미리부터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있었다면 후자는 마음속으로 패배의 비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양자가 다같이 국제당의 권위와 권한을 절대시한 데 있었다. 한 당의 파산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범죄를 심판할 수도 잇는 국제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대법원≫과 같이 어머어마한 존재였다. 그들은 국제당이 한 혁명가의 운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간주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를 긴장시켰다. 나도 역시 팽팽하게 긴장된 그 공기를 매순간마다 감촉했다.

국제당의 의사와 맞지 않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소비에트노선에 대치시키고 소비에트의 시책을 좌경망동이라고 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자못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다.

나는 좌경의 전횡밑에서 인민이 울고 있는 동안 땅에 국제당이 파견원을 보내준 것은 혁명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에트노선과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서로 대치되어 제가끔 자기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시점에서 반성위의 출현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게 될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제당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담보는 아직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국제당과 만주성위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에게 유격근거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령들을 연발하는데 대하여 그에게 항의를 들이댈 결심도 서 있었고 그와 함께 소비에트노선 집행과 반≪민생단≫투쟁 과정에서 발로되고 있는 극좌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론투쟁까지 하리라는 각오도 가지고 있었다. 처벌이나 그 무슨 제재조치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결판을 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불평을 가진 일부 동무들이 동만의 사태를 수습해 달라는 신소편지를 써서 국제당에 보낸 것 같았다. 국제당에서 그 편지들을 검토하고 동만지방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니 조선사람인 반성위가 나가서 일을 수습하라고 하였던 모양이다. 훗날 반성위 자신도 국제당에 그런 신소청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소왕청방어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반성위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첫 상봉의 날보다는 얼굴빛이 밝지 못하였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무거운 시름거리를 안고 그것을 묵새기기 위해 애쓰는 듯한 파견원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가 마침내 정치철학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준엄한 현실생활의 십자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보매 그는 동장영과 무슨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충돌한 것 같았다.

나는 마촌에서 제일 큰 이치백노인네 집에 반성위의 숙소를 정해준 그 집 윗방에서 열흘 남짓하게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성위는 중국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처음부터 중어로 말하는 바람에 나도 자연히 중어로 그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는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나누었다. 낮에는 내가 부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반성위도 낮이면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요해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객지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남의 집 윗방살이라는 것이 비록 불편스러운 점은 있지만 손님들 사이를 얼마나 친밀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처럼 친밀할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구수하고 흥미진진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나와 반성위도 그 열흘 사이에 서로 생살이라도 떼줄 만치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반성위는 나보다 나이가 20여 살이나 더 든 투쟁경험이 풍부하고 노숙한 혁명가였지만 틀을 차리거나 연령의 격차로부터 오는 거리감을 조금도 두지 않고 나와 동지 대 동지로서 허심탄회하게 열정적으로 담화를 하였다.

처음에는 혁명실천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화제를 떠나서 각자의 자서전이 소개되었다. 내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면 반성위가 자기 경력을 연달아 공개하였다. 그 다음은 엇바꾸어가며 그 일생기를 보충하든가 감상을 발표하였는데 밤이 지새는 줄도 몰랐다.

반성위는 내가 20살도 되기 전에 네 번이나 붙잡혔으며 감옥생활도 했다는 말을 듣고 사뭇 신기해 하였다.

≪그러나 감옥살이를 하는데서는 **김**동무가 나보다 선배인 셈이구만.≫

그는 자기도 하얼빈에서 감옥밥을 좀 먹었는데 5.1절 대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하여 영안현당은 풍지박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만주국 관헌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일본군의 ≪토벌≫에 조직들은 다 파괴되고 당원들과 핵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반성위는 그것을 당대열이 급격히 확대되고 그 활동이 적극화되는 과정에 자기네 머리를 병들게 한 현훈증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 대신 5.

1절 시위의 교훈이 김해산, 이광림을 대장으로 하는 영안유격대 창건의 정치적 동기로 되었다는 것만은 그도 인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좀 맞고서야 우리 시위가 서투르게 조직된 철늦은 시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소. 조직들을 더 깊이 지하에 들여보내고 무장투쟁을 해야 할 때 글쎄 현성거리에서 당원들까지 내세워 시위를 조직하다니 ≫

반성위는 그 시위에 대한 말을 꺼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곤 하였다. 그리고나서는 우리가 길회선 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조직했던 시위투쟁을 연방 격찬하였다. 그는 남들의 업적앞에서 공정하고 대범한 반면에 자기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서는 과소평가하든가 지나치게 허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유형의 사나이었다.

≪며칠 전에 생일 스물한 돌을 맞이했다면 내 나이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감옥생활에서도 선배라고 해야겠지만 총적인 인생에서도 **김**동무는 내 선배라고 해야겠소.≫

반성위가 내 경력을 다 듣고나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가 선배라는 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쑥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반동지, 그렇게 자꾸 추어올리는 말씀만 하다가 젊은 사람을 아예 병신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반성위는 러시아 사람들 식으로 두 팔을 쩍 벌이고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김**동무는 평가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내 자신의 일생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 사람이오. 나이 43살이면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남들에게 선을 보일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야단이 아니오.≫

≪너무 겸손한 말씀입니다. 반동지의 생애에서는 남방의 폭양도 있고 북방의 폭설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자기를 허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40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좋은 시절이 다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비판을 해도 반성위는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기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남방에서의 활동을 제껴놓고라도 북만에서 영안현위와 수녕중심현위의 서기직을 역임하고 영안유격대 조직의 산파역까지 감당해온 그의 공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녕중심현위란 목릉, 영안, 동녕, 밀산 등의 현위들을 통합하여 내온 규모가 상당히 큰 현위였다. 한때는 반성위가 국제당과 만주성위 사이에서 중간연락기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동국의 지도간부로 영전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그 소문이 비록 실천적으로 결실을 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국제당이 그를 소환하여 동만 지방 사업을 지도검열하는 파견원으로 보낸 것만 보아도 그가 신망있는 일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담화는 자기 소개의 경지로부터 상호관심사로 되는 현행 정치문제에 대한 실정의 통보와 의견교환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논의한 것은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문제였다. 국제당연락소일군들과의 연계를 가지면서도 그들과 함께 솔직하고 심도 있는 담화를 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그 논의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나는 반성위에게 국제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국제당 노선과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국제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참모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국제당은 지난 기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국제적인 연합에 집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민테른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앙집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중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난 시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당 규약과 노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동지, 이거 버릇없는 태도라고 나무라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제당의 처사를 두고 좀 할 말도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반성위의 얼굴 표정을 순간에 긴장시켰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혹시 무슨 의견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오?≫

≪글쎄요. 의견이랄지 불만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오래 전부터 국제당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좋으니 여기서 속시원히 다 말해봅시다.≫

반성위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였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국제당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종파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국제당이 지난날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한 데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종파야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도장 놀음을 하는 거야 인도지나 공산당이나 그밖의 당들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반성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긴장이 아니라 놀라움 같은 것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반성위에게도 나의 그 말은 예상밖의 급습으로 된 것 같았다.

≪나는 국제당 파견원으로서가 아니라 김동무와 다름없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공산당 해산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한 국제당의 처사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소. 조선공산당은 해산됐는데 인도지나공산당이 해산되지 않고 건재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오. 그건 호지명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국제당에 인도지나대표로 틀고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그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에는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출중한 인물이 없었고 영도핵심이 없었던 것이오.≫


호지명

당이 해산되게 된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를 지도자와 영도핵심이 없는데서 찾는 반성위의 말은 당 해산의 1차적 원인을 파쟁에서만 찾아보는데 습관된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의 결핍, 그것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반성위식의 분석이고 발견이었다.

우리는 국제당 문제와 함께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실천상 문제를 가지고서도 가치 있는 토론을 하였다.

반성위는 특히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이 자기 존재를 끝마치고 대다수의 당원들

이 해외에 망명하여 남의 나라 당에서 곁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좌절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당을 새롭게 창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조선혁명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공산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조선공산당이 해체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당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박탈당한 것으로 그 선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오. 조선사람이 자기의 당을 가지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권리요. 곁방살이도 한두 해이지 한정없이 남의 집에 그냥 얹혀 살수야 없지 않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반성위의 주장은 카륜에서 채택되었던 우리의 당창건 방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였다.

≪옳습니다. 조선사람이 자기 당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조선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 곁방에서 눈치놀음이나 하며 껄렁껄렁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세 해 전에 이미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고 건설동지사란 명칭을 가진 당조직을 내왔습니다.≫

나는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된 역사적 경위와 그것을 결성하고 확대하는 도상에서 직접 체험했던 가지가지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말을 주의깊이 들어주었다.

≪내가 공상가라면 **김**동무는 철저한 실천가라고 할 수 있겠구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오. 조선공산주의운동 선상에는 파벌이 너무 많아서 야단이오. 그러니 파벌을 하는 놈팽이들은 인정하지 말고 반드시 젊은 사람들끼리 새 출발을 해야 하오. 종파를 그냥 두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적잖은 종파꾼들이 왜놈의 개가 되었소. 개가 안 된 놈팽이들 가운데도 종파습성이 골수에 사무쳐서 혁명을 하려고는 생각지 않고 헤게모니 쟁탈에만 열중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소. 파벌과 싸우려면 우리가 반일투쟁을 잘해야 합니다. 투쟁과정에 대열이 강화되고 핵심이 묶어지면 그것이 곧 당을 창건하는 밑천으로 되는 것이오.≫

반성위의 이 말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소리는 아니였다. 종파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 청년들로 당을 창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부터 주장해온 기본방침이였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조선사람들로 핵심을 꾸리고 그들을 묶어세워 당도 창건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반성위와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 문제와 국제당문제, 조선에서의 당건설문제를 논의하고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우리의 화제는 간도의 민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비에트 문제에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인민이 등을 돌리고 침을 뱉으며 경원시하는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반성위의 견해가 어떤지 속시원히 듣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나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내가 ≪로판, 간도행이 처음이라는데 유격구를 돌아본 감상이 어떻습니까?≫하고 여담삼아 묻자 반성위의 대답대신 단추들을 와락와락 벗기고 웃자락을 활짝 열어제꼈다. 그리고는 목청을 갑작스레 높여 유격구에 대한 소감을 터놓았다.

≪나는 우선 이 불모의 땅에 유격구와 같은 별천지를 건설한 간도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소. 간도 사람들이 참으로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소. 그런데 이 훌륭한 별천지에 환영할 수 없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소.≫

나는 반성위의 격한 음성을 듣고 그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유령이라니오.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반성위는 이치백노인이 내준 담배통에서 독한 써레기를 듬뿍 집어 굵직하게 말기 시작했다.

≪그건 소비에트 좌경노선을 염두에 두는 거요. 이 좌경이 간도 사람들이 그처럼 공을 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소. 만주혁명을 선봉에서 개척해온 간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도 사실 그 좌경 때문에 머리가 셀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암둔해졌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정권에 대해서도 완전한 문외한들이더란 말이오. 동장영동무는 투쟁경험도 많고 성미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참 실수도 유만부동이지. 국제당에 신소편지들이 날아왔던 게 우연치 않거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소.≫나를 바라보는 반성위의 눈빛에는 심심한 연민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나 하나의 마음고생이야 아무리 큰들 뭐랍니까. 나는 좌경의 전횡밑에서 인민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반성위는 그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이 담배연기를 연방 신경질적으로 뿜어내쳤다.

≪내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좌경의 쑥대밭에서 혁명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이 탄생하여 유격구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였소. **김**동무가 아주 신통한 정식화를 했다고 나도 방금 전에 동장영동무에게 실토했더랬소.≫

≪그러면 반 동지도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장영동무에게 왜 그런 말을 했겠소.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해서는 동장영동무도 지지하였소, 그 동무는 인민이 좋다면 좋을 것이라고 한 **김**동무의 말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것 같더구만. 우리 마음을 푹 놓고 일을 더 잘해봅시다.≫

반성위는 느닷없이 내 손을 의미있게 꽉 잡았다가 놓았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국제당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성위는 계속하여 우리가 별동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유격대를 합법화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척한 것은 특기해야 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동만혁명가들은 앞으로 이 업적을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반성위는 우리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중국당에서 내놓고 있는 민중혁명정권노선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노선전환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만주 문제의 전략을 밝힌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중국당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제당이 작성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국제당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의를 끈 것을 농촌정권기관으로서의 농민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사상이였는데 농민위원회는 농민과 유격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평상시 유격대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장자위대를 조직하며 당은 전력을 다하여 고농과 빈농을 농민위원회의 지도역량으로 되게하고 그 주위에 중농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런 즉 이것은 국제당이 정권분야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의 불합리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권형태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며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의 정당성을 실증한 것으로 된다.



10월혁명에 봉기한 뻬쩨르스부르크 노동자들

그러나 반성위는 농민위원회라는 그 명칭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다. 그는 농민위원회가 소비에트보다 만주지방 실정에 더 적합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고농, 빈농의 본위로 나간다면 자기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계층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인민혁명정부 형태가 더 좋고 발전적인 것만큼 정권형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편지로 써서 국제당과 만주성위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까짓 명칭이야 농민위원회건 인민혁명정부건 뭐랍니까. 시책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혁명정부를 내올 수 있는데는 인민혁명정부라 하고 농민위원회를 내올 데는 농민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로 반성위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종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는 옳은 말이오. 그러나 정권기관의 명칭은 인민의 마음에 들어야 하오. 아무래도 국제당에 이 문제를 상정시켜야 하겠소.≫

그 후 반성위가 결심대로 국제당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는 인민혁명정부나 농민위원회로 교체되였고 공농유격대는 반일인민유격대로 개칭되였으며 적위대는 반일자위대로 개편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어놓은 회오리바람으로 되였다.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은 국제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방침들을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검증받게 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국제당이 하는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덮어놓고 다 좋다고 하거나 그 지령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였다. 나는 국제당의 처사에 대하여 존중시하면서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그것을 주체성있게 대하였다.

국제당의 전략이나 처사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석연찮은 문제로 보았던 것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서의 조선의 존재와 조선혁명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취급방법이였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이상으로부터 현실로 되였을 때 만국의 공산주의자들앞에는 10월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

적 판도에로 확대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레닌은 1919년에 제3국제당을 조직하였다. 국제당의 역사적 사명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 세계 노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1, 제2 국제당들이 지니고 있던 사명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전투적 사명이었다. 국제당의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당면한 투쟁과업의 하나는 쏘련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이었다.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확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는 10월혁명의 성과를 세계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쏘련을 옹호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구호로 되고 그 구호를 관철하는 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크레믈린에서 열린 제3국제당 제1차대회 상임위원회 (가운데가 레닌)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가피하였고 또 절실히 필요하였던 이러한 관계는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 공산당들을 쏘련의 앞잡이로 보거나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배족적인 무리로 치부하는 반공분자들과 부르주아 반동이론가들이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자기들앞에 지워진 국제주의적 임무와 민족적 임무를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했다. 국제당도 역시 이 점을 응당 중시해야 했다. 국제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감당하려면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데 모를 박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공산주의운동, 특히 제국주의의 억압속에서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국가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진심을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제당은 이 요구에 낯을 잘 돌리지 않았다. 국제당의 일부 일군들은 큰 나라들의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작은 나라들의 혁명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제멋대로 처리하였다. 쏘련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성새를 쌓아나가는데서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의 혁명을 대하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에서는 너무나도 차별이 많았던 것 같다.

국제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일군들과 이론가들은 큰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이 승리하면 그와 인접한 작은 나라의 혁명투쟁이나 독립운동도 스스로 승리하게 된다는 견해를 유포시켰다.

비유해 말하면 팽두이숙과 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견해라고나 할까. 팽두이숙이란 머리가 익으면 귀도 저절로 익는다는 뜻이다.

이런 견해는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체를 자기 자신의 힘이며 자기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자주적 입장을 떠나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으며 큰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작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자주적 활동을 억제하는 대국본위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국제공산당 창건이라는 거대한 사변에서 큰 힘을 얻고 그것을 이상으로, 등대로 바라보며 투쟁의 불길 속을 헤쳐가던 각국 혁명가들의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뢰와 순정에 때가 끼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국제공산당이 창건된 후 공산주의사조에 대한 축복과 동경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온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 각국의 이름있는 인사들속에서 공산주의 신봉자 대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공산주의를 인류의 유일무이한 미래라고 본 시대의 선각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소속과 신앙에 관계없이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나 국제당과 연계를 자기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이동휘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속에도 그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의 대열속에는 기독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권위 있는 인사들도 있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조선예수교대표회의 명의로 서울 정동 감리교 3대 담임목사였던 현순이 참가했던 사실은 하나의 실례로 된다.

현순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목사로서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그 성원으로 선출되었던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동무들이 몇 해 전에 쏘련의 국제당문서고에 가서 얻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는 3.1독립선언서 작성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조를 비롯하여 조상섭, 손정도, 김인전, 송병조 등 목사들의 인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현순은 러시아공산당 고려부가 작성한 조사표에 쓰기를 자기가 상해공산당에도 관계하였고 1919년 9월에 벌써 러시아에 와서 삼주일 동안 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 ≪목적과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표의 물음에 그가 자필로 ≪조선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실시함을 희망함≫이라고 명기한 문서가 우리 동무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되었다.

물론 그가 공산주의라는 새 사조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상적으로 공감했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제당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도 공산주의운동에 관계한 사람이었다. 그가 고려공산당연합대표회의 결과를 국제당에 보고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대표로 파견되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천도교 계통의 혁신세력도 국제당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천도교 1세 교주 최제우의 손자벌이며 2세 교주 최시형의 아들인 최동희는 천도교 혁신세력의 대표인물로서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 외무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직접 러영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제당과의 교섭을 성사시켜보려고 맹활약을 하였다. 그는 국제당에서 동양부사업을 보고 있던 가다야마 센과 인젤손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에게 편지를 내어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빈천민중의 충복인 천도교≫와 ≪노동계급의 전위인 국제당≫간의 적극적 연락은 동양혁명의 기성을 전적으로 담보한다고 언명하였다.

지어 최동희는 당시 쏘련의 외무인민위원이였던 치체린에게 편지를 써서 15개 혼성여단으로 고려국민혁명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총포, 폭발물, 탄약, 기병장비,

운수수단 등을 2년 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천도교 혁신세력이 수구파의 증오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나가려고 했던 것은 전 민족의 찬양을 받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쏘련도 국제당도 천도교 혁신세력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몽양 여운형도 1919년에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레닌과 함께 조선독립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었다.

이승만과 같은 반공분자가 한때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세상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 같다. 언제인가 그가 모스크바에 가서 엄청난 재정원조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묵살당하게 되자 쏘련과 국제공산계에 등을 돌려대고 극단적인 친미 일변도로 나갔다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


여운형

쏘련영토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위에 초가 마가리들이 올망졸망하고 여윈 하늘소들이 왔다갔다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당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였던 것 같다. 우리가 만주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그 시기에 와서도 조선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국제당이 작은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푸대접과 냉담성이 물론 우리로 하여금 혁명에서 주체의 대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당의 처사와 입장을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었던 것, 국제당의 사업조직과 고질로 된 사무실적인 사업작풍이 조선혁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하나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저지시킬 수 없었던 것, 이것이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우리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간절하게 열망한 것은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품고 있는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혁명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려는 우리의 지향과 확고부동한 결심에 보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혁명실천상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모대길 때 반성위가 동만에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어쨌든 반성위를 만난 것은 분명 내 생애에서 의미 있는 사변이었다. 국제당에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종파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로 핵심을 양성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을 다시 꾸리고 조선사람의 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나는 특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그가 우리에게 준 조언들은 나로 하여금 사고와 실천에서 주체적인 대를 더욱 튼튼히 견지하게 하였다. 그때 반성위가 준 영향과 동지적 고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민생단≫투쟁이 스산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조선민족과 우리 혁명의 주체를 옹호고수하여 그처럼 결사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소심이고 ≪홍루몽≫을 배워준 스승이 상월 선생이라면 반성위는 조선사람은 조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준 진실한 지지자, 고무자, 동정자였다.

나의 항일혁명사에 반성위를 만났을 때처럼 조선혁명의 운명과 노선문제를 두고 그렇듯 진지하고 열렬하고 심각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위는 혁명에 대한 자기 식의 일가견을 가진 흔치 않은 이론가였다. 1930년대의 후반기 우리가 대부대를 인솔하고 백두산 일대에 진출했을 때 반성위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활동했더라면 그는 조선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론실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나는 반성위를 만난 다음부터 혁명투쟁을 하는데서는 실천가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을 선도하고 조종해줄 수 있는 이론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소왕청에서의 잊지 못할 담화를 계기로 반성위는 나의 둘도 없는 벗이 되었고 동지가 되었다. 20살 이상의 격차를 가진 우리가 열흘 남짓한 사이에 십년지기 못지않은 벗으로 되고 동지로 된 것은 그 어떤 물질의 힘이나 이해타산의 마력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태양의 열광같이 열렬한 우정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조선의 해방과 자유를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염원이 같았고 세상만사를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적인 사고방식과 지향이 같았기 때문이였다.

우정의 심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말수더구도 아니다. 오래 사귄다고 하여 우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며 짧게 사귄다고 하여 얄팍한 우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간을 대하고 인간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자기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정을 배가할 수 있고 파탄시킬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정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나는 반성위가 소왕청을 떠날 때 말을 타고 훈춘경계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였다. 반성위가 다리를 조금씩 절며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말을 알선해주었다.

우리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십리평에 이틀 묵는 동안에도 국제공산주의운동 문제와 중국당과의 관계 문제, 특히 조선혁명의 당면 문제와 장래 문제까지 포괄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굳은 맹약도 다졌다.

그때의 소재는 장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것이였다. 그 십리평이 바로 이범석의 사관학교가 있던 동네였고 오중화네 가문이 피난을 와서 거처하는 동네였다.

반성위는 나중에 가정생활의 비밀까지도 털어놓았다. 그에게는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내가 있었다. 그 아내의 이름을 오영옥이라고 하였던지 오봉옥이라고 하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반성위에게 40살이 넘어서야 가정을 이룬 까닭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허허, 까닭은 무슨 까닭이겠소. 내가 착실한 신랑감이 못되니 여자들이 다 내 곁을 지나가버린 것이지. 어느 누가 이런 절름발이에게 감히 정을 주겠소. 우리 오씨 부인이 아니였다면 난 장가도 못 들고 허리가 꼬부라질 뻔했소.≫

반성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였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경멸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반성위를 철늦은 사랑에 심심한 동정을 느꼈다.

≪그 오씨 부인이 사람을 보기야 면바로 보았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한 미인이라는데 늦사랑에 깨가 쏟아지겠습니다.≫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그에게 구혼을 한 것

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왔다는 거요. 하여튼 늦사랑이라는 게 별맛은 별맛이야.≫

≪북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동무는 제발 남성세계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나같은 지각생이 되지 말아주오.≫

≪글쎄요. 나도 지각생이 될지 모르지요.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십리평 풀밭에서 이런 여담까지 하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반성위는 그 동안 왕청에 정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와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왕청을 떠나서 반성위가 다음으로 가야할 곳은 훈춘과 화룡이였다.

≪**김**동무의 인상이 일생 동안 내 머리속에 남아있을 것 갈소. 왕청에 와서 **김일성**동지를 사귄 게 참 기쁩니다.≫

훈춘-왕청경계를 넘을 때 반성위가 정색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였다.

≪나도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행각이나 끝나면 나도 처를 데리고 동만 땅에 와서 **김**동무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일하고 싶소. 우린 어딘가 낡았소. 때묻었거든…. 조선의 ≪호지명≫이 되시오.≫

반성위는 이런 말을 남기고 왕청땅을 떠났다. 그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뒤고 돌아서서 머리 위에 손을 쳐들었다. 첫 상면 때 보던 것과 꼭같은 손동작을 보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째서인지 그 동안 퍽그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 얼굴의 세부와 인상들은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눈에 익혀온 듯한 느낌조차 들었다.



호지명

사귄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을 바래주면서 왜 이다지도 마음이 외로와지고 구슬퍼질까 하는 것이 그가 나를 돌아볼 때 내 가슴을 짜릿하게 해주던 석별의 감정이였다. 반성위는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은 어쩐지 서글퍼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종시 마음에 걸렸다. 차라리 그가 웃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웠을는지 모른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나와 헤어진 반성위는 훈춘 땅에 가서 불귀의 객이 되어 쓰러졌다.

그를 살해한 것은 훈춘유격대의 대대정치위원이었던 박두남이였다. 노선전환을 토의하는 훈춘현당 확대회의에서 반성위로부터 가장 엄중한 비판을 받은 것이 다름아닌 그 박가였다. 박가는 파벌투쟁의 우두머리라는 낙인을 받고 정치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호위임무를 지닌 병사들이 반성위가 글을 쓰고 있는 숙소마당에서 전리품으로 들어온 38식보총을 구경하고 있을 때 박두남이 그 총으로 국제당 파견원을 쏘았다는 소문이 왕청에까지 날아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 소문을 들은 나는 반성위와 함께 혁명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던 이치백노인네 윗방에서 하루종일 문을 닫아걸고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하였다.

5. 백마에 대한 추억



나는 원래 이 삽화를 세상에 공개할 의향이 없었다. 인생 80을 총총히 더듬어보는 이 글에서 군마 한 마리가 차짓하는 몫이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회억해야 할 영웅들은 얼마나 많고 은인들은 얼마나 많으며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일화를 나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기에는 백마에 대한 나의 추억이 너무도 애틋하고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딜 충동이 너무도 강렬한 것 같다. 더구나 그 백마는 많은 사람들과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인정적으로 굳게 얽혀져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일이다.

나에게 군마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33년 봄이었다.

하루는 십리평 인민혁명정부 일군이 그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유격대 동무들과 함께 백마 한필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그 당시의 왕청대대 지후부는 소왕청마촌 리수구 골짜기에 있었다. 한 마리의 백마를 위한 행차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수행규모가 요란하였다. 십리평 사람들은 지휘부 앞뜨락에 말을 매놓고 그 뜨락으로 나를 불러냈다.

≪험한 길을 많이 걸으시는 **김**대장께서 타시라고 저희들이 말 한 필을 삼가 증정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십리평인민혁명정부 일군이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 대표단의 돌발적인 출현과 큰 행사라도 치르는 듯한 엄숙한 예절앞에서 몹시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의 한 개 분대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 어마어마한 수행규모는 처음부터 나를 놀라게 했다.

≪이거 대접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나이 갓 스물에 백마를 타고 다니게 되었으니 호강이 지나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겸양의 뜻을 표기하자 나이 지긋한 십리평의 일군은 펄쩍 뛰는 시

높을 해보였다.

≪대접이 과하다니오. 왜놈들은 대대장만 되어도 장교랍시고 말을 타고 거들먹거린다는데 우리 빨치산 지휘관들이 그놈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책을 보니 홍의장군 곽재우도 말을 타고 의병을 지휘했다더구만요. 군사를 지휘하려면 뭐니뭐니해도 위풍이 있어얍지요.≫

≪이건 어디서 생긴 말입니까? 혹시 어느 농가에서 쓰던 역마가 아닙니까?≫

≪역마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역마가 아니라 관상마올시다. 일전에 십리평에서 정부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그 머슴꾼 출신 영감이 생각나십니까?≫

≪그 노인에게 이런 멋진 말이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는 안정에 등자까지 걸린 백마를 유심히 살펴보고 쓸어보면서 넌지시 이런 말을 꺼냈다. 아무리보아야 그 백마는 역축으로 써오던 농경마가 틀림없었다. 십리평과 같은 골짜기에 관상마를 가진 농사군이 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노인이 그처럼 호함진 백마를 관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니 더 허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십리평의 정부일군은 그냥 관상마라고 고집하였다. 역마라고 실토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고 되돌려 보낼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 머슴꾼출신의 그 노인 이름이 무엇이었던지 지금은 기억에 삭막하다. 다만 성이 박씨였던 생각만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

박노인이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데는 무심히 스쳐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

이야기는 그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지주집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시작된다. 박노인이 늙마에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주는 그를 집에서 내보냈다. 그때 지주가 노인에게 품삯 대신 준 것은 자기 집 마굿간에서 출산한 지 몇 달 안되는 털빛이 새하얀 망아지였다. 출산 직후 어미에게 깔려 마굿간에서 불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력도 쇠약하고 영양상태도 보잘 것 없었다.

참혹하게 병든 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새끼말을 주면서도 인색한 지주는 선심을 쓰는 체하였다.

박노인은 병든 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동안 지주를 위해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고역을 치러온 봉사의 대가가 그 새끼말이라고 보면 인생이 통털어 너무나도 허망하고 세상인심이 너무나도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슬프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슬하에 일점혈육도 없이 외톨이로 고독스럽게 살아가던 박노인은 그 망아지를 장중보옥처럼 끔찍이 아끼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다. 망아지는 자라서 어엿한 백마가 되었다. 그는 고독이 엄습할 때마다 백마의 곁에 찾아가서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한탄도 하였다. 백마는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친구였다.

일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박노인은 자기를 말이나 소와 같은 역축과 동렬에 놓고 세상의 온갖 푸대접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답게 대하면 그는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십리평유격구에서 정부위원으로 선거된 것이었다.

그날 그가 받아안은 감격이 얼마나 컸고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감격은 바로 그날 저녁 정부 마당에 노인이 친히 끌고온 백마가 무언으로 설명해 주었다.

≪회장어른, 나를 대신해서 이 백마를 **김일성**대장에게 드려주시오. 내 오늘 난생

처음 그분의 덕으로 사람대접을 받아봅니다. 흉중에 가득한 고마움을 표기할 길이 없어 몇 해를 두고 살찌워온 이 애마를 드리오니 제 심정을 잘 말씀드려주시오.≫

이것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에게 한 박노인의 부탁이였다.

이런 사연까지 듣고 나니 그 백마를 사양하기도 딱하였다.

≪거절하고 싶지만 사연이 하도 절절하니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노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몰이군 한 분만 오면 될 길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까≫

나는 십리평 정부일군에게서 말고삐를 넘겨받은 다음 일행을 향해 두루거리로 물었다.

≪**김**대장 어른이 마상에 오른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싶어 군대와 인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대장 어른, 어서 말안장에 오르십시오!≫

십리평 인민혁명정부일군이 정색해서 하는 말이었다. 2중대 대원들도 그에 합세해서 마상에 오르라고 성화를 먹였다. 내가 말에 오르는 것까지 보고서야 그들은 흡족해서 십리평으로 돌아갔다.

박노인의 성의와 공경심은 이를 데 없이 고마웠지만 나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백마를 타지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호강하게 되면 인민들이 나를 곱지 않게 볼 수 있고 대원들도 지휘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병기창에서 일하는 이응만에게 그말을 주었다. 브로닝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는 그 이응만이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나이였는데 그만 아랫다리 총상자리가 말썽을 일으켜 다리를 잘랐다.

이응만의 다리를 수술한 사람은 소리수구 대대병실 근처에 자리잡고 있던 유격구병원 의사 장운포였다. 그는 소왕청의 의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는 만병통치의의사였다. 의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혼자서 이것저것 다 치료하였다.

그 당시유격구 병원의 관리를 담당한 것은 호조회였고 환자들의 파견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이었다. 이 호조회가 희사협의회를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총알에 뼈를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술을 하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약품도 없고 특별한 치료대책도 없다보니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까지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운포는 시계태엽으로 칼을 만들어 이응만의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되어 이응만은 유격대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 그는 퇴원 후 한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양성룡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다.

이응만은 내가 준 백마를 요긴하게 타고 다니면서 병기창 생활을 아주 보람차고 명랑하게 하였다.

얼마 후 나에게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백마가 생겼다. 그 백마는 대황구전투 때 우리 부대가 일본군 부대를 치고 노획한 말이었다. 전각루전투에서 노획한 말이라고 회상하는 투사들도 있다는데 나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 어디에서 생긴 말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중에 있고, 일본군 장교가 타고 다니던말이 생겼다는데 있고, 그 말이 만사람의 인기를 끄는 나무랄데 없는 군마라는데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매복전을 조직하였는데 그 백마의 임자인 일본군장교가 운수사납게도 첫 번째 과녁이 되어 말잔등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을 잃은 백마가 적진으로 달아나지 않고 우리 지휘부가차지하고 있는 산비탈로 곧추 다가왔던 것이다.

조왈남 전령병은 백마가 나타나자 지휘부가 적의 목표물로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자꾸 신작로 쪽으로 쫓아버렸다. 전령병은 나무드덜기와 탄피까지 집어 뿌렸지만 짐승은 자기 주인의 곁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로 오곤 하였다. 나중에는 네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조차 않았다.

≪가지 않겠다고 버둥질하는 짐승을 쫓아버리면 되나. 푸대접도 분수가 있지.≫

나는 조왈남을 나무랐다. 그리고는 얼마동안 말갈기를 쓰다듬어 주었다.

전령병은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적의 주의가 지휘부를 가려볼 경황이 됐나. 벌써 저렇게 줄행랑을 놓는데.≫

물론 말은 유격대의 노획물이 되었다.

대원들은 일본군 장교를 위해 봉사하던 말이 우리한테로 의거해온 사실에 처음부터 신비스러운 색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이놈의 짐승이 조선사람들과 일본사람을 가려볼 줄 알거든. 우리가 조선사람이라는 걸 판단하고는 서슴지 않고 의거를 단행하지 않았나.≫

마패를 보고 백마의 출산지가 경원(새별)이라는 것을 알아낸 대원들이 하는 말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의거 동기를 찾아냈다.

≪일본군장교가 평상시 말을 혹심하게 학대한 것 같애. 그러지 않고서야 이놈이 짐승이 자기 주인이 너부러지기 바쁘게 우리한테로 넘어올 리가 있나.≫



조왈남

우리는 전투장에서 철수하여 마촌으로 돌아올 때 역축으로 쓰라고 어떤 중국 노인에게 이 백마를 주었다. 간도 땅에서는 소와 함께 말도 역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되어 노인은 우리 부대에 찾아와 말을 되돌려 주었다. 발목이 너무 가늘고 연약해서 역축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성미도 이만저만 괴벽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자기같은 것은 가까이에 범접못하게 하니 도무지 다룰 수도 없고 휘어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의 전우들은 그 말을 듣고나서 ≪아무래도 이 말은 우리한테 있을 팔자야.≫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의 배장근통을 걱정해주면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권해주었다. 한두 해에 끝날 유격전쟁도 아닌데 아픈 다리를 그렇게 혹사하다가 영영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배장근통 때문에 나는 사실 그 당시 행군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끼곤 하였다. 어려서부터 걸음을 너무 많이 걸은데서 온 병인지도 모르겠다. 길림 시절에는 간혹 기차도 타고 자전거 같은 것이라도 타고 다녔지만 항시적인 봉쇄상태에 놓여 있는 왕청골 안에서는 그런 호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산발을 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 리씩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격구 생활은 걸음을 자유롭게 걷지 못하던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육체적 부담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전우들의 청을 사양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우들은 당회의를 열고 아무 아무날부터 **김일성**동지는 말을 타고 다닐 것이다 하는 결정을 채택하여버렸다. 그들은 양성룡대대장까지도 말을 타고 다니게끔 결정서를 아주 묘하게 꾸며놓았다. 혼자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하면 내가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라는 점까지 미리 타산했던 것 같다.

조직의 결정이니 더 거역할 수 없었다.

처음 말을 타는 날 전우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손벽을 치면서 기뻐하였다.

마적부의 기록을 보니 경원군마보충부 출산이라고 적혀있었다. 때로는 뿌잇뿌잇하게 잿빛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백설같이 새하얗게도 보이는 날씬한 말이었다. 발굽이 경마용처럼 가늘었는데 뛸 때는 비호처럼 날랬다.

이 말이 나를 한 2년쯤 태우고 싸움마당에도 나갔고 때로는 사람의 발자취마저 닿아본 적 없는 천고의 밀림속으로도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온갖 경난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이따금씩 추억속에 나타나 내 가슴에 짜릿한 정서를 부어주곤 한다.

나의 하루 일과는 말관리로부터 시작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빗자루로 털에 낀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였다. 관리 경험이 없고 요령도 없으니 만경대 할아버지가 소를 거둘 때 빗자루로 이곳저곳을 쓸어주던 모습을 기억에 되살리며 그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마는 빗자루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내 곁에서 달아나곤 하였다. 내가 백마와 한창 실갱이질을 하고 있을 때 이치백노인이 쇠로 만든 빗을 나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한 번 등을 긁어주면 알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쇠빗으로 등부터 긁어주었더니 말은 땅에 발통을 붙이고 가만히 서있었다.

나는 말잔등에 안장을 얹다가 안장의 가죽과 모달리천 사이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발견하였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마적부라는 자그마한 수첩과 함께 쇠빗, 털빗, 걸레쪼박, 쇠꼬챙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쇠빗, 털빗, 걸레쪼박의 용도는 짐작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끄트머리가 수술칼처럼 생긴 쇠꼬챙이의 용도만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나는 쇠꼬챙이 들고 백마의 곁으로 다가갔다.

기적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백마가 곡마단의 말처럼 한쪽발을 건뜻 쳐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쇠꼬챙이와 발통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어떤 암시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좀처럼 짐작할 수 없었다.

말은 내 주의를 안타깝게 빙글빙글 돌다가 먼발치에 박혀있는 발뚝곁에 다가가 그 위에 앞발하나를 걸터놓았다. 박바닥의 마제짬에는 흙, 돌쪼각, 짚오래기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

쇠꼬챙이로 그것들을 파주었더니 말은 다른 발통을 올려놓고 능청스럽게 내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림짐작으로 말 사양법을 익혀가고 있을 때 국내종마장에 있는 사람이 소왕청 친척집에 왔다가 나에게 말 사양의 묘리와 승마요령을 대주고 돌아갔다 그가 하는 말이 말은 몸에 먼지가 앉거나 발통에 사금파리 같은 끼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쓸어주고 긁어주고 기름까지 발라주어야 하며 발굽에서 흙이나 검불 같은 것을 제때에 파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특히 말이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면 물기를 잘 닦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말의 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초와 귀밀이라는 것, 보리와 콩도 좋은 사료라는 것,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도 매일 소금을 조금씩 먹여야 한다는 것,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는 찬물을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그 종마장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비결이었다.

이런 과정에 나는 백마와 친숙해졌다. 말은 내 요구나 의사 앞에서 늘 고분고분했다. 나의 눈빛이나 손동작만 보고서도 자기가 할 바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봉사를 따라세우는 백마의 총기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저것이 과연 사람이 아니고 말이란 말인가 하고 만사람이 다같이 경탄할 정도로 백마의 성미나 행동에서는 예술적으로 완성된 어떤 하나의 인격미를 연상시켜주는 면모를 종종 엿보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백마는 영리하고 충실한 반면에 성질이 매우 사나웠다. 그 말은 주인 아닌 남이 자기를 건드리거나 안장에 올라타는 것을 절대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싱겁둥이가 말을 타고 싶어 고삐를 잡으면 빙빙 돌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어 뒷발질

을 하거나 물려고까지 하였다.

조왈남도 백마를 타보려다가 푸대접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백마를 툇마루밑에 세우고 빗으로 옆구리를 슬슬 빗어주다가 날파람 있게 몸을 날렸는데 안장에 몸이 닿는 순간 말이 옆으로 후닥닥 내뛰는 바람에 땅바닥에 엉덩방아만 찧었다.

이런 천대를 맛본후 조왈남은 아주 기발한 승마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이란 발목까지 빠지는 시궁창에 말을 세워놓고 말이 풀을 뜯는 사이에 슬쩍 올라타는 것이었다. 하지마 ㄴ그 방법도 조왈남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에도 시궁창 벼락만 뒤집어썼다.

어린 전령병은 백마를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회초리로 그 분풀이를 톡톡히 하였다. 그 후부터 백마는 조왈남이 곁에 나타나기만 해도 들고뛰거나 발길질을 하였다.

그때 조왈남은 너무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였다. 자기가 아무리 정을 다해도 말이 곁을 주지 않고 태워도 주지 않으니 중대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조왈남에게 백마가 너를 배척하는 것은 백마에게 바치는 너의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지성을 더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양마요령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조왈남은 내가 일러준 대로 백마를 위해 있는 정성을 다 바쳤다. 백마가 그 정성에 정성으로 보답한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다.

하도 오래 전 일이어서 자질구레한 일화들은 거의 다 잊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장면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백룡이 소대장으로 활동할 때였다. 나는 나자구지방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기 위하여 오백룡소대를 데리고 마촌을 떠났다. 나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2-3세시간밖에 안되었다. 전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군중과의 사업까지 하고 나면 보통 밤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일이 정 밀릴 때면 밤을 꼬박 밝혔다.

일행이 쟈피거우령에 들어선 순간 나는 말안장 위에서 말뚝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전날밤 마촌인가 십리평에서 밤샘을 한 후과였을 것이다. 백마가 소대의 앞장에 있었으므로 일행중 내가 존다는 것을 간파한 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대가 쟈피거우령을 넘을 때부터 말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감촉한 사람이 바로 오백룡소대장이었다.

백마는 앞발을 딱 가두어 붙이고 조심조심 오르막길을 톺아올랐는데 오백룡이 갑갑해서 짜증을 낼 지경으로 도무지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이 영국신사 같은 말이 오늘은 참 별나게도 걷는 걸.≫

오백룡의 속생각이었다.

백마는 내리막길에서도 뒷발을 가두어 붙이고 힘들게 영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에 대열은 멀리까지 앞서나갔다. 뒤에는 백마와 나, 오백룡 셋만 남게되었다. 오백룡은 내가 걱정되어 줄곧 초조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상관이 앉아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 속을 조이기만 하였다.

백마는 고갯길을 다 내리자 쟈피거우 강가에 가로놓여 있는 진대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대나무 한 대쯤은 헐하게 살짝 뛰어넘던 명마가 별치않은 장애물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오백룡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백마가 저렇게 게으름을 부리는데 왜 욕도 안하고 재촉조차 하지 않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잔등에 앉아 있는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졸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놈 참 명물인데!≫

소대장은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백마는 앞발로 진대나무를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 백마한테 오늘은 특식을 차려줍시다!≫

오백룡은 싱글벙글하면서 말갈기를 쓰다듬었다. 내가 조는 사이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생긴 모양인가.

≪갑자기 특식은 왜?≫

오백룡은 백마가 쟈피거우령을 어떻게 넘었고 또 진대나무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주춤거렸는 가를 흥에 겨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옛날에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말을 국마라고 했다는데 우리도 이제부터 이 백마를 국마라고 부르는게 어떻습니까?≫

≪왜 국마라고만 부르겠소. 백룡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천하마라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겠는데 ≫

≪천하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가는 말이란 뜻이지.≫

≪그럼 천하마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오중화형님이 그러는데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말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었다지 않습니까.≫


오백룡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소. 어떤 나라 황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집정관이라는 벼슬까지 주었다는 구만. 그 말은 상아로 만든 구유에 먹이를 담아먹고 황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담아마시면서 만사람의 경의를 받았다는 거요. 그럼 우리도 영의정이라는 벼슬이나 주어볼까.≫

≪어쨌든 이 말은 명물입니다. 잔등판에 눈도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고 계신다는 걸 알아냈을까요?≫

내가 고삐를 나꾸어채자 백마는 진대나무를 성큼 뛰어넘어앞으로 쏜쌀같이 내달렸다. 우리는 잠깐 사이에 소대와 함께 나자구 삼도하자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바위가 양옆에 우뚝 솟아 쌍을 이룬 곳이 있었다. 그 강에는 산천어가 많았다.

나는 풀밭에 금을 그어주고 백마의 목에 말고삐를 감은 다음 대원들에게 군중정치공작 임무를 주어 삼도하자, 사도하자, 노모저하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서 강기슭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을 만나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화를 끝내고 백마가 있는 곳에 돌아간 나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어준 금 안에서 백마는 아까처럼 그냥 착실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 말은 보기 드문 명물이였다.

그 말의 덕으로 여성혁명가 홍혜성도 사경에서 구원된 적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여고까지 다닌 인텔리였는데 용정에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함께 지하공작을 하다가 유격구를 천당으로 생각하고 왕청땅에 들어와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그의 아버지는 동의술을 가진 명의였다. 홍혜성은 유격구에 들어온 다음 아버지한테서 배운 묘술로 유격대원들과 주민들의 옴병을 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유격구의 군대와 인민은 성미가 발랄하고 붙임성이 좋으며 동의술까지 가지고 있는 인텔리 출신의 이 아름답고 용감무쌍한 여성정치공작원을 무척 사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백마를 타고 조왈남이와 함께 서대파라는 곳으로 지방공작을 나가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급작스레 터져오르는 총소리를 들었다. 유격구에 ≪토벌대≫가 들이닥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성이 우리는 쪽을 향해 급보

로 말을 달린 우리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지방공작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들어 힘겨운 조우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발견하였다.

적들은 악악 소리를 지르고 헛총질을 해대며 그를 사로잡으려고 발악하였다.

나는 전투현장에까지 백마를 다급하게 몰아간 다음 체포의 위기를 무릅쓰고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말에 제꺽 올려태웠다. 말도 내 뜻을 알아차렸는지 한 10리 길을 쏜살같이 냅다 달렸다. 이렇게 해서 그를 적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유격구사람들은 입을 모아 나의 백마를 명마라고 칭찬하였다. 홍혜성이 만일 백초구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와 함께 그 백마를 고맙게 추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타고 양수천자 일대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을 반유격구로 꾸려놓았다. 나자구, 삼도하자, 사도하자, 노모저하, 태평구와 함께 양수천자 일대의 남대동, 북대동, 석두하자, 가재골 일대와 도문 근처의 마을들에는 우리의 조직이 다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훌륭한 군마를 남에게 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독자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마와의 이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제기된 것은 오백룡이네 대원들과 함께 골방령인가 어디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보리고개를 넘기는 시절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때 농량이 달려 고생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적을 쳐서 주둔구역 인민들이 먹을 식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노획한 식량만으로는 그 고장 사람들의 쌀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우리는 소비를 극력 줄여 저축한 쌀을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한편 끼니를 번지지 않을 정도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였다. 그러다나니 백마에게 차례지는 사료의 공급량도 최대한으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귀밀이나 보리, 콩과 같은 고급사료도 고급사료지만 건초라든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곡초를 구하는 것도 역시 헐한 일은 아니였다.

충실한 나의 대원들은 백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부대의 활동정황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들은 주변 부락들과 적구에 종횡무진으로 드나들며 백마에게 먹일 귀밀이나 소금같은 것을 제때제때에 구해오곤 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가을걷이가 끝난 포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주이도 하였다. 한 이삭, 두 이삭 힘들게 모든 낟알들을 바수어 군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는 말에게 먹이는 대원들도 있었다. 백마는 그런 대원들이 가까이에 나타날 때마나 주둥이로 군복주머니를 툭툭 건드리곤 하였다.

대원들이 백마를 그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해 바치는 혁명적 우정의 표시, 충성심의 표시였다.

나는 그 우정과 충성심이 못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들이 열성스레 사료를 장만하거나 백마를 관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접을 이 이상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곤 하였다. 나는 남들의 봉사에 습관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빨치산 시절의 나의 개체생활에서 제일 송구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표가 나게 섬길 때였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들한테 차례지지 않는 특대나 특혜가 차례질 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치부하는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족감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

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이었다.

나는 채 완쾌되지 않은 배장근통 때문에 몇 달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나의 충성스러운 애마를 농민들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백마가 반유격구 같은데 가서 역축으로 이용된다면 전장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지 죽을 염려도 없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에게 백마를 보내준 심리평의 머슴꾼 출신 노인에게 나의 애마를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노인이 별스레 생각하며 섭섭해 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풍기사령을 불러다가 남아있는 다 털어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백마의 그날 점심급식은 특식으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오늘은 저축했던 사료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백마를 배불리 먹이시오. 오후에는 그 백마를 산너머 부락에 가지고 가서 그 마을 반일회장에게 넘겨주어야겠소. 말이 떠날 때 남은 사료도 몽땅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역축이 없이 살아가는 제일 가난한 집에 백마를 주라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풍기사량은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였다.

≪어서 나가서 명령을 집행하시오.≫

나는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엄하게 독촉하였다.

풍기사령이 나간 다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백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몰인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나는 백마와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쇠빗과 털빗으로 여기저기를 긁어주고 손으로 갈기털을 몇십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 말과 함께 걸어온 수천 리 노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를 여겨보던 백마의 눈에서 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랐다. 이 애마가 어떻게 나와의 이별을 예감하였을까. 백마는 그때 분명 나의 얼굴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선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백마의 비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찍맞을 보이면서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미물들의 세계에도 인간을 감동시키는 미덕이 존재하며 그 미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백마야, 용서해다오, 너와 나는 오늘 아쉬운 대로 헤어져야겠구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아픈 이별이지만 이 이상 더 너를 타고 다니며 호강할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위해 천신만고를 다한 너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 한평생 잊지 않겠다.≫

나는 말의 갈기털에 한참 동안 볼을 파묻고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은 마음이 허전해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공연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조차 들었다. 하지만 이왕 내린 결단이니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나의 사랑스런 백마에게 부디 근면하고 살틀한 주인이 차례질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풍기사령의 저녁보고를 기다렸다.

그런데 풍기사령은 저녁시간이 다되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날이 어슬어슬해질 무렵에 오백룡소대장이 밥상을 들고 내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용서를 빌었다.

≪규율을 위반했으니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나는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규율을 위반하다니?≫

≪제가 보고도 하지 않고 목재소를 하나 쳤습니다.≫

오백룡은 그 습격의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에게서 이웃 마을에 백마를 보내라는 과업을 받고 소대로 돌아간 풍기사령은 오백룡을 만나자 여사여사한 지시가 내렸는데 다른 명령이라면 다 집행하겠으나 그 명령이야 어떻게 감히 집행하겠는가고 하면서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 좀 의논해보자고 하였다.

오백룡은 풍기사령의 말에 동감을 표기하였다.

≪대원들이 백마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미안해서 대장동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백마를 어떻게 대장동지 곁에서 떼어놓는단 말이오. 대장동지는 상기도 배장근통 때문에 신고하고 계시지 않소. 우리가 사료라도 많이 장만해 놓고 강짜를 쓰면 대장 동지의 결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풍기사령 동무는 말을 이웃 마을로 보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매두어야겠소. 그 동안 나는 친화목재소에 가서 사료를 구해오겠소. 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은 보고하지 말아주오.

친화목재소는 소왕청에서 40-5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목재소의 십장들 가운데서 오백룡이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이 사람이 목재채벌로 유격구를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그와도 낯을 익히게 되었던 모양이다.

오백룡은 5-6명의 대원으로 사료공작조를 뭇고 단숨에 친화목재소를 찾아갔다. 그가 잘 아는 십장은 유격대원들에게 그냥 쌀을 주었다가는 후환이 있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네 목재소를 습격해 달라고 했다.

십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오백룡은 보초를 억류하고 목재소의 관리들과 파수병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들이쳐서 무장해체부터 번개같이 해치운 다음 4-5포대나 되는 귀밀과 콩을 지고 기지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는 오백룡이 보고를 끝내자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그가 말한대로 백마는 이웃마을의 영세농민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내눈을 속이느라고 대피시켰던 장소에서 돌아와 마굿간에 서 있었다.

백마는 콧김을 크게 내불고 나서 감사라도 보내듯 내 쪽을 향해 머리를 몇 번 주억거렸다.

나는 눈굽이 찡 저려났다. 백마의 존재를 몸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분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성미가 백두산곰 같은 저 통장머리 큰 오백룡과 풍기사령이 지휘관의 명령을 제멋대로 어겼으니 이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료가 많이 장만되면 자기 상관이 백마를 이웃마을로 보내기로 한 결심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목재소까지 들이친 오백룡의 저 주관과 뻔뻔스러운 배짱은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가. 저 엄청난 배짱을 싹에서부터 짓눌러버리지 않을 경우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이상한 것은 원칙과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이전날처럼 그 원칙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었다. 털빗으로 잔등을 가볍게 긁어주자 눈물이 그렁해서 나를 향해 고개를 주억거리는 백마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째서인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오백룡을 꾸짖고 싶은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오백룡이 소처럼 떡 버티고 서서 생억지를 부리니 나로서는 백마를 기어코 이웃 마을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대장동지, 저를 처벌해도 좋고 강직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백룡이 살

아 있는 한 백마를 어데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최후통첩을 하고 나서 큰 전쟁이라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씩하고 콧김을 크게 내불었다.

생각같아서는 오백룡을 붙안고 ≪고맙소!≫, ≪고맙소!≫하면서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 싶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불과 물속에라도 뛰어드는 이 대담무쌍한 소대장의 충직성에 나는 한두 번만 감탄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까막눈이였던 자기에게 조선말 자모를 배워준 사람도 **김일성**이고 처음으로 세상물정을 알게 해준 사람도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도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내가 손때를 묻혀 키운 지휘관이 오늘은 나의 백마를 위해 한 몸을 내대어 목재소를 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사료공작을 나간 것은 엄중한 규율위반 행위였다. 이것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더 큰 탈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에 지휘관은 결심을 잘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오백룡은 김이 몰몰 피어오르는 내 밥상의 국그릇을 내려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국이 다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에게 처벌을 주십시오.≫

나는 불시에 눈굽이 확 달아올랐다. 처벌을 달라고 물러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내 목을 꽉 메게 하였다.

오백룡은 일찌기 소년선봉대시절에 비지깨권총이라는 자작권총을 가지고 온성에 건너가 세관순사를 쐬죽이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온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식솔이 열일곱이나 되는 가정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하여 동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오백룡은 소년선봉대 시절부터 어찌나 유격대원이 되고 싶어했던지 ≪탄피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까지 빚어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하려면 믿음직한 보증인이 있든가, 총 한 자루쯤 노획해서 보증품으로 바치든가, 하다못해 방치수류탄 같은 것이라도 한 개 얻어가지고 가야 한다는 소문을 얻어듣고 방금 총격전이 벌어지던 전장에 가서 나무껍질로 바지가랭이를 동여맨 다음 한 손으로는 허리춤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탄알과 탄피를 주워서 양쪽 바지가랭이에 가득 주워넣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땀을 흘리면서 유격대를 찾아갔다.

바지가랭이를 동여매였던 끝을 풀어놓자 한 말쯤되는 탄피와 탄알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어때요? 이만하면 나도 유격대에 받아주겠지요?≫

오백룡은 우쭐해서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중대장의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유격대원들의 입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보라구 백룡이, 그 탄피는 뭐하러 주워왔나? 그건 총을 쏘고 남은 찌꺼기인데.≫

중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오백룡은 탄피도 적을 쏘아잡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자 탄알과 탄피를 따로따로 골라놓았다. 탄알은 수백 발 되었다.

이 ≪탄피사건≫은 그가 유격대에 입대하는데 유력한 지참품으로 되었다.

오백룡은 입대 후 적들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형제들의 복수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입대초기 마음고생을 몹시 하였다. 총소재를 하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에게 처벌을 준 중대 정치지도원은 적들이 파견한 간첩이였다. 동만특위와 현당의 주요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종파분자들의 신임을 얻어 중대 정치일군의 직위에까지 뛰어오른 그놈은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오백룡이 오발사고를 냈을 때 그놈이 적용한 처벌방법은 혁명군대의 규율이나 도덕의 척도로 볼 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것이였다. 오백룡에게 처벌로 위만군 한 개 중대가 도사리고 있는 모다니에 가서 토성 한복판에 꽂혀있는 만주국 깃발을 떼오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적구에 내려가 모험을 하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명령이였다. 전우들은 모두 오백룡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백룡은 유격대 주둔지에서 100리나 떨어진 모다니에 내려가 만주국 깃발을 떼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정치지도원 감투를 쓴 놈은 그 후에도 오백룡을 해치려고 악착스럽게 기회를 노렸다. 그놈은 대원들이 식사를 할 때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까지 문제시하면서 군대는 국도 먹지 말고 마른반찬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한번은 중대에서 어쩌다가 암소 한 마리를 잡았다. 대원들은 ≪마른 밥, 마른 반찬≫바람에 속에 털이 날 지경이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국에 밥을 말아 실컷 먹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날도 그 알량한 정치지도원이 나타나 먹지 않던 소고기국을 갑자기 먹으면 설사에 걸릴 수 있으니 국을 먹지 말고 마른밥에 마른고기만 먹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대원들은 그처럼 먹고 싶던 소고기국도 먹지 못하였다.

지시를 거역하고 국을 먹은 것은 오백룡과 그밖의 대원 한 사람뿐이였다.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오백룡의 둘째 형수가 그들에게 소고기국을 몰래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백룡은 병실마다에 있는 나뭇가리 뒤에서 그 국을 먹다가 정치



지도원에게 발각되였다. 이 사건은 정치지도원이 그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울 수 있는 언질을 주었다. 전우들이 보증하지 않았더라면 오백룡은 ≪민생단≫의 누명을 쓴 채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정치지도원은 그 후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오백룡에게 처단되였다.

자기를 사지판에 고의적으로 내몬 처벌조치를 두고 원망하는 오백룡에게 또 하나의 처벌을 준다면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에서의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되지 않을가?

≪소대장 동무, 동무가 나의 백마를 위해 적구에까지 갔다온 것은 고마운 일이오. 그렇지만 규율을 위반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할 엄중한 과오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소. 동무들의 심정을 잘 알았으니 백마는 다른 데 보내지 않겠소. 어떻소, 만족하오?≫

내가 이렇게 묻자 오백룡은 벌쭉 웃으면서 ≪네, 만족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이렇게 몇 마디의 지적으로 사건을 간단히 매듭지었다.

백마는 그 후에 나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소왕청방어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에 있은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적들은 리수구 막바지인 황가리골 일대까지 기어들어와 유격구 인민들을 살육했다. 산과 들과 골짜기는 주검으로 덮이고 살림집은 모두 재가 되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빗발치는 탄막을 누비며 매일같이 전투를 지휘하였다. 어제 뾰족산에서 방어전을 조직했다면 오늘은 마반산에 가서 적의 돌격을 좌절시키고 내일은 또 이수구 뒤 고지에서 인민들의 대피를 엄호하는 식으로 동분서주하는 고정에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얼마나 많은 탄우가 쏟아졌던지 나의 외투 안에 댄 털까지 불이 달렸다. 외투에 달린 불은 단번에 나를 휘감아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백마가 바람을 맞받아 달리다나니 불붙는 외투자락이 뒤로만 휘날렸기 때문이다.

내가 외투에 불이 달렸다고 느낀 것은 백마가 바람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 불길을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벌써 외투를 벗어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다가는 바위에 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비호같이 달리던 나의 백마는 움푹하게 패여들어간 눈구덩이앞에서 속력을 늦추며 슬그머니 앞발을 접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말에서 떨어져 눈구덩이속으로 굴러들어갔다.

눈속에 파묻혀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이에 외투를 태우고 군복에까지 달렸던 불은 저절로 꺼졌다.

백마의 두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백마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그날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죽음에 못지않은 참담한 화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에도 백마의 뛰어난 감각과 신통력을 두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 몸에 불이 달렸다는 것을 이말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챘을까?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지금도 그 비결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은 설사 생체적 장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놀라운 헌신성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겠는가.

세상에는 충견애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충마애견이라는 말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의 백마는 유격구 인민의 총애를 받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마에 대한 소문은 소왕청 주변의 반유격구들과 적 통치구역의 인민들속에도 널피 스며들어갔다.

오의성도 그 소문을 듣고는 내말을 탐냈다.

≪김사령, 사령의 그 백마를 50필의 군마와 바꾸지 않겠소?≫

내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위해 나자구에 담판을 갔을 때 그는 나에게 이런 흥정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던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튼 나자구에서 담판이 끝난 다음에도 나는 오사령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아 하는 그 백마를 타고 마촌으로 돌아왔다.


오백룡

나와 함께 근 2년동안 궂은 길 마른 길 가리지 않고 편자를 갈아대며 수천 리 길을 달린 백마는 1934년 소왕청에서 죽었다.

1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전우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백마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의 그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애석해 하는 것을 보고 대원들은 백마를 위해 조총을 울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총이나 울려선 뭘 하겠는가. 백마는 살아있을 때도 총성속에서 소란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죽어서나 안식을 맛보게 총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도 백마의 무덤이 왕청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오백룡이 호위총국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 초에 나는 그와 함께 말을 타고 산책하며 백마에 대한 회고담을 나눈 적이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나 어젯날의 유격대 소대장은 백마와 관련된 세부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의 회고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작가 송영에게도 알려지고 이기영에게도 알려졌다. 한 군관이 그들에게 백마와 관련한 글을 써달라고 청탁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전말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그 불길속에서 일생을 마친 백마는 회상기가 아니라 한 폭의 자그마한 유화가 되어 조선혁명박물관에 나타났다. 백마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이기영과 송영을 통해 화가 정관철에게까지 흘러나간 것 같다. 그 유화는 바로 정관철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었다. 오백룡의 간청을 받고 박물관에 나가니 그런 그림이 턱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화폭에 나와 백마밖에 그려있지 않았다. 그 그림을 보니 백마와 함께 나를 충심으로 받들어온 전령병들과 오백룡의 생각이 나서 그들을 화면에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화가는 내 의향대로 2명의 전령병을 더 내놓아. 작품을 수정완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화이다.


이기영

나는 나의 충실한 전령병들과 백마가 그리워질때마다 이따금씩 박물관에 나가보곤 하였다.

80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추억속에서만 종종 그려볼 뿐이다. 그 충실한 백마의 모습이오늘도 내 눈앞에서 60년 전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백마가 만일 사람이라면 충신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 시기 : 1934. 2 ~ 1934. 10

1. 이광


이광

나와 이광과의 우정은 길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만청총 계통에서 온 김준이네 패거리들이 하루는 낯선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그 낯선 청년이 바로 이광이었다.

이광이 길림에 나타난 것을 두고 그때 우리 동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추리를 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어 왔을 것이라는 사람, 조직선을 찾으려고 왔을 것이라는 사람, 길림일대의 청년학생운동 실태를 알고 싶어 왔을 것이라는 사람 등으로 제나름대로 해석들을 하였다. 김준은 이광이 길림에 온 것은 성적으로 소집되는 교원들의 어떤 비밀회합에 참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넌지시 귀뜀해주었다.

총명하고 대범하고 과묵한 사람, 이것이 이광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었다. 그 후 접촉이 거듭되는 과정에 나는 그가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정이 무르며 우애심이 지극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때 우리 동무들은 초면인물인 이광에게 홀딱 반해서 식견을 높이려면 문광중학교가 좋고 출세를 하려면 법정대학이 안성맞춤이고 혁명을 하려면 육문중학교가 제일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그를 길림바닥에 잡아두지 못해 안달하였다.

이광도 길림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연길현 고성자라는 곳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독립군 영감들의 심부름을 해주느라고 길림에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청년학생들의 생활풍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전에는 이 도시에 청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져서 도시가 부글부글 끓는 쇠가마 같은 인상을 준다고 탄복하여 마지않았다. 이렇게 되어 이광은 길림제5중에서 얼마동안 학창생활을 하였다.

이광이 초기에 접촉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홍범도, 김좌진, 황병길, 최명록과 같은 독립군 거두들이었다. 고성자의 그의 처가에는 독립군의 한 개 지휘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반연이 되어 그는 많은 민족운동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다. 눈썰미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며 입이 무거운 이광의 기질은 인차 독립군 영감들의 주의를 끌었다. 오동진이나 이웅이 나를 자기네 교대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아마 이광을 독립군의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았다. 이광은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공부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신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는 진학의 꿈을 버리고 14살의 연약한 몸으로 가계를 유지해나갔다. 16살때부터는 완전한 호주로 가사를 도맡아 보았다. 그러다나니 학교공부도

늦어서야 하였다. 학창생활을 끝낸 그는 한동안 연길과 왕청의 소학교들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때까지는 그를 본명대로 이명춘이라고 불렀다. 이명춘이 이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춘화향 북하마탕에서 교원을 할 때부터였다. 그때 북하마탕에서는 주변 8개 학교가 모여 계몽활동의 한 고리로 웅변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였는데 당시 지하공작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이광으로 변성명을 하고 하마탕팀 선수로 축구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광으로 부르게 되었다.

≪나에게 민족주의를 안내한 것도 독립군들이고 공산주의를 안내한 것도 독립운동이오.≫

이광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고성자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내 귀에는 그 말이 몹시 괴이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그 독립군 영감들이 이광동무에게 단꺼번에 두 가지 사조를 내리먹였단 말이오?≫

≪아니, 내리먹였다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할까.... 물을 먹였다고 하는 표현이 적중하겠는지. 하여튼 나는 그 영감들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영향도 받았고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사조의 영향도 받았으니까.≫

≪그 영감들은 이중적인 사조의 소유자들이었던게로구만.≫

≪이중적인 사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방향전환을 모색했던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지. 그들은 독립군운동을 하면서도 슬금슬금 공산주의서적을 탐독했댔소. 우리 처갓집에 가면 방구석에 그 영감들이 보는 책이 디글디글했소. 그래서 나도 심심풀이 삼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퍼그나 인이 배겼소.≫

나는 이광의 손을 덥석 그러잡고 허물없이 말했다.

≪공산주의신봉자를 알게 되어 기쁘오.≫

그러자 이광은 웬일인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내 말을 부정해버렸다.

≪아니오. 나는 아직 공산주의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오. 맑스나 레닌이 제창한 공산주의 원리 가운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개념들이 적지 않았소. 나의 소박한 눈으로 보면 공산주의적인 이상이라는 게 어쩐지 너무 허황하게만 생각되었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주 동무는 좀 섭섭해 할 수도 있겠는데 에두르기가 싫어서 한 말이나 널리 양해해주오.≫

첫 대면이었지만 나는 이광의 그 솔직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그 솔직성이 그의 첫째가는 매력이기도 하였다. 초기의 이광은 이처럼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전환의 도상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길림에 와서 우리와 접촉하는 과정에 완전한 공산주의 신봉자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한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 조직에 망라되지는 않았다. 이광이 길림으로 올 때 학전 3만여 평이 해당되는 토지문서 가운데서 3장을 저당잡히고 400여원의 노자를 마련했다는 자료도 나왔다는데 그 사실여부는 잘 알 수 없다. 학전이란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떼어준 논과 밭을 말한다.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광이 개인소유도 아닌 공유지를 저당잡히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객지로 떠날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 포부가 대단히 컸던 것 같다.

그가 집을 떠나면서 처남에서 남긴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장한 결의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나는 만주벌판과 조선 8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진정한 애국자를 찾고야 말겠다. 이 소망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부모님의 슬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을 맹약하는 바이다.≫

이 결의를 보면 이광의 성미를 잘 알 수 있고 그가 집을 뛰쳐나와 만주의 주요도시들과 정치활동의 중심지들을 발이 닳아빠지게 돌아다닌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이광은 대바르고 깐깐하면서도 궁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중국말도 동북 본토배기들 못지않게 자유로이 구사하였다. 이런 장점은 훗날 그를 십가장, 백호장, 향장의 직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서도 출신인 나는 이광을 통하여 간도의 풍습, 함경도 풍습을 배울 수 있었다. 이광은 길림에 온 후 무슨 까닭에서인지 조직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그것은 길림을 잠깐 동안 들렸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으로 보는데서 온 임시관념의 작용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대신 그가 나와의 거래는 많이 하였다. 나중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와도 범연치 않은 인연을 맺었다. 이광이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은 길림에서 공부하다가 간도로 돌아갈 때였다. 출발에 앞서 나를 찾아온 그는 작별인사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였다.


이광의 가족사진 (뒤줄 오른쪽이 이광)

≪성주, 간도로 돌아갈 때 잠깐 무송에 들려 성주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은데 그래도 일없을까?≫

나는 이광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고마웠다.

≪원, 이광답지 않게 일없을까는 또 무슨 일없을까요.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보는 게지.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럼 동의한단 말이지? 좋소! 내 결심대로 어머니를 만나겠소. 남들이 다 성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서 따르는데 난 아직 뵙지조차 못했으니 세상에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겠소. 왜 성주 어머니가 김혁이나 계영춘이 같은 사람한테만 ≪우리 어머니≫겠소. 나도 어머니로 모시고 싶단 말이오.≫

≪고맙소. 이광! 그러니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됐구만. 나와 이광은 오늘부터 친형제요.≫

≪그렇다면 잔을 찧어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국수라도 나누든가.≫

물론 우리는 잔도 찧고 국수도 나누었다. 이광은 결심대로 무송에 들려 며칠 동안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드리다가 왕청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 그의 가족은 연길현 의란구가 아니라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광이 무송을 떠나간 후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는 이광에 대한 소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성주야. 이광이 오늘 간도로 떠나갔다. 내 그 사람을 송화강 나루터까지 바래주었지. 너를 객지에 떠나보낸 날처럼 마음이 허전해서 일손을 잡을 수 없구나.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싹싹할 수 있을까.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 사람도 나를 친어머니 같다고 하더라만. 내 슬하에 끌끌한 아들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

세상에 낙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낙이 어디 있겠니. 네가 나한테 참 좋은 사내를 소개했다. 글세 이광이란 사람이 철주를 데리고 양지촌에 가서 아버지의 묘에 절을 하고 벌초까지 하고 오지 않았겠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너의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

고 내가 아는 청년들도 여럿이지만 이광이 그 사람처럼 정이 푹푹 들게 처신하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아무쪼록 너희들의 우정이 저 남산 송백처럼 변치 말고 청청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받은 날은 나도 하루종일 들뜬 기분으로 송화강변을 거닐었다. 글줄마다에 차넘이는 어머니의 희열이 나까지도 감염시켰다. 어머니가 기쁘다면 나도 기쁘고 어머니가 만족한다면 나도 만족한 것이다.

이광의 출현이 정녕 어머니를 그렇게도 만족스럽게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최대의 기쁨으로 되는 것이다.

이광이 길림을 떠난 후 나는 우정국으로부터 한 장의 송금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 번 말한 바가 있다. 나에게 학비를 대준 사람들은 대부분 오동진, 손정도, 양세봉, 장철호, 현묵관과 같이 길림시내에 거주하거나 유하, 흥경, 무송, 화전을 비롯한 독립군의 본거지들에 있으면서 정의부 본부에 들락날락하던 아버지의 친구들이었다. 길림시절의 나의 후원자들 가운데는 공청원들과 유길학우회원들도 있었다. 문광중학교에 적을 두고 공청열성자로 활동하던 신영근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의 학비를 보태주었다.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그 당시 어머니의 하루 수입이란 삯바느질을 해서 벌어들이는 5-10전 정도의 보잘 것 없는 돈이었다. 하루 10전씩 버는 때라야 월 3원의 돈을 쥐는데 그 3원이라는 금액은 육문중학교가 제정한 한 달 학비와 맞먹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학비를 보낼 때에도 돈을 절약하느라고 우정국 신세를 지지 않았다. 수공료를 받아서는 한 달 월사금이 될 만큼 푼푼이 모아두었다가 길림으로 가는 인편이 있으며 보내주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정국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인편을 통해 돈을 받는 날이면 나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곤 하였다. 하나는 학비가 왔으니 망신을 면하게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월수입의 전부를 보내주고 집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스러운 감정이었다. 사실 3원이란 돈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한끼 식사비도 될까 말까한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육문중학교의 학생구성을 보면 부잣집 자식들이 과반수였다. 우리가 돈깍지라고 부른 송금 통지서들이 어떤 날은 수십 장씩 학교에 날아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나처럼 송금통지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도 구경조차 하지 못한 평민집의 자식들은 공연히 어깨가 처져서 돌아갔다. 이런 때에 평민가의 자식들 중에서도 그 중 가난한 집의 자식인 나에게 10원의 뭉칫돈이 단꺼번에 굴러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변이었다. 나는 그 송금통지서를 들고 우정국으로 가면서 송금자가 누구이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추리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런 뭉칫돈을 보내줄 만한 친지는 종시 찾아내지 못하였다. 길림시 밖의 다른 지방에서 나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10원이나 되는 목돈이 생길 리는 만무하였다. 혹시 우정국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삭갈려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송금을 내앞으로 돌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런 일은 있음직할 것 같지 않았다. 송금을 받는 사람이 송금자의 이름을 대지 못하면 우정국에서는 돈을 잘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나한테서 송금통지서를 접수한 우정국 사무원은 송금자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순순히 돈을 내주었다. 오히려 내 쪽에서 취급원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간막이 너머에서는 뜻밖에도 ≪이광이요!≫하는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의 나의 놀라움이란 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친구들 가운데는 이광보다 더 가

까운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이광이 길림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다가 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돈까지 부쳐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광의 웅심깊은 성미에 몹시 감동되었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 집과의 거래를 끊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안도에 계실 때 그는 많은 양의 첩약과 돈을 가지고 흥륭촌에 찾아왔다. 그 돈이란 그가 백호장을 하면서 다달이 모아두었던 생활비였다. 이광은 마음씨가 한정없이 고와서 남을 도와줄 때에는 뼝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것을 다 퍼주었다. 이광은 어머니의 곁에 며칠씩 머무르면서 우리 집 살림살이를 돌봐주다가는 왕청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우리 일가의 총애를 받는 단골손님으로 되었다. 남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줄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갚아줄 힘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돈을 돈으로 갚아주자면 우리집 밑천이 너무도 달렸다. 나는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고 민중의 충실한 노복이 되는 것으로써 나의 친지들과 동료들의 배려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광은 1929년 겨울에 나를 만나려고 길돈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1929년 겨울이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였다. 이광으로서는 때를 잘못 선택한 셈이었다.

그 대신 그는 자기가 숙박하고 있던 객주집 접대부 공숙자를 통하여 길림지방 청년학생운동 실태와 그것을 주관해온 지도핵심들의 투쟁방법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하였다. 공숙자는 접대부의 간판을 가진 여자였지만 공청조직의 위임을 받고 길림시로 찾아오는 청년들과 우리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중간다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객주집에서의 해후가 계기로 되어 훗날 그 여자는 이광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다. 이광의 아내 김어린녀는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광은 상처를 하고 난 후에도 두고두고 그 여자를 잊지 못해 하였다. 본처와의 금슬이 좋았던 그는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홀아비로 살려고까지 결심하였다. 김어린녀가 세상을 떠난 후 한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사방에서 많은 혼처들이 줄레줄레 나타났으나 마음이 결백하고 고정한 그는 뭇여인들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광을 만나기만 하면 동무들과 함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고 병약한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장가를 들라고 설복하곤 하였다. 그의 결심을 휘여놓기란 참으로 마른나무를 비틀어서 송진을 짜는 것보다 더 힘에 부쳤다. 이광은 김어린녀의 3년상을 물린 후에야 나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의 두 번째 부인 공숙자는 마음씨가 무던하고 현숙한 여성으로서 뭇사람들이 모두 탄복할 정도로 전처의 자식들을 잘 키우고 돌봐주었다. 전처의 자식들도 그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공숙자 자신은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광은 나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공숙자의 소개로 길림 육문중학교와 길림사범학교에 다니던 운동권 청년들과 친교를 맺었다.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애국역량을 단합시켜야 한다는 것. 애국역량을 단합시키자면 그 기치로 삼을 수 있는 사상과 노선이 있어야 하며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길림조직이 이광의 가슴에 심어준 진리였다. 이광은 이 진리를 받아안고 간도로 돌아갔다. 이광의 길림행은 그의 혁명활동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변이었다. 그는 이 걸음으로 하여 일본영사관 밀정들과 만주경찰의 감시속에 들게 되었으나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따라 용감하게 돌진하였다. 추수, 춘황투쟁은 이광이 길림에서 얻은 진리를 확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그의 세계관은 이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높이에로 또다시 도약하였다. 거주지를 왕청으로 옮긴 다음부터 이광은 북하마탕이라는 곳에서 향장으로 일하였다. 혁명 그 자체가 자기 이상의 전부라고 말해온 사람이 말단 행정기관의 심부름군에 지나지 않는 향장의

벼슬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못 흥미있는 현상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나와 이광과의 상봉은 1931년 12월 명월구에서 다시금 이루어졌다. 이광은 그때 겨울명월구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느라고 사방으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가 좁쌀 배낭에 다섯 마리나 되는 꿩을 얹어가지고 회의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역시 이광답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꿩고기와 닭고기로 꾸미를 한 간도특유의 농마국수는 곱빼기를 청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지경으로 기막히게 맛이 좋았다. 나와 이광은 그 국수를 두 그릇씩 겸상을 하여 배불리 먹은 다음 이청산이네 집 윗방에서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먼저 이광이 우리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극진히 돌봐주고 나의 학비를 보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난 오늘 저녁 국수를 먹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소. 그 꾸미에 깃들어 있는 이광의 수고를 생각하면 사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 길림에서 공부할 때도 동무는 날 데리고 식당으로 종종 가지 않았댔소. 이 신세를 언제 다 갚겠는지 .≫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이광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밀쳤다.

≪신세는 무슨 신세. 난 그저 의연금을 내는 심정으로 성주네 일가를 도와주었을 뿐이오. 성주네 아버지야 한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 아니오. 성주도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왔소. 이런 애국자의 가정에 돈 몇 푼을 보태줬다면 그거야말로 응당한 일이지

신세라니.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 밖에 꺼내지도 마오.≫

그는 짐짓 노하는 체 하면서 손으로 위협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나는 여기에서 이광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의 성격미를 보는 것 같았다.

≪이광이, 너무 그러지 마오. 은혜는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가 뒤따르는 법이오. 내 어머니의 몫까지 합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광이 우리에게 그처럼 진정이 넘치는 후원을 해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나도 그러리라고 짐작했소. 그런데 성주, 나의 그 선행은 우연이 아니오. 계기가 있단 말이오.≫

≪무슨 계기?≫

≪어느 날 성주 어머니는 나에게 성주 아버지와 혼사를 이루던 이야기를 옛말처럼 해주시지 않겠소. 어머니의 말씀이 그 혼사가 이만저만 힘들게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요.≫

≪그 혼담은 나도 알고 있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우리 삼 형제를 앉혀놓고 그 고사를 이야기해주셨소. 그건 참말로 눈물겨운 혼담이였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할 때에 생긴 혼담이니 그것은 아마도 ≪한일합병≫ 전야에 있은 고사일 것이다.

어머니의 집이 있던 칠골과 아버지의 집이 있던 남리는 나지막한 야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7리쯤 떨어져 있었다. 남리에서 평향성 안으로 가자면 반드시 칠골을 지나야 했다. 칠골 사람들도 남포 방면으로 나갈 때는 남리 부근을 지나다녔다. 친교가 깊고 내왕이 잦다나니 두 동네 사람들은 서로 사돈을 잘 맺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남리에서 사윗감을 물색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총각이 다름아닌 우리 아버지였다. 두 집 사이에 매파가 왔다갔다하게 되자 외할아버지는 남리의 아버지네 집에 먼저 와보았다. 그러나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칠골로 돌아갔다. 사위감은 마음에 들었으나 살림살이가 지나치게 궁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처럼 가난한 집에 딸을 보내면 고생만 하게 될 것이라는 위구와 불안이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외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다섯 번이나 우리 아버지네 집에 와보았다. 가난이 원쑤라고 아버지네 집에서는 사돈될 사람이 여섯 번씩이나 다녀가는데도 점심 한 끼 변변히 대접하지 못하였다. 외할아버지는 여섯 번째 만에야 칠골 외할머니와 의논하고 약혼에 동의한다는 편지를 남리에 보냈다.

≪나는 그 혼담을 들은 다음부터 성주네 가계를 더 잘 알게 되었소. 내가 참게사건까지 알고 있다면 성주는 깜짝 놀라겠지?≫

이광이 참게사건이라는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 사건은 우리 가문에서도 어머니나 보현 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과 나만 알고 있는 가정 고사였다.

≪아니, 이광이 어떻게 되어 그 일까지 다 알게 되었소?≫

≪내가 성주네 집안 사람들과 어느 정도로 친숙해졌는지 짐작이 가겠지?≫

이광은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약간 우쭐하는 체 하였다.

내가 참게잡이를 시작한 것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예닐곱 살 때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집안살림에 보탬을 주느라고 참게잡이를 많이 하였다. 대동강의 지류인 순화강에는 참게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참게잡이를 하러 갈 때마다 어째서인지 나를 꼭꼭 데리고 다녔다. 어려서부터 생계를 이어가는 요령을 터득하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부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참게였지만 절구어 먹으면 그것도 별식이었다.

참게잡이는 좀 싱겁다고 할 정도로 공정이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었다.

푹 삶은 수수이삭을 강물에 넣으면 날알냄새에 참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수백마리씩의 참게를 잡아내곤 하였는데 그것을 구럭에 넣어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즐거움이란 실로 한량없는 것이었다. 우리 집의 식생활에서 참게는 큰 보탬이 되었다. 할머니는 집에 손님이 올 적마다 단지속에서 절군 참게를 꺼내어 권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저런 참게를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칠골외가는 끝없이 사랑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의 세계였다. 나는 칠골집 외양간에서 풍기는 구수한 소여물 냄새를 좋아하였고 뜨락의 대추나무가지에서 귀따갑게 재잘거리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언제나 즐겼다. 여름날 밤 모기 쑥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멍석 위에서 듣는 옛말에도 그



칠골집

지없는 애착을 느꼈다. 나의 이모는 내가 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칠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늘 훈계하시곤 하였다. 아마 나를 낳을 때 어머니가 친정집에 얼마동안 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의 출생지를 늘 남리라고 하였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을 때 며칠동안 친정에 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출생지가 칠골로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자가 설사 객지에서 몸을 풀어도 아이의 아버지가 사는 집이 있는 곳을 출생지로 정하는 것이 조상전래의 법도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김보현

어쨌든 나는 외가를 친가에 못지 않게 몹시 사랑하였는데 이 감정이 참게잡이를 하는 순간에도 무시로 발동되었다. 나는 칠골에서 창덕학교를 다닐 때에도 일요일이면 만경대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참게잡이를 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 참게의 절반을 수풀속에 감추고 할아버지에게 구럭을 내드렸다. 할아버지는 ≪오늘은 소득이 신통치 않구나.≫하면서 마리 수가 적은 데 대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체 하였다.

사실 제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내가 할아버지에게 외갓집에 갖다주려고 절반 몫을 남겨놓았다고 진상대로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실토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는지 언짢아하시겠는지 가늠이 가지 않아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집까지 구럭을 들어다드린 다음 다시 순화강가에 나가 수풀속에 숨겨놓았던 참게를 구럭에 담아 들고 칠골로 냅다 뛰었다. 외가사람들은 성주 덕에 오늘은 게추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나는 그 참게는 보현할아버지가 잡은 것이니 인사를 하려면 만경대 할아버지에게 하라고 하였다.


강돈욱
외할아버지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만경대에 왔다가 보현할아버지에게 참게 자랑을 하였다. 사돈덕으로 참게를 먹었는데 별맛이더라고 하면서 그 전말을 다 이야기하였다.

보현할아버지는 앉은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인사를 받고 어리둥절해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흐뭇해하였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한테서 속궁냥이 깊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광이 알고 있다는 참게사건이었다. 가난만이 빚어낼 수 있는 일화이고 인정세태극이었다.

그런데 이광은 인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 일화를 소화한 것 같았다.

≪나는 혼담 이야기와 참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성주네 일가를 동정하기 시작했소.≫

이광의 말이었다.

나는 그 설명속에 담겨져 있는 이광의 사려깊은 마음씨에 완전히 감복되었다.

≪이광이, 향장을 하는 재미가 어떻소?≫

이것은 내가 중부 만주지방에 있을 때부터 알고 싶었던 문제였다. 그 당시 동만에 파견되었던 공작원들이 간도지방에서 보내온 통보자료에 바로 내가 가장 관심하고 있던 사업대상 중의 한 대상인 이광이 왕청에서 향장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던 것이다.

이 광은 나의 물음에 미소부터 지어보였다.

≪고달프긴 하지만 소득이 괜찮소. 지난해 가을에 우리 동무들이 하마탕에서 보위단에 붙잡힌 일도 있는데 그때도 내가 보증을 서서 그 사람들을 구출했댔소. 향장의 간판이 은을 낸 셈이지.≫

그는 농담으로 만일 허락만 한다면 자기는 종신 향장을 할 의향도 있노라고 하였다. 내가 고향자랑을 자꾸하자 이광은 이런 농까지 하였다.

≪만경대가 그런 절경이라면 나도 독립된 다음 가족을 데리고 성주를 따라가겠소.≫

≪종성은 어떻하구? 고향이 종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을 붙이면 아무데나 고향이지 뭐 태어난 고장만 고향이겠소? 어쨌든 내가 가면 소학 훈장자리나 하나 잡아주구려. 성주는 교장을 하고 나는 그 밑에서 교사로 일해야지.≫

≪이걸 어쩐다. 난 소학훈장이라면 질색인데 ≫

≪그런 말 마오. 저기 안도인가 고유수인가 하는데서 교단에 선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아버님도 다년간 교편을 잡던 분이시었다는데.≫

우리의 우정은 별동대를 조직하던 나날들에 더 두터워졌다. 이광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로 찾아온 것은 그가 우리의 권고대로 왕청에서 별동대를 조직한 직후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청년들에 대한 구국군의 적대적 행동으로 하여 왕청동무들은 그 당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준비에서 커다란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이광은 별동대를 조직한 다음에도 그 활동방향을 결정짓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나는 그때 그에게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해주고 그와 함께 별동대의 활동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이광은 나의 건의를 허심하게 받아들였다.

좁쌀에 수수쌀을 섞은 밥과 된장국, 마른 산나물채가 고장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광을 극진하게 환대해주었다. 이광도 우리 어머니를 몹시 따르고 존경하였다. 어머니의 육친적 사랑은 이광을 감동시켰고 이광의 청춘다운 열정과 순박한 품성은 어머니를 만족시켰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 것은 이광이 흥륭촌에 와 있을 때였다. 병상에서 일어나 철주와 함께 유격대오를 찾아온 어머니는 이광이 메고 있던 총을 만져보면서 이런 총을 가져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 독립군처럼 닭다리 같은 총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일본놈의 군대를 쳐부수겠나, 너희들이 군대를 만들고 총 멘 것을 보니 평생을 두고 쌓인 한이 다 풀린다. 너희 어머니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어머니들은 자식이 머저리 구실을 하거나 몹쓸 짓을 하면 가슴이 아파 울지만 나라를 위해 총을 메고 싸움에 나선 아들들을 보면 장해서 눈물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가서 구국군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우리가 안도에서 우 사령과의 합작을 성공에로 이끈 것은 반일부대공작의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시초의 반일부대공작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많은 구국군 부대들이 우리와의 반제공동전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구국군 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주패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그런데 좌경이 이 통일전선을 방해하였다. 그들에 제창한 ≪상층타도, 하층쟁취≫의 모험주의적 구호는 반일부대 상층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고 적지않은 구국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거나 탄압학살하

는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이런 때에 이광이 반일부대 공작에 뛰어든 것은 어느모로 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광은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위하여 거주지도 북하마탕으로부터 태평구로 옮겼다. 그때 나는 태평구에 있는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300호 가량의 농호를 가진 태평촌은 지리적으로는 소왕청, 요영구, 노흑산을 연결하는 삼각지점의 중심에 놓여있는 마을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소만국경이 있었다. 이 동네에서 나자구까지는 20-30리 가량 되었다. 구국군의 중요 집결지들이 다 태평구 가까이에 있었다. 이광이 지휘한 별동대의 주둔지는 나자구 시내에서 5리 가량 떨어진 쟌창거우였다. 이광의 집은 태평구 본부락 강기슭의 오르막 경사지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집 옆에 있던 용드레우물이다. 그래서 이광이네 집을 용드레집이라고 불렀다. 내가 이 우물에서 물을 여러 번 마셨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앞에 나타나면 이광이 용드레우물에서 찬물을 한두레박 떠가지고 와 나에게 권하곤 했는데 그 물이 별맛이었다. 나는 나자구에 갈 때마다 태평구에 들려 이광의 부모들에게 꼭꼭 문안인사를 드리곤 하였다. 우리가 주보중, 진한장, 호진민, 왕윤성 등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구국군과의 통일전선문제를 토의한 마지막 반일병사위원회도 이광의 집에서 하였다. 이광은 소왕청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대소 전투들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높은 수완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발휘한 실천적 모범은 구국군병사들을 감화시켰으며 군사정치일군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동만의 광범한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별동대를 반만항일의 진정한 무장력으로 신임하게 된 오의성은 이광을 구국군전방사령부 보위대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경위대원들까지 붙여주었다. 그 후 이광은 구국군과의 연합항일을 위하여 동산호와 연계를 가졌다. 반일을 한다고 무장을 들기는 하였으나 동산호는 이미 토비로 전락된 자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적잖은 사람들은 토비와 마적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만주지방에는 예로부터 마적이 많았다. 청나라 말기에 관내로부터 많은 한족들이 산해관을 넘어 만주지방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 이주민들의 침습으로부터 농토를 지키고 조상전래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자위적인 무장대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일본사람들이 마적이라고 명명한 만주에서의 의적의 시작이었다.

마적단은 ≪산적≫이나 ≪유적≫과 같은 잡스러운 도적떼와는 달리 자기식의 법도를 갖춘 의적으로 행세하였으며 남의 재물에 대한 강도, 강탈행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마적사회는 중앙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권력에 대하여 저항적이었다. 마적생활은 무장을 떼어놓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장을 휴대하고 살아왔다. 그런 생활은 사람들속에서 일종의 부러움과 동경심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여표남비≫라는 말이 만주지방에서 공연히 유행되었겠는가. ≪여표남비≫란 여자는 창녀가 되고 남자는 비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적사회의 엄격한 법도가 물론 어느 때나 다 존중시된 것은 아니었다. 적잖은 마적부대는 생존과정에 부패타락하여 토비로도 되었다. 어느 것이 의적이고 어느 것이 토비인지 정체를 똑똑히 판단할 수 없는 성격이 모호한 마적단들도 있었다. 적잖은 비적들은 의적으로 행세하였다.

의적의 탈을 쓴 비적떼들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군벌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수이용되어 무지막지한 살육을 감행할 때 그 피해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반일부대공작 과정에서 발로된 좌경분자들의 ≪상층타도≫전략으로 하여 많은 구국군 지휘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감에 사무쳐 있을 때 그것을

재빨리 포착하고 반일역량의 내분에 이용한 것은 일제의 모략가들이었다. ≪이이제이≫나 ≪이비정비≫는 모략의 능수이고 이간의 명수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손을 빌어 반일역량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어뜯어 지리멸렬케 하는 악명높은 수법이었다.

일제는 동산호가 이광 별동대를 전원 참살할 때에도 이 수법을 적용하였다. 그 첫 작업으로 이광에 대한 귀순공작에 달라붙었다. 이광을 잡으면 많은 상금을 주며 이광 자신이 귀순하면 높은 벼슬을 준다는 오만무례한 통첩장이 사방에 나붙었다. 오의성의 부대를 와해시키자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막아야 하는데 그 영향을 주입하는 장본인이 이광이라고 그들은 단정하였다. 이광의 별동대는 구국군의 심장부에 깊숙이 들어박힌 통일전선의 돌격대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만하면 일본 정탐기관들이 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토비의 전형인 동산호는 정치적으로 암둔한데다가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자여서 일본의 모략가들에게 쉽게 매수당하였다. 이광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일제가 자준 각본대로 노흑산에서 연합작전 문제와 관련한 담판을 하자고 미끼를 던졌다. 실책은 이광이 이 미끼를 덥석 받아문 것이었다. 그는 동산호가 일제의 개로 전락된 사실을 모르고 구국군 전방사령부 비서장 왕성복을 비롯한 10여명의 별동대원들과 함께 노흑산으로 떠났다. 당조직에서는 동산호와 같은 무지막지한 토비대장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광은 반제공동전선노선을 관철하지 못하면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못하는데 신변이 위태롭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끝끝내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동산호는 연회까지 차려 이광 일행을 대접하고는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살아서 돌아온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토비들은 이광이네 일행이 다 죽은 줄로 알고 학살현장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달아났는데 우리가 가서 구원해주었다. 그런데 그도 훗날 나자구와 노흑산 사이의 수림지대에서 전사하였다.

이광은 당년 29살의 청춘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의 잘못은 경각성이 없은 것이었다. 동산호와 통일전선을 하려면 사상적으로 그들을 개조시켜야겠는데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노흑산 부근의 산막에서 붙잡혀 학살당하였다.

나는 이광의 죽음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의 감정을 지배한 것은 부대를 데리고 가서 동산호 일단을 당장 요정내고 싶은 복수심뿐이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이룩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시대적 의무이고 과제이며 총전략이라는 이성의 목소리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런 감정의 분출을 자제하지 못하고 유혈적인 복수전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온 동만이 동산호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절규하며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었다. 좌경망동분자들은 군대가 출동하여 이광을 참살할 계급적 원수들에게 쓴맛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유격대가 동산호를 치지 않는 것은 우경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제공동전선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업은 이광의 희생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1000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동지를 잃었다. 적들은 내 곁에서 조선혁명을 떼메고 나갈 또 하나의 동량지재를 앗아간 것이었다.

나는 살점을 사정없이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오열을 참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항일전쟁을 시작한 지 한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벌써 내 곁에서 떠나갔는가. 어찌하여 나의 친구들은 정들기 바쁘

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세상으로 이렇게도 총총히 가버리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숙명이란 말인가.

나는 주먹을 부르쥐고 이광과 함께 항일대전의 전략을 의논하던 소왕청하의 기슭을 정처없니 거닐면서 나를 끝없는 슬픔의 심연속으로 몰아넣는 운명의 무자비한 처사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그리고 결심하였다.

이광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이광이 그토록 많은 노고와 정력을 바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킨다면 그도 지하에서 기뻐해 마지않을 것이 아닌가.

이광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오의성과의 담판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 죽음은 나를 통일전선의 길에서 물러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더는 후퇴할 수도 움직일 수고 없게 바짝 접근시켜 놓았다.

오의성을 찾아가자! 오의성과의 담판에 성공하면 이광의 원한을 풀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자구에로 백일행군을 다그쳤다. 이광의 가족을 만나 조상이라도 하려고 태평촌에 잠깐 들렸더니 그의 부인 공숙자가 두 팔을 벌이고 나를 막아나섰다.

≪장군님, 그리로 가시면 안됩니다. 거긴 장군님이 가실 데가 아닙니다. 애아버지도 그러다가 장군님 부탁입니다.≫

눈물에 젖은 그 부인의 애절한 호소가 나의 백인행군을 재촉해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부인은 7-8살쯤 됨직한 사내애를 품에 꼭 끌어안고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소리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애가 바로 이광의 아들 이보천이었다.

그도 눈물이 글썽해서 나를 빤해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나타날 때면 토방돌앞에서 놀다가도 매번 ≪성주 삼촌!≫하고 부르며 사립문 밖으로 뛰어나오곤 하던 이보천이었다. 언제인가는 그가 나한테 매달려 풀메뚜기를 만들어달라고 성가시게 군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노상에 뛰어나온 이보천을 보니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저 애가 이전날처럼 내 몸에 칭칭 휘감기며 풀메뚜기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금 떼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용기마저 없다면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던 지난날의 철부지답게 내 어깨를 디디고 올라가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기만이라도 한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까.

그런데 보천이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뚤렁뚤렁 떨구고 있었다. 내앞에는 푸접이 좋고 양기가 발발한 장난꾸러기 이보천이 아니라 칠색무지개 같은 동요시절과 결별하고 새로운 고뇌의 세계에 앞질러 뛰어든 침울하고 소심한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 어린것에게서 풀메뚜기를 탐내던 낭만의 세계를 완전히 앗아갔다. 그러고보면 보천이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양친을 다 잃은 것으로 된다.

보천이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연약한 넋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변만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이보천의 얼굴을 속절없이 굽어보았다.

≪보천아, 잘 있거라. 내 이제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 돌아오마.≫

내 입에서는 하마터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와는 비슷하지도 않은 말로 어린 보천에게 청을 하였다.

≪보천아. 이 삼촌은 지금 목이 말라서 못 견디겠구나.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냉수를 권하곤 했는데 오늘은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 한사발 떠다주지 않겠니?≫

몽상에 잠긴 듯하던 이보천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돈 것은 그 순간이였다. 그는 바람처럼 집으로 사라졌다가 놋대접에 용드레우물의 물을 퍼담아가지고 다시금 바람처럼 내앞에 나타났다. 이 별치 않은 움직임은 그의 기분상태를 일변시킨 듯싶었다.

놋대접속에서 출렁거리는 물을 보니 새삼스럽게 이광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자그마한 수면 위에 이광의 얼굴과 보천의 얼굴이 겹쳐 그려질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뻔하였다.

나는 어린것의 성의를 생각하여 대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 보천이는 코 밑을 훔치고 나서 대접을 들고 정다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대오에 출발구령을 내렸다.

그런데 내가 작별인사를 하려는 그 순간 보천이는 갑자기 집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보천이는 사라질 때와 같은 속도로 쏜살같이 행길에 되돌아와 나의 백마에게 한줌의 귀밀을 권하는 것이였다. 그 말없는 행동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놓게 하고야 말았다.

우리가 강을 건너 멀리 갈 때까지도 보천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변에 그냥 서 있었다. 말안장위에 앉아 고개를 돌리니 그 애의 모습이 하얀 점으로 아물거리고 있었다.

≪보천아, 너도 크거들랑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을 해야 한다!≫

나는 멀리서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며 마음속으로 보천이의 장래를 축복하였다. 그 후 유격구를 해산하고 제2차 북만원정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는 이광의 집에 일주일 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공숙자와 함께 보천이의 장래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 보천이가 후에는 나의 염원대로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임구에서 철도노동을 하던 그는 일제의 군수열차를 습격하다가 발각되어 두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것은 그가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있은 일이였다. 해방과 함께 감옥문을 나선 이보천은 할아버지의 태가 묻힌 조국의 땅과 하늘과 물이 그리워 그 해 가을 단동을 거쳐 평양, 서울까지 밟아보고 나서 다시 임구로 돌아갔다. 그 여행은 20살의 다감하고 전도양양한 청년 이보천의 마음속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는 조국에서 건국의 불도가니속에 심신을 깊이 잠그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압록강 철교를 건너갔다. 그 조국에는 아버지가 바라던 새 세상이 있었고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목마르게 기다리고 꿈꾸던 낙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다섯 해 후에는 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청소한 공화국은 자기의 존립을 위하여 결사적인 싸움을 벌였다.

수천 리 밖에서 그 초연내를 맡은 중국인민해방군 중대장 이보천은 용약 조선전선에서 탄원해 나와 인민군대에 편입하였다. 그는 한 기계화사단에서 지휘관으로 싸우다가 1950년 가을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이광의 불같은 생애와 혁명활동을 남다르게 깊이 파악하고 있던 **김정일**조직비서는 1970년대에 영화창작가들에게 과업을 주어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게 하였다. 그때부터 이광의 이름은 온



예술영화 –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나라가 다 아는 이름으로 되였다.

이광의 부인 공숙자는 유격대오에서 재봉대원으로 투쟁하다가 희생되였다.

아들의 희생에서 오는 슬픔을 혁명군 원호의 열의로 메꾸던 이광의 아버지 이주평과 누이 이봉주는 적들의 고문에서 생긴 어혈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보천이 우리의 곁에 아들을 하나 남기고 전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아들이 지금 총대를 틀어잡고 할아버지네 세대가 개척한 길, 그 뒤를 이어 아버지네 세대가 넓혀온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고보면 이광이네 일가는 3대가 혁명군대에 복무하는 것으로 된다. 한 가문이 3대에 걸쳐 총을 잡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광의 손자가 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은 입은 것은 대단히 장한 일이다.

얼굴도 몸가짐도 걸음걸이도 모두 할아버지를 닮은 젊은 군관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60년 전에 우리 곁은 떠난 이광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만 같아 가슴 뭉클해지는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보천의 아내가 장장 40년이 지나도록 그 아들 하나를 믿고 꿋꿋이 키워 이광의 대를 잇고 그의 혁명정신을 잇게 한 것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보천의 아들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물론, 자기의 아들딸들도 군복을 입고 나와 **김정일**원수를 위해 대를 이어가는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나는 그 결의가 빈말공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광이네 가문은 빈말을 하지 않는 집안이다.

이광이 만일 살아서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왔더라면 무슨 일을 하였을까?

나는 지금도 종종 이런 가설을 세워보곤 한다. 이광의 사회활동은 물론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였고 그가 겨울명월구회의 때 이청산이네 집에서 표명한 이상도 교단에 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해방된 조국에 살아서 개선하였더라면 강건이나 최현이처럼 군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려운 초소를 골라가며 일생을 산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였다.

2. 오의성과의 담판


오의성

투쟁무대를 왕청으로 옮긴 후 우리의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장 큰 난문제의 하나는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생긴 심각한 대립이었다. 일제의 집요한 이간책동과 반일부대 두령들의 빈번한 동요, 소비에트 좌경노선의 해독적인 후과로 하여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관계는 1933년에 들어와서 다시금 교전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9.18사변 후부터 만주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 막대한 정열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 노력을 결실로 초기에는 왕청유격대를 일방으로 하고 관영장부대를 타방으로 하는 두 무력이 힘을 합쳐 1932년 봄에 덕골에서 일본수비대의 침공을 격퇴한 것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그때 대두천의 일본군수비대는 국민당시절에 해놓은 목재를 실어가려고 수십 대의 마차를 끌고 덕골 방향으로 나왔다. 대왕청, 소왕청골안에는 목재가 무진장하게 쌓여 있었다.

이날 아군은 유인매복전으로 40-50명이나 되는 일본수비대 병력의 대부분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였다.

덕골전투는 반공풍조가 뿌리깊이 스며 있는 왕청 일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협동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를 지어주었다. 이 전투는 공산주의자들이 구국군속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덕골전투가 있은 후 김은식, 홍해일, 원홍권, 장룡삼, 김하일 등은 관부대에 입대하였다.

명사수인 김하일은 교통원으로 임명되었고 지식분자인 김은식은 인차 참모장이 되었다.

덕골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마촌군중들은 이전날과 다름없이 관부대장병들의 옷을 빨아주었고 칫솔, 치분, 비누, 수건, 담배쌈지와 같은 선물들을 정성껏 마련해 보냈으며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위문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공청원들은 선전문과 삐라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였다.

구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퉁즈≫(동무)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관 부대의 장병들은 혁명군 대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퉁즈≫라고 불렀다.

그 부대에 들어간 동무들은 모두 구위 이상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구국군장병들과의 사업을 아주 능숙하게 하였다. 관영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인품과

능력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을 쟁취한 것은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훈춘지방의 항일유격대는 구국군 부대들과 정보교환까지 하였으며 지어는 주구청산도 공동으로 하였다. 연통라자유격대는 구국군이 원호한 총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진공적으로 달라붙으면 구국군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저질러놓은 《김명산사건》으로 하여 모처럼 이루어진 반일부대들과의 우호관계는 영으로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관영장이 흰기를 들고 일제를 찾아가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냈으며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격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에서는 최현부대가 귀순하는 반일부대 병사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구국군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최현

왕청유격대는 초기에 구국군과의 관계에서 실책을 많이 범하였다. 대대를 책임진 양성룡은 몇 자루의 무기에 현혹되어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는 품성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유능한 지휘관이였지만 군사실무주의와 모험주의에 빠져 통일전선을 홀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룡을 되게 비판하였다.

관영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항일유격대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견지한 것은 우리 영향을 많이 받은 코산부대였다. 그 부대는 1933년 5월 단오날 박두성이 인솔하는 잣더기(현재의 태평촌)자위대와 연합하여 동녕현성에 기지를 두고 동남차를 거쳐 십리평으로 쳐들어온 3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수비대와 위만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구국군이 망원경계를 무시하고 문전보초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반일자위대는 코산부대의 망원보초까지 서주었다. 코산은 다른 반일부대들에 지급으로 중요한 연락을 보낼 때에도 십리평의 반군사조직들에 곧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면 소선대원들이 반일부대 병사들을 대신하여 책임적으로 통신을 전달에 주었다.

그러나 이런 우호 관계가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하였다. 유격구역을 휩쓸고 있던 좌경망동 바람은 코산과의 이 동맹관계마저 깨뜨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좌경시책은 어젯날까지 동맹관계에 있었거나 동정적인 관계에 있었던 반일부대들의 부패변질을 앞당긴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양성룡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중국인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극좌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구국군과는 하층통일만 해야 한다》느니, 《구국군병사들로 하여금 자기 두령을 죽이고 반변해 나오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주, 자산 계급인 장관들을 타도하라!》, 《병사들은 반변을 일으켜 유격대로 넘어오라!》는 구호를 망탕 고창하였다. 이런 구호는 반일부대와의 상층통일을 파괴하는 해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일부대는 조선사람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여 죽이고 《로꼬리 궁찬

당≫이라고 하면서 죽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를 벌였다. 그들은 만주를 강점한 첫날부터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항일의 기치를 들고 떨어져 나온 구국군 부대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일제가 여기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유격대와 구국군의 연합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만일 구국군 부대들과의 합작을 실현하기만하면 그것이 곧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와 대륙침략을 방해하는 무서운 힘으로 되어 저들의 숨통을 조이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의 이간솜씨는 벌써 만보산사건과 용정사건(조작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였다), 무순사건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일제의 첩보모략기구는 조중인민의 선린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금수나 돌부처도 낯을 붉힐 무순사건이라는 살인극도 서슴없이 조작하였다.

무순사건이란 일본의 첩보기관이 한 일본인에게 단도를 주어 무순에서 아무 죄도 없는 중국사람을 살해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모략가들은 그때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죽이고 도주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자객에게 두루마기를 입히고 조선사람으로 변장시켰다. 살인은 성공하였으나 자객이 입고 갔던 두루마기밑에서 일본옷이 발견되고 그가 일본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무순사건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사건들을 확대하면 유조구사건도 되고 노구교사건으로도 된다. 일본이 어떤 모략을 꾸밀 때 적용하는 방정식은 이처럼 유치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잖은 사람들은 가짜를 잘 날조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법 때문에 노상 골탕을 먹으면서도 그 가짜에 쉽게 속아넘어가곤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조선사람이 만주를 빼앗으려 한다≫, ≪공산당은 구국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고 선전하는 한편 ≪민생단≫에 망라된 반동분자들을 내세워 ≪간도 조선인자치구≫와 ≪조선법정자치정부≫의 수립을 골자로 하는 조선인의 간도자치를 부르짖게 하였다. 때로는 중국사람들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조선유격대가 한 짓이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파국에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은 일제의 악랄한 귀순공작과 그에 따르는 반일부대 두령들의 항일의식의 변질에 있었다.

1933년 1월에 훈춘현 토문자에 주둔하고 있던 왕옥진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그 중 수백 명에 달하는 역량이 우리를 반대하는 임시유격대로 개편되었다. 2월에는 소왕청에 있던 관 부대의 반수가 귀순하여 만주국 보위단과 공안국에 채용되었으며 같은 달 대황구 근처에서 출몰하던 마계림부대 장병 수십명도 전향하여 하마탕자위단에 합류하였다. 왕청현 이차자구의 강해부대와 화소포의 청산부대 장병들도 귀순을 신청하였다.

일제는 노흑산 일대에 웅거하고 있던 악명 높은 토비대장 동산호를 매수하여 이광의 별동대를 전원 참살하게 하였다.

유격대는 구국군의 행패가 두려워 밤에만 행군하고 낮에는 행군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사람이 살아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다

시급 상정되었다.

나는 용단을 내려 구국군전방사령인 오의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왕덕림이 간도 땅에서 떠나가버린 후 구국군의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다. 오의성을 잘 설복하면 ≪김명산사건≫과 이광별동대참살사건으로 하여 동만땅에 동만 땅에 빚어진 유격활동의 경직상태를 종식시키고 우리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이 생겼다.

나는 오의성과의 담판을 성사시키지 위하여 반성위와 함께 진지한 의논을 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결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긍정해 주면서도 오사령한테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중국사람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조선사람이 가서는 오의성과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을 휘여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성위는 오사령이나 채사령을 돌려세우자면 그의 배후에서 모사노릇을 하는 이청천이 작간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진한장

나는 반성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장애가 있든 가야겠다고 고집하였다.

≪이청천도 조선사람인데 반공분자이긴 하지만 설복을 잘하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지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구면입니다. 길림에서 3부통합회의를 할 때 그와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청천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구면, 초면이 무슨 상관이 있소? 그런 사람들이 뭐 구면, 초면을 가리는 줄 아오? 게다가 오의성은 벽창호라지 않소. 승산이 없거든.≫

반성위는 나의 모험을 저지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에겐 안도에서 우사령을 설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사령을 돌려세웠는데 오의성이라고 왜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우사령과 담편을 할 때는 유본초선생이 참모장으로 있지 않았소. 그게 좋은 배경이었단 말이오.≫

≪그런 배경은 오의성부대에도 있습니다. 진한장이 거기서 비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장을 하는 호진민도 공작원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만 자가당착에 빠졌다. 내가 든든한 배경이라고 역설한 진한장한테서 얼마전에 결정적인 응원을 바란다는 요청의 편지가 왔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오사령과의 동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되었다고 전제를 둔 다음 ≪**김일성**동지가 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조직에서 가급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반성위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다.


반성위

≪혁명의 전도가 아직 요원한데 그렇게 모험을 해서야 되겠소? 제발 심사숙고해 주시오.≫

반성위는 끈덕지게 나를 설복하였다.

≪자기의 몸을 개인의 몸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소. 자칫하면 제2의 이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가 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동무들만은 살아서 끝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줘야 할 게 아니오!≫

반성위의 그 말은 나를 적이 감동시켰다. 그러나 나는 공동전선의 대망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반성위가 훈춘현으로 떠난 다음 동만의 각현에 있는 유격대 대표들은 왕청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통일전선 문제를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중심을 이룬 안건은 구국군과의 동맹문제였다. 이를테면 오의성, 채세영, 사충항 등의 구국군이 집결되어있는 나자구에 누가 담판을 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나는 구국군의 집결처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회의는 호위성원이 100명 정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나의 나자구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의성을 찾아가는 경로가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의성과 담판하자면 먼저 진한장이나 호진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정부터 요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오의성의 비서장인데다가 고정한 사람이어서 사무실에만 배겨있었지 밖에 잘 나다니지 않았다. 설사 밖에 나온다고 하여도 조선사람들과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전날 내가 관여하던 공청조직의 성원이었고 또 그때 서로 맹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편지를 쓰고 뒤이어 오의성과 채세영에게도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나자구로 가는 취지를 밝혔다. 발신인 이름 옆에는 격을 갖추느라고 네모나게 생긴 큼직한 도장도 찍었다.

편지를 발송한 다음 나자구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해 오의성부대의 동태를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았다. 나자구의 지하조직들은 구국군이 시내 입구에 ≪조선인 반일유격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붙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나는 선발된 1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나자구로 떠났다. 새 군복을 입고 새 총에 새 가죽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가는 우리 부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인솔하였다.

태평구에 도착한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나자구 입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의성 부대에 전령병을 파견한 다음 거기서 회답을 기다리며 하룻밤 유숙하였다.

다음날 나자구에서 담판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오사령이 이처럼 담판에 응해나서기까지에는 진한장의 보증이 큰 힘을 냈다. 내 편지를 받고 오의성에게 자기가 **김**대장을 아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오의성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인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잘 아는가? 너도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진한장은 **김**대장이 동창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 지가 퍽 오래다고 하였다.

≪너의 동창생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봐야 하겠다.≫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1개 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자구시내로 들어갔다.

유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한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담판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이성림도 목갑싸창을 차고 진한장을 따라갔다. 지휘부에는 국민당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오의성은 수염을 길게 드리운 풍채좋은 사나이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호랑이 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도 하고 차도 마시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소

문을 들었는데 그날은 격식을 차려 깍듯이 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중국식 예절만은 지키지 않았다.

나는 첫인사로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많은 부대들이 일본군에 투항할 때 사령님네 부대가 항일에 나선 것을 애국적 장거로 높이 평가합니다.≫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오의성을 그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를 짓고 부관을 시켜 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내 **김**대장이 일본놈과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당신네 군대는 수가 적으면서도 일본놈과 잘 싸우는데 우리는 수더구가 많지만 당신네들처럼 일본놈과 잘 싸우지 못해. 우리 사람들한테서 들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군대들이 알쭌히 새 총을 메구 왔다는데 그걸 몇 자루 우리한테 있는 낡은 총과 바꾸지 않겠소?≫

담판은 오의성의 이런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사치고는 아주 까다로운 인사였다. 한쪽으로는 추어올리고 한쪽으로는 응해나서기 곤란한 흥정을 붙여 상대방의 속을 떠보려는 오사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쓴밥 단밥 다 먹어본 외교의 능수이고 능구렁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전방사령이 새총 몇 자루가 탐나서 예의도 없이 첫 대면에 그런 주문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바꿀 게 있나요. 그런 것쯤은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사령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넌지시 꼬리를 달았다.

≪그거 뭐 궁색하게 그런 놀음을 할거나 있습니까. 일본군대와 한바탕 싸우면 될 터인데. … 정 요구한다면 그까짓 거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오의성은 수염을 내리쓴 다음 다른 각도에서 또 들이댔다.

≪그런데 당신네 거 공산당이란 건 무엇인가? 저 진한장이란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난 통 믿을 수가 없거든. 주보중도 공산당인데 내 고문으로 있을 때 보니까 무얼하는지 꾸물꾸물하는게 마음에 안 들더군. 그래서 그 사람을 쥐내깔렸지.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상공당도 마스고 다닌다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상공당을 마스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꾸며낸 선전이지요.≫

≪그럼 **김**대장도 상공당에 절을 하오?≫

≪난 상공당을 마스지도 않고 또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절도 하지 않지요. 그래 오사령은 절을 하는가요?≫

≪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절을 안하는 거나 오사령이 절을 안하는 거나 같고 같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힌 오의성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까처럼 또 수염을 쓸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한 이불밑에서 자고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나는 담판의 성패여부가 이 대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오의성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던진 미끼를 재치있게 받아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 꾸며낸 선전이지요. 공산주의 물을 잘못 먹은 몇몇 사람들이 지주의 땅이라면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지주라는 것들이 소작인들이 굶어

서 죽어가는데 선심이라도 써서 먹을 것을 주어야지 저만 잘 살겠다고 아닌보살을 하니 이게 도리가 됐는가요? 지주들이 식량만 주면야 무엇때문에 들고일어나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살길이 막히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옛날 중국에도 태평천국이라는 난리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돼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의성은 동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럴 듯한 말이오. 한참 국란이 심한 때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나쁜 놈이지.≫

나는 내친 김에 계속 공세를 들이댔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이불을 쓰고 잔다는 것도 공산당을 모욕하느라고 일본사람들이 꾸며낸 소리입니다. 우리 유격대에도 여자들이 많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부부간이 될 수는 있구요. 우리는 남녀간의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한 여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일이야 없겠지.≫

≪물론이지요. 우리 공산당처럼 청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간 다음부터 오의성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면서 시까스르려는 말투를 거두어들였다.

≪하하, **김**사령이 나를 공산당으로 만들자구 한다.≫

≪오사령을 공산당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공산당이란 건 누가 시켜서 되는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의성은 신경질적으로 팔을 홱 내저었다.

≪우린 따로 하면 했지 공산당과 합작은 안하우!≫

≪그래도 힘이 부족한 때에야 합작해서 일본놈과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글세 난 공산당 신세는 안 진다니까.≫

≪사람의 전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신세를 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두 그럴 듯한 말이오. 사람의 전도야 정말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김사령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자잘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의성은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고나서 내 쪽에서 주춤거리는 눈치를 좀 보이자 깨고소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때 정말 자잘리란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오사령이 나를 골탕먹일 수 잇는 만점짜리 문제를 내던진 것이었다.

쟈잘리란 한집안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의 ≪청홍방≫이라는 조직이다. 운하를 파고 배를 끌던 노동자들이 생활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황제를 반대하여 내어온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네것내것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조직이었다.

결의형제를 무으면 형님, 동생 사이가 되지만 쟈잘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다. 쟈잘리에는 아버지 될 사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될 사람이 아버지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

쟈잘리는 문별이 높은데 들수록 위풍이 있고 권한도 있었다. 쟈잘리에 들어가자면 식을 해야 했다. 우리의 지시를 받고 제24대 항렬의 쟈잘리에 들어갔던 김재범

(김평)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식이 볼만하다고 하였다. 새로 쟈쟐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될 사람과 선배들한테 절만도 몇십몇백 번 해야 했다.

이런 조직에 나를 들라고 하니 야단이었다. 싫다고 거절하면 모처럼 잘되어가던 담판이 파탄될 것 같고 들겠다고 동의해 나서면 당장 부처님앞에 끌고가서 절을 시킬 판인데 그것은 오의성한테 코를 꿰어다닐 길을 스스로 닦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담판준비를 할 때 이런 정황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이 자리는 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사령하고 같이 쟈쟐리에 드는 것은 뜻이 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직에 드는 것은 당조직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조직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그만둡시다.≫

≪하하, 그럼 그 쪽은 절반짜리 사령이지 옹근 사령은 아닌게로구만.≫

오사령은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였다.

≪**김**사령, 그래 술은 마시는지?≫

≪마시기는 좀 마시는데 혹 실수하여 반일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지요.≫

≪당신네 공산당은 괜찮아. **김**사령네 하구는 합작하구 싶은데 맑스의 물을 먹을까봐 걱정이거든. 우리 사람들한테 공산당 선전을 하는 건 나빠.≫

≪사령, 그건 염려마시오. 우린 공산당 선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항일선전만 하겠습니다.≫

≪당신네 공산당은 공산당치고는 양반공산당이군! 그런데 왕청공산당이 관영장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건 잘못이야. **김**사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뭐고가 있습니까. 그거야 실책 중에서도 제일 엄중한 실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에 왕청별동대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김**사령은 참 공정한 군사가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하는 일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른 데가 없다고 하지 않겠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공산주의자들도 사람들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나도 이따금 실수를 합니다. 그건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라면 잘못을 범할 때도 종종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수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실책도 적을 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소. 일을 안하는 건달뱅이들한테야 실수라는 것두 있을 수 없지. 공산당이 일을 많이 해. 그건 우리두 인정하는 거구. 어쨌든 **김**사령하구는 말할 재미가 나거든. 솔직해서 의사소통이 잘된단 말이오.≫

오사령은 이런 말로써 담판을 일단락 지은 다음 내 손을 다정스럽게 잡았다 놓았다. 담판의 성공은 확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진한장이 **김**사령의 친구라는데 이 사람이 글솜씨를 가지고 자기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가 없으면 자기는 눈뜬 소경과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하였다.

오의성은 나에게 호진민을 아는가고 물었다. 안다고 하면 우리끼리 서로 내통한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아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사령은 호진민을 호출하여 이 사람이 **김일성**사령이니 서로 알고 지내라고 성의 있게 인사까지 시켰다. 나와 호진민은 생판 모르는 남남처럼 예법대로 초면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한장은 오의성이 이처럼 자기의 막료들을 불러다가 인사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담판은 성사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우리는 오의성과 함께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의 일상적인 연계를 보장하며 두 군대의 공동행동을 유지하는데서 조절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반일부대연합판사처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그 성원 문제까지 토론하였다.

판사처 반일부대측 대표로는 중국사람인 왕윤성을 내세우고 유격대측 대표로는 조동욱을 선발하였으며 사무실은 나자구에 설치하되 오사령의 지휘부 가까이에 두기로 하였다.


조동욱

이날 오의성은 우리를 위해 푸짐한 점심상을 차렸다.

진한장은 그것도 특대라고 귀뜸해주었다.

오찬 중의 담화도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의 만주강점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오의성은 시커먼 눈썹을 푸들푸들 떨며 비분강개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동산호가 이광을 참살한 데 대해서도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것들은 원래 토배기 비적패거리들인데 우리하구는 갈래가 달라. 그 동산호가 왜놈의 하수인이 되다니. 그 놈팽이들이 **김**사령네 부대를 해친 건 천벌을 받을 일이야. 우리 중화민족 가운데 그런 악마가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한번 오사령의 인금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담판 결과와 오의성의 환대에 만족하였다.

오사령은 틀도 차리고 사상적으로는 국민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항일 의지와 구국열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이었다. 사상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면서 제한성만 들춰내면 합작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 공동전선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로 소왕청에 오사령과의 합작이 잘되어간다는 것과 문제는 채세영인데 그와도 점차적으로 협상해보겠지만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동녕현성과 같은 큰 성시를 칠 필요가 있으니 아무 때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두라고 연락하였다.


채세영

오의성과의 첫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없이 구국군에서 가장 완고한 세력인 채세영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진한장도 오사령은 변덕이 없을 것 같으나 채사령이 문제인데 이청천을 쫓아낼 방도가 없겠는가고 걱정하였다. 오사령의 수하에는 1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채사령네 부대는 숫적으로 그 보다 더 많았다.

나는 이청천에게 담판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청천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산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채세영을 꼬드겼다. 이청천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채사영도 그 간계만은 반대하였다. 오의성사령이 **김**대장을 데려다가 오찬까지 하였고 또 **김**대장이 싸움 잘하는 왕청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잘못 다쳤다가는 큰 변이 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청천이 어떻게나 반공바람을 세게 불어넣었던지 우리는 채세영 문전에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채사령부대를 오의성과 떼어놓는데 있었다. 우리와의 합작에 응해 나선 오의성을 채세영으로부터 떼어내는 길은 오사령의 기간부대인 사충항여단을 우리의 영향하에 두는데 있었다. 여단장을 잘 설복하면 오의성과의 담판에서 이루어진 초보적 성과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여단의 구성을 알아보니 대체로 하층계급 출신이었다. 사충항 자신도 9살 때부터 지주집에서 돼지몰이를 하다가 먹고살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길림육군에서 왕덕림의 부하로 복무하다가 9.18사변 후 구국군이 되어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을 거쳐 한 개 여단의 주인이 되였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형적인 군인 기질의 소유자였다.


사충항

나는 호진민의 소개신을 가지고 그날로 사충항을 만났다.

내가 면회를 요청하자 여단장은 아무런 겉치레도 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주었다. 그는 왜놈을 잘 치는 **김**대장이 자기네 부대에 온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 사람에게는 반공의식도 없었고 군벌기질도 없었다. 아주 소탈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사충항은 **김**대장부대가 일본군대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자랑이자 동만인민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쟈피거우전투, 양수천자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통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비록 신문들이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간도지방에 그 소문이 굉장히 퍼졌다. 놀랍게도 사충항은 그 전투의 전말과 전과를 잘 알고 있었다.

연합하여 동녕현성의 적을 치자는 나의 제의는 사충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측근에 **김**대장네 유격대와 같은 강력한 우군을 두고 싶었소. 오늘부터 우리는 한 형제요. **김**대장의 원쑤이자 나의 원쑤고 **김**대장의 벗이자 나의 벗이오.≫

여단장과 나는 담판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억세게 포옹하였다. 그 후 우리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 피와 살을 나누는 형제가 되고 전우가 되었다. 사충항이 독립2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전사할 때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나자구 담판의 결과로 하여 항일혁명앞에 가로놓였던 가장 큰 암초는 제거된 셈이었다. 우 사령과의 합작이 공동전선을 위한 시발점이었다면 오의성과의 담판은 그 시발점에서 얻은 성과를 전 동만의 범위에로 확대시킨 역사적인 진일보였으며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조중 두 나라 민족의 무의미한 대립과 유혈을 종식시키고 반만항일의 거세찬 흐름을 하나의 대하에로 합류시킨 통쾌한 사변이었다.

오의성, 사충항과의 담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공동전선도 자기의 주체적인 힘이 강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1932년의 남북만 원정과 왕청을 중심으로 하는 1933년의 대소 전투들에서 자체의 군사적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유격대를 승승장구하는 무적의 철군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면 오의성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쫓아버렸을 것이다. 오사

령과의 합작이 그처럼 순조롭게 이루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했고 정치도덕적 풍모가 구국군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열렬한 애국심과 국제주의적 우애심,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를 공감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구국군과의 합작을 실현한 그때부터 통일전선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주체적 힘이라는 것과 이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우군이나 우방과도 연합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일상 동안 벌여왔다.

동녕현성을 치자는데 대해서는 오의성과 채세영도 찬성하였다. 우리는 나자구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을 비롯한 구국군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열고 이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전방침을 세운 다음 왕청본부에 또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오의성과의 담판과 동녕현성전투의 성공으로 하여 동만의 유격부대들과 구국군부대들, 반만항일세력들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의성과의 합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전반적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데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중심고리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간도를 떠나 장백 일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도 나는 오의성과의 합작을 성사시키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오의성은 무송지구에 활동거점을 잡고 우리의 익측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공동투쟁의 나날에 맺어진 옛정이 다시 살아올랐다.

나는 10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오의성 부대의 밀영이 자리잡고 있는 서강 동쪽 수림으로 찾아갔다.

그때 오의성은 영채 밖에까지 뛰어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10년이나 20년쯤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죽마고우들처럼 뜨겁게 포옹하였다.

초연에 절은 오사령의 거슬거슬한 수염이 볼에 와닿는 순간 나는 어째서인지 목이 꽉 메는 듯한 격정에 휩싸였다. 군벌기질이 다분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 중국사나이와의 상봉이 왜 그다지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싸움속에서 맺어진 정이란 참으로 유별난 것이었다. 나는 오사령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나를 친형제와 같이 진심으로 환대해주는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탄우속에서 맺어진 우정, 세상에 이 우정보다 더 진실하고 더 열렬하고 더 공고한 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전투적 우정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호랑이가죽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매 눈 같이 예리한 눈길로 사람들의 인금을 가늠하던 왕년의 도고하던 기상은 오의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쥐락펴락하던 녹림호걸이라기보다는 촌늙은이에 가까운 텁텁한 모습이었다. 살도 빠지고 눈 정기도 약해진 것 같았다.

나는 오의성의 밀영에서 이틀을 묵고 돌아왔다. 내가 떠날 때 오사령은 부하 100명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사양의 뜻을 표시하자 그는 짐짓 노하는 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사령한테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겠소. 그렇지만 큰 싸움을 준비하는 **김**사령에게 나도 친구로서 무슨 도움을 줘야 할 게 아니오. 그 100명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김**사령 수하에 가야 합니다. 속담에 다북쑥도 삼밭에 가면 곧아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 후 나는 오의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 해 말에 오사령이 부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쏘련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연계가 끊어져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오의성은 우리가 공동전선의 위업을 개척할 때 잠깐 동안 필요했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실천속에서 어깨겯고 포연탄우를 헤쳐온 잊지 못할 전우였다. 오사령이 후반생을 어떻게 보냈고 최후를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해명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어데서도 믿을 만한 소식은 들을 수 없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애족의 이념에 충실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뿐이다.



3. 동녕현성전투



나자구담판 후 반일부대연합판사처는 구국군과의 사업을 맹렬하게 벌였다. 판사처일군들은 인접의 산림대들에도 침투하여 그들을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공작을 하였다. 이 기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1933년 9월초 나자구 부근의 노모저하라는 곳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이삼협을 비롯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동녕현성(삼차구)전투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작전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오의성사령의 제의에 따라 우리가 작성한 작전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가 나자구담판 후 동녕현성을 즉시에 공격하지 않고 두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 전투의 의의를 특별히 중시한 데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항일유격대의 합법화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로 보았고 우리와 구국군부대 사이에 맺어진 통일전선에 관한 협약도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 발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전투를 잘하면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이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서는 것이요,

패전으로 끝나면 나자구의 담판의 성과는 허실로 돌아가고 축조과정에 있던 연합전선은 붕괴를 면치 못할 것이였다. 동녕현성전투를 잘못하면 우리가 혈전을 통하여 힘들게 이루어 놓은 항일유격대의 군사적 권위에도 오점이 생길 것이였다. 구국군이 통일전선을 하다가 녹아났다고 아우성을 치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시험을 치르는 셈이였다. 우리의 정찰자료와 지방조직들이 보내온 통보에 의하더라도 동녕현성에는 이시다가 이끄는 500명 정도의 일본 관동군병력과 경탄장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정도의 위만군병력이 있고 그밖에도 위만경찰들과 자위단무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게다가 적들은 대포를 비롯한 현대적 무기들로 장비된 견고한 성새속에 들어박혀 있었다.


채세영

그때 반일부대의 어떤 지휘관들은 동녕현성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프로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연합회의 석상에서도 공격자의 역량이 방어자의 역량보다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군사교범의 요구인데 적의 병력에 비해 우리측의 병력이 너무 약하다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오의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청천이 다녔다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서나 통할 수 있는 개나발이니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소극적인 임전태도를 비난하였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녕현성을 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던 것만큼 일부 지휘관들이 ≪무적황군≫을 자칭하는 일본군의 신화에 겁을 집어먹고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연합회의에서 작전방안이 채택되자 반일부대연합판사처 성원들은 호진민과의 연계밑에 아무 부대에서는 몇 명, 아무 부대에서는 얼마 하는 식으로 동녕현성전투에 참가시킬 병력 수를 부대별로 할당하였다.

우리는 왕청, 훈춘, 연길에서 각각 1개 중대 정도의 병력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그들을 나자구로 불렀다.

왕청에서 내가 데리고 간 1개 중대와 백일평대대 정치위원이 훈춘에서부터 인솔해 가지고 온 중대는 1933년 8월말에 나자구 근처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연길동무들은 아쉽게도 집결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연길대대에서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최현중대가 선발되였다. 출발에 앞서 최현은 매전투원들에게 실탄 150발씩 나누어주고 새 신발도 한 켤레씩 공급해 주었다. 북동을 떠난 중대가 강행군으로 마촌까지 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동녕현성전투를 치르고 소왕청에 가 있던 9월 중순이였다.

우리가 훈춘동무들과 함께 나자구에 들어갔을 때 구국군장병들은 시내 인민들과 함께 우리를 열광적으로 맞이하여 주었다. 환영군중들 가운데는 주변 부락들에서 온 농민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들의 열정적인 환영모습을 통하여 이 고장 반일조직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대오를 향해 손을 흔들고 환호를 올리는 군중의 뒤에는 최정화와 같은 유능한 혁명가들이 서 있었다. 그는 나자구반일회장이였지만 만주국의 심부름도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반일병사위원회 성원의 자격으로 구국군과의 사업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나자구에서 우리가 내놓은 반일공동전선노선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최정화는 인민들을 발동시켜 구국군 부대들에 식량과 천도 많이 대주었다.

우리는 중국인거리에서 대열을 정리하고 항일구국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 다음 연이어 춤마당, 노래마당을 펼쳤다. 거리 양옆의 중국인 가게들에서도 영업을 중지하고 연도에 뛰쳐나와 오락회를 구경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구국군이 친형제와 같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 나자구시가는 마치 축전도시인양 흥성거렸다. 조선인거리, 중국인거리 할 것 없이 온 도시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새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김대장을 보자고 야단들이었다. 김대장이 평안도사람이라느니, 함경도사람이라느니, 지어는 경상도태생이라고까지 하면서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옥신각신하였다.

아이들은 38식 보총과 탄띠들을 만져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한 대원이 탄띠를 세 개씩 띠었는데 하나는 허리에 혁띠처럼 두르고 나머지 두 개는 양어깨에 각각 하나씩 가위다리 모양으로 띠었다. 한 탄띠의 정량이 100발이니 각자가 300발씩의 총탄을 휴대한 셈이었다.

≪나라를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네들, 점심이나 같이 나눕시다.≫

여인들이 대열에 새하얗게 달려들어 유격대원들의 팔을 승벽내기로 잡아끌었다. 나자구 시내에서 10리, 20리 떨어진 고장들에서도 아낙네들이 점심을 지어가지고 유격대를 찾아와 음식을 권하였다.

나자구에 도착한 그날 나는 반일부대연합판사처 동무들의 안내를 받아 오의성사령의 숙소를 찾았다.

우리는 구면으로서 화기애애한 담화를 하였다. 6월의 첫 담판 때와 같이 서로 상대를 떠보는 담화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담화였다.

내가 나자구로 갈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오사령이 그 동안 동녕현성전투를 포기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청천과 같이 우리와의 합작을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의성이 동녕현성전투를 단념하고 우리와 구국군과의 관계를 협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우도록 설유하지 않았겠는가? … 반일부대연합판사처 일군들은 이청천이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합작이 유산되도록 채세영을 부단히 꼬드기고 있는데 그의 이간질이 오사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몇차례 통보해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오의성의 통일전선 의지는 여전하였고 동녕현성전투를 잘하여 구국군이 왕년에 당한 패배를 만회하려는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오사령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은 1932년 말에 일본군이 나자구를 ≪토벌≫할 때 받은 타격이었다. 일본군은 그 당시 10여 대의 비행기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구국군을 사정없이 짓뭉개놓았다. 나자구는 잿더미로 변하였고 구국군은 성남촌, 신툰자, 석두하자와 같은 고장으로 쫓겨났었다.

≪수더구를 보면야 사실 우리가 일본놈들보다 더 많았지. 그런데도 우리는 나자구를 내주고 산골로 꽁무니를 뺐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우. 나자구를 타고 앉은 왜놈들이 생사람의 머리를 베서는 남문에 달아매곤 했지만 우리는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산골에만 배겨있지 않았게나. 일본군이 무섭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 이제 동녕에 가면 톡톡히 값을 받아내야지.≫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 오사령은 옆구리의 목갑싸창에 자주 손을 가져갔다. 오의성이 복수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통일전선의 전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징조였다.

그날 나는 반성위와 마주 앉았을 때처럼 오의성에게 나의 지난날을 추려서 이야기해주었다. 오사령도 그 답례로 자기의 경력을 소개하였다. 그의 고향이 산동성 동창 어디라는 것과 그에게 오기성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그때의 격식 없는 한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담화를 하고 있을 때 오사령의 숙소 지붕꼭대기에서는 2명의 유격대원이 보초를 섰다. 구국군 측에서도 그날은 지휘부 주변의 경계를 물샐틈 없이 하였다.

소문과 같이 오의성은 그날 정말로 범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를 하였다. 몸이 비대해서인지 걸상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 틀을 차리고 담소하는 것은 싫어하였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히 목침 위에 한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의성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점심준비를 잘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식사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 따로 점심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다닌 사람은 얼굴에 마마자국이 있는 중국인 대원이었다. 오사령은 내가 중국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덕으로 터득한 나의 중국말 밑천은 오의성과의 사업에서도 큰 은을 냈다.

왕청중대와 훈춘중대들은 나자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중정치사업 방향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구국군이 장차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번 전투에 달려 있다. 유격대가 선봉에서 잘 싸우면 구국군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제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면 구국군이 우리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일상생활과 전투행동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투는 총 몇 자루나 쌀 몇 포대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통일전선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이 전투에 통일전선의 명줄을 걸고 있다. 전리품은 구국군이 다 가지라고 하자. 그들이 약담배를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나 정치도덕적 측면에서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명심하자…

반일부대의 지휘관들 중에서 동녕현성전투 방침을 제일 적극 지지해 나선 사람은 사충항 여단장이었다. 항일유격대가 나자구에 체류하는 동안 나와 사여장 사이에는 국적과 소속을 초월한 진실한 우애가 싹텄다. 유격대와 구국군의 대부대들이 나자구를 떠나 동녕현성으로 행군해 갈 때에도 그는 줄창 우리하고만 같이 다니려고 하였다. 숙영지도 우리의 곁에 정하려고 하였고 전투시에도 우리 부대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하였다. 나자구에서 동녕현성까지 수백 리를 걸어가는 그 나날들에 나와 사여장은 서로 이해를 더욱 깊이 하였다.

9월초에 나자구를 떠난 원정부대들은 며칠간의 시간을 노상에서 보냈다. 행군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중시하는 계기로 되었다. 항일유격대와 구국군의 정치도덕적 차이는 실생활과 행군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인민의 군대답게 행동하였다. 상공당이 있어도 마스지 않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어도 손을 대거나 곁눈을 팔지 않았다. 중국인부락에 들리면 오락회도 하고 선전화도 붙이고 구두 선전공작도 하였다. 다른 부대들이 들면 폐를 많이 끼쳤지만 우리는 도리어 주민들을 도와 물도 길어주고 방도 갈아주

고 마당질도 해주고 울바자도 엮어 주었다.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는 전책도 읽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백성들을 알아보는 좋은 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떡도 치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부대들은 다 성품이 곱지 못하고 행실이 거칠어서 글렀는데 김사령네 부대는 점잖고 싹싹하고 인정미가 넘쳐서 살이라도 떼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인민이 우리를 성심성의로 지지하고 환대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사충항여단장은 엄지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며 김대장네 군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사 멋쟁이군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김대장이 영솔하는 공산당군대의 모범을 따르라고 여러 번 훈계하였다.

≪지금 어떤 작자들이 행군선봉에서 구국군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행실이 깨끗해야 하늘도 너희들을 굽어본다. 우리 부대에서 여자들을 희롱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백성들에게 호령질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사충항의 이 말은 그의 부하들에게 효능높은 각성제가 되었다.

어떤 구국군대원들은 어두운 밤에 곡식낟가리만 보아도 일본놈군대라고 하면서 삼십육계를 놓았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되풀이되자 우리는 유격대대열을 맨 앞장에 세우고 구국군부대를 후위로 돌려놓았다. 이 별치않은 조치는 유격대원들을 분발시켰다. 그들은 동녕현성전투의 승패가 곡식낟가리와 일본군을 혼동하는 구국군에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 따라서 통일전선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결정적 힘도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수걱수걱 행군을 다그쳤다.

유격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을 하였다. 때로는 심각한 정치문제를 내걸고 논쟁도 하였다.

≪강동무, 우리가 동녕현성을 왜 치는지 그 목적을 한 번 좀 멋있게 말해주게나. 나자구에서 대장 동지가 말씀해주실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그게 알쏭달쏭하거든.≫

원정군이 노흑산에 거의 다달았을 때 왕청중대의 뒷꼬리에서 한 대원이 능청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식정도를 저울질해 보자는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강동무도 능청스러운 사람이었다.

≪허허, 이것 봐라. 이 동무가 남의 불에 게를 구울 작정이구만. 임자 기억이 그렇게두 알쏭달쏭하다면 내가 말해주지. 이왕이면 ≪십진가≫ 곡조에 맞추어 노래로 냅다 불러주지.≫

그 대원은 상대가 말할 짬도 주지 않고 정말로 ≪십진가≫를 뽑기 시작했다.

하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실현해야 할
실현해야 할
통일전선 성공함이 첫째이로다
첫째이로다

둘이라면
둘도 없는 혁명성새 우리 유격구
우리 유격구
소만국경 멀리까지 확대함이다.
확대함이다.

서이라면
서리바람 칼칼해도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쏘련으로 다닐 통로 개척하는 것
개척하는 것
…

질문을 제기했던 박 동무는 입을 딱 벌이고 감탄하는 시늉을 하였다.

≪동무 재간은 참 금 열닷 말을 주구두 못 바꿀 재간이야. 나 같은 석두한테두 동녕현성을 치는 목적이 청청하늘의 보름달처럼 제법 석연해지는 걸.≫

왕청중대의 재간둥이인 강동무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도 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착잡한 경위도 ≪십진가≫에 고스란히 펴담을 줄 알았고 9.18사변의 발발로부터 만주국의 성립에 이르는 소름끼치는 정치적 재난 과정도 ≪십진가≫의 선율속에 재치 있게 함축시킬 줄 알았다.

동녕현성전투의 목적을 알기 쉽게 시화한 강동무의 ≪십진가≫는 왕청중대에서 훈춘중대에로, 훈춘중대에서 사충항여단에로, 사충항여단에서 채세영부대에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몇몇 구국군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십진가≫를 흥얼거렸다. 구국군은 우리 부대의 모범을 따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든 구국군장병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미구에 차례지게 될 전리품의 몫을 그려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활동지역을 소만국경까지 넓혀보겠다든가, 유격대와의 통일전선을 잘하여 만주땅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숭고한 항일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화제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게, 동녕을 치면 약담배가 많이 생길까?≫

우리 부대의 후위에서 사충항의 부하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글세. 위만군이 1개 연대나 배겨 있다니까 약담배 같은 거야 흔하겠지. 아편 없이야 무슨 위만군이겠나. 그런데 아편을 빨지도 않는 사람이 약담배 소리는 왜 갑작스레 꺼내나?≫

질문을 받은 동료는 미심쩍은 시선으로 짝패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았다.

≪사람두 원, 아편이자 돈이구 돈이자 아편이 아닌가. 허리에 만 냥만 차면 황새타고 양주로 날아간다고 했네.≫

≪하긴 그래. 항주 구경두 돈 없이는 못 간다구 했으니까. 자넨 만 냥 짜리 아편을 차고 항주도 가구 서주도 가게. 난 그저 일본제 손전지를 하나 얻었으면 하는 소원뿐이야.≫

≪그까짓 손전지 걱정 같은 걸 하지두 말게. 일본군이 득시글득시글 한데 손전지

하나쯤이야….≫

≪희떠운 소리 작작하라고. 아편두 손전지두 다 승전 후에야 생기는 선물이야. 동녕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떨어질 줄 아나?≫

우연히 얻어듣게 된 이 대화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연추를 달아 놓는 듯 하였다.

전리품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저 구국군병사들이 과연 ≪무적황군의 용사≫들과 백병전을 벌일 수 있을까? 중화민국 만세를 부르며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포대앞으로 돌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언행이나 음침한 눈빛에는 어딘가 미덥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우리는 노흑산에서 왕청유격대와 훈춘유격대의 연환모임을 조직하고 다시한번 동녕현성전투의 목적과 군사정치적 의의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였다.

그 후에는 동녕현성 부근의 고안촌, 오사구 일대에 진출하여 적정을 재확인하고 전투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동녕 부근에서 지하당조직도 찾아냈다. 그것은 일찍이 반성위가 수녕중심현위 서기로 활동할 때 동녕, 고안촌, 신립촌, 노흑산 동지에 꾸리고 지도해온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1932년 봄에 적들한테 노출되어 추적을 당하다가 그 중 일부가 왕청지경으로 넘어오고 일부는 동녕에 남아 지하로 깊이 들어갔다. 반성위는 그때 당원들, 공청원들 뿐 아니라 유격대원들과 일반군중들도 왕청으로 많이 넘겨보냈다.

반성위는 훈춘으로 떠날 때 언제든지 동녕땅에 갈 기회가 생기면 지하에 들어간 당원들과 공청원들을 찾아내어 조직선을 이어주고 자기를 대신하여 잘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 부탁을 잊지 않고 나자구에서 군중정치사업 요강을 발표할 때 주민정치사업을 잘하여 동녕현의 지하당조직을 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우리는 고안촌 부근에서 찾아낸 몇 명의 당원들로 동녕현지하당을 복구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나자구지하당에서 하도록 조직선도 이어주었다. 이 지하당 조직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으로 쏘련으로의 통로도 어렵지 않게 개척하였다.

동녕현지하당은 우리가 준 비밀공작 지시를 잘 집행하며 1940년대까지 건재하였다. 소할바령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백두산밀영과 쏘련 하바로프스크 주변의 훈련기지들을 거점으로 삼고 소부대활동을 벌일 때 우리는 동녕의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많은 소부대들이 이 통로를 거쳐 국내와 간도로 나오기도 하고 백두산에서 소만국경 지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었던 개별적 공작원들도 연해주를 들어갈 때에는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소만국경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맹렬히 벌이던 전문욱소조 역시 동녕지하당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당시 소만국경을 사이에 두고 동녕현 맞은 켠에서 군사복무를 하였다는 국제주의 전사 야. 떼. 노비첸코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이 이 통로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회상하였다. 동녕의 지하조직들은 대일작전 시기에도 적의 후방교란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동녕현성 해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고안촌 부근 주민들과 지하조직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동녕현성에 있는 위만군 연대장이 비록 만주국에 복무하나 반일감정이 강한 사람이며 위만군과 일본수비대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알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대장은 현성안에 있는 중국인 상점 주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말을 잘 듣는다고 하였다. 지하당성원들은 상점 주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당성원들이 중국인 상점 주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위만군연대장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합작에 동의해나서도록 하였다.

동녕현성전투는 1933년 9월 6일 밤에 시작되어 9월 7일 낮에 끝났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하면서 한 전투를 이틀씩이나 끈 실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녕현성을 치는데서 우리가 역점을 찍은 주공방향은 서문 밖의 능선에 2층으로 축성되어 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에는 여러 정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포대와 일제침략군부대 본부 사이에는 깊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가 굴설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예비대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 공격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녕현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것도 이 서산포대 때문이였다.


동녕현성시가

나는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훈춘중대를 짜작골이라는 곳에 배치하고 왕청중대를 주공방향에 진출시켜 서산포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밤 9시 적진에 은밀히 접근한 유격대의 파괴조는 성시공격을 알리는 나의 총성신호와 함께 적포대를 향해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를 통하여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하였다. 적아간에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나는 서문으로 시내에서 돌입한 유격대로 하여금 적 병영을 봉쇄하게 하는 한편 일부 역량을 포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 다음 파괴조를 발동시켜 맹렬한 작탄공격으로 서산포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동틀 무렵이 다되어서야 포대는 저항을 중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우리의 주력부대는 일본군 수비대 병영을 강철그물 같은 봉쇄망으로 둘러싸고 적의 필사적인 반돌격 시도를 가차없이 좌절시켰다. 일본군은 북문으로 도망쳤다.

편의대로 가장하고 시내에 미리부터 들어가 있던 구국군부대들과 동문과 남문을 거쳐 성시에 돌입한 구국군 부대들도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전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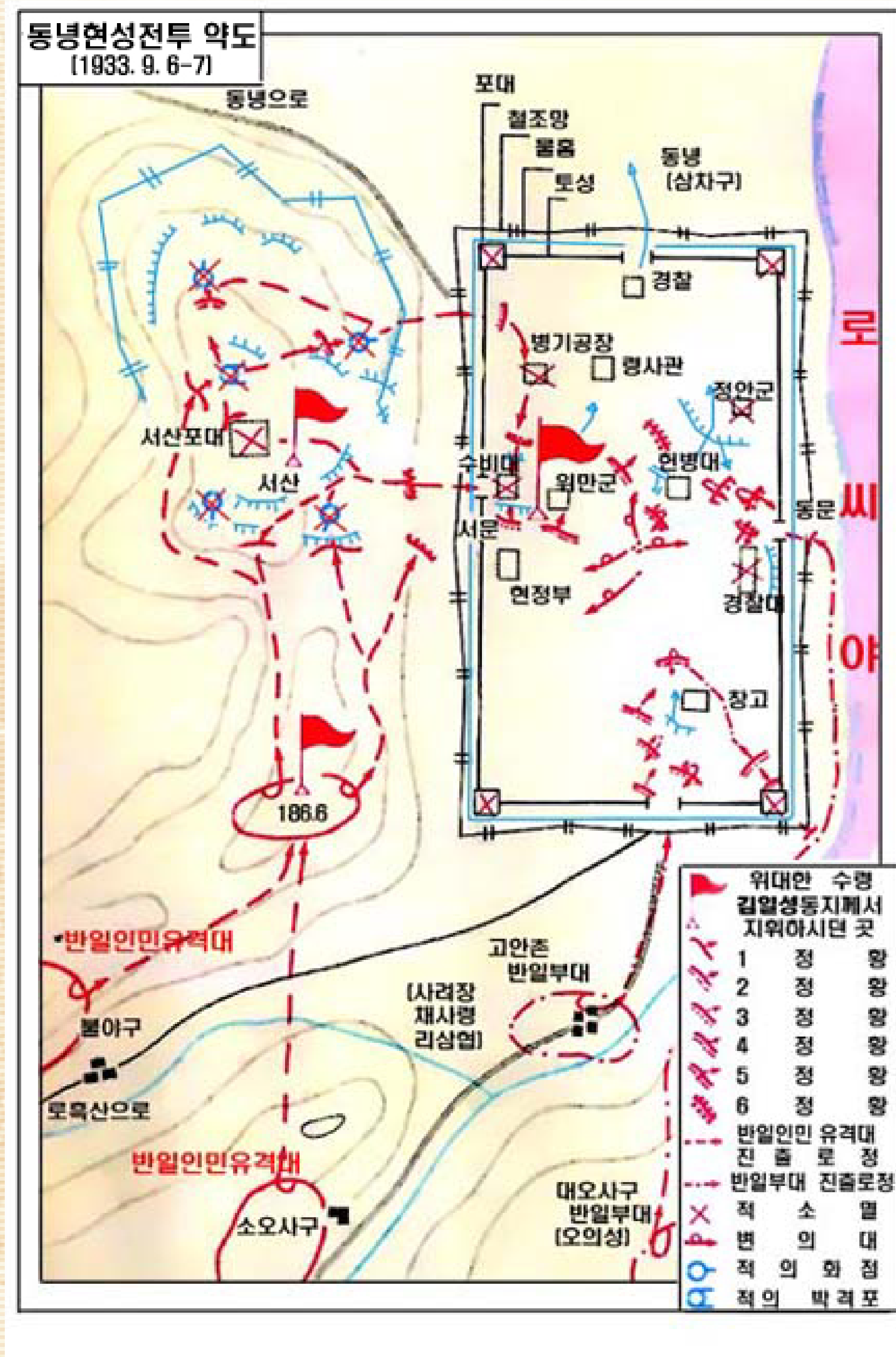
위만군부대 본영에서는 대표를 보내 협동하여 일제침략군을 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 합작이 실현되면 성시가 완전히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채세영 휘하의 일부 부대들이 위만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점을 마구 털고 주민 가옥들에 달려드는 바람에 위만군은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질풍같은 기세로 우리들을 공격하여 나섰다. 일본군 수비대도 이에 합세하였다.

적의 맹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구국군은 일부 부대들이 점령구역을 내던지고 현성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결사적인 시가전으로 점령구역을 확대하면서 적들을 현성 일각을 압축하였다. 구국군도 이에 고무되어 병기공장을 점령하고 군수품 적치장들을 습격하였다. 시가전은 여러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연합작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인정한 나는 아군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유격대는 시내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현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국군부



대들을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여단장이 중상을 당한 채 성시안에 쓰러져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이 때였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사지판에 여단장을 남겨둔 채 성시 밖으로 도망

쳐버렸다. 부관도 그를 돌보지 않고 살 구멍을 찾아 성문을 빠져나갔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전리품 타령을 하던 구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약담배와 일본제 전지를 꿈꾸고 있을 때 나는 약탈과 그것이 전반적인 전투행정에 미치게 될 후과만을 우려했을 뿐이였다.

그런 약탈은 이미 전투 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가는 놀라운 행실이 발로되었다. 무릇 군대는 상관을 자기 아버지에도 비기고 어머니에게 비기기도 한다.

그러니 구국군은 부모를 사경에 내던지고 도주한 셈이다. 나는 그때까지 전쟁일화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효막급한 행실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구국군의 약탈행위와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간 불충불효의 행위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이기심과 비겁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사충항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전투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성과는 싸움마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의 생활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전투는 그 일상생활의 반영이고 단적일 표현일 따름이다.

역사는 도덕적으로 낙후한 군대가 승리자의 단상에 오른 전례를 알지 못한다. 히틀러독일의 나치스군대가 패전의 시궁창에 구겨박힌 것도 주요하게는 인륜을 저버리고 무한궤도로 선과 미를 짓뭉개버린 도덕적인 패배자들이라는데 있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운명이 서산낙일로 된 주되는 이유 역시 그 군대의 도덕적 부패성에 있었다. 일본은 일본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파렴치한 군대로 규탄하며 증오하는 수십 억의 선량한 인민들과 국제적 연합국의 포위속에서 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처럼 전쟁 마당에 ≪위안부≫까지 끌고다니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한 군대는 세계전쟁사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전쟁행정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도덕 자체를 불필요한 치장품으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오물더미와 같은 것이다.

나는 최춘국에게 사충항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춘국은 그 명령을 결사적으로 집행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해낸 사충항을 등에 업고 그를 화력으로 엄호하면서 부대를 고지쪽으로 무사히 빼돌렸다. 유격대원들은 자기 상관을 내버리고 간 사충항의 부하들을 벼락맞을 놈들이라고 욕하였다.

구국군대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사실 욕지거리가 나갈 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소행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 사이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녕현성전투의 의의는 비단 적군을 수백 명 소멸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국군이 이 전투까지 겪고 나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동만 땅에서 이전날처럼 또 다시 붉은기를 들고 다니며 보무당당히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녕현성전투는 구국군

의 의식속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모습을 심어주었다.

그 후부터는 중국의 반일부대들이 우리를 해치는 놈들만 있으면 자청하여 따라다니면서 답새겼다.

≪1933년 9월 7일은 내가 두 번째로 생명을 받아안은 날이다. 지금까지의 생명이 부모들이 준 것이라면 9월 7일부터의 생명은 **김일성**사령이 준 것이다. **김일성**사령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항일유격대는 우리 구국군의 친짜가는 형제들이다.≫

이것은 사충항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항일유격대가 얼마나 희생정신이 높은 군대이며 얼마나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군대인가 하는 전설같은 소문이 만주 각지로 날아갔다.

동녕현성에서부터 나자구까지 연연 수백 리를 헤아리는 귀환의 길에서도 나는 노상 사 여장의 곁에 있었다. 첫날은 우리가 줄곧 담가를 들고 갔다. 구국군대원들은 자기네 상관이 유격대원들의 담가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그 곁에 접근을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부관들이 대원들과 함께 자기네 사령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쫓아버렸다.

부관이 세 번째로 우리 대열을 찾아오자 나는 구국군에 사충항이 누워있는 담가를 인계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도 지각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제는 자기네 과실을 뉘우치지 않았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담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넘겨준다면 그들이 전장에서 저지른 죄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원들을 설복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을 넘겨주자 구국군 대원들은 황송하여 절까지 하였다.

사 여장은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간 데 대하여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런 행실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상관의 입장으로 오히려 우리한테 사죄하였다.

≪**김**사령, 저 미물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대장을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부하들을 잘 키우지 못한 탓이니 허물을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고 우리 부하들을 용서해주시오.≫

나는 그가 부하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사충항이 부하들에게 분풀이를 하였거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였더라면 나는 그토록 감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관치고도 참으로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큰 무관이었다.

≪중국속담에는 단 참외에도 쓴 꼭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 날 다 좋을 수는 없고 꽃도 천 날 다 고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여장이 치명상을 입고도 원기를 회복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을 사려면 이빨을 보고 사람을 사귀려면 그의 마음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내 **김**사령과 같은 분을 벗으로 사귀게 된 걸 하늘이 나에게 준 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귀중하게 간직하겠소.≫

사충항은 나보다 나이가 열둬서너 살 더 먹은 연장자였지만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나와 피로 맺어진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었다. 동녕현성전투가 있은 후 그는 부대의 주둔지도 마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북구에 정하였다. 우리는 친척집 문턱을 넘나들 듯이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교를 두터이 하였다.

사여장의 총상자리를 완치시키려고 나는 그에게 약도 많이 가져다주었으며 그의 사상을 개변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도 많이 주었다. 그런 과정에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고 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도 성장하였다.

사충항은 1934년 6월 나자구전투에서도 반일연합작전을 위하여 잘 싸웠고 인민혁명군에 편입된 후에는 독립 2사 사장으로 적잖은 무공을 세웠다. 그는 전투때마다 맨 앞장에서 싸창을 빼들고 적진으로 돌진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세상에 사여장 같이 훌륭한 지휘관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구국군부대 병사들도 사여장을 무척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런 병사들 중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자기 부대를 탈출하여 사충항의 부대에 넘어왔다.

사충항은 노송령전투때에도 최선두에서 나가다가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다. 총탄이 배를 관통하지 못하고 속에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쏘련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인차 운명하였다. 사여장의 추도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애달프게 그를 추억하였는지 모른다.

동녕현성전투의 포화속에서 우리와 함께 항일로 튼튼히 결합한 채세영도 후에는 인민혁명군에 편입되어 5군 부군장을 거쳐 군장을 하였다. 그는 북만을 활동거점으로 삼고 주보중의 수하에서 우리와의 형제적 유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나와 채세영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동녕현성전투를 통하여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 사이의 공동전선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굳어졌을 때 우리앞에는 이 공동전선을 박살낼 수 있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근으로 된 것은 장개석을 미화한 오의성의 발언이었다. 우리는 그 때 나자구에 돌아와 연합모임을 열고 공동으로 동녕현성전투를 총화하였다. 오사령은 그 모임에서 첫 발언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연합부대가 동녕현성전투에서 승리한 데 대하여 말하면서 별스레 장개석을 칭찬하고 장개석이 남방에서 대포도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주어야 동북의 항일전쟁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유격대원들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훈춘유격대를 책임지고 온 백일평은 그 말을 듣고 연단에 뛰어올라가 장개석이 제국주의의 개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원조하며 영도할 수 있는가, 장개석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오사령은 반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오의성은 노발대발하여 백일평을 체포하고 그를 총살하겠다고 을러댔다.

이렇게 되자 백일평의 대원들이 막 들고일어났다. 우리는 동녕현성싸움을 하면서도 대원 하나 잃지 않았는데 통일전선을 하다가 상관을 잃는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자기 지휘관을 잃고 무슨 체면으로 훈춘으로 돌아가겠는가, 우리가 다 죽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오의성과 싸워 백일평동지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당장 달려나가려고 하였다.

구국군들도 총을 들고 맞불질할 차비를 하였다.

총성 한방에 무리죽음이 날 수도 있고 또 모처럼 이루어진 통일전선이 깨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앞에서 오의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술을 푸들푸들 떨기만 하였다.

나는 연단앞에 나가서 조선말과 중국말로 쌍방을 다같이 설복한 다음 오사령을 타일렀다.

≪오사령, 노엽겠지만 너그럽게 생각하고 백일평을 놓아주시오. 그 사람이 사령의 체면을 보지 않고 반동이라고 한 것은 외람된 일이지만 오사영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온 중국이 다 제국주의의 개라고 낙인하고 있는 장개석을 그렇게 추어주니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구동북군이 항일을 못하도록 9.18사

변 전부터 장학량에게 미리 못을 박아놓은 사람도 바로 장개석이 아닙니까. 이제 백일평을 총살하면 온 만주가 오사령을 역적이라고 손가락질할 터인데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끝내자 구국군들속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가? 남방에서 온 사람인가? 국민당이 보낸 파견원인가?□하고 떠들었다. 그러자 □남방은 무슨 남방, **김일성**이야, **김일성**이라는 유격대 대장이야≫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무식해서 한 소리이니 나를 장개석과 한통속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시오.≫

오의성은 이런 말까지 하고 나서 총살령을 철회하겠다고 언명하였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백일평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구국군 하층병사들이 자기네 사령을 미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오사령은 왜 **김**사령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십 진 가

명랑하게

혁명가요

1. 하 나 이 라 면 — 한 — 목 적 공 산 주 의
승 리 를 위 해 — 승 리 를 위 해 전 — 세 계
무 산 자 는 단 결 하 여 라 — 단 결 하 여 라

2. 둘이라면 둘이 함께 살지 못할
두 계급이니 두 계급이니
유산계급 무산계급 투쟁하여라 투쟁하여라

3. 셋이라면 3대조직 강화하여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당조직 공청단체 아동단이다 아동단이다

≪우리가 안 죽인다면 다다. 오사령이 죽이겠다면 마음대로 다 죽이는가.≫

≪백일평을 죽이면 우리 구국군이 벼락을 맞는다.≫

병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 장교들은 오의성에게 백일평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와 진정서들을 보냈다.

백일평은 사흘만에야 오사령의 손에서 풀려나왔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과정은 이처럼 수많은 노고와 인내와 희생을 동반하였다. 혈형이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결합이 어찌 아무런 곡절도 고충도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적들은 동녕현성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연 사흘동안이나 화장하였다. 그 대신 우리는 호진민을 잃었다. 그는 나자구로 돌아오는 길에서 오발로 객사하였다.

4. 넷이라면 너는 도시로동자
나는 빈농민 나는 빈농민
튼튼한 동맹으로 새 사회 세워 새 사회 세워

5. 다섯이라면 다같이 참가하자
산업건설에 산업건설에
5개년계획을 실시하면서 실시하면서

6. 여섯이라면 여러가지 해를 끼친
파쟁분자를 파쟁분자를
대렬에서 깨끗이 쓸어 냅시다 쓸어 냅시다

7. 일곱이라면 일제놈과 지주놈의
땅을 빼앗아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에게 나눠 줍시다 나눠 줍시다

8. 여덟이라면 여덟시간로동제
실시하면서 실시하면서
생산과 학습에 열중하여라 열중하여라

9. 아홉이라면 아름다운 내 조국을
해방하고서 해방하고서
인민의 혁명정권 건립합시다 건립합시다

10. 열이라면 열번을 죽더라도
한번 먹은 맘 한번 먹은 맘
조금도 변치 말고 힘껏 싸우자 힘껏 싸우자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소비에트노선이 정권건설 분야의 좌경이었다면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발로된 좌경적 사상경향이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매개 군인이 상하가 업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군사행동의 모든 면에서 지나친 평균주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절대화하는 사상이다.

유격대오 안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감촉한 것은 남만진출을 끝마치고 왕청에 돌아와서 유격대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때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편향은 시초적인 것으로서 크게 후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동녕현성전투를 마치고 왕청에 돌아와 유격대의 사업을 요해하는 과정에 우리는 싹에 불과했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군대 안의 지휘체계에 침투하여 그것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오빈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 경종은 1933년 가을 훈춘현 대황구에서 울렸다.

대황구는 훈춘의 중심유격구로서 국제당파견원 반성위가 박두남에게 피살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했던 훈춘 유격대의 용사들 중 13명이 한꺼번에 무리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 동만 인민들의 비분을 자아냈다.

나자구에서 전투총화를 마치고 유격구에 돌아온 훈춘동무들은 어떤 외딴집에서 잠시 노독을 풀며 추석명절을 쇘다. 추석을 쇤 다음다음날도 그들은 보초를 세우고 진종일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내탐한 일본수비대가 밤중에 그 외딴 집을 포위하고 불의에 달려들었다.

이런 전투정황에서는 적의 약한 고리를 치고 포위환 밖으로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자면 지휘관이 정황을 똑똑히 포착하고 제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오를 책임진 중대장에게는 결론권이 없었다. 일행 중에는 오빈과 같은 유능한 군사지휘관도 있었으나 현당군사책으로 일하다가 좌경바람에 대원으로 강직된 그의 말은 날이 서지 않았다.

그 당시 상급당조직의 지도부에 앉아 있던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한 결론권을 주지 않았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반드시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되어 지휘관들의 손발을 꼼싹달싹할 수 없게 비끄러매놓았다. 지휘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곳은 무능의 탓이 아니라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중압으로부터 온 기능마비의 병폐였다.

적들이 총대를 꼬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여드는 죽음의 대문앞에서도 그들은 적과 싸울 것인가, 포위를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의만 거듭하였다. 창발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일부 대원들이 공론만 하다가는 다 망할 수 있으니 일단 싸움부터 시작해놓고 보자고 제기하였으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에 물

젖은 사람들은 회의결정도 없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하면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사실 포위속에 든 유격대를 파멸에로 이끈 범죄적인 자살행위였다. 토론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적들은 습격을 개시하였다. 그 순간에야 유격대원들은 회의를 중지하고 비로소 싸움을 시작하였다.

빗발처럼 날아드는 적탄은 13명의 유격대원들을 전투서열에서 제거하였다.

시체더미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몇 사람뿐이였다. 그 중 한 사람이 오빈의 유언을 받고 왕청에 찾아와 나에게 13용사의 희생과 관련된 전말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전사한 13명 가운데는 백일평도 있고 오빈도 있었다.



종성 신흥촌에 있는 오의선의 집

훈춘에서 온 대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시체더미를 헤치고 있을 때까지 복무에 관통상을 입은 오빈은 창자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 숨을 모아쉬며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나는 지금 동무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소. 그러나 당원으로서 부탁하는 것이니 오늘의 이 사실을 **김일성** 동지에게 꼭 보고해주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제창자들과 그것을 전투실천에 맹목적으로 적용한 교조주의자들을 저주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훈춘중대 동무들은 제때에 포위망을 돌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13명의 희생이라는 비참한 상실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13명은 모두가 동녕현성을 치는 싸움에서 우리와 생사를 같이한 잊지 못할 전우들이었다. 우리가 전투를 끝내고 동녕현성에서 철수할 때 방차대에 망라되었던 훈춘동무들은 왕청부대가 싸움을 참 본때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나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나를 목마에 태워주기도 하고 머리 위에 추어올리기도 하였다. 희생된 전우들의 추도식을 할 때에는 엉엉 울면서 추모연설도 하였다.

그처럼 불같은 열정과 사랑을 지닌 사나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고인이 되고 말았다니 억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 13명 가운데서도 오빈은 가장 잊지 못할 전우였고 동지였다. 그는 우리가 육읍지구를 개척하는 과정에 채수항의 소개로 친교를 맺은 사람이었다. 채수항이 용정에서 대성중학교를 다닐 때 오빈은 거기서 동흥중학교를 다녔다. 이 두 학교는 다 사회운동자들과 독립운동 인재를 키워낸 중요한 온상이었다. 그들은 용정에 있을 때 학생운동도 함께 하였다.

오빈은 채수항과 함께 우리가 주최한 공수덕회의와 겨울 명월구회의에도 참석하여 무장투쟁방침을 세우기 위한 문제토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오빈과 채수항이 나를 종성으로 안내한 것이 아마 1931년 5월일 것이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그들과 함께 밀선으로 두만강을 건너 신흥촌이라는 곳에 첫 자욱을 짚던 때가 어제런듯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버들방천을 물들이는 신록의 아름다움과 고색창연한 옛 성터의 정취를 가슴 설레이는 신록의 격정속에 받아들이며 조국의 미래를 두고 많은 말을 나누었다.

나는 그 해 봄에 신흥촌 북문밖에서 종성반제동맹 책임자로 일하는 오빈의 아버지 오의선도 만나보았다. 연길현 차조구라는 곳에서 소작살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아들이 직업적인 혁명활동의 길에 나선 후 가족을 데리고 신흥촌으로 이사하였다. 오의선의 집은 미구에 왕청지구의 반일인민유격대와 종성군 안의 모든 지하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이어주는 비밀연락처로 되었다.

내가 신흥촌에 갈 때마다 오빈의 집에서는 국수를 누르곤 하였다. 우리는 1933년 5월 단오도 이 집에서 쇘다. 그때 오의선은 30리나 되는 풍계장에까지 가서 메밀가루를 사다 평양 냉면 맛이 나는 국수를 눌러 우리의 점심상에 놓아주었다.

그 단오날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고생을 많이 하는 오의선의 가족을 위해 그 집 뜨락에서 샘줄기를 찾아주고 박우물을 만들어주던 일이다. 나는 그때 훈춘땅에서 무장투쟁에 전심하고 있는 오빈을 대신하여 아들된 심정으로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동녕현성전투를 앞두고 나자구에서 오빈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5월 단오날 신흥촌의 아버지가 눌러주던 메밀국수이야기를 하였다. 오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내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훈춘땅에서 군사책으로 활동하다가 대원으로 강직된 때였지만 그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다.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빈을 고무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생기발랄한 인간으로 남아 있소. 군사책이 대원으로 된다고 해서 오빈이 김빈이나 박빈이 될 수야 없지. 그렇지만 훈춘에서는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소. 동녕현성전투나 끝나면 상급에 제기해서 왕청으로 갈까하고 궁리하는데 대장 동무의 의견은 어떻소?≫

≪오빈이 왕청에 오면야 나도 좋지. 그렇지만 오빈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울 수 있는 좌경분자들은 왕청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의 대답이었다.

≪그럴까?≫

≪왕청이라고 해서 좌경바람이 약한 것은 아니오.≫

≪그래도 대장 동무의 곁에 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구만. 하여튼 나는 왕청으로 가고야 말겠소. 오빈은 일구이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빈은 서산포대를 점령할 때 작탄을 품고 앞장에서 용감하게 돌격로를 헤쳐나갔다. 그의 이 공적은 전투총화에서 응당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화를 끝내고 부대들이 나자구에서 서로 갈라질 때에도 오빈은 자기의 결심을 재차 표명하였다. 왕청에 오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그는 동녕현성전투 때 왕청동무들이 서산포대를 점령하고 성시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결심이 더 굳어졌다고 말하였다.

물론 나는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오빈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왕청으로 날아온 것이다. 봄에는 이광이 갔고 여름에는 반성위가 그렇게 속절없이 사라졌으며 오늘은 오빈이 그렇게도 바라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오빈을 포함한 13용사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은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최후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전율에 가까운 감정으로 역겹게 대했으며 어떤 경우에나 그런 요소가 대내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처럼 큰 혐오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반대한 것은 그것이 혁명실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사상경향이라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군사작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서 토의하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이 당조직을 통하여 군사작전 수립에 반영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집체성이 부대관리를 책임진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일전쟁 초 시기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집체성의 명목밑에 지휘관의 권한을 침범하였으며 부대관리와 군사작전에서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그 당시 군대안에서는 군사작전을 세우거나 전투를 할 때 당원들의 창발성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소조회의, 지부회의, 각급 위원회를 비롯한 당회의도 열고 오늘날의 군인총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대회의도 열었다. 그것도 정황조건을 고려한다는 원칙에서였다.

그런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나폴레옹법전처럼 절대시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모든 군사문제를 그 대소와 정황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각급 당조직과 전대회의들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혁명군이 어느 한 도시를 칠 계획이라면 먼저 당소조회의를 진행한다. 진공한 도시의 이름은 비밀에 붙이고 그 도시형태를 약도에 그려놓은 다음 이 성시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이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토의결정한다.

소조회의에서 전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승리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작전방안이 세게 되면 또 지부총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꼭같은 방식으로 토의를 반복하며 그 방안을 거수가결로 결정한다.

다음 공정은 전대회의이다. 전대회의에서 토의되는 내용과 순차도 소조회의나 지부총회와 다름이 없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비당원군인들도 문제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ㄱ이라는 도시를 치려 한다. 이 도시를 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손실은 없을 것이고 희생은 적을 것이다. 작전계획은 여사여사하다. 이 계획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면 전투명령을 하달하고 ㄱ도시로 진격해나간다.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갑작스레 의제를 설정해놓고 여럿이 모여앉아 필요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는 하자 하지 말자, 된다 안 된다, 이길 수 있다 없다는 식으로 끝없는 논쟁이 펼쳐지곤 하였다. 군사민주주의의 덕으로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개명창이 되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논쟁은 무한정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에 적정에는 변화가 생기고 각급 회의들에서 모처럼 토의결정된 작전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곤 하였다. 설사 그 방안대로 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혁명군은 정황조건의 변화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13용사의 희생은 가져온 혁명군대안에서 민주주의 코를 걸고 지나친 평등주의와 평균주의를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할하는 부대에도 없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현당군사책 김명균과 함께 1중대의 사업을 요해해보려고 병실로 찾아갔다. 그날 병실 주변에서는 중대장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중대정치지도원이 대원들과 함께 나무를 패고 있었다.

상하일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광경앞에서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명균 군사책은 웬일인지 얼굴빛이 냉담하였다.

≪지휘관들이 저렇게 이신작칙을 하니 눈맛도 좋구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군사책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왕이면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마당을 쓸어봅시다.≫

나는 마당 한쪽 구석에 나뒹구는 빗자루를 잡으려고 병실쪽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김명균은 나의 군복소매를 뒤고 슬그머니 잡아끌었다.

≪내 이제 기막힌 장면을 하나 보여주겠소.≫

그는 풍기사령에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곧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다.

풍기사령은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금은 아침 청소시간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불러오라면 불러올 게지 무슨 잔말이오!≫

군사책의 입에서는 대뜸 욕지거리가 튀어나왔다.

풍기사령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전대회의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나는 풍기사령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김명균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도 인격상으로 대원들과 동등하니 대원들이 청소를 할 때에는 상관도 만사를 제쳐놓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라우.≫

이것은 아직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초단계에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평등사상은 그 후 유격대의 군사실천에까지 부식되어 일정한 기간 그 지휘체계를 마비시켜놓았다.

물론 모든 사람, 모든 군인은 인격상으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나 오늘날의 인민군대와 같은 혁명군대에서는 매개 군인들에게 그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분공을 주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대장의 분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대장의 모자를 씌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대장의 일을 시킨다.

수행하는 임무와 분공에 따라 혁명군대 안에는 상하관계가 있게 된다. 중대장은 소대장의 상급으로 되고 소대장은 분대장의 상급으로 되며 분대장은 대원들의 상급으로 된다. 혁명군대의 군사복무조례는 하급은 상급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없고 군대의 강철같은 규율을 유지할 수 없다.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는 군인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지휘관들이 그 복무조례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에 규제되어 있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데로 나아갔다. 이것은 규율과 질서, 관병일치를 생명으로 하는 항일유격대의 생리를 파괴하고 그 도덕적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냈다.

극단적 평등주의는 군대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나타나 평등의 구호밑에 하급이 자기가 추대한 상급을 존경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준 명령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불미스러운 작태까지 뱉어놓았다.

하급이 상급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내린 명령지시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그것은 벌써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무리이다. 그런 군대에서 전사는 지휘관을 위해 방패가 되고 지휘관은 전사를 위해 육탄이 되는 고결한 동지애와 사상의지의 화합을 감히 바랄 수나 있겠는가. 자기 대오를 만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한 걸음으로 걸으며 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런 강철같은 통일체로 꾸릴 수 있겠는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전투시에 지휘관이 대원들과 꼭같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서도 나타났다. 소뿔도 각각 염주도 몫몫이라는 말은 무슨 일에나 다 각자의 차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이치이다. 이 이치대로 해석하면 전투마당에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대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지휘관들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는 돌격서열의 앞장에 서고 방어할 때에는 방어진의 1선에 서서 생사를 가리지 말고 싸우라고 설교하였다. 이런 요구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전투장에서 자기의 직무

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투상황을 부단히 살피면서 싸움을 광폭적으로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 1선에 서서 대원들과 함께 움직이다보니 부대를 정황에 맞게 제대로 통솔할 수 없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휘관이 선봉에 서서 대원들을 돌격에로 이끌 때도 있고 적탄이 작렬하는 참호와 전호들을 돌아다니며 전투원들을 고무할 때도 있다. 부대가 역경에 처하고 그것을 순경으로 바꾸어야 할 지휘관의 선구적인 모범이 필요할 때에는 응당 제1선 위치에서 대원들을 원쑤격멸에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정황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곧 이신작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도언

그 당시의 전투총화들에서는 자기의 지휘처를 이탈하여 돌격서열의 앞장에서 대원들과 꼭같이 행동한 지휘관들에게 노상 칭찬이 차례지곤 하였다. 대원들은 어느 소대장이 고지 위에 꿋꿋이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총알이 날아와도 꿈만해 한다거니, 아무 중대장은 적진으로 돌입할 때에도 대원들보다 장바 한 기장쯤은 앞서 들어간다거니, 우리 대대장만큼 적진속에 뛰어들어가 용감하게 육박전을 하는 대대장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네 상관을 추어올렸다.

전투규정이 밝히고 있는 위치에서 전투발전 전반을 정확히 통찰하고 부대의 차후 행동방향을 결심해야 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필마단창으로 적진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무모한 풍조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동만의 모든 유격대들에 다 전파되었다. 항일전쟁 초기 유격대들에서 소대장, 중대장과 같은 기본단위의 군사지휘관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이런 풍조 때문이기도 하다.

왕청에서도 필마단창의 명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김철, 김성현, 이응만 등은 다 그런 명수들이였다. 김철과 김성현은 선두에서 돌진하다가 전사하였고 이응만도 전위에서 싸우다가 발목을 상하였다.

연길의 최현과 조도언은 전 동만이 다 아는 돌격명수들이였다. 그들은 정찰도 대원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하였다. 군사 지휘관들이라기보다 중학생들처럼 물덤벙 불덤벙하는 천진난만한 모험가들이였다.

조도언은 연길유격대가 낳은 유명한 모험가였다. 입나발을 잘 분다고 연길지방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를 ≪조나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왔다.

그는 어디 가서나 이 별명 때문에 군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되였다.

사람들은 조도언이 입나발을 끊은 지 오랜 성년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백나발이 다된 말년까지도 그를 본명 대신 ≪조나발≫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항일전쟁의 포연탄우를 앞장서서 헤쳐온 투사 조도언에 대한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조나발≫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별명 대신 본명대로 조도언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이상해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지경이였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집 문밖에 와서 ≪이 집이 조도언동지 댁입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조도언은 푸접없다고 할만치 퉁명스럽게 ≪이 집에 ≪조나발≫은 있어도 조도언이란 사람은 없어. 여긴 ≪조나발≫의 집이야≫하는 대답을 하여 손님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처럼 그는 항일전쟁 시기의 전우들이 지어준 자기 별명을 이만저만 사랑하지 않았다.

조도언이 만일 고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 글에서 이름대신 대중이 그렇게도 즐겨부르던 별명을 써가며 그를 회고하고 싶다.

자기 부모의 이름자도 변변히 쓸 줄 모르던 조도언은 더벅머리총각이다 된 때에야 야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조선말 자모를 익히고 구구표와 ≪유년필독≫을 배웠다. 그는 문맹의 뒷골목에서 뛰쳐나오자마자 조직생활도 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는데 나중에는 중대장의 중임까지 맡아보았다.

조도언은 중대장이 된 다음에도 적의 포대앞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적정을 살펴보고 중대에 다시 돌아와서는 습격명령을 하달하고 선두에서 바람처럼 내달리곤 하는 유별난 싸움꾼이였다.

좌경분자들은 조도언이 백주에 적을 정찰하고 자위단을 쳐서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노획하자 각종 집회와 공식문건을 통해서 그의 무훈을 굉장히 선전하였다. 그런데 그 선전은 조도언이 그런 모험을 삼가야 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것이였다. 어쨌든 그런 선전으로하여 조도언은 온 동만이 거의 다 아는 싸움꾼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그는 대전차전투때에도 대오의 앞코숭이에서 기관총좌지를 향해 돌진하다가 치명상을 당하였다. 기관총앞으로 얼마나 바싹 접근했던지 적탄을 배를 뚫고 비스듬히 잔등을 관통하였다. 조도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이때의 부상으로 하여 그는 6년동안이나 병원생활을 하였다. 종당에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중대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가 병상에서 지낸 것은 항일무장투쟁이 대부대활동으로 전환되어 남북만주와 국내에로 판도를 넓히면서 승승장구해가던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전설적 존재로 되었고 그 혁명군의 정의로운 투쟁은 전세계 피압박민중들에게 광명을 주는 등불로 되었다. 항일전쟁은 새로운 사단들과 연대들을 지휘할 유능한 군사인재들과 백전노장들을 요구하였다.

조도언이 만일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상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항일전쟁이 가장 눈부신 앙양기를 걷고 있던 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공을 쌓아올렸을 것이다.

군대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정될 때까지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의 신변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후에 가서야 연대와 사단들에 지휘관들의 호위임무를 담당하는 경위대를 조직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또한 혁명군대의 상벌적용에서 평균주의로도 표현되였다.

항일유격부대에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상벌제도를 설정하였다. 전투와 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복무조례를 엄중히 위반한 군인들에게는 벌을 주었다. 상의 공로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하였고 벌도 과오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로 주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째서 아무개한테는 1등상을 주는데 같은 분대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한 이아무개한테는 2등상을 주는가, 아무 동무한테는 주의처분을 하면서 같은 과오를 범한 이아무개한테는 왜 경고책벌을 주는가고 시비하였으며 상벌적용에서 평균주의를 실시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거나 압력을 가하였다.

이것은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신상필벌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초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항일유격대의 군사정치도덕적 우월성을 부단히 발양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는 우리의 지향과 노력에 제동을 거는 유해로운 사상경향이었다.

이런 사상경향을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항일유격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조만

간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유격대는 상하관계도 없고 관병의 계선도 없는 무법천지의 집단으로 될 것이며 기필코 내부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게 될 것이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그 표현형태가 어떻든지간에 소부르조아사상에 바탕을 둔 기회주의적인 사상경향이였다. 이것은 사실상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였다.

소부르조아사상의 반영으로서의 무정부주의는 일반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 특수적으로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반발에 이 이념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자유, 방종을 찬양하면서 사회에 무정부적 혼란과 무절제를 끌어들이려 하였다.

자본주의적 대생산과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독재의 중압밑에서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정치적으로 무권리한 소부르조아계층의 불안한 심리를 체현한 일부 극단적인 사상가들은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타파하고 거기에 무정부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권력 일반을 반대하는데로 대중을 이끌려하였다.

프랑스의 소부르조아사상가인 프루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의 바쿠닌이나 크로뽀뜨낀 같은 무정부주의사상가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극단한 증오, 사회적 평등에 대한 무분별한 요구로 표현된 이른바 무정부주의적 이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없게 하며 착취계급의 독재를 타도한 나라들에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게 하고 진실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제도, 새 생활을 꾸릴 수 없게 하는 백해무익한 사상조류로서 엄정한 역사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사상경향은 얼마동안 소부르조아계층속에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무제한한 자유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켰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대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소부르조아적, 농민적 사상근성이 지배적인 지역과 나라들에서 일정한 파급을 보게 되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정부주의가 일정한 몫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급의 당들 가운데는 지주, 부르조아지의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에 무정부주의 세력을 끌어들인 당도 있었다. 소비에트정권이 공민전쟁 시기 우크라이나의 무정부주의집단인 다흐노일당과의 합작을 실현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항일유격대 내부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대두했던 초기만 해도 무정부주의적 경향은 일정한 사회계층, 특히는 소부르조아계층의 혁명성을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이념으로 남아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혁명실천에 무시할 수 없는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운동안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자들의 행동 역시 극단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허울밑에 부르조아자유주의와 무정부주위, 무절제, 무질서를 조장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방종을 야기시킨다. 이런 이치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극단적 부르조아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는 사상적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사분야에 침습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혼란을 낳게 된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유격대건설과 군사작전에 예상치 않은 후과를 미칠 수 있었고 전반적 혁명운동발전에 적잖은 지장을 줄 수 있었다.

우리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청산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와의 투쟁을 하

고 있을 때 십리평에서는 유격구 창설 후 1년반의 사업을 총화하고 적의 대≪토벌≫에 대처한 유격구방위대책을 세우기 위한 동만유격대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는 이 회의에서 김일룡과 김정룡을 만났다. 김일룡은 안도유격대대장이였고 김정룡은 정치위원이였다. 화룡현에서는 유격대 장대장과 정치위원 차룡덕이 왔고 연길현에서는 유격대총대대장 주진, 대장 박동근, 정치위원 박길이 왔다. 훈춘동무들도 참가하였는데 누구누구였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는 부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박동근

우리는 유격대오 안에서 부대지휘의 기본은 지휘관의 결심이고 엄정한 중앙집권적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부대지휘관리방법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대안에는 상하관계의 구별이 명백하고 무조건적이여야 하며 지휘관은 상부의 명령집행에서 견결하고 적극적이여야 하며 일단 채택한 결심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언제나 주동적으로 지휘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성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지휘관이 지휘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휘관은 상급의 명령집행과 전투지휘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줄 알아야 한다.

지휘관은 명령 하나만으로 부대를 지휘하지 말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원들의 자각적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의 전쟁은 필마단창으로 승패를 겨루던 노예소유자 시기나 봉건시기의 전쟁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싸우는 현대적인 인민전쟁이다. 싸움의 승패는 누가 군민의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더 훌륭히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있다. 군민의 열정과 창조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당회의, 전대회의, 선동원의 해설선전 등은 다 정치사업을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휘관들은 이 수단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그 때 내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런 것이였다.

나는 훈춘유격대가 대황구에서 범한 과오를 비판하고 13용사의 희생을 초래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해독성을 두고 각 현 유격대 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내가 간단히 언급한 이러저러한 일화들이나 그 일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유치하고 소아병적인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경향에 대하여 우리의 후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무장투쟁을 갓 시작한 그때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대내에 침습한 것은 근거지방위와 통일전선의 중하를 걸머지고 부대관리를 책임진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회의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의 원칙에 의하여 부대를 지휘관리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대황구사건 후 유격부대들에서는 서로 상치되는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중 하나는 지휘관의 유일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였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부대관리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두 주장이 다 일장일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유일관리제를 절대화하면 부대 지휘와 관리에서 독단과 주관이 조장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절대화하게 되면 지휘와 관리에서 신속성과 민첩성을 잃어버릴 수 있

였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라는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토의에 붙였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라는 것은 지휘관이 당조직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부대를 책임지고 지휘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집체적 협의는 매 시기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적 과업을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해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는 고도의 신속성과 결단성, 행동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요구에 맞게 지휘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 안에 정연한 명령체계를 확립하여 강철같은 규율을 세울 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박길

지휘관의 명령은 어느 개인의 의사의 반영인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민주주의적,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다. 군사명령은 법적 성격을 띠며 상관은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지다. 대원들은 명령을 조금이라도 에누리하거나 흥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지휘관들은 명령의 집행과정을 옳게 지휘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유치한 평등주의, 무정부주의 같은 소부르조아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부대 안에 건전한 사상분위기를 조성할 데 대한 과업과 상하일치의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관한 과업도 논의하였다.

십리평의회를 통하여 유격대 지휘관들은 각성되었다. 거듭되는 전투의 시련속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완전히 극복되어나갔다.

항일전쟁 초시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국제적 연합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 인민군대 안에는 무원칙한 평등이나 평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상관의 명령을 흥정하는 사람도 없다.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전사들은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한 가지의 말로만 대답할 뿐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인선서를 한 그날부터 제대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충신들의 집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견해를 알려면 그들의 전투적인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를 보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 군인들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상하일치의 참다운 면모를 찾으려면 한 몸을 바쳐 수많은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김광철영웅과 한영철영웅의 최후 하나만을 알아도 만족할 것이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시정되었으나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문제는 오늘도 의연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만 극단적 민주주의는 반대하며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지나친 평등주의는 금물로 여긴다. 극단적 민주주의나 극단적 평등주의가 다같이 수정주의를 끌어들이는 매개물로 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정주의의 더러운 병균으로 침식시키지 못해 안달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정주의가 우리의 체내에 침습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극단적 민주주의로 하여 구락부화되고 장마당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하여 강요되었던 항일전쟁 당시의 진통과 동구라파의 교훈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5. 마촌작전

그 해 가을 유격구에는 열병이 돌았다. 오한과 고열이 겹치면서 피부에 불긋불긋한 반점이 생기는 이 급성전염병은 굉장한 전파력을 가지고 소왕청골 안을 휩쓸었다. 나도 이 병에 걸려 십리평에서 옴짝 못하고 앓았다. 후에 알게된 데 의하면 발진프스였다.

지금의 새 세대들은 발진프스를 모르고 산다. 벌써 오래 전에 전염병을 근절한 무균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60년 전까지만 해도 유격근거지 인민들은 전염병 때문에 모진 고통을 겪었다. 그리 크지 않은 골짜기에 수천 명 주민 오골오골 모여서 살다나니 병도 오만가지가 다 돌았다. 사흘이 멀다하게 ≪토벌대≫가 달려들어 불질을 하고 이산 저산 쫓아다니며 도륙질을 하는 때여서 위생조건이 불리해도 개선할 도리가 없었고 병을 예방하고 싶어도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전염병같은 것이 발생하면 삽짝문앞에 새끼줄을 치거나 바람벽에 ≪출입금지, 전염병≫이라고 쓴 광고딱지를 붙여놓는 것이 고작이었다.


최금숙

적들이 수천 명이나 쓸어들어 근거지를 없애보겠다고 날마다 사생결단을 싸움을 걸어오는 때에 전염병까지 겹쳤으니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련을 겪는 셈이었다. 나까지 덜컥 열병에 걸리게 되자 지도부의 간부들은 다같이 사색이 되어 유격구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들은 나의 호위 겸 간호를 위하여 김택근소대장과 그의 부인을 보내주고 1개 소대 가량의 병력까지 붙여주었다. 다른 부대들이 다 전투하려 나갈 때에도 그 대원들만은 남아서 십리평을 지켰다. 김택근부부는 둘 다 북만 액하라는 곳에서 살다가 동만땅에 와서 혁명투쟁에 참가해보겠다는 충동을 가지고 목릉을 거쳐 왕청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이 부부외에 또 최금숙이라고 부르는 왕청현 부위가 당적으로 나의 간호를 책임지고 십리평에 와 있었다.

처음에 나는 춘자라는 여자의 집 윗방에서 병치료를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김권일은 구당 서기로도 사업하고 후에는 현당서기로도 활동하였다.

적들이 유격구에 달려들기만 하면 김택근은 나를 업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피해다니곤 하였다.

≪토벌≫이 심해지자 그들은 나를 업고 물곬을 따라 십리평골 안에 깊숙이 들어가 적의 발길이 닿지 못할 어떤 바위츠렁밑에 막을 치고 밧줄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자그마한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나는 여기서 세 사람의 도움으로 병을 완치하였다.

그 세 사람은 나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그들의 지성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십리평 골짜기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병이 어찌나 심했던지 나는 그때 여러 번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 내가 혼수상태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이렇게 앓아 누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택근이 식량공작을 나가고 없는 날이면 최금숙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아 헤맸다. 내가 이 여자의 덕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는 원래 왕청에 온 초기부터 최금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가 남북만원정을 끝내고 마촌에 왔을 때 그는 대왕청에서 제2구 부위로 공작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현부녀회사업은 이신근이 맡아하였다. 최금숙이 사업토의를 하러 이신근을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치백 노인의 집에서 종종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들은 서로 자매간처럼 가깝게 지냈다.

이신근은 최금숙이 글을 빨리 쓴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무심히 들었다. 여자가 글을 빨리 쓰면 얼마나 빨리 쓰랴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그가 정리한 회의록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들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 속기수들이 글을 빨리 쓴다고 하지만 그와 비교할 만한 속기수를 나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최금숙은 우리가 토론한 것들을 하룻밤사이에 다 정리해내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그에게 기록을 위임하곤 하였다.

최금숙은 남성들처럼 성미가 서글서글하고 인자하면서도 대가 있고 혁명적 원칙성이 강했다. 내 말이라면 모래불에서 배를 끌라고 해도 끌 그런 여자였다. 내가 그에게 공작임무를 주어 적 통치구역에도 여러 번 파견하였는데 적구에 가서도 일을 아주 능란하게 하였다.

최금숙은 부모가 없는 나를 여성으로서 무척 동정하였다. 그가 나를 친동생과 같이 사랑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보면 누이라고 불렀다.

내가 싸움터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나를 찾아왔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한 가지씩 준비했다가 살그머니 쥐어주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옷도 기워주고 털실로 내의도 떠주었다.

최금숙이 이수구골 안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다나니 만나기만 하면 서로 농도 자주 하였다. 함경도 지방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런 것처럼 그도 동네집 늙은이들을 만나면 ≪아배≫나 ≪아매≫라고 불렀다. ≪온성집 아배≫니 ≪무산집 아매≫니, ≪회령집 아재≫니 하는 식의 말은 어휘도 별스러웠지만 억양부터가 재미나게 들렸다. 내가 자기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좀 지나친 농을 하여도 그 여자는 성을 내지 않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대범한 최금숙이도 한 가지 농만은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기를 보고 미인이라고 하면 그는 놀려준다고 야단이었다. 나는 최금숙이 내 잔등에 주먹질을 해대며 야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미가 나서 그가 어색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미인이라고 농을 하였다. 사실 그는 뛰어난 미녀는 아니었지만 아주 복성스럽게 생긴 여자였다. 나의 눈에는 도회지의 아가씨나 숙녀들보다도 최금숙과 같은 유격구의 여자들이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이 세상에 유격구의 여성들처럼 아름다운 여성들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얼굴에 화장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매연속에서 고생고생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타발하지 않고 오직 혁명에만 전심전력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최상의 미를 찾았다. 내가 최금숙이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한 것은 이런 심리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때 근거지의 여성들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노획한 전리품들속에는 종종 분이나 크림과 같은 화장품들이 섞여 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우리 대원들은 그런 화장품들이 보이기만 하면 일본 계집년들

의 상판대기를 곱게 해주는 물건딱지들이라고 하며 개울속에 집어던지든가 발로 막 짓뭉개놓고 하였다. 얼마 동안은 나도 향내나는 고급 전리품이 그렇게 처분되는 것을 방임해두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우리 유격구의 여성들은 그 당시 화장을 하지 않았다. 분내나 향수내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간혹 명절같은 때 어쩌다가 화장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정작 대중집합소에 나타나면 뒷구석에 서서 줄곧 남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이것을 분하게 느꼈다. 그들이 일년내내 분도 바르지 못하고 검댕이나 잿가루가 묻은 얼굴로 포연내를 맡으며 고생스레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화장품을 버리지 말자. 우리의 곁에도 여성들이 있지 않은가. 유격구의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라던가. 우리의 여대원들과 부녀회원들보다 더 훌륭한 여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말에 호응하였다.

≪옳습니다. 우리 유격구의 여자들보다 더 좋은 여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벌써 1년반째나 이 유격구에서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토벌≫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애인들을 잃고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고 한지에서 떨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대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남아들로서 그들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연지, 곤지를 찍어 세상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그들에게 다 보내줍시다. 화장품이 생기면 분도 바르라고 합시다.≫

우리는 어느 날 부녀회원들에게 줄 화장품을 노획해가지고 최금숙을 찾아갔다. 최금숙은 그 화장품 보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날부터 소왕청유격구에서는 분내가 돌기 시작했다. 명절날 아동유희대의 공연이 진행되는 구락부에 갔더니 거기서도 분내와 크림내가 났다.

그런데 최금숙이만은 웬일인지 며칠이 지나가도 화장을 하지 않고 다녔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왜 화장을 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는 대답대신 나를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는데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이신근을 통해 그 곡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최금숙이 자기 몫으로 남겨놓았던 화장품을 십리평의 부녀회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우리는 적의 후방을 치고 다시금 많은 양의 화장품을 노획했다. 나는 그 중 일부를 최금숙에게 주면서 이번만은 자기 몫을 양보하지 말고 화장을 꼭 해보라고, 화장한 금숙 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최금숙은 목숨을 걸고 구해온 화장품인데 대장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화장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며칠 후 나는 최춘국중대의 사업을 지도하려고 십리평에 가다가 대왕청하 기슭에서 최금숙을 만났다. 인적기가 없는 강가에서 행길 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물 속을 들여다보는 그의 청초한 모습이 보이자 나는 이성림전령병을 시켜 대왕청 부녀회장이 왜 물가에 앉아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우물터

이성림이 최금숙의 곁에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였다. 무슨 일 때문인지 어린 전령병은 갑자기 배를 그러쥐고 까르르 웃어댔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곁으로 바삐 걸어갔다.

≪대장 동지, 저 금숙 누이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내가 물가에 나타나기 바쁘게 이성림은 웃음을 그치고 최금숙의 얼굴을 손짓해 보였다.

그순간 나도 부지중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복성스럽고 해맑은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부녀회장의 얼굴은 온통 연지와 크림으로 얼럭덜럭 매닥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금숙 자신은 영문을 모르고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부녀회장 아지미, 얼굴이 만국지도가 됐어요.≫

이성림이 이런 마을 해서야 최금숙은 ≪에그머니!≫하고 시냇가에 펄썩 주저앉아 얼굴에 와락와락 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화장을 서투르게 한 것이 죄가 될 수 없고 수치로 될 수 없건만 그는 큰 창피라도 당한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몰라하였다. 물가의 빨랫돌앞에는 며칠 전에 내가 보내준 크림과 연지통이 놓여 있었다.


이성림

내가 보기에도 최금숙은 화장솜씨가 대단히 서툴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어찌 놀림가마리로 삼을 수 있겠는가. 최금숙은 화장을 처음 해보는 여자였다. 그에게는 거울조차 없었다. 그래서 시냇물에 얼굴을 비쳐보며 조심조심 크림도 바르고 연지도 찍었다. 그가 얼굴에 만국지도를 그린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이성림이 아까처럼 또 최금숙의 곁에 다가서서 시까스르려는 눈치를 보이자 나는 손을 가로저어 그를 제지시켰다. 아마 그때 이성림이 몇 마디만 더 했더라면 최금숙은 그 시냇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달아나버렸을 것이다.

아침마다 화려한 체경이나 삼면 경대앞에서 고급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는 여성들이 이 대목을 읽게 되면 누구나 최금숙을 동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품으로 삼면 경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가려는 우리 여성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 땅에 배를 붙이고 풀죽을 먹으며 근거지를 지키느라고 악전고투할 때만 하여도 소왕청 주민들속에는 삼면 경대는커녕 손거울을 가진 여자조차 몇 명 없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싶으면 모두 최금숙이처럼 강가로 나갔다.

나는 그날 최금숙의 화장솜씨를 흉보던 이성림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유격구의 여자들에게 거울을 마련해주지 못한 내 자신에게 화를 냈다.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 바치는 정성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울이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나 인민이 우리를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그 무한대한 온정을 능가할 수 없었다.

최금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가 자기에게 준 믿음보다 몇 배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시종일관 나를 따뜻이 간호해주었다. 나의 병이 호전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100리나 떨어져 있는 도문이었다. 도문은 조선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물산의 집산지였다.

최금숙은 거기서 조선 배와 조선 사과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십리평으로 돌아왔다.

그 배와 사과를 보니 눈물이 났다. 멀리 저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최금숙으로 소생하여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환각도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어머니나 친누이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었다.

≪금숙 누이, 누이의 이 신세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까!≫

나는 최금숙이 쥐어주는 조국의 과일향기를 가슴 뭉클하게 들여마시며 감사의 정에 넘쳐 말했다.

≪신세? 정 신세를 갚을 생각이라면 독립된 다음 평양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우다. 평양이 천하제일 강산이라는데….≫

최금숙의 대답은 농담 절반, 진담 절반이면서도 사뭇 절절하였다.

≪그건 염려마십시오. 아무렴 그런 소원이야 못 풀어주겠나요. 누이, 조국이 해방된 다음 평양땅을 밟아보기 위해서도 죽지 말고 싸웁시다!≫

≪나는 죽지 않는다우. 그런데 난 동생이 항상 걱정이라니까. 도무지 몸을 돌보지 않으니….≫

최금숙은 내 입맛을 돋구느라고 절구에 찧은 깨를 얻어다가 찬에도 넣어주고 죽에도 넣어주었다. 그는 내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것도 영양부족 때문이라고 하면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해주지 못해 여간 애를 태우지 않았다.

정성은 극진하였으나 모든 것이 귀하고 바른 때였다.

김택근이 개천에 나가서 버들치를 잡아다가 썩장에 넣고 끓여도 주고 구워도 주었다. 근 하루에 70－80마리씩 고기를 잡고 하였는데 열성도 열성이거니와 솜씨 또한 여간 아니었다.

최금숙은 내 밥상에 끼마다 버들치밖에 놓아주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던 나머지 마을에 가서 국수를 받아왔다. 그는 나의 안부를 묻는 유격대원들에게 대장의 몸을 빨리 추세워야겠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야단이다. 택근소대장이 잡아오는 버들치만으로 매일같이 밥상을 차리자니 딱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데도 대장은 맛있다고만 하더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대의 고기잡이 명수들이 하루는 후리질을 하여 한 가마니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거처로 찾아왔다. 최금숙은 그 물고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사 때마다 내 밥상에 놓아주곤 하였다.

병에 차도가 좀 보이자 최금숙은 내가 정신을 잃고 앓을 때 어떤 알지 못할 여자의 이름을 줄창 부르더라고 하면서 우스개삼아 그 입내까지 냈다. 그 입내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가 김택근의 아내와 함께 사전에 꾸며낸 것이었다. 아주 엉터리없는 내용이었지만 나는 발병 후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눈물겨운 연극이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병상에 매인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그런 연극을 꾸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금숙은 내가 병이 완치되기 전에 마촌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날짜까지 속여가며 나를 간호해주었다. 나는 실신상태에서 깨어날 때마다 며칠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가고 묻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여자는 날짜를 줄여서 대답하곤 하였다. 가령 내가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으면 2시간이라고 대답하였고 닷새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앓았다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해 넘겼다. 병이 완쾌된 다음 그가 말한대로 앓은 날짜를 합쳐보니 열흘도 되나마나하였다.

나는 열흘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을 놓았다.

그가 대포를 불었다는 것은 최춘국이 나의 초막으로 문병을 왔을 때에야 들장이 났다. 이 고지식한 정치지도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 몰랐다. 그는 내가 앓은 것이 한 달 동안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 한 달이라는 말을 듣고 최금숙은 눈치가 곰발바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애꿎은 최춘국을 나무랐지만 나는 정신을 펄쩍 차리고 마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휘부에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정보자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보자료들에는 간도치안을 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내가 앓고 있는 한 달 사이에 적들은 동기≪토벌≫ 준비를 완료하였다. 일본내각에서 파견된 고위관리들이 간도 땅에 기어들어 군대, 헌병, 경찰, 외사 부문의 수괴들과 함께 동만유격근거지들에 대한 동기≪토벌≫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도쿄에서는 이 문제가 내각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다.

일제가 만주문제를 놓고 벌인 회의들에서는 ≪만주의 치안은 간도로부터!≫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들은 간도의 치안이 만주국 건설의 대업에 지대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일본제국 변경의 안녕에도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주국을 위해서나 일본 자체를 위해서도 최대의 긴급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쏘련에 대한 침공을 제일사명으로 하는 관동군 사령관 자신이 만주의 경무기관을 통제하고 군대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 헌병장이 간도치안의 제1선에 서게 한 것은 대만주국의 전도를 위하여 축복할 만한 일이라고까지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국을 조작해낸 후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각방으로 주요한 대책을 세웠다. 간도임시파견대를 대신하여 관동군사단을 새로운 ≪토벌≫역량으로 들이밀었으며 현을 단위로 무장한 행정경찰대를 편성하고 고등사법경찰과 산업경찰을 설치하는 등 경찰조직을 입체화하고 경찰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반항분자의 근절소탕과 민심의 안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일만합동 자문기관으로서의 치안유지회가 중앙은 물론, 성과 현을 단위로 하여 만주전역에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고 형형색색의 간첩 주구단체들이 출현하여 공산주의진영에 검은 촉수를 뻗쳤다. 옛날 중국에서 이미 실시되었고 일본이 대만과 관동주의 치안유지에서 좋은 실적을 올려온 보갑제도의 도입으로 일만경찰은 백성의 손발을 더욱 철저히 얽어매어놓았다. 재향군인들로 이루어진 일본인 무장이민의 대대적인 유입과 자위단 역량의 확대도 동3성 일대에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는 반만항일세력을 제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일제는 토비공작에 종사하는 현지의 고등경찰관들에게 즉석에서 상대를 처형할 수 있는 ≪임진격살≫의 권리를 주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일제가 식민지 만주국의 지배와 유지를 위해 얼마나 고심참담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실증해준다. 특히 동북일각에서 제국의 면상과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기는 간도지방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과 그를 골격으로 하는 광폭적인 민족해방운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골치아픈 일로 되었다. 일본의 어느 헌병장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진압하는데 따라 간도치안의 9할이 성



소왕청 유격구역

공된다고 한 것은 결코 허공에 뜬 엄살이 아니다.

이른바 대일본제국은 항일유격대와 그 전략적 지탱점인 유격근거지들을 이처럼 무서워했다. 그러므로 일제는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만의 항일유격구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발악했다.

1933년 여름에 일본군부는 항일유격대의 공격에 만신창이된 간도임시파견대의 일부를 조선으로 소환해가지고 그 대신 히도미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관동군의 정예부대들을 동만 각지에 투입하였다.

조선강점군의 기본역량은 유격구 ≪토벌≫작전에 즉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북부 국경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도합 만 수천 명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이 간도의 유격구들을 포위하고 동기≪토벌≫행진을 개시하였다.


홍범도

적들은 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자리잡고 있는 소왕청유격구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이 일대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 자위단으로 구성된 5,000여 명의 무력을 들이밀었다. 방진대열을 짓고 적과 승부를 겨루던 매뉴팩츄어 시기의 전쟁을 제외한다면 산병선이 출현한 이후부터의 전쟁에서 병력을 이런 정도로 조밀하게 배치한 실례는 러일전쟁 당시의 여순공방전밖에 없을 것이다.

비행대들도 출동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렸다. 간도특무기관이 주관하는 특별수사반도 유격구 일대에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동만의 모든 지역은 우리와 일본제국주의와의 가장 격렬한 혈전장으로 되었다. 몇 개 지역의 유격구를 보위하는 방위전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결전이었다.

그런데 소왕청에는 2개 중대의 유격대 역량밖에 없었다. 게다가 유격구에는 식량의 예비가 얼마 없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그 존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었다.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강적을 2개 중대의 역량으로 격파할 수 있다고 믿는 낙천가는 유격구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앞에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느냐, 아니면 유격구를 포기하고 적에게 굴복하느냐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흰 기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유격전술상의 원칙을 놓고 보면 이런 대결전은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였다. 그런데 대결전을 하지 않으면 적들이 일격에 두만강 연안의 모든 유격구들을 삼켜버릴 수 있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인민혁명정부의 혜택속에서 참다운 평등과 자유를 누리던 혁명군중이 엄동설한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유격구를 잃는다면 인민이 다시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였다.

왕청도 가을이면 절경이다. 그런데 이 가을은 동기≪토벌≫의 폭풍에 뒤죽박죽이 될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묘술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궁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내 주변에는 전술문제를 논의할 만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박훈도 가까이에 없었고 쏘련에서 몇 해 동안 군대생활을 하다가 나온 ≪쏘거우재≫ 김명균과 독립군사관학교 졸업생인 이웅걸은 ≪민생단≫으로 몰리다가 자취를 감추었다. 양성룡도 ≪민생단≫바람에 녹아났다.

홍범도와 같은 명장이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홍범도는 왕청땅에 큰 자국을 찍어놓은 의병장군이었다. 청산리와 봉오골에서

독립군부대들이 쌓아올린 혁혁한 무공의 출발은 바로 그의 지략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홍범도를 지략은 없이 요령으로만 싸우는 장군이라고 속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였다. 그들이 말하는 요령이라는 것도 근본을 따지고 보면 결국 지략의 소산인 것이다.

홍범도가 뛰어난 지략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였다. 지략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고려령에서 그처럼 교묘하고 용의주도한 복병술로 일본군대를 대패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초부다운 모습에서 은은히 내뿜기는 지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홍범도를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범도(가운데)

할바령 일대를 쥐락펴락하던 대한독립군 총사령의 그림자가 왕청땅에서 자취를 감춘 지도 수삼 년이 되었다. 세월의 이끼에 덮여 이제는 사람들의 추억속에서 그의 모습마저 희미해져가는 상 싶었다.

어려운 때를 당하고 보니 선열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절절해졌다.

내가 전술문제를 두고 연일 지휘부 귀틀집에서 모대기고 있을 때 하루는 이치백노인이 꿀단지를 들고 자정이 다되어 나를 찾아왔다.

≪열병을 앓을 때 아무것도 못해주었는데 이걸 쓰구 몸을 좀 추세우게.≫

노인이 내앞에 꿀단지를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산청이라는 게 금값에 가는데 용케 구하셨습니다.≫

≪황가리골치기에 사는 마영감이 구한 거라네. 일전에 영감이 산청을 뜬 게 있다구 자랑하길래 찾아갔더니 단지째로 넘겨주는 게 아니겠나. **김일성**대장의 몸을 추세우는 일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장만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하더군. 내 지금 그 영감을 만나고 오는 길이네.≫

나는 노인들의 지성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야 젊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꿀은 아버님께서 쓰셔야 하겠습니다.≫

≪늙은 것들의 성의를 마다하면야 안 되지. 내 그러지 않아두 김대장의 간호를 못해서 내내 가슴이 알찌근했는데… 대장이 요새 얼굴색이 말이 아니야.≫

노인은 집에 가서 밤참이나 같이 들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노인을 따라나섰다. 밤참도 밤참이려거니와 나와 반성위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였다.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나의 정은 의연히 나를 친아들 못지 않게 따뜻이 돌보아주던 그 수더분하고 인심 좋은 집에 많은 몫을 남겨두고 있었다.

우리는 밤참으로 땅콩을 넣은 강냥죽과 호박을 먹었다. 방금 열병을 앓고 난 뒤여서 그런지 음식맛이 꿀처럼 달았다. 안주인인 서성녀어머니는 내 식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음식 가운데서 제일 이채로운 것은 구운 감자와 구운 강냉이었다. 간도지방 감자는 크기도 하거니와 한 해 묵은 것은 당분이 많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통무우김치물에 이런 구운 감자를 먹으면 별맛이었다.

나는 밤참을 먹은 후 반성위가 묵어간 그 방에서 이치백노인과 함께 가지런히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웬일인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내처 한숨을 지었다. 몇 달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또 가슴에 사무치는 모양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노인의 아들 이민권은 1933년 봄에 투항해가는 관부대의 무장을 해제하러 갔다가 중상을 입고 치료도중 추월구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민권의 추도식 때에는 나도 참가했다. 1932년 9월에는 이 집에서 유격대원 최윤식의 추도식도 하였다.

≪아버님, 왜 긴밤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나는 이불자락을 걷어젖히고 노인 쪽을 향해 모로 돌아누웠다.

≪잠이 안와서 그러네. 적들이 유격구 문밖에까지 와서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다는데 어디 배포유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이번 ≪토벌≫에 유격대가 거덜난다는 말이 도는데 대장 생각은 어떤가?≫

≪유격대가 망한다는 건 반동들이 내돌리는 요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하게 잡도리를 하면 유격구가 이틀이나 사흘 안팎으로 거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유격구의 운명이 사실은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격구가 거덜난다는 건 말이 안돼. 유격구가 없이야 무슨 재미로 살겠나. 차라리 죽어서 까마귀밥이 되든가 북망산귀신이 되는 게 낫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근거지를 베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적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소왕청을 지키는 우리 군대는 적의 100분의 1이나 되나마나하니….≫

노인은 담배를 몇 모금 빨고 나서 내앞으로 바싹 베개를 밀어놓으며 근엄하게 말했다.

≪병졸이 부족하면 나도 대장의 부하가 되겠네. 우리 소왕청에 나처럼 불질을 할 줄 아는 늙은이들이 한둘이 아닐세. 총만 한 자루씩 쥐어주면 강화진위대 찜쪄먹게 싸울 수 있네. 전에 우리가 살던 중경리 근처에 독립군들이 파묻고 간 총과 철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포수나 독립군 출신 영감들은 말할 것도 없구 청년사업이요 뭐요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우리 사위 중권이 같은 패들두 무장시킬 수 있지 않겠나. 모두가 싸움꾼이 돼서 너죽고 나죽고 해볼 판이지. 총이 없으면 하다못해 놈들의 멱다시를 잡구 배지개를 뜨면서라도 근거지를 지켜내야 할 게 아닌가.≫

노인이 이 말은 적아의 역량대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고민을 겪고 있던 나에게 전민항전만이 닥쳐온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격전의 제1선에 유격대와 함께 배치하려고 이미부터 내정하였던 자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 뿐만 아니라 비무장인원들까지 전부 동원하여 도처에서 결사전을 벌인다면 싸움에서 능히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심이 생겼다. 소왕청방위전은 적국 대 항일유격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적국 대 유격구내 전체군민과의 싸움으로 되어야 했다. 우리의 편에는 반유격구인민들도 계산해 넣을 수 있었다.

이치백 노인과의 담화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렇다. 인민이 싸운다면 싸우는 것이고 인민이 이긴다면 이기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인민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인민을 얼마나 잘 동원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수천 명 왕청유격구 인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노인의 침착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안았던 첫 충격이었다. 우리가 구상하는 작전속에는 반드시 이치백노인이 헤쳐보인 것과 같은 인민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벌이게 될 소왕청방위전투는 유격구의 남녀노소가 다 동원되는 전민항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민항전이라는 이 규정속에는 2년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군대와 생사고락을 같이한 유격근거지의 인민들에 대한 최대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 싸움 그 자체가 생활로 되고 있었던 유격근거지에서의 짧지 않은 세월이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창설 후 2년동안 유격근거지가 건재할 수 있은 것은 군대의 덕만이 아니였다. 그 요인 가운데는 군건설과 유격구보위에서 적지 않은 몫을 담당한 인민의 힘도 포함되어 있었다. 1대 10이나 1대 100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때에도 인민이 후위에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몰랐다. 인민이 더운물과 주먹밥을 들고 전호로 뛰어오는 숨결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전투력은 천백 배로 강해졌다.

전민항전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된 배경에는 인민의 힘에 대한 이런 타산이 적용하였다.

이 타산은 살아도 유격근거지에서 살고 죽어도 유격근거지를 베고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군대와 혼연일체가 되려는 인민의 의사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인민을 최대한 동원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힘으로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치백노인이 나에게 귀띔해준 유격대의 예비였다. 아니 유격구의 인민은 우리가 의거해야 할 예비정도가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주력군이었다.



북로군정서

우리는 적의 역량이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힘을 합쳐 습격소멸하고 역량이 집결되어 쳐들어올 때에는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는 종래의 전술적 원칙을 다시금 확정하고 소왕청 관내 전체주민들에게 전민항전을 호소하였다.

유격구인민들은 그 호소를 받들고 조직별, 계층별로 격전준비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다. 자위대와 청년의용군은 유격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차지하였고 총이 없는 청장년들은 방어전연의 경사가 급한 고지들에 돌무지를 쌓아놓았다. 장포수, 최포수, 이포수를 위시한 왕청의 명포수들이 마촌에 달려와 독립군 출신 영감들과 함께 포수대를 뭇고 전방으로 출동하였다. 작식대와 담가대에 망라된 여인들도 화선으로 달려갈 차지를 하였다. 아이들은 널판자에 못을 박아 적 군용자동차들이 지나갈 도로들에 파묻었다.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은 대피지로 소개되었다.

우리는 그 때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왕청을 버리고 달아난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격전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왕청땅에는 봉오골에 새겨진 전승의 기록만이 아니라 토벌대 무리들의 총검에 동포들을 내맡기고 철퇴하던 북로군정서 소속 독립군들이 남긴 통한의 아픔과 패전의 수치도 새겨져 있었다.

남만에 서로군정서라는 독립군단체가 있었다면 동만의 왕청현 서대파 일대에는 서일을 총재로 하고 김좌진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북로군정서라는 독립군 단체가 조직되어 군세를 확대하였다.

군정서 산하에 모여든 애국지사의 수는 500명이고 탄알은 100만 발이며 자금은 무려 1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한다. 북로군정서가 운영하는 십리평사관연성소(군관학교)도 4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리만큼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 왕청과 그 아근의 농민들이 군정서 군인들에게 보낼 초신과 식량을 운반해갈 때에는 서대파까지 우마차가 꼬리를 달고 늘어섰다고 한다.

이 군대가 한때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협동하여 청산리에서 일본침략군대에 무리죽음을 주었다.

은색 세루군복에 군도를 찬 김좌진이 청총말을 타고 지나갈 때면 왕청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무슨 재상이나 이 왕의 행차라도 맞이하듯이 모두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것은 독립군이 청산리에서 세운 전공에 대한 인사였다.

그런데 이처럼 명망이 뜨르르하던 김좌진도 일본군의 간도내 ≪토벌≫이 시작된다는 정보를 듣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저항도 없이 왕청땅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왕청사람들은 독립군이 ≪토벌≫을 피해 삼십육계를 놓은 줄도 모르고 김좌진총사령을 보겠다고 앞을 다투어 생길로 쓸어나왔다.

군정서에 남은 병력은 1개 중대뿐이었다. 이 1개 중대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던지 간도≪토벌≫ 직전에 동일학교 졸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날도 동일학교에서는 관례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졸업식을 성대히 하였다.

예식이 끝나기 바쁘게 독립군들은 서둘러서 ≪독립만세!≫를 삼창하고는 음식상앞에 마주앉아 막걸리며 인절미며 냉면이며를 정신없이 먹어댔다. 그러다가 토벌대가 쳐들어오자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학생들과 학부형들도 산지사방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마치 개미굴을 터쳐놓은 것같은 광경이었다고 한다. 토벌대는 아무런 보호나 방비도 없이 살 구멍을 찾아 갈팡질팡하는 적수공권의 인민들을 총으로 쏘고 군도로 치고 날창으로 찔러 닥치는 대로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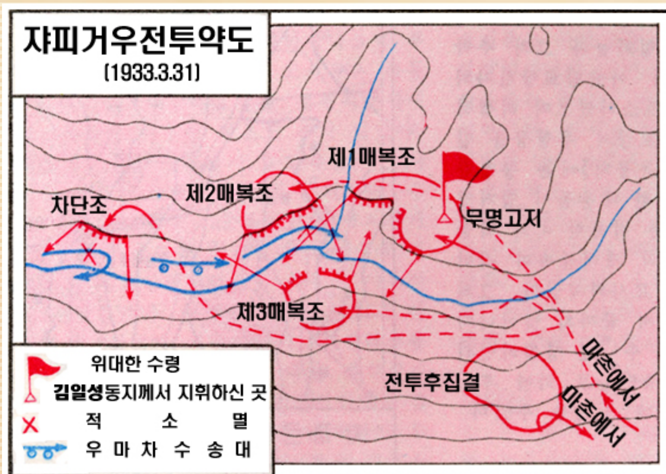
북로군정서의 독립군은 다 망하고 병패여도산 격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도 기세가 도도하던 북로군정서가 하루 아침 사이에 빈 달구지가 되었다고 왕청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왕청땅에서 이런 비운이 두 번 다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조선의 아들딸들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유격전의 요구에 맞는 매복전, 유인전, 기습전, 야간습격전과 같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전법과 전술로 적들을 족치려고 결심하였다.

이러한 유격전법들은 적들의 거듭되는 ≪토벌≫공세를 물리치며 유격구를 지켜내는 과정에 우리 자신의 지혜로 창조해낸 것이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유격전을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던 초기에만 해도 우리는 사실 전술상으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남들이 써놓은 경험이나 교범같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참고했겠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쏘련에 사람을 보내 공민전쟁 시기에 전투경험을 반영한 몇 가지 군사자료를 얻어오게 하였는데 유격투쟁의 개념이나 매복전, 습격전의 조직방법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서 얼마간 도움을 주었으나 우리의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식의 유격투쟁 교범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1933년 3월말 쟈피거우 전투가 있은 다음 1년 남짓한 기간의 무장활동을 통해 얻은 초보적인 군사경험들을 종합하여 ≪유격대동작≫이라는 소책자를 써냈다.

≪유격대동작≫에는 유격대의 정신도덕적 품성으로부터

유격전의 일반원칙에 이르는 근본 적인 문제들이 밝혀져 있고 습격전, 매복전, 방어전, 행군, 숙영 등 유격대의 전투행동조직과 사격, 무기관리, 규율에 이르는 유격대 동작의 모든 원칙과 방법들이 간명하게 규범화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손자병법이라든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같은 요란스러운 병서는 아니였다. 그러나 이름난 군사이론가도 없고 오랫동안 무장투쟁을 해본 노장들도 없었던 그 당시의 형편에서 그 소책자는 우리 식의 소박한 유격전쟁론을 대표하는 군사보감이였다. 유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이 책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풀이 일게 연구하였으며 거기에 밝혀진 교범들을 군사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유격대동작≫은 그 후에 발표된 ≪유격대상식≫과 더불어 우리의 혁명무력건설과 주체전법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원전적 기초로 되였다.

적들은 1933년 11월 17일에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방향에서 소왕청유격구를 포위 공격해왔다. 성난 이리떼처럼 눈에 살기가 잔뜩 어린 야마도의 후예들은 생나무라도 물어뜯을 험악한 기세로 유격구에 달려들었다. 그 오만하고 도도한 기세란 실로 왕청땅을 열다섯번쯤 탕치고도 남을 만한 것이였다.

대≪토벌≫은 엄혹한 동기조건에서 파상식으로 지독스럽게 감행되였다. 적의 비행대들은 군정지도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던 마촌과 이수구를 연거퍼 폭격하였다. 전술도 이만저만 악착스러워지지 않았다. 적들은 유격구로 쳐들어왔다가도 공격이 좌절되면 그날로 되돌아가는 종전의 피스톤식 ≪토벌≫로부터 공격이 실패해도 물러가지 않고 도달한 계선에 그대로 주저앉아 숙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차지한 지대를 공고히 해가는 ≪보보점령≫의 전술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점령지역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일체 부동산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불사르는 지독한 전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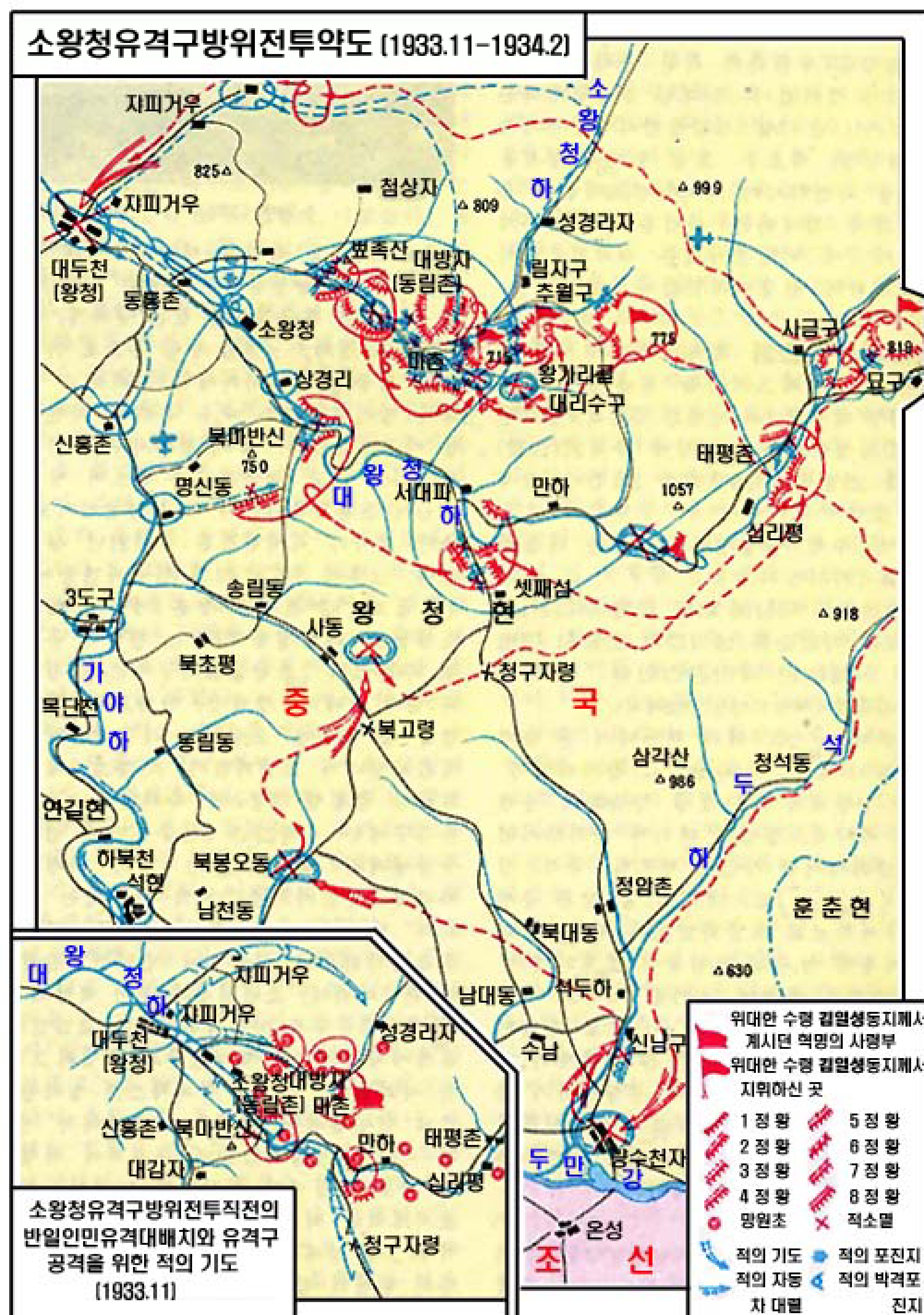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일심동체가 되어 유격근거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하였다.

적아의 공방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곳은 유격구의 관문이 뾰족산과 마반산 쑥밭골 초소였다.

뾰족산과 마반산을 지키던 3중대와 반일자위대는 적을 20미터 안팎의 근거리에까지 접근시킨 다음 불의적인 집중사격과 작탄세례, 돌세례를 안겨 달려드는 족족 모조리 소멸하였다. 적들은 파도식으로 악착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유격구의 전초진지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하였다. 마반산 계선의 방위자들은 높은 속도의 기동력으로 유격구를 우회공격하는 적 기병들을 대왕청하 굽인돌이에서 통쾌하게 섬멸하였다.

적의 대병력이 뾰족산과 마반산 진지에 연속 투입되자 우리는 전면적 방어전으로부터 유인기만 전술을 위주로 하는 신축자재한 기동한 적극적인 방어활동에 의한 소모전에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전투형식으로 적의 병력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동시에 주동에 서서 교전상대를 싸움에 부단히 끌어들임으로써 적에게 일분 일초의 안정도 허용하지 않는 특이하고 자유분방한 전법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전투형식을 제때에 택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어전술에만 매달렸더라면 유격대는 숫적 우세와 전투기술기재의 우세를 믿고 거머리처럼 악착스럽게 달라붙는 적의 공격앞에서 지리멸렬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전술적 조치에 따라 유격대원들은 반군사조직성원들과 함께 전초진지들에서 철수하여 유격구의 종심깊이로 적을 끊임없이 유인하면서 매복전, 저격전, 숙영지습격전, 불무지작탄전 등의 천변만화한 전법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통쾌하고 때렸다.



불무지작탄전이라는 것은 코흘리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였는데 그 효율이 100프로였다. 우리는 진지를 옮길 대마다 다음 계선으로 철수하면서 불무지들에 작탄들을 파묻게 하였다. 적들은 우리의 방어진을 차지하기 바쁘게 불무지앞에 모여들어 언 몸을 녹이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작탄이 폭발하여 적들을 요정냈다. 오

백룡의 넷째 동생 오룡석도 자위대에 망라된 여자들과 함께 뾰족산 중앙보초소에서 이런 방법으로 적들을 살상하였다.

우리는 적들의 숙영지에 대한 야간습격전도 자주 조직하였다. 2-3명이나 4-5명 규모로 무어진 습격조를 적진속에 들여보내어 적국와해를 위한 삐라도 뿌리고 총도 몇 발씩 쏘고 오게 하였다. 적의 천막이나 불무지같은 데 총을 서너 방만 갈겨도 온 숙영지가 수라장이 되곤 하였다. 이런 야습은 하룻밤 사이에도 세 번, 네 번, 지어는 다섯 번씩 하는 때도 있었다. 적들은 온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떨거나 저희들끼리 헛총질을 해댔다. 우리의 연속적인 기습을 겁을 먹은 적들속에서는 전쟁정신병자까지 발생하였다.

어떤 적병들은 유격대원들이 뿌린 ≪일본병사들에게 격함!≫, ≪위만병사들에게 격함!≫과 같은 선전물들을 보고 우리측으로 투항해오기도 하였다.

포수들도 화승대를 들고 전장에 달려나왔다. 나이 많은 영감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사격술은 대단하였다. 적 장교들만 골라가며 쏘아눕히는 그 탄복할 만한 솜씨는 현대 저격수들의 솜씨와도 견줄 수 있었다. 부녀회원들은 주먹밥과 더운물을 이고 연방 전호로 들락날락하였다. 열살 안팎의 아이들도 싸움터에 찾아와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면서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등사그림 - 위만군 병사들에게 격함

마촌작전 과정에 이채를 띤 것은 돌벼락작전이었다. 유격구와 군대와 인민은 뾰족산과 같은 전초진지들에 돌무지들을 마련하였다가 ≪토벌대≫가 달려들 때마다 무리죽음을 안기곤 하였다. 경사가 급한 산벼랑으로 돌사태가 쏟아져내릴 때 전장을 들었다 놓은 벼락치는 듯한 소리와 포연을 방불케 하는 자욱한 먼지구름은 침략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기병대열을 와해시키고 차와 포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데서는 이 돌벼락작전이 매우 큰 은을 냈다.

마촌작전이 낳은 영웅들 가운데는 ≪13연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격대원도 있었다.

≪13연발≫은 왕청지방에서 모험청년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였다. 그가 모험가로 소문나기 시작한 것은 공청조직의 위임을 받고 두만강변의 어느 세무서에 가서 무기를 탈취해온 때부터였다. 그는 세무서에 가서도 나으리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조선청년이올시다, 공청원이올시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 권총을 빼들고 여유작작하게 벽에 걸려 있는 보총을 세 자루나 노획하였다. 그런 다음 전화로 경찰관주재소를 호출하여 네놈들은 무엇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공산당이 나타났다, 빨리 빨리 총동원해서 오라고 호통질했다. 경찰관주재소에서는 사건현장에 기마경찰대를 급파하였다. ≪13연발≫은 하마트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뻔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이와 비슷한 모험을 자주 되풀이하였다. 공청조직이 그에게 어떤 비판을 했으리라는 것은 여기에 구태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처창즈유격구역

이 ≪13연발≫이 쑥밭골 초소에서 항일혁명사에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할 만한 위훈을 세웠다. 쑥밭골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차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 방차대의 책임자가 바로 ≪13연발≫이였다. 그는 소대장 겸 이 대에 조직되어 있는 공청소조의 책임자였다.

일본군, 위만군, 자위단으로 이루어진 ≪토벌대≫의 대집단은 밤중에 은밀히 쑥밭골을 포위하고 초소에 달려들었다. 방차대는 새벽부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귀틀집 초소의 일각이 불타서 무너질 때까지 일곱 차례나 되는 적의 돌격을 물리쳤다. ≪13연발≫은 탄우속에서 공청소조회의를 열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김명숙

≪동무들, 우리의 뒤에는 유격근거지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 만일 여기서 한치라도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조선청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자격이 없다. 몸이 열백 번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사적으로 초소를 지키자!≫

적개심에 불타는 방차대원들을 총칼을 꼬나들고 적들의 무리속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려고 하였다. ≪13연발≫도 그런 충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날 개인영웅주의, 모험주의의 병질 때문에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던 이 용감무쌍한 싸움꾼은 이처럼 혈전속에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세련된 지휘관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응원부대를 이끌고 쑥밭골에 달려갔을 때 그는 열세발의 총탄을 맞고 초소에 쓰러져 있었다. ≪13연발≫이란 별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방차대 성원들 중에는 일곱 군데, 세 군데, 두 군데의 부상을 당한 전투원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도 ≪7연발≫, ≪3연발≫, ≪2연발≫이란 별명이 붙었다.

왕청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13연발≫이라고 불렀다. 나도 역시 그렇게 불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본명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아득히 사라져갔다.

그의 본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본명보다도 항일전쟁이 만들어낸 ≪13연발≫이라는 별명이 독자들에게 더 좋은 여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데서 나는 위안을 얻는다.

전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일본군의 포화에 잿더미가 된 소왕청을 뒤에 두고 주민들은 십리평으로 피난하였다.

적들은 군사인원과 비군사인원, 어른들과 아이들, 남자들과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죽였다. 동기≪토벌≫은 소왕청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를 냈다.

우리가 십리평 다섯째섬 목재막앞에서 부대를 데리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피난민 옷차림을 하고 보초소를 통과한 일본군은 마촌에서 대왕청으로 이동하는 인민들의 뒤에 달려들어 기관청을 퍼부어댔다. 이 습격에서만도 우리는 수십 명의 군중을 잃었다. 밤중에 두천평 마을을 포위한 적들은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잠든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유격구에서 연극대본을 잘 쓰던 구청년단 서기 백일룡이네 가족도 모두 죽었다. 그 해 ≪토벌≫에 소왕청의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유격구 형편이 최악의 상태에 달했을 때 이수구골 안에는 1,5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그 피난민들을 대왕청으로 빼돌리느라고 유격대원들은 그때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다. 어떤 때는 대왕청으로 흐르던 피난민의 행렬이 적의 불의 습격에 두 토막으로 동강나 서로 종적을 찾느라고 온종일 산판을 헤매기도 하였다. 그때 나는 하루종일 팔에 애기들을 안고 혁명군중을 엄호하였다.

다른 유격대원들도 싸움을 하면서 노약자들을 부축해주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 사이에 흐르는 군민일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눈물겨운 화폭이 이렇게 엮어졌다. 그 화폭을 이룬 한점 한점이 다 피였고 눈물이었다.

피난민들을 데리고 이수구에서 십리평으로 가던 그날의 정경을 회고하면 조금도 목에서 겨불내가 나는 것 같다.

피난민들 가운데는 ≪토벌≫을 겪느라고 20일 동안이나 낟알구경을 하지 못하고 콩깍대기와 무시래기 같은 것으로 끼니를 이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십리평에 가서도 쌀이 없어 소가죽을 삶아 먹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해를 쳐다볼 힘도 없던 그 기아의 해들에 유격구 인민들이 먹던 ≪음식≫을 후대들앞에 전시한다면 그들은 선열들이 체험한 그 인간 이하의 주림앞에서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김명숙(연길)은 유격구 시절에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해 생때같은 두 자식을 잃고 자기도 죽을 뻔했다. 일주일 이상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자식이 굶어 죽은 것을 보고서도 밖에 내가가 묻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두막에 그냥 누워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웃들이 와서 시신을 오두막으로 끌어냈지만 땅에 묻지 못하고 가랑잎만 덮어주었다. 그들도 김명숙이처럼 일주일씩 굶은 사람들이어서 땅에 구뎅이를 팔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해방된 조국 땅에 돌아와 첫 쌀밥을 먹을 때 김명숙은 두 자식을 앗아간 유격구시절의 보리고개를 회상하며 슬피 울었다.

처창즈유격근거지에는 어랑촌전투 때 적의 기관총탄알을 여덟 군데나 맞고 두개골이 빠개져서 뇌수가 드러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그 검질긴 생명 때문에 그는 ≪팔연발≫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총탄 여덟 발을 맞고서도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팔연발≫도 동남차정부에서 일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가 죽기 전에 동지들을 향해 이런 절규를 하였다.

≪차라리 적의 탄알을 여덟 발 맞았을 때 죽었더라면 영웅이라는 이름이라도 남겼을텐데 여기서 억울하게 굶어 죽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적들은 유격구들을 총검으로 봉쇄하고 그 울타리속에 인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그때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그 시절에 당한 희생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심혼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일본 지배층은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행을 두고 도덕적으로 심심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재정돈하는 과정이며 완성에로 이끄는 과정이다. 눈을 감는다고 역사가 스스로 인멸되는 법은 없다. 일본이 구가하고 있는 고도성장의 비단이부자리 위에 조선민족의 피가 배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도 이방인들의 철화에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누이와 딸들이 강점군들에게 정조를 강탈당하는 국난을 체험하지 않았던가.

적들은 만신창이 되어 허덕이면서도 검질기게 늘어붙어 장기전을 기도하였다. 인원도 무기도 식량도 공급받을 데가 없는 우리를 장기전의 함정에 빠뜨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국의 결정적인 전환만이 유격대와 유격구 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유격구방위전과 함께 적



일제군경의 토벌에
불타고 있는 집들

들의 종심에서 강력한 교란작전을 벌이는 것만이 유격구와 인민들을 보위하는 유일한 출로였다.

원래 나는 왕청에 온 초기부터 유격구 사수에만 매달리는 방어일변도의 경향을 반대하였다. 다시 말하여 적들의 역량이 분산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 적들을 습격 소멸하고 적들이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한테로 쳐들어올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역량을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전법을 피실격허의 전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활동해야 근거지도 고수하고 부대의 역량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만당과 현당에 앉아 있던 대부분의 간부들은 적들이 집결해 쳐들어올 때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집결해서 적을 방어해야 유격구도 지켜내고 인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전술상 문제로 대치되어 나중에는 어느 주장이 진실로 맑스주의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비맑스주의적인 것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논란까지 빚어냈다.

그들이 우리의 이론을 비맑스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현실도피적이고 투항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므로 우리도 그때 날을 세워가지고 적구교란론의 정당성을 완강하게 고집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역량을 집결한다고 하여도 적을 감당할 만한 힘은 못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민들을 사방에다 피난시키고 유격대도 일부만 남겨 여기저기서 뚱땅거리게 하자. 그러는 사이에 유격대의 나머지 역량은 분산되어 적 후방을 교란시키자. 가령 총을 멘 대원 10명이 적구로 나간다고 하자. 그 열 사람이 30-40명의 총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적의 약한 고리들을 자꾸 답새기면 총도 얻고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동무들이 당시의 정황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일부 완고덩이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슨 활동연조를 뽐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투쟁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적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유격구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군대만 살고보자는 사상이다≫라고 터무니없는 까박을 붙였다.

유격근거지가 초토화되고 희생자와 전사자들이 속출하자 나는 동장영, 이상묵, 송일을 비롯한 특위와 현의 간부들을 만나 적후교란전을 벌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일제의 비행기정찰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 계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죽고 인민들도 다 죽고 만다. 가면 어데로 가겠는가? 자꾸 쫓겨서 산으로만 들어가는데 수림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쫓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인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 동무들이 유격대와 같이 적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일이다. 당장 오늘밤이라도 유격대를 서너패로 나누어 적구에 내보내야 한다. 적구에 나가서 후방근거지들을 몇 군데만 답새기면 ≪토벌대≫들이 반드시 소왕청에서 퇴각한다.≫

동만의 다른 유격구들도 그 무렵에는 소왕청과 비슷한 고전을 겪고 있었다. 훈춘사람들은 밀려서 금창과 화소포 쪽으로 갔고 왕우구사람들은 다홍왜와 삼도만 방면으로, 화룡현사람들은 처창즈

방면으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간부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구교란론을 재차 상정시키고 ≪군대는 내가 책임졌으니 내 결심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다음 유격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의 뒤통수도 쳐야 한다. 누가 적구로 가겠는가? 갈 사람은 나를 따라 서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절반만 적구로 나가고 절반은 유격구에 남아 인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적구로 나갈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오늘 밤중으로 포위망을 뚫자. 포위망만 뚫으면 살 길이 열린다. 적의 거점들과 지탱점들을 연이어 들부수면 소문이 난다. 소문을 내면서 여기에서도 치고 저기에서도 치면 후방이 녹아날까봐 산골 안에 들어왔던 ≪토벌대≫들이 다 달아난다.≫

이렇게 되어 유격대는 두 패로 갈라졌다. 한 패는 최춘국의 지휘하에 십리평을 지키고 다른 한 패는 내가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근거지 인민들은 공청원들의 인솔하에 나자구에 소개하였다.

우리는 병중에 있는 동장영을 묘구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할 데 대한 임무를 최금숙에게 주고 예비식량까지 다 모아서 그의 배낭속에 넣어주었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상면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유격대의 한 개 편대를 데리고 배밀이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깊이 들어갔다.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적 후방은 오히려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도시 주변의 첫 부락에 들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설 준비를 하느라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일제의 ≪토벌≫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교즈와 기장떡과 같은 설음식으로 우리를 푸짐히 대접하였다. 그날밤 오백룡 소대의 김생길이라는 대원은 교즈를 140개나 먹고 배가 아파 죽을 뻔하였다.

그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여 보초를 세우고 하루종일 대원들을 재웠다. 몇 달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혹한속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늘어지게 자고나니 눈꼽이 다 나오고 얼굴빛이 환해졌다.

우리는 다음날부터 적들을 답새기기 시작했다. 전술은 자그마한 ≪토벌≫거점들에 대한 습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비교적 큰 ≪토벌≫거점들에 대한 공격을 배합하는 것이였다.

맨 처음으로 친 것이 양수천자의 적이었다. 우리의 벼락같은 기습에 위만군과 자위단이 녹아나고 일본영사관 경찰병영이 완전히 점령되었다. 양수천자에서 적후교란의 첫 총성을 울린 우리는 멀리로 사라지는 척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앉아 신남구라는 곳에서 이동하는 적 자동차 수송대를 습격 소탕하고 많은 밀가루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우리는 신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북봉오동의 산악지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쭉 빠져나가 새 전투를 준비하였다. 1934년 2월 16일 밤 북봉오동의 위만군과 경찰, 자위단원들은 모두 우리 부대에 의해 살상 포로되었다.

북봉오동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북고려령을 넘어 사동 방향에 진출한 우리 부대는 동골에 있는 산림경찰대를 공격하여 병영의 적들은 모조리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최후의 싸움은 도문-목단강 사이의 철길을


요영구방어전투장

끼고 있는 주요 군사요충지 대두천에서 벌어졌다. 적≪토벌대≫로 변장한 우리는 100여 리의 험산준령을 강행군으로 단숨에 돌파한 다음 3개의 조로 나누어 대두천의 경찰서와 자위단실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유격구를 조이고 있던 포위망을 해제하고 90일 전의 출발지점으로 퇴각하였다. 적들은 ≪암≫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연 석달 동안 유격구의 존립을 위협하던 동기≪토벌≫의 운명은 서산낙일로 끝나고 말았다.

편의상 마촌작전이라고 불렀던 소왕청근거지방위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취임과 라이프치히공판, 소미외교관계 수립으로 소란스럽던 세계의 일각에서 소문없이 생겨난 하나의 기적이었다. 소왕청유격구방위자들의 영웅적 위훈과 고난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을 방불하게 그려낼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뤘다. 수백 명의 생명이 적의 포화에 목숨을 잃었다. 제일 애석한 것은 최금숙과 동장영을 잃은 것이다.

나를 친동생처럼 그렇게도 사랑해주고 돌봐주던 최금숙, 우리가 적구에서 돌아올 때 개선용사들을 향해 눈물을 뿌리며 달려오던 유격구인민들속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전령병이 메고 온 나의 배낭속에는 그에게 선물할 손거울이 있었다. 다른 부녀회원들에게 줄 전리품도 여러 마대가 되었다.

이 겨울에 우리 부녀회원들이 유격구를 지키기 위해 고생인들 얼마나 많이 하고 눈물인들 얼마나 많이 흘렸던가. 그들이 밥인들 얼마나 많이 짓고 풀뿌린들 얼마나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 지휘부 귀틀집

많이 캐였던가. 길 안내를 강요하는 적들을 유격대가 없는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골탕먹이고 총살당한 혜숙이와 영숙이! 지휘부가 자리잡은 벼랑턱으로 적들이 기어오를 때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연방 외쳐대며 원쑤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한 최창범의 숙모!…

어찌 계월향이나 논개만 조선의 열녀이고 애국자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때늦은 정성은 최금숙의 손에까지 닿지 못하였다. 적들은 내가 일생에서 유일하게 누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성,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죽지 말고 싸우자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는 불로장생하는데 대장이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던 여성을 이렇게 앗아갔다.

동장영의 죽음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슴아픈 손실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상을 존중해주던 중국 동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잊지 못할 전우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중요한 노선문제를 두고 논쟁도 많이 하였다. 고집이 좀 세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그러한 견해상의 차이가 우리의 우정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늘 조선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믿음이 간다고 하면서 무척 나를 위해 주었다.

우리는 대두천전투 후 오영구 방향으로 철수했다가 마촌에 돌아와 소왕청유격구 방위전투를 총화하였다. 그 때 마촌에서는 소개지에서 돌아온 인민들이 잿더미 위에 집을 일떠세우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유격구에 들어온 후 70번째로 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살아도 유격구에서 살고 죽어도 유격구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간도 인민들의 생명력은 이처럼 억척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인민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유격대는 적의 대≪토벌≫을 격파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촌작전의 승리는 군민일치의 열매이며 인민항쟁의 결실인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곤란을 맞받아나가는 우리의 공격정신과 그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변화무쌍한 전법은 마촌작전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마촌작전의 전 과정은 혁명정권의 토양위에서 백절불굴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안고 거목처럼 우뚝 솟아오른 유격구정신의 연소과정이었다. 이 정신은 비행기나 대포로써도 정복할 수 없는 견인불발의 힘을 가지고 소왕청의 한치한치를 피로써 지켜낼 수 있게 하였다.

마촌작전을 통하여 적들은 심대한 군사정치도덕적 참패를 당하였다. 그 대신 우리 혁명군의 군사적 권위는 비할 바 없이 부각되었다. 우리는 이 작전을 통하여 유격전법의 골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법들을 무수히 창조하였으며 정차 대부대활동에로 이행할 수 있는 군사조직적, 전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적의 어떤 침공도 격파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마촌작전은 소왕청을 고수함으로써 인접 현의 유격구들에 가해진 위기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앙양시키는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211고지를 사수한 영웅전사들의 방위정신은 바로 1930년대에 탄생한 유격구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일로매진하고 있다.

항일전쟁의 포화속에서 탄생하고 연마된 유격구정신을 압도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6. 밀림 속의 병기창



무기수리소사업을 지도하시는 김일성장군님

나는 마촌에 있을 때 병기창에 자주 다녔다. 병기창이란 병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창≫은 ≪공장≫의 중국식 이름이다. 우리는 그 당시 병기창을 소박하게 철공소라고 불렀다. 이런 철공소들은 간도의 어느 현에나 다 있었다.

마촌병기창 또는 소왕청봉기창이라고도 부른 이 철공소의 초기 수준은 조직에서 파견된 한두 명을 노력이 화독에 숯불을 피워놓고 풀무를 당기면서 창이나 칼과 같은 소소한 무기를 벼려내는 정도였다.

마촌작전 직전에 철공소에 가보았더니 직원이 자그만치 7-8명이나 되였다. 그때의 철공소는 구정부 양식과장으로 소환되어간 박두경의 후임으로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주관하고 있었다. 철공소 일군들속에서 지금까지도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오학봉, 최상문, 양도길, 강해산, 박영복, 이응만 등이다. 이 사람들 중에 철공기술을 가지고 병기창에 들어온 기술자는 강해산밖에 없었다. 그 나머지는 거의나 쇠붙이를 다루어본 경험도 없고 더욱이는 무기수리 같은 것을 해본 전적이 한 번도 없는 초학도이거나 문외한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풋내기들이 나중에는 선반도 볼반도 쎄빠도 후라이스반도 없는 촌 야장간에서 현대적 군수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작탄도 만들고 권총, 보총과 탄알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필요한 화

약까지도 척척 만들어냈다. 이것은 항일전쟁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였고 이 전쟁의 승리가 민족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이 낳을 수 있었던 기적이였다.

한때 간도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쏘련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였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인류해방의 등대로 경건하게 우러러볼 때였다. 혁명을 먼저 수행한 나라의 덕을 보려는 사상은 사람들속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조장시켰다. 남들에 대한 의존심, 남들의 뒷받침으로 혁명을 해보려는 지향이 민족주의자들속에서 자본주의열강들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낳게 하였다면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쏘련에 대한 의존심을 낳는 근원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때 혁명승리의 테이프를 끊은 쏘련공산주의자들이 후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쏘련측에서는 그 청원에 아무런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통지도 없었다.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한 것이 그때였다. 쏘련사람들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 혁명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 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것이며 남들의 원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기창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박두경이 창장으로 일할 때 우리는 모루, 멍치, 집게, 메, 풍구, 줄칼, 착공기 등의 철공도구들을 주어 병기창을 꾸리게 하였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병기창 일군들은 파손된 무기들을 수리 재생하거나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하여 유격대와 반군사조직들에 공급해주었다.

병기창이 생산한 무기 가운데서 이채를 띠는 것은 파손된 퉁포나 38식보총 총신을 잘라서 외방으로 쏘게 만든 단발권총이였다. 이런 권총은 군대에 주지 않고 자위대원들이나 소년선봉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어랑촌유격대에서 만들어낸 외알배기권총은 정치공작원들에게 주로 공급되었는데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병기창사람들은 38식보총 탄피들에서 뇌관을 뽑은 다음 새 뇌관을 만들어 끼우고 화약을 장약하는 방법으로 탄약도 재생하였다.

그런데 병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원료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면서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화약이였다.

처음에 유격구의 병기창들에서는 광산노동자들과 지하공작원들이 보내주는 화약으로 작탄도 만들고 탄알도 재생하였다. 그러나 이 구입방법은 상시적인 위험을 동반하였고 광산들에 모처럼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을 노출시킬 우려가 많았다. 실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약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용수평 늪사건이다.

용수평은 팔도구광산 근처에 있는 동네이다. 최현의 전우이며 부인이였던 김철호가 바로 이 마을에서 자라나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동구앞에는 수심이 깊고 갈대가 무성한 늪이 있었다. 용수평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이 고장 농민들의 생명수였던 용수평늪이 하루아침 사이에 피바다로 된 참변이 일어났다. 일본헌병대 야수들이 유격근거지에 화약을 반입한 팔도구광산 노동자 20여 명을 색출하여 이 못가에서 무참히 학살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유격근거지의 지도자들과 병기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광산조직들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화약을 해결하던 종전을 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작탄과 총탄을 만들 때 쓰던 그 한그램한그램의 화약은 그대로 다 투사들이 뿌린 피였고 살점이었으며 그 모든 것의 결

정체였다.

우리는 화약도 자체로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결심을 사상누각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사람이 각오만 하면 못해낼 것이 없다, 조상들이 만든 화약을 그 후손들이 왜 못 만들겠는가 하는 뱃심을 가지고 화약제조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 화약의 기본원료인 염초를 민간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염초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보는 것이었다. 햇빛이 쨍쨍 내리쪼이는 어느 날 나는 병기창성원들을 데리고 재와 퇴비가 쌓여 있는 이치백노인의 집마당으로 갔다. 두엄더미 주변에 하얗게 쌓여 있는 흰 소금같은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염초라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병기창동무들은 손에 대통을 쥐고도 내 대통, 내 대통하는 할아버지격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바탕 유쾌하게 웃어댔다.

변소자리나 외양간, 마굿간에서 나간 두엄더미 밑바닥 흙에서도 염초를 얻어낼 수 있었다.

고려시기에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하여 국방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가 만들어낸 화포는 곧 함선에 설치되었다. 고려의 수군은 그 화포로 진포해전에서 왜구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그가 화약을 제조할 때에 사용한 염초도 역시 집 주변에서 얻은 재나 먼지를 정제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고려시기의 화약이 최무선의 발명이 아니고 그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배운 제조법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그런 화약을 발명해낼 만한 이론기술적 토대가 우리 나라에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에 신라에서는 벌써 화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무슨 발명을 했다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두뇌가 비상해!≫하고 감탄하면서도 조선사람이 무슨 발명을 했다고 하면 ≪그게 정말은 정말이야?≫하고 고개부터 갸웃거리는 사대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병기창사람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염초를 얻어냈다. 염초를 뽑아낼 때 용기들로



소왕청유격구의 병기창(모형)

는 밑굽이 뚫린 토기시루나 양철시루, 오지항아리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런 용기들에 마굿간, 변소, 두엄더미 바닥에서 긁어온 흙을 다져넣고 물을 부었다. 그때 구멍으로 떨어져내리는 물을 그릇에 받아두었다가 가마에 넣고 달이면 하얀 결정체가 되는데 이것이 염초였다.

그때 생기는 윗층의 결정체를 가로발이라고 하였고 밑층의 결정체를 선발이라고 하였다. 선발은 곧게 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보총, 권총 탄알들에 장약되었고 가로발은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작탄제작에 많이 사용하였다.

화약을 만들 때에 소용되는 원자재는 군중이 동원되어 다 해결하였다. 필수원료인 유황은 경비전화선 애자에서 많이 긁어다가 해결하였다. 화약에는 알콜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 빼주를 썼다.

우리는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실험을 거듭하여 끝내 이상적인 배합비율을 얻어냈다.

그때 화약제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 손원금이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원래 나는 손원금이와는 별로 인연도 없고 서로 만나서 통성을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원금의 경력이며 활동내용을 심년지기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었다.


박두경

우리에게 손원금의 투쟁사적을 처음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박영순이었다. 작탄강습에 출연하려고 마촌에 온 그는 나와 한방에 누워 뒹굴면서 며칠 동안 신변잡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그 말 가운데는 손원금의 이름도 이따금씩 껴묻어 나왔다. 열마디에 한마디 정도씩 드문드문 튀어나오는 이름이었지만 거기에는 박영순의 각별한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도 손원금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듣곤 하였다. 박영순은 그의 친근한 전우이자 입당 보증인이었다.

사람은 업적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고 재능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으며 사건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다. 1932년 당시의 손원금은 경찰서탈출사건으로 간도지방의 혁명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약장사로 가장한 그는 바이올린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통신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고문에 만신창이 된 몸을 끌고 구정물이 허리를 치는 하수도구멍으로 빠져나와 옹근 하루낮을 강물속에서 보냈다. 경비가 철통같은 적의 소굴을 무사히 탈출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하루해를 꼬박 물속에서 보냈다는 것도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그 후 그는 유격대에도 입대하고 공산당에도 입당하였다. 손원금은 이때부터 성실한 노력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곡촌의 신성덕 수리바윗골 장대는 박영순이 책임진 화룡병기창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이 병기창 일군들이 처음으로 만든 작탄을 소리폭탄이라고 하였다. 소리폭탄은 그 후 고추폭탄으로 발전하였다가 연길폭탄이라는 위력한 작탄으로 완성되었다.

연길폭탄을 제작하는데 많은 자재가 들었다. 이 자재를 병기창 성원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면 무수한 노고를 바쳐야 했다. 손원금은 언제나 이 노고의 앞장에서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갔다.

≪한번은 소리폭탄은 만들다가 큰 난관에 봉착한 일이 있습니다. 장약함을 만들 종이와 천이 거덜났거든요. 모두가 방도를 찾느라고 머리를 썩였지요. 그런데 원금동무는 어느새 마을로 뛰어내려가 자기 집 문창호지와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재밤중에 헐떡거리며 병기창으로 돌아온 그를 보니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겠지요…≫

이것이 박영순이 마촌에서 나에게 한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혁명가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받아안은 감흥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박영순은 말을 이어갔다.

≪원금동무는 무슨 일에서나 앞장에 서곤 했습니다. 철사가 모자라서 작탄제작이 중단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앞장에 선 것은 손원금이였습니다. 그가 수십 리밖에 있는 남양평에 가서 300미터나 되는 전화선을 끊어왔지요. 유황도 무쇠조각도 양철판도 그 사람이 구해왔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 양철판과 무쇠를 한짐 지고 병기창으로 돌아온 손원금의 뒤로는 주소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면부지의 할머니 한 분이 무쇠가마를 이고 따라들어왔다.

늙은이의 돌발적인 출현은 일군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원금이, 웬일인가? 시베리아 바람에 살점이 막 떨어져나갈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 밤중에 노인님을 모시고 왔나. 사람두 참…≫

박영순이 할머니의 머리에서 무쇠가마를 들어내리며 하는 말이였다.

손원금은 등짐을 벗어내치고 의미있게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모시고 온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청해서 따라왔습니다.≫

박영순은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어떻게 되어 저 동무를 따라오셨습니까?≫

≪저 젊은이하구 난 구면이라우. 전에 내풍동에서 살 때부터 낯을 익혔수다. 우리 며느리가 중병이 들어 골골하면서도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있을 때 깽깽이를 들고 약장사를 하던 저 젊은이가 글쎄 돈 한 푼 안 받고 약두 지어다 주고 쌀도 사다주지 않았겠수.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살아났수다. 신세를 갚지 못해 알알했는데 오늘 아침 저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왔더구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쇠가 있으면 내라고 하길래 옳지 됐다, 이제는 신세를 갚을 길이 틔였다하고 무릎을 치지 않았겠수. 이건 우리 집 가마 중에서 제일 큰 게라우. 에구, 신세갚음이 되기나 되겠는지…≫

할머니는 미씸쩍은 시선으로 화독앞에 놓인 가마를 굽어보았다.

≪할머니, 지성은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마사진 가마만 받지 새 가마는 받지 않습니다. 이 가마는 도로 가져다 쓰십시오.≫

박영순이 송구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왈칵 짜증을 내었다.

≪그런 말은 하지두 마우. 일본놈들이 내 아들을 둘이나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까짓 무쇠덩지가 무얼 그렇게 아깝겠수!≫

병기창일군들은 그 이상 할머니를 설복하지 않았다.

나는 박영순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화룡땅으로 달려가 손원금을 만나고 싶



연길폭탄과 그 제작도구

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매혹시킨 손원금의 인간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강쇠같은 자력갱생의 정신이였다.

나는 흥분된 심정으로 박영순에게 말했다.

≪박동무의 이번 걸음에 손동무도 같이 올 걸 그랬습니다. 그 동무의 경험이 아주 교훈적입니다. 이 훌륭한 경험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면 모두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박동무가 손동무를 대변하여 다 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촌 작탄강습을 계기로 손원금은 전 동만이 다 아는 인물로 되였다.

박영순이 강습을 끝내고 마천을 떠날 때 나는 이런 부탁을 하였다.


손원금

≪화룡에 돌아가면 손원금동무에게 그의 경험이 강습참가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 주시오. 언젠인가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 정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해 주시오.≫

그러나 나와 손원금의 상봉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작업도중 폭발사고로 두 눈을 잃고 장님이 되는 불행까지 당했다.

화약을 제조하는 과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작탄이나 총탄에 화약을 재우는 일이였다. 박두경, 박영순, 강위룡은 다같이 화약을 제조하다가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곤경을 겪으면서도 작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손원금이도 실명의 쓰라린 아픔속에서 낙심하거나 비관에 잠기지 않고 ≪동무들, 슬퍼마라.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나에게는 심장이 남아있지 않은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무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손더듬으로 쇠줄을 자르고 작탄을 조립하면서 인터내셔널의 노래를 불렀다.

한많은 세월의 바람받이에 아버지를 묻고 형을 묻고 누이를 묻고… 이제는 또 자신의 광명마저 잃은 손원금! 그는 아직 반생에 이르지도 못한 젊은 나이였다.

손원금은 유격구가 해산되자 전우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대를 떠나 금곡촌으로 내려갔다. 그의 귀에는 날마다 유격대를 헐뜯고 공산당을 헐뜯는 염불소리가 들려왔다.

≪유격대는 산에서 전멸되였다.≫

≪근거지 사람들도 다 굶어죽었다.≫

≪처창즈에 가보라. 백골뿐이다.≫

≪공산당의 정치는 망하는 정치다. 공산당을 따라다녔대야 먹을 알이 쥐뿔도 없다.≫

손원금의 혈관속에서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졌다. 그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열변을 토하였다.

≪아니다. 유격대는 살아있다. 살아서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갔다. 지금 남북만 도처에서 적들을 치고 있다. 몇십 명으로 출발했던 유격대오가 지금은 대포와 기관총을 가진 수백 수천 명의 대오로 자라났다. 동포들, 형제들! 적들의 선전에 속지말고 인민혁명군을 더 잘 원호하자. 항일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고 끝날 것이다!≫

손원금의 발자욱은 금곡촌의 범위를 벗어나 수백 리 밖에 있는 연길과 용정에서 찍혀갔다. 이전날처럼 바이올린을 둘러메고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더듬더듬

걸어가는 이 ≪소경걸인≫을 군경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상에서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 그는 연길의 거리거리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목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조선동포 여러분, 6월 4일 **김일성**장군이 부대를 거느리고 보천보를 습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압록강을 건너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진출하였다. 혁명군의 위력앞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제의 멸망은 확정적이다.≫

그의 불같은 연설에 연길시는 죽가마처럼 끓어번졌다. 그러나 그 대가로 손원금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였다.

≪여러분, 나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산천이 환히 보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조선혁명 만세!≫

이것은 그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당년 25살의 자력갱생의 선구자 손원금은 이렇게 한 생을 마쳤다.

박영순은 손원금을 추억할 때마다 ≪원금이는 장가도 못 가보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라고 하곤 하였다.

만일 손원금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면 후대들앞에서 자력갱생을 두고 좋은 말을 많이 할 것이다. 그의 경력 자체가 자력갱생의 산 교과서로 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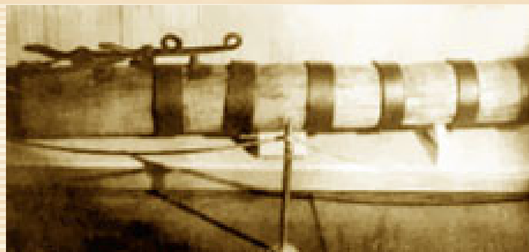
화약의 개발은 병기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화약이 해결되자 작탄제작이 부쩍 늘어나게 되였다. 작탄은 양철통을 이용해서 도화선을 물리는 방법으로 만들어냈다. 껍데기로는 통조림통을 많이 이용하였다. 적 통치구역이나 반유격구의 지하조직들에서 모아보낸 통조림통속에 화약이 장약된 기름통같은 것을 넣고 통조림통 껍데기와 기름통 사이의 빈 공간에 마시진 보습이라든가 파편으로 쓸 수 있는 쇠붙이들을 깨뜨려 넣고 심지를 물리면 곧 작탄이 되였다.

순수한 손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작탄이였던 것만치 물론 조작도 불편하고 볼품도 없었다. 손동작이 굼뜨면 조작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한 대원은 양수천자에서 적들을 칠 때 심지에 불을 다느라고 꾸물꾸물하다가 팔이 떨어진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탄은 수류탄과는 대비도 할 수 없으리만큼 굉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인들이 빨치산의 작탄이라면 벌벌 떨었다.

화약이 생기게 되면서 유격근거지들에서는 나무포도 만들 수 있게 되였다. 오의성의 부대는 지금의 반탱크총과 비슷한 쇠로 만든 대포를 쾅쾅 쏘아대며 싸움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호강을 하지 못하고 나무포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왕청사람들이 쇠스래나무를 가지고 처음으로 나무포를 만들어낸 것은 동녕현성전투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대두천을 칠 때 이 포를 쏘아보았는데 소리가 뇌성벽력처럼 요란하였다. 손으로 두드려 만든 나무포가 위력을 내면 얼마나 큰 위력을 내겠는가. 그런데 그 포로 한 방 쏘자 적들은 놀라서 다 달아나버렸다.

화룡지방사람들도 어랑촌의 머구엔즈에 있는 병기창에 나무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그 포를 천리봉에 올려놓고 쏘면 30리 밖에 있는 이도구의 일본군경까지도 혼비백산해서 아우성을 치곤 하였다.

혁명군이 나무포를 쏘면 적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였다. 아무런 기술설비도 없는 유격근거지들에서 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였다.



나무로 만든 대포

무기 제작과 수리에서 병기창일군들이 발휘한 혁명적 적극성과 견인불발성, 창의창발성은 실로 세인을 경탄시킬 만한 것이였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는 현대적인 기계나 공구가 거의 없었다. 왕청사람들이 착공기 1대를 가지고 있었고 박영순이 주관하고 있던 화룡병기창 일군들이 대립자의 단야업자를 통하여 구해들였다는 손볼반 한 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였다. 연길현의 두도구, 능지영 병기창들에 그런 기계수단들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하는 것은 기억에 삭막하다. 착공기와 손볼반을 제외한 최상의 수단은 줄칼이였다.

병기창일군들은 줄칼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수리하였다. 그들은 줄칼로 쓸고 숫돌로 갈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과 물과 진흙에 담금질을 하는 방법으로 보총의 약통물개도 고치고 격침도 수리하였다. 나중에는 기관총까지도 척척 재생시켰다. 병기부문일군들 중에는 박영순, 손원금, 강위룡, 박두경, 송승필, 강해산과 같은 재간덩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바늘에 구멍을 내는 재간까지 가지고 있었다.



송승필

이 모든 기적의 비결이 바로 자력갱생에 있었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구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군들처럼 인민들에게 군자금을 내라고 호소하든가 동냥자루를 메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그 무슨 하소연도 하였을 것이다. 구걸을 하느라면 남들에게 굽실거리게도 되고 남들이 발바닥을 핥으라면 발바닥을 핥고 눈꼽자기를 뜯어달라고 하면 눈꼽자기를 뜯어주는 비루한 속물이 되고 만다.

우리가 항일전쟁의 초기부터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그 관철을 위해 분발한 것은 당시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일제의 만주침공은 조일, 중일간의 모순을 격화시켰고 이 모순은 불피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무장투쟁이라는 높은 형태의 투쟁과제를 제기하였다.

만일 이런 때에 우리기 자력갱생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외교에 매달렸더라면 우리는 일제의 만주강점 직후 그처럼 빨리 항일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유격대오는 불과 몇 해 사이에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자력갱생은 자주, 자강의 기초위에서 민족자력에 의한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구호였다. 인민이 이 구호를 제때에 받아물고 도처에서 야장간을 병기창으로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무기수리 기지들을 창설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비단 병기생산과 수리분야 뿐만 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였으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였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고 공산주의사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지 않으면 실속있는 혁명가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력갱생을 하는 여기에 혁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본고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였다.

지난날 민족운동지도자들이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현혹되어 외세의존의 길로 줄달음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길현의 의란구에는 남양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추수, 춘황투쟁 후 일본군경들

은 이 마을에 달려들어 무고한 주민들과 청장년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집들은 잿더미로 만들었다.

남양촌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동하였다.

≪우리들은 비폭력적인 정치투쟁을 하는데 놈들은 무기를 쓰고 있다. 맨주먹으로는 적을 타승할 수 없다. 총검을 들고 일제와 맞서서 판가리싸움을 할 때는 왔다. 동무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한 청년이 주먹을 흔들면서 말했다.

≪쇠붙이를 모아서 창이라도 만들자. 창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적들을 찔러죽이고 총을 빼앗을 수 있지 않는가.≫

그 청년은 대장장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태순노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기 집 헛간에 아버지가 쓰던 야장도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칼이나 날창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그 말에 대뜸 호응하였다

≪옳다. 창과 검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는 그 창과 검을 총으로 바꾸자.≫

이태순노인이 농쟁기를 벼리던 그 망치와 집게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골짜기에서 박달나무 뿌리로 숯을 굽고 달구지 바퀴테를 벗겨다 창을 버렸다. 단야공정을 거친 창들은 돌에 대고 갈아서 날을 세웠다.

동구밖에서 울리는 난데없는 망치소리는 야장일에 인이 박힌 옛 대장쟁이를 골짜기로 불러냈다. 청년들은 치던 창을 풀숲에 치워놓고 부시는 만드는 체하였다.

≪무얼 만드느냐?≫

이태순노인은 미심쩍은 눈길로 청년들을 둘러보았다.

≪부시를 만듭니다.≫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할 짓도 없군. 메를 이리 다구.≫

노인은 눈깜짝할 사이에 부시 열 개를 쳐주고는 야장도구들을 빼앗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노인이 밭으로 나간 사이에 청년들은 그 야장도구들을 다시 들어내다가 날창을 버렸다.

≪이 녀석들아, 어제 쳐준 부시는 어떻게 하구 또 이 짓들이냐?≫

벽도 지붕도 없는 청년들의 야장간에 이태순노인이 전날처럼 기척도 없이 나타나 엄하게 물었다.

≪동무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일동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이런 일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이태순노인은 청년들이 만드는 물건이 부시가 아니라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농번기에 마을 청년들이 부시나 만들자고 야장일을 벌여놓았겠는가 무더운 여름날 강냉이밭 고랑을 타고 누구도 모르게 나타난 노인은 청년들이 아들한테서 기술전습을 받아가며 창을 벼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놈의 자식들, 봄내 여름내 무슨 꿍꿍이를 하는가 했더니 제 죽을 잡도리들을 하는구나.≫

노인이 야장도구들을 주섬주섬 걷어모으며 야단법석을 하자 급해맞은 청년들은 그의 옷섶을 매달려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다.

≪아버님, 놈들이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파리잡듯이 자꾸 잡아죽이는데 우리가 올방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히 이태순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다가 무게있게

말했다.

≪내가 집게질을 할테니 너희들은 메질이나 해라. 그리구 망을 잘 봐야겠다.≫

그날 노인은 1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에게 창을 한 자루씩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이웃마을 청년들이 잡쇠붙이들과 못 쓰게 된 달구지 바퀴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창들을 모조리 바꾸어갔다. 야장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선심을 베풀라는 것이었다.

이태순노인은 떡쇠로는 창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쇠붙이들을 모조리 발고랑에 내던지게 하였다. 그 대신 자기가 감추어두었던 팔모정 수십 개를 가지고 고강도 단도와 창을 수십 개나 만들어주었다.



각종 무기들

20여 명의 남양촌 청년들은 노인이 벼려준 창과 단도를 가지고 연길에서 구룡평 쪽으로 이동하던 위만군의 소부대를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이태순노인은 흐뭇한 심정으로 마을청년들의 전과를 치하했다. 그의 주관하에 남양촌의 비밀야장간은 그 후에도 많은 도창무기들을 만들어냈다. 나중에는 작탄까지 생산하였다. 노인은 전심전력으로 병기 생산과 수리를 하다가 적들에게 잡혀 희생되었다.

이것은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생기발랄한 시대상은 인민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세상만사를 다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 방법이 정당하고 위력하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산 화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력갱생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였으며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논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조선혁명의 발전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자력갱생만이 우리 인민의 근대 정신생활에서 큰 질곡으로 남아있던 사대주의를 종국적으로 추방하고 자주, 자강, 자립의 이념밑에 민족재생의 활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 자력갱생은 주체가 선 인간과 주체가 서지 못한 인간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전쟁을 개시하는 첫날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남들이 도와주면 좋고 설사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하며 또 찾을 수 있다는 사상, 위에서 해결해주면 좋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만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은 대중을 쉽게 공감시켰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낡은 사상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자고 호소할 때 쌍수를 들어 환영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 크지 않은 무장문제가 제기되자 머리를 기웃거리며 난색을 짓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 창건을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이영배와 방인현이 무기청소를 하다가 격침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 한 자루 한 자루를 피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실정에서 이것은 그대로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비상사고였다.

나는 고장난 격침을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이영배와 방인현에게 말했다.

≪동무들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겠으니 내일 이맘때까지 격침을 고쳐오시오.≫

두 사람 다 눈이 휘둥그래졌다. 내가 감히 그런 엄청난 요구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였다.

≪아니 현대적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혹시 생명을 내대는 모험이나 싸움같은 것이라면 몰라도 이거야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 것이 혁명이라면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소. 보통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업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지만 강쇠로 만든 격침이 부러졌는데…. 이거야 어디 이론으로만 되는 일입니까?≫

방인현은 암담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격발기를 굽어보았다. 그 순간까지만 하여도 그는 격침을 원상복구하라는 나의 요구를 허황하고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때에 지휘관이 자기의 지시를 철회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나는 내 지시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삼 냉정하게 요구하였다.

≪고칠 수 없다면 앞으로 유격대원이 될 자격이 없다. 조그만 격침 하나 고치지 못하는 능력으로 복잡한 사회개조는 어떻게 하겠는가. 동무들이 정녕 그 격침을 고칠 의향이 없다면 내일부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엄포를 놓자 두 사람은 화다닥 놀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격침을 꼭 고쳐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는 방법을 대달라고 하였다.

≪나는 방법을 모른다. 방법은 동무들끼리 찾아보라.≫

이영배는 방인현은 격발기를 들고 울상이 되어 훈련장을 떠났다.

다음날 그들은 격침을 고쳐가지고 희색이 만면해서 훈련장에 나타났다. 완전무결한 원상회복은 아니였으나 격침은 손색없이 작용을 하였다.

동무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리를 명령한 내 자신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며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던 저 동무들이 무슨 갑작수로 저렇게 쉽사리 격침을 고쳐가지고 왔을까?

≪처음엔 철사를 얻어 줄칼로 새 격침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강쇠가 있어야지오. 그래서 격침을 불에 달궈 두드려 늘궜습니다. 돌에 갈아 형태까지는 그럭저럭 잡았는데 떡쇠를 강쇠로 만들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소사하에 있는 오랜 대장쟁이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떡쇠를 강쇠로 만들자면 기름에 담그라는 겁니다. 그말대로 했더니 이런 강쇠가 됐습니다.≫

방인현은 덤벼치면서 수리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들의 수리 경험은 동무들을 크게 분발시켰다.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을 잘 발동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모두가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안았다.

수리한 격침을 들고 훈련장으로 뛰어올 때 이영배와 방인현의 얼굴에 활짝 피어났던 그 보름달 같은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



군복을 짓던 재봉기



재봉대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다. 그 미소는 분명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다함없는 긍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냈을 때에 맛보게되는 쾌감과 희열보다 더 격렬한 환희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격침 한 개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총 10자루도 능히 노획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 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 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

맑스와 엥겔스는 인류발전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정당한 규정이다.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인 동시에 자기 발전의 역사, 자기 창조의 역사, 자기 완성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인류가 자기 자체에서 사람에게 고유한 힘과 재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연마해온 창조의 역사이며 동시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류역사는 또한 자기를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부단히 세련시켜온 혁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는 이런 창조와 혁신의 힘으로 오늘날의 로케트시대, 컴퓨터시대, 유전자공학의 시대, 녹색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력갱생은 역사발전을 촉진시켜온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일 자기 힘을 계발시키지 않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신이나 하느님의 은총만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동만각지에서 병기창들을 활발하게 운영해가지고 있을 때 사충항은 동녕현성에 왕덕림의 구국군이 경영하던 병기공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슬쩍 귀띔해주었다. 이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동녕현성에 더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사충항의 말에 의하면 이 병기공장은 1932년 봄에 한두 대의 선반과 주물차, 재봉기

를 가진 군기수리소로 발족하였다고 한다. 1932년 하반기부터 군기수리소는 수류탄, 박격포탄, 25발짜리 기관단총, 일명 돼지포라고도 불리는 포를 생산하는 본격적인 병기공장으로 발전하여 그 관하에 직원만 해도 200여 명이나 두었다. 그러는 사이에 공작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설비도 보강되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주로 왕청현 대전자와 영안지방의 구국군 부대들에 공급되었다.

일본군의 강점과 함께 공장은 해산되었다. 그러나 설비와 기계수단은 종전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만일 우리가 1933년 가을에 동녕현성을 타고 앉는데 완전히 성공하였더라면 이 병기공장은 불피코 우리의 무기공장으로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보다 더 현대적인 경무기와 중무기로 자신들을 더욱 훌륭하게 무장하였을 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 유격근거지들에서 창조된 병기분야의 경험은 1930년대 후반기 백두산근거지에 건설되었던 병기창들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계승발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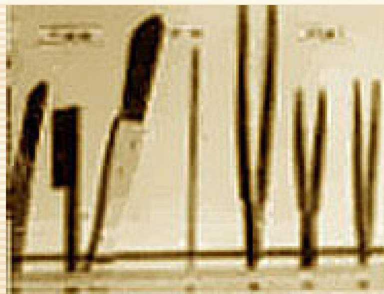
우리는 유격근거지마다에 재봉대를 꾸려 군복도 자체로 해입었다. 천도 자체 해결이요, 염색도 자체 해결이요, 제작도 자체 해결이었다. 가둑나무와 가래나무, 황경피나무 껍질을 큰 가마에 넣고 우린 다음 그 물에 천을 넣으면 보위색으로 착색되었다. 나무의 종류별 배합비율에 따라 천의 색깔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

왕청재봉대의 초기 성원은 김연화와 함께 한때 6호촌의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복무한 전문진이었다. 그밖에 남자재단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 후 소왕청재봉대에는 이일파, 김명숙, 김순희 등이 보충되었다. 일손이 달릴 때에는 임시노력도 채용하였다.

소왕청시절의 나의 군복은 전문진이 지어준 것이였다.

내가 안도에서 왕청으로 가자 그곳 재봉대원들은 청년장군이 왔는데 좋은 옷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면서 코트와 군복을 일식으로 만들어주었다. 천은 손으로 물을 들인 수수한 광목이었지만 그 한뜸한뜸에 스며있는 정성은 참말로 지극하고 섬세한 것이었다.





유격구에서 자체로 만든 약품(위)과 의료기구(아래)

소왕청재봉대는 2-3대밖에 안 되는 재봉기를 가지고 대대나 연대에 소요되는 군복을 도맡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나 연대부의 주문에 따라 반일부대장병들이 입을 군복까지도 일식으로 지어냈다. 일식이라고 하면 군복저고리와 바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르는 군모와 행전, 탄띠까지도 다 포함된다. 재봉대에 부과되는 작업량은 공칭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생산능력을 뛰어넘는 과부하가 생길 때마다 근면하고 충실한 재봉대원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잠이 오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노래를 불렀다. 오죽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모든 재봉대원들이 수십 가지의 혁명가요를 외우고 있었겠는가.

소왕청재봉대의 초대책임자는 김연화였다. 그 당시의 왕청사람들은 그를 활량이 또는 말광량이라고 불렀다. 그가 이따금씩 담배질을 한다고 남자번지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덜렁덜렁한 말괄량이가 뜨개질이나 바느질만은 아주 솜씨있게 하였다.

김연화가 바느질을 배운 것은 부부생활을 시작한 후부터였다. 그의 남편은 다리가 한 쪽밖에 없는 불우한 사나이였다. 승산없는 가난과의 대결에서 그가 첫째가는 호구지책으로 삼은 것은 삯바느질이었다. 김연화의 재봉솜씨는

이때부터 축적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군복도 잘 만들었지만 중국옷도 맵시있게 만들었다. 김연화를 남자번지개라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가 지어준 옷을 입고서는 ≪연화누님, 절을 받아주십시오!≫하면서 재봉대가 있는 골 안을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곤 하였다.

우리의 재봉대원 가운데는 병기창 성원들 못지않은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 많았다. 김명숙, 전문진, 한성희, 안순화, 최희숙, 김용금, 김수복, 최인숙, 박정숙, 조영숙, 박수환, 마인옥, 김선 등은 모두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수천 수만 벌의 옷을 지어낸 간고분투의 명수들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안순화의 최후와 간파하자밀영에서의 여섯 재봉대원들의 영웅적 순국을 사실 그대로 방불하게 그려낼 언어가 나한테는 너무도 모자란다.

우리는 유격구마다 병원을 차려놓고 부상자와 환자들도 자체로 치료하였다. 치료에 사용한 수술칼, 핀세트 등의 의료기구들은 모두 병기창 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들어낸 것들이였으며 약간량의 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약들도 의료일군들이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체로 마련하고 제조한 것이였다.

의사와 간호원을 데려올 데가 없으니 그것도 자체 해결이였다. 동의사 경력을 가진 한두 명의 선각자들이 무수한 후비들을 키워냈다.

임춘추, 이봉수 등은 치료사업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은 명의들인 동시에 후비육성에도 무시할 수 없는 공로를 세운 권위있는 사람들이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에서 삶의 노래, 소생의 노래를 부르며 뛰쳐일어나 대오로 돌아갔던가.

우리는 식량문제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였다. 인민들에게 납부량을 정해주고 그것을 모아들이는 방법으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였다. 우리는 군대와 적위대,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 청년의용군을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앞에 식량의 자급자족화 목표를 내세우고 유격구의 농경지들에서 자체로 곡식을 심어먹도록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맹렬하게 벌이던 1930년대 후분기에는 후방부대를 파견하여 백두산기슭에서 전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였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기나긴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이 좌우명을 뼈와 살로 만든 사람은 절해고도에서 지조를 지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오를 떠나 변절투항하거나 중도반단의 길을 걸었다.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고이 안고온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 후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옮겨져 새 조선 건설의 봉화로 타올랐고 동방 일각에서 전설의 천리마를 날린 원동력으로 되었다. 평범한 수리기지에 지나지 않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우리가 전기기관차 제작에 달라붙었을 때 한 대사는 조선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우리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붉은기≫ 1호는 그 경쾌한 기적 소리로 대사의 예언을 가볍게 짓눌러버렸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망치소리는 노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항일전쟁의 폭풍속에서 태어난 자력갱생의 넋은 오늘날 **김정일**조직비서가 제시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속에서 힘차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행진곡≫을 부르며 풍랑 사나운 20세기 마지막 연대의 영마루로 치달아오르고 있다.

7. 영생의 꽃


김금순

1933년이었다.

왕우구 혁명조직에서는 상급의 조치에 따라 북동아동단학교 학생들인 김금순이와 김옥순이를 소왕청에 파견하였다. 두 소녀는 연길지방 인민들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던 재능있는 유희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으로부터 혁명군중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왕청 일대에 가서 근거지 인민들에게 노래와 춤을 보급하라는 과업을 받고 마촌에 왔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혁명조직들은 인재들을 자주 선발하여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된 소왕청으로 끊임없이 보내주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평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동만지방의 인민들도 소왕청을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지 다하였다. 마촌에 도착한 후 두 소녀는 나를 만나려고 동행한 북동아동단학교 관리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곧장 군부로 찾아왔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10살 안팎의 애어린 소녀들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그들을 자매간이라고만 짐작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남남이였다. 그저 이름이 어슷비슷하였을 뿐이다. 동행한 북동아동단학교 관리원은 내 앞에 두 소녀를 차례로 내세우고 그들의 경력과 집안 내력을 재미나게 소개해주었다. 그 소개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관리원이 김옥순의 경력을 말할 때 김옥순 자신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하였다. 그가 걸어온 13살이라는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큰 비극으로 얼룩져있었던 것이다. 김옥순은 9살 때 20살이 넘는 지주의 아들과 혼약을 맺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혼약이었다. 20살이 넘으면 남자도 노총각이라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등이 달아서 중매꾼을 내세워 신부감을 물색하던 세월이었다. 총각이 20살이 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여자의 아버지에게 술을 몇 사발씩 퍼먹이고 만취된 다음 손을 끌어당겨 문서장에 도장을 찍는 식으로 혼약을 성급하게 날조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총각은 분명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장가를 가기 힘든 부실한 청년이였거나 병신이었던 것 같다.

그 문서장에 의하면 김옥순은 15살이 되는 해에 신랑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문서장에 그런 강도적인 조항이 씌여있는 것도 모르고 이틀 동안이나 빈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술에 만취되었던 그는 집에 실려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주머니에서 자기의 지장이 찍힌 약혼문서와 출처불명의 돈 80원을 발견하고는 통곡하였다. 그 80원은 딸을 지주집에 시집보내게 되는 대가로 신부될 측이 신랑될 측에게서 받는 선사금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옥순이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딸의 운명을 한 장의 문서장으로 결정해버린 그의 아버지 김재만 자신은

얼마 후 80원의 선사금으로 초가집을 사고 텃밭을 사고 소와 돼지를 사서 묵묵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강약이 부동이라고 항변했대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왕이면 주머니에 굴러들어온 돈을 밑천삼아 화를 복으로 만들어보겠다는 태도였다. 딸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며 쿨쩍거릴 때마다 김재만은 이런 말로 그를 달랬다.

≪얘야, 울지 말아라. 그 80원이 그래두 다 망하게 된 우리 집을 살렸다. 어쨌든 굶어죽기보다야 낫지 않겠니. 너 하나의 혼약으로 다 죽게 된 부모형제들을 살렸다고 생각하면 슬픈 마음도 가라앉을 게다.≫

부식하고 순박한 그는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람이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손발을 놀리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지어는 백만장자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천진난만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착취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졌다. 그 지주는 드문히 옥순이네 집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김재만은 세상에 자기네 지주처럼 고마운 지주는 없다고까지 여기게 되었다. 한번은 옥순이가 학교마당에 가서 지하공작원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만은 딸을 외양간에 묶어놓고 온몸에 굴뱀이 질 때까지 사정없이 매를 때렸다. 딸이 혁명에 발을 담그게 될까봐 겁났던 것이다. 김재만이 계급적으로 늦게나마 각성된 것은 다섯차례에 걸치는 적의 ≪토벌≫에 마음이 잿더미가 된 다음부터였다. 옥순이네도 그 ≪토벌≫에 집과 역축을 죄다 잃고 말았다.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는 불에 타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옥순아. 이제는 놈들이 망하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사생결단을 해야겠다.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도 몰랐다. 이제는 너희들이 혁명을 해서 저 악귀같은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유화 - 딸



딸을 왕우구유격구역으로 떠밀어보내던 날 밤 김재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후 김옥순은 송림동에 있는 김금순이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금순이와 함께 북동아동단학교에도 다니고 구유희대, 현유희대에 망라되어 군중계몽활동도 하였다. 조선의 아이들은 옥순이처럼 부모들의 곁에서 응석이나 부리고 투정질이나 할 어린 나이에 벌써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한 멍에를 걸머지고 생활전선에서 허덕였다. 세월의 난파는 성년, 미성년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어린이도 몰라보는 세상,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똑같은 등짐을 걸머지우는 악착한 세상에 항거하여 우리의 소년들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간도지방의 조선소년들은 도처에서 아동단,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뭇고 조직된 역량으로 싸움의 마당에 뛰어들었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 교양되고 단련된 우리의 모든 소년소녀들은 항일혁명을 움직이는 하나의 당당한 치차가 되고 나사못이 되었다.

김옥순, 김금순이도 그 치차 중의 한 치차였고 그 나사못 중의 한 나사못이었다.

나는 김옥순의 경력을 듣고 측은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청초한 모습속에 비껴있는 한 가닥의 불행은 조선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던 불행의 축도였다. 하지만 혁명을 하겠다고 어린 나이에 벌써 집을 떠나 유격근거지로 찾아들어온 그 결의와 기개야말로 얼마나 장하고 떳떳한가. 오늘은 또 소왕청을 지원하려고 왕우구, 다홍왜, 요영구, 마촌 노정을 따라 수백리 길을 걸어왔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른들이나 신고 다니는 지하족을 발에 걸치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막대기로 덤불길을 헤치며 허위단심 소왕청으로 찾아온 두 소녀가 내 눈에는 몹시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보였다.

≪누가 너희들을 소왕청으로 보내더냐?≫

나는 저 지하족을 운동화나 고무신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소녀에게 물었다.

≪윤병도선생님이 보냈습니다.≫

두 소녀는 치마말기에 두 손을 가져다 붙이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눈빛도 별처럼 초롱초롱했지만 목소리도 정신이 번쩍 들게 또랑또랑하였다. 나는 기분이 매우 흡족해졌다.

아이들과의 친교는 사실 나의 생활에서 하나의 큰 낙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과 고뇌를 씻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세척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속에 잠겨보라. 그러면 그대는 생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것들로 하여 인류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진다는 것과 그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이상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성스러운 사명임을 가슴이 부풀도록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얼굴과 종다리에 긁힌 자리가 여러 군데 나 있는 금순이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 큰 고개란 많았겠는데 넘기가 힘들지 않더냐?≫

≪발이 부르터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온 아저씨가 왕우구로 되돌아가라고 할까봐 힘들지 않은 체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들 곁에 있으면 더 좋지 않니.≫

≪좋기야 좋지요 뭐.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겠나요. 어른이 되자면 고생을 많이 해봐야 한다구 아동단 지도원선생님두 말씀해주셨는데 . 난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그렇게 빨리 되어선 뭘하니?≫

≪조선을 독립해야지요. 김대장아저씨. 무슨 일이 있어두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금순이의 어른스러운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조선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는 그의 각오는 사상적으로 매우 조숙한 것이었다.

≪응. 그건 걱정말아라. 간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간둥이들이 굴러들어왔는데 왜 돌려보낸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우리하고 같이 왕청에 있자. 여기서 아동단생활을 하는 게 괜찮아.≫

금순이는 그 말을 듣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손뼉을 마주쳤다. 나는 현과 구의 공청지도 일군들에게 두 소녀를 마촌아동단학교에 편입시키고 아동단조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부모의 슬하를 떠나 생소한 고장에 온 그들이 마음놓고 침식을 할 수 있는 무던한 집들에 숙소를 정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왕청의 군대와 인민은 마촌아동단학교운동장에서 그 해 5.1절을 크게 쇘다. 5.1절 행사에는 왕청지구의 군대들이 다 무였다. 왕우구에서 온 두 소녀는 그날 달리기와 높이뛰기에서 각각 1등을 하여 왕청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금순이는 나이에 비해 몹시 체소했다.

그가 유희대의 선두에서 배낭을 메고 발을 재게 놀리며 달랑달랑 걸어갈 때면 그 순결하고 재롱스러운 모습앞에서 누구나 다 웃음을 짓곤 하였다. 나 자신도 그의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나는 원래 생활을 비관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보다도 낙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가 산에서 풀뿌리를 우려먹으며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던 그 시기에는 한 명의 낙천가가 몇 십 문의 대포와 맞먹는 힘을 냈다. 금순이는 그 당시 당, 공청, 아동단의 3대 동맹에서 제일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투사였고 낙천가였다.

금순이를 만난 며칠 후 나는 지휘부에 마촌아동단학교 아이들을 불러 그들의 생활형편을 요해하였다.

원래 아동단원들은 배낭속에 일주일 분의 식량을 상시적으로 휴대하고 다니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배낭검열을 당한 아동단원들속에는 학교에서 내준 미시가루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순이만은 한 숟갈도 다치지 않고 일주일 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수하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 막내가 참 용케 참아냈구나. 금순이가 제일이다!≫

나는 배낭검열을 끝내자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며 금순이를 크게 칭찬하였다.

금순이는 수줍은 듯이 웃기만 하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두 미시가루주머니를 몇 번이나 꺼냈다 넣었다 했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걸 겨우 참았지요 뭐.≫

≪어떻게 참았느냐?≫

≪다른 애들이 미시가루를 먹을 때 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래두 먹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지요. 밖에 나가두 먹구 싶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드레박 마시고 오곤 했습니다. 그럼 미시가루를 먹은 것만치니 배가 불렀거든요.≫

나는 금순이의 유창한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물겨운 동심속에는 유격구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었으며 그런 궁핍속에서도 억척스레 혁명을 개척해나가는 어린 불사조들의 넋이 격조높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10컵의 미시가루와 강냉떡을 나누어주고 배낭속에 성냥도 넣어주었다. 며칠 후에는 새 솜옷과 솜이불에 신발, 공책, 연필까지 합쳐 두 달구지나 되는 필수품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주었다. 싸움이 잦은 때여서 우리에게는 적들을 치고 노획한 전리품의 예비가 적지 않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귀한 때였으니 우리는 그 예비의 많은 몫을 늘 아동단학교에 돌리곤 하였다.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되고 있지만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이 원칙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었다. 아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부대를 출동시켜 전투까지도 서슴없이 조직하곤 하였다.

우리는 아동단앞에 ≪조선의 독립과 전 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아동단원들은 군중계몽, 연예활동, 보초근무, 통신연락, 적정탐지, 무기탈취, 유격구방위를 위한 투쟁에서 실로 어른들에게 못지 않은 위훈을 세웠다. 적의 토벌에 불타버린 귀틀집들을 다시 일떠세울 때에도 우리는 일터에서 언제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근거지를 사수하는 방위전의 불바다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혁명군의 참호에 주먹밥을 들고 뛰어오던 어린 수리개들과 맞다들 수 있었다. 농사철이면 그들이 밭에 가서 김도 매고 가을걷이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산과실을 따다가 유격대 병실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나는 뾰족산 중앙보초대에서 전방보초근무를 서고 있는 아동단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목격한 일이 있다. 허리에 묵직한 작탄을 한 개씩 찬 그들은 1.5미터 정도의 길이를 가진 장대 끝에 쇠붙이를 붙인 창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보초교대는 한시간에 한번 한다고 하였다. 성냥가치 두 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향에 불을 붙여 그것이 절반 가량 타면 교대를 하곤 하였다. 향이 전부 타는 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아이들이 한번은 겹으로 된 조선바지, 저고리와 대님, 회색양단조끼, 승마바지, 구

두, 장화, 검정고무신을 일식으로 갖추어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우리가 아동단학교에 전리품들을 여러 번 보내준 데 대한 보답이였다. 우리는 그 당시 일본침략군의 수송대를 치고 노획한 조선사과도 아동단원들에게 모조리 선물하였다. 유격근거지 아이들 가운데는 이국 땅에서 태어나 조선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조국의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유격대원들이 노획한 조국의 사과를 상자째로 가져다주었을 때 아동단원들이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절절한 감사의 정에 사무쳐있었는가에 대하여 이 일화의 산 증견자이고 직접적인 체험자인 김옥순은 자주 뜨겁게 회고 하였다.

박길송 아동국장은 어느 날 아동단학교에 찾아가 이런 말을 꺼냈다.

≪애들아. **김**대장선생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처럼 끔찍히 사랑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장선생님에게 우리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표시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들 해보아라.≫

아동국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금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옷을 해드리자요. 대장선생님은 글쎄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신다지 않아요.≫

박길송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금순이가 방금 좋은 옷을 해드리자구 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박길송

아이들은 일제히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좋다면 됐다. 나도 금순이처럼 두툼한 옷을 해드리자고 생각했다. 천을 구해다가 부녀회원들에게 부탁하든가 재봉대에 부탁해서 멋들어지게 옷을 만들자꾸나.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천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섯을 뜯어다가 말려서 팔면 돼요. 버섯 값이 비싸다구 했어요. 돈만 있으면 천이야 못 구하겠나요.≫

금순이가 또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참새처럼 조잘거렸다.

≪옳아요! 옳아요! 버섯을 뜯어다가 지주들에게 팔자요!≫

다른 아이들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다음날부터 아동단원들은 박길송과 함께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돌아다녔다.

나는 그들이 버섯을 따들고 대열합창을 하며 이수구골 안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도 그 버섯광주리속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였다. 그저 애들이 병원에 있는 전상자들에게 입맛이 당기는 부식물을 마련해주려고 끔찍이도 애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버섯이 돈으로 되고 옷으로 되어서 어느새 내앞에 나타난 것이다.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시는 대장선생님께서 입으시라고 저희들은 옷 한 벌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양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금순이가 아동단경례를 맵시있게 붙이고 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였다. 그 때 내가 정말 홑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곤 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 옷을 받고나니 어째서인지속으로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옷을 받아들고 이런 말로 아이들을 달랬다.

≪애들아. 나는 비록 홑옷을 입고 지내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성의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 옷은 소왕청에서 연세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하니 섭섭해들 말아라.≫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원망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옷을 받지 않는다고 못내 서운해하였다. 내가 두세번 타일러서야 애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지었다.

군중집회가 끝난 다음 금순이는 내 곁에 다가와 군복소매를 살그머니 만져보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걱정하였다.

≪천이 얇아서 바람이 쌩쌩 날아들겠네.≫

지금도 엄동설한이 되면 소왕청에서 금순이가 하던 그 말이 이따금씩 귓전에서 감돌곤 한다.

처음에 왕청사람들은 그를 ≪깜장금순이≫라고 불렀다. 눈동자가 새까맣다고 유격구인민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붙였다. 조금 후에는 ≪마촌콩새≫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겨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콩새처럼 몸집이 작고 귀염상스러운 어린이라는 뜻에서 길주, 명천 지방 출신 여성들이 달아놓은 애칭이였다.

사람들이 ≪깜장금순이!≫하고 불러도 금순이는 ≪예!≫하였고 ≪마촌콩새!≫하고 불러도 ≪예!≫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하루에 별명을 열 번 이상 들어도 절대로 노여움을 타는 성미가 아니였다.

금순이가 무대에서 탭춤을 추는 날은 왕청사람들의 명절이였다. 그는 옥순이와 함께 늘 이 춤을 추곤 하였는데 아동단유희대의 공연종목 가운데서는 늘 이 종목이 제일 많은 박수갈채를 받곤 하였다. 그가 발을 재게 놀리며 다리와 다리 사이로 수건을 뽑는 동작을 되풀이할 때마다 관객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올렸다.

나는 왕청에 있을 때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마촌골 안을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를 요해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곤 하였다. 아침 산보는 나에게 있어서 어길 수 없는 일과였다. 내가 백마를 타고 왕청골 안을 돌아다닐 때면 유격대 나팔수 송갑룡과 전령병 조활남이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아침 산보를 할 때마다 길가에서 꼭꼭 아동단원들의 가창대열과 맞다들곤 하였는데 그 대열을 볼 때의 기분이란 참으로 흐뭇하고 상쾌한 것이었다.

양 볼이 사과알처럼 붉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마상에서 굽어볼 때에 느끼는 대견스러운 심정을 어떻게 하면 방불하게 그려낼 수 있겠는지. 나는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아동단원들이 보고 싶어서 아침 산보를 중단하지 않았다. 혹시 그 애들이 눈비를 무릅쓰고 산보를 나왔다가 노상에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허전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아이들도 나와 꼭같은 심정을 가지고 궂은 날이나 마른 날이나 할 것 없이 산보길을 한번도 비우지 않았다.

가창행진을 할 때의 선창은 노상 금순이가 떼곤 하였다. 수십 가지의 음성이 뒤섞여 울리는 조잡한 합창속에서도 우리는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금순이의 유다른 목소리를 쉽게 가늠해보곤 하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째서인지 오늘 하루도 유격구에서 만사가 잘되어 나가겠구가 하는 미신에 가까운 안정감이 마음속에 깃들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이수구골 안을 흔드는 아동단학교의 대열합창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딴 지방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같은 생소한 느낌에 떠밀려 귀틀집마당으로 걸어나갔다. 가창대대열은 때마침 지휘부 근처에 있는 소로길로 행진해가고 있었다. 대열 선봉에는 예전날처럼 역시 금순이가 서 있었다.

금순이는 웬일인지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고개를 폭 숙인채 타박타박 걷기만 하였다. 그날 아침 금순이를 대신하여 선창을 담당한 것은 아동단단장인 이민학이었다. 금순이의 선창이 없는 가창대 대열은 사실 기둥기수를 잃어버린 합창단과 다름 없었다.

그날은 왜 그런지 하루종일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다. 나는 금순이를 만나려고

석양 무렵에 아동단학교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왕우구에 있던 그의 가족들이 적에게 희생되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였다. 금순이가 입을 봉하고 묵묵히 가창대 대열을 따라다닌 것이라든가 이민학이 그를 대신하여 직접 선창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던 까닭이 비로소 이해되였다.

금순이는 그날 내 무릎에 엎드려 기절할 지경으로 오래도록 울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죽었다는데 나 혼자 살아서는 무엇하나요?≫

그는 이런 사설질을 하면서 비에 젖은 참새처럼 온몸을 오돌오돌 떨었다.



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학교

그날 그를 달래느라고 정말 진땀을 뽑았다. 나는 황혼이 스며들 때까지 아동단학교에 남아 금순이를 위로하였다.

≪금순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네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원수들은 너까지도 이 세상에서 없애치우려 할 것이다. 왜놈들은 지금 이 간도 땅에서 조선사람들을 멸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민족이 그렇게 쉽사리 놈들에게 생명을 내줄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서 원쑤를 천백 배로 갚아야 한다.≫

금순이는 그때에야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씻으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였다.

≪말씀대로 원쑤를 꼭 갚겠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웃음이 적고 말수더구가 적은 소녀로 변하였다. 그가 이전처럼 소리를 내여 웃거나 목청을 높여 입씨름질에 열을 올리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는 선창을 뗄 때에도 종전과 같이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않았다. 소왕청에서는 ≪마촌콩새≫라는 애교있는 별명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린 소녀의 복수심은 아동단생활과 유희대공작에서 배가의 열성으로 나타났다.

금순이를 핵심으로 하는 아동단유희대는 석현, 도문의 회막동과 같은 적통치구역에 나가서도 맹활약을 하였다. 왕청아동유희대의 명성은 동만의 판도를 벗어나 머나먼 북만에까지 확대되였다.

그 당시 동만과 북만의 공산주의자들은 노야령을 사이에 두고 교류를 밀접히 하고 있었다. 노야령 산줄기에 구축된 천험의 장벽도 두 지방 혁명가들이 서로 부단히 왕래하고 접촉하며 지원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간도를 항일대전의 성새로 만들어놓은 유격근거지들은 만 사람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모델로 되였으며 거기에 세워진 새 제도, 새 질서는 인방 인민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꿈으로 되고 숙망으로 되였다. 동녕현성전투는 특히 만주지방 인민들과 무장부대들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 전투가 있을 후부터 구국군들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이 나를 ≪**김**장군≫, ≪**김**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유격구에서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민주주의적 시책은 만민의 축복을 받는 시대적인 관심사가 되였다.

북만의 당조직들과 군부에서는 동만지방 인민들이 이룩하고 있는 유격구건설 경험을 섭취할 목적으로 왕청과 그 주변의 근거지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참관단을 파견하였다. 그 무렵의 왕청 중심지는 소왕청이 아니라 요영구였다. 금순이네 아동유희대도 마촌을 떠났다. 적의 대토벌이 있을 후 유격구의 모든 기관들은 일제히 요영구로 이동하였다. 나도 1934년 봄에 일부 부대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4년 여름 지방조직원들과 유격대원들로 무어진 영안현 참관단이 임영주라는 여 공청서기의 인솔하에 팔도하자에서 신선동을 거쳐 뒤틀라즈로 찾아왔다. 그 때 요영구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참관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아동단원들은 3각으로 된 붉은기를 흔들면서 ≪북만견학대를 환영합니다≫라는 구호는 연방 외쳤다. 저녁에는 병실 마당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참관단을 위한 연예공연을 하였다.

아동유희대는 북만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다채로운 종목들을 보여주었다. 이 유희대에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단원들이 많았다.

이민학은 댄스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었다. 그가 희극적인 역을 맡아 가지고 연극에 출연할 때면 관중들이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김재범도 댄스명수였다. 그는 춤으로써 오리걸음과 토끼걸음까지 흉내내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왕청현 내의 혁명조직구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연예공연도 하고 노래보급도 하였다.

우리는 아동유희대를 위해 전투에서 노획한 물자들 중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무용복도 해입히고 연극의상도 해결해주었다.

주보중이 직접 파견한 반일동맹군의 소부대도 얼마동안 요영구에 와있으면서 왕청유격대의 경험을 배웠다. 그것은 순수한 유람식 참관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을 따라세우는 일종의 실습과 같은 것이었다. 요영구에 체류하는 전 기간 그들은 하루생활도 우리 부대가 제정한 일과표대로 하였고 군사훈련, 정치학습, 문화생활도 모두 왕청부대식으로 하였다.

우리는 공청조직과 아동단에 과업을 주어 정상적으로 반일동맹군 대원들에 대한 위문사업을 하였다. 아동유희대들이 반일동맹군 대원들에게 중국말로 된 혁명가요를 연습해가지고 가서 배워주면 반일동맹군 대원들이 아동유희대원들에게 재미나는 중국노래를 배워주었다. 어떤 날에는 아동유희대원들이 중국말로 된 연극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아동유희대의 위문활동에 감동된 북만의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그들을 병실로 초청하였다.. 이 사람들이 북만에 돌아가서 아동유희대에 대한 소문을 크게 퍼뜨려놓았다.

1934년 여름에 주보중은 왕청지방의 아동유희대를 북만으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나는 박길중에게 원정공연 준비를 잘해서 북만의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해주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희대가 북만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도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우리가 유희대를 북만에 파견한 것은 중국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한층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다.

주보중이 아동유희대를 초청한 목적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반일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교양하자는데 있었다. 그 당시 주보중은 영안 일대에 조직된 수녕반일동맹군의 판사처주임으로 활동하면서 왕덕림의 구국군에서 떨어져 나온 항일대오를 결속하기 위해 간고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아동유희대를 북만으로 파견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싸움

에도 인이 박히고 온갖 고초와 주림에도 단련된 아이들이지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겠는가 하는 우려가 잠시도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금순이와 같은 어린이가 험준한 노야령 산줄기를 어떻게 타고 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아동유희대원들은 모두 동란속에서 단련된 어린 매들이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번 이겨낸 불굴의 투사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그토록 커다란 불가항력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노야령 산줄기도 어렵지 않게 돌파하였고 토비들의 활동구역도 무난히 통과하였다. 비가 내리면 머리 위에 우산 대신 솔가지와 봇나무껍질을 쓰고 행군하였다. 밤에는 자기네끼리 야전밥통에 밥을 지어 대충 끼니를 굼때고 모닥불 옆에서 보초를 서가며 노숙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배탈을 만나 산중에서 막심한 고생을 하였다. 더구나 유희대가 잡은 노정은 달구지나 발구가 다니게 되어 있는 왕청-노야령의 큰길이 아니라 유격대통신원이나 다니는 실오리같이 가늘고 험한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수백리의 노정에서 낙오자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유희대 막내둥이인 금순이조차도 배낭을 매주겠다는 아이들의 제의를 가볍게 밀어버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힘으로 노야령을 넘었다고 한다.

금순이와 함께 북만까지 갔다온 김옥순은 훗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구국군 부대에서의 공연활동에 대하여 재미나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아동유희대가 북만 땅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린 것은 마창에 주둔하고 있던 채세영부대에서였다. 채세영은 구국군지휘관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양만 더 잘하면 그들을 동맹자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자로까지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마창에서의 첫 공연은 금순이의 연설로부터 시작되었다.

150명에 달하는 구국군 장병들이 채세영과 함께 공연을 보았는데 반영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금순이가 연설을 끝마치자 그들은 ≪밤알만한 처녀애가 어쩌면 저렇게도 말을 잘할까! 저 애를 봐서라도 우리가 항일을 잘해야겠다≫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채사령은 감격한 나머지 자기 방에 금순이를 데려다가 무릎 위에 앉히고 그에게 귀걸이와 손목걸이까지 걸어주었으며 순회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유희대에 두 대의 마차까지 내주었다.

일주일로 예정되었던 공연은 반일부대 장병들의 요청으로 자꾸만 연장되었다. 유희대는 주보중의 부대에 가서도 공연을 하였다. 채세영은 그들에게 솜저고리, 다부산자. 목도리, 돼지, 닭, 당면, 밀가루를 비롯하여 두 달구지나 되는 선물을 보내주었다. 매 아이들에게 가방을 하나씩 메워주고 총까지 선물하였다.

유희대가 원정공연을 끝마치고 요영구로 돌아올 무렵에 나는 부대를 데리고 다른 지방에 가 있었다.

내가 유격구로 돌아오기 바쁘게 아이들은 나를 둘러싸고 북만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자랑하였다.

≪이건 다 채사령이란 분이 준 거예요. 레닌처럼 수염을 기른 분인데 마음씨가 정말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의 방에 가서 돼지발쪽이란 것도 먹어봤어요. 주보중선생님도 선물을 많이 줬어요.≫

금순이는 이렇게 채사령과 주보중 칭찬을 한바탕 하고 나서 칠성자 한 자루를 내 옆구리에 채워주었다.

≪장군님, 이 총은 장군님이 꼭 차야 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는 결정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제 품에 캐드득거리며 웃어보였다. 나는 아이들이 섭섭해하지 않게 그 칠성자를 며

칠동안 차고 다니다가 청년의용군대장에게 슬그머니 넘겨주었다. 나머지 무기들도 모두 청년의용군에 인계해주었다. 북만에서 가지고 온 그 밖의 선물들은 고스란히 아동유희대가 처분하도록 하였다.

그 해 가을 요영구유격대에는 금순이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기적같은 풍문이 떠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금순이가 머리카락 짬에 들국화 송이들을 여라문 개 꽂고 요영구골 안이 좁다하게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다닐 때 금순이네 가정내막을 잘 알고 있는 근거지의 군중들은 한 사람같이 흐뭇한 심정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아동단조직에서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금순이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기로 하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도리에 밝고 집단주의정신이 강한 금순이는 처음에 조직의 이 배려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부모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한둘도 아닌데 자기 혼자만 그런 특전을 받을 수 있겠는가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금순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리 부대가 전각루에서 북만원정 준비를 다 그치던 1934년 가을이었다. 그 때 금순이네 아동유희대는 그 고장에 와서 연예공연을 하였다. 원정대원들을 전송하기 위한 특별공연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연이 끝난 다음 우리는 노루를 잡아서 아동유희대원들에게 교즈를 만들어 먹였다.

내가 유희대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집을 돌아보고 나올 때 금순이가 갑자기 먹던 음식그릇을 밀어놓고 내 곁에 바삐 다가와 무슨 큰 비밀이라고 뚱겨주듯이 귓속말로 소곤소곤 속살거리는 것이었다.

≪장군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신대요!≫

≪오냐. 유격대아저씨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한다.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난 오늘 너무 기뻐서 독창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두 또 부르고 싶었지요 뭐.≫

≪그럼 자꾸 부르려므나.≫

나는 전각루마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마련해가지고 온 몇 가지 전리품 가운데서 참빗과 얼레빗을 각각 1개씩 꺼내어 금순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어리광이라도 부리듯이 내 팔에 마구 휘감겼다. 나이는 어리나 응석기라고는 조금도 없던 이 귀여운 소녀의 몸가짐과 언행에서 새의 퍼덕거림과도 같은 환희의 선풍을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그럼 인차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네가 떠날 때 나는 너를 바래줄 것 같지 못하다. 북만에 가야 하니까.≫

이것이 내가 금순이에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금순이가 전각루에서 유희대활동을 마치고 아동단학교로 돌아간 것은 요영구혁명조직에서 적구에 보내는 극비문건을 전달할 연락원을 물색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직에서는 심중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적임자로 결국 금순이가 선발되었다.

나어린 금순이는 혁명조직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중요한 연락임무를 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믿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금순이가 적구로 내려가는 날 한성희는 그를 물가에 데리고 나가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의 차림새라도 보아주듯이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로 빗어주고 신들메도 매어주고 치마의 주름살도 펴주었다. 큰 머루알만한 도토리알 세 개를 핀으로 꿰어 리본 대신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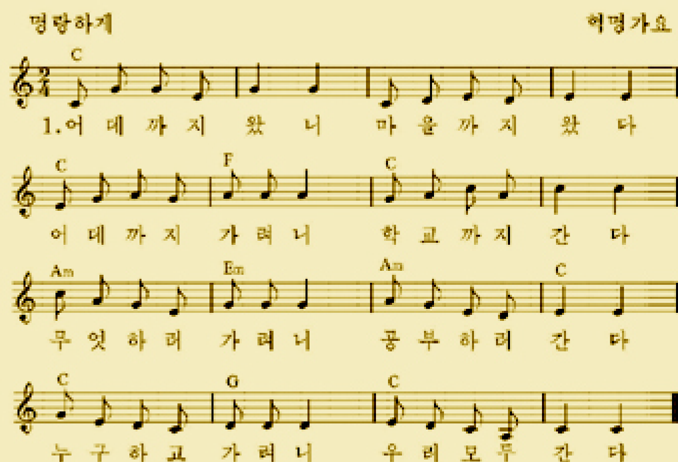
그날 아동단원들은 동구 밖까지 따라나가 금순이를 바래주었다.

어데까지 가니
연길까지 간다

어느령을 넘니
길청령을 넘지

무엇하러 가니
통신연락 가지

누구하고 가니
나혼자서 가지



금순이는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며 숲속 길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 가사는 그가 걸음을 옮기면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동무들은 그 노래를 듣자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그리고는 목청을 합쳐 요영구골 안이 떠라나게 그 노래를 되받아 불렀다. 금순이는 조직이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다음 어머니가 계신다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어른들과 함께 일본헌병대놈들에게 체포되었다.

놈들은 금순이가 유격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쾌재를 올렸다.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게워놓을 수 있는 ≪새끼공산당≫이 굴러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 그들은 금순이가 요영구에서 왔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아냈던 것 같았다. 요영구는 동만지도부가 자리잡을 곳이니 잘만 구슬리면 큼직큼직한 비밀들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한 모양이었다.

실지로 금순이가 유격구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혁명군의 활동, 간부들의 움직임, 유격구와 반유격구를 연결하는 비밀통로, 근거지 주민들의 생활형편과 동향 등은 그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금순이가 유희대에 망라되어 적구에 가서도 공연활동을 많이 한 것만큼 그를 굴복시키기만 하면 지방조직들의 비밀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에 대하여 소개한 동북항일렬사전(1936.5)

적들은 이런 가능성을 저울질해보고 그에게서 귀맛이 당기는 정보자료들을 있는 힘껏 비틀어 짜내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놓고 달콤한 말로 그를 달랬다. 다음에는 위협도 하고 고문도 하였다.

나는 전에 외국소설에서 어떤 섬마을의 어린애가 은시계에 유혹당하여 새초더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행처를 대주었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다. 그 소설을 보아도 알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구슬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아이들은 물질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위협이나 고문앞에 굽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의 아동단원들 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한 푼의 돈과 바꾼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 해방 후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서강렴, 이헌수, 임형삼도 13-15살 안팎의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적의 총구앞에서 조직의 비밀을 불지 않았다.



김금순의 장렬한 최후를 보도한 신문자료

금순이는 항일혁명의 풍랑속에서 강철로 단련된 불굴의 어린 투사였다. 이 나라의 어린 딸은 살점이 떨어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연 것은 오직 교형리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뿐이였다.

≪만약 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죽일 것이다!≫

금순이를 취조하던 헌병장교의 말이었다.

≪더럽다! 너같은 강도놈들과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금순이의 대답히었다.

악착한 교형리들은 혁명군의 비밀을 불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어린 금순이를 죽이려 하였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유격구 주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다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백초구들판에는 눈물의 바다가 고였다. 그러나 금순이는 오히려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 아저씨들이 꼭 원수를 쳐 없앱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군세게 싸워주십시오!≫

불을 토하는 것 같은 이 최후의 절규에는 9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생애가 짤막하게 함축되어 있었다.

사형장에서는 ≪일제놈들을 타도하자!≫, ≪조선혁명 만세!≫를 부르짖는 금순이의 앳된 목소리가 맴짜게 울렸다.

나는 금순이가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동안 아동단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

어쩐지 그 학교에 가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금순이가 없는 아동단학교, 금순이가 없는 아동유희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정없이 서글퍼졌다. 적들은 내 곁에서 왕청사람들이 그렇게도 총애하던 유희대 나비, 유격구의 종달새를 영원히 앗아간 것이다.

이제는 그 누가 금순이처럼 고생속에 혈전분투하는 유격구사람들을 위해 그렇게도 낭랑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도 발랄하고 경쾌하고 맵시있는 율동으로 춤을 추겠는가. 그 누가 금순이처럼 거침없는 중국말노래로 구국군장병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산책을 길을 더듬는 나를 향해 금순이처럼 영롱하고 생기있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이겠는가.

금순이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왕청 일대의 혁명군중을 분기시켰다. 요영

구골 안에서는 금순이의 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동만 각 현에서 격노한 수십명의 남녀청년들이 금순이의 복수를 다짐하며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국제당 계열의 잡지와 중국과 일본의 출판물들은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린 영웅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어린 렬녀의 약전≫이란 제목으로 금순이의 영웅적 생애를 격찬하였다. 한 뼘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발로 사품치는 강하와 메부리들을 쉴새없이 넘고 건너며 혁명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던 유격구의 종달새 금순이는 이처럼 9살 나이에 세계를 격동시킨 인물이 되었다.


유관순

우리 나라 현대 역사에는 유관순이라고 부르는 이름난 순국처녀가 있다. 유관순이라고 하면 먼저 기미년 3.1운동을 회상하게 된다. 서울 이화학당에서 교비생으로 학업에 전심하던 처녀는 3.1운동의 열파로 학교가 페쇄되자 고향 충청남도 천안에 내려가 독립만세시위를 조직하고 그 시위를 진두지휘하다가 일본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법관들은 그에게 7년형이라는 중형을 언도하였다. 3.1인민봉기를 최초에 선도한 33인에게 가한 형기가 최고 3년에서 최하 1년이라는 것과 그 33인 중에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일본법정이 16살밖에 안된 처녀를 얼마나 무서운 중범으로 취급하였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7년이면 3.1독립운동사상 최고의 형량이라고 시골 농부들까지도 혀를 내두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유관순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후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줄곧 그를 ≪조선의 잔 다르크≫라고 부르며 뜨거운 애정을 담아 추억하고 있다.

그러나 금순이한테는 아직 그런 칭호가 붙어있지 않다. 그와 대등한 나이의 영웅소녀와 없거니와 그의 투쟁업적에 견줄만한 위훈을 세운 처녀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3.1의 영웅 유관순과 함께 김금순과 같은 소년영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영광이다. 최근에 금순이를 형상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후대들에게 그의 위훈을 충분히 소개할 수 없다. 금순이와 같은 소년영웅들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는 금상이나 동상을 세워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며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와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족앞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생할 위훈의 창조자가 되었다.

김금순과 같은 어린이를 세계적인 소년영웅으로 키워낸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수많은 소년영웅들을 육성하였다.

김금순, 전기옥, 목운식, 강용남, 박명숙, 박호철, 허정숙, 이광춘, 김득봉

그들은 모두가 항일혁명의 폭풍속에서 배출된 나어린 열사들이다.

≪나를 총으로 쏘지 말고 날창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이것은 통신연락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들에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간 훈춘의 아동단원 전기옥 소년이 최후의 순간 위만경찰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다.

처형 직전의 그 무시무시한 긴장과 죽음의 공포속에서도 자기 개인의 목숨이나 육체를 걱정하기에 앞서 유격대를 생각하고 항일전쟁의 승리를 생각한 그 숭고한 혁명정신은 교형리들까지도 감동시켰다.

목운식소년의 위훈도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것이였다. 짚신속에 비밀 통신쪽지를 감춰가지고 영창동에서 평강으로 가던 그는 길청령 경비막앞에서 적들의 문초를 받게 되였다. 온몸을 샅샅이 뒤지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던 적들은 소년의 왼쪽 발에서 짚신을 느닷없이 벗겼다. 그 순간 목운식은 일각의 여유도 없이 문초하던 자위단원을 밀치고 경비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부엌 아궁이에 바른편 발을 다짜고짜 밀어넣었다. 바른쪽 짚신에 비밀쪽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간파한 적들은 아궁이에서 소년을 끌어내려고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러나 목운식은 온몸에 내려지는 뭇매를 당하면서도 부엌돌을 힘껏 그러안고 불속에서 발을 뽑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짚신도 타고 발도 타고 솜바지 가랑이도 다 타버렸다.

적들은 목운식을 병원으로 떠메고 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가슴에 주사침을 놓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비밀을 뽑아내려는 적들의 심사는 실로 검질긴 것이였다. 그러나 목운식은 그 비밀을 굳건히 간직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항일무장투쟁을 일선에서 후원한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은 모두가 우리 혁명 1세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였다. 지금도 우리 혁명은 사로청과 함께 소년단을 노동당의 믿음직한 저수지로 보고 있다. 우리가 온 나라의 보화를 다 모아 아이들의 궁전을 건설하고 후대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일군들에게 후대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전망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그 어떤 금빛 찬연한 이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지금 향락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다. 후대들이야 어찌되든지간에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침식해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후대가 생기면 거추장스럽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마저 포기하고 있다. 사람이 결혼을 안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후대들이 없이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와 향락에 중독된 수정주의자들은 후대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온갖 사회악앞에 사정없이 내던지고 있다. 10대의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집권자들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혼란된 현실에 눈물을 짓는다면 그 나라의 혁명은 의심할 바 없이 미래가 없는 혁명이며 전도가 암담한 혁명이다. 일군들이 후대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혁명은 더 많은 김금순과 전기옥과 목운식을 낳게 될 것이다. 금순이의 일가는 이름난 혁명가의 가정으로 항일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참혹한 수난을 당하였다. 아버지는 왕우구에서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피살되였고 어머니는 손에 총을 잡고 근거지를 지키다가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금순이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내적으로 어려운 과업을 많이 주었다.

금순이의 아버지는 한번 과업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제끼고야 마는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금순이까지 셈하면 그의 일가에서 다섯 명이 희생된 것으로 된다. 유관순의 가정

이 겪은 운명과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하지만 그처럼 가혹하고 무자비한 운명의 신도 이 훌륭한 가정의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후대를 한 명 남겨주었다. 금순이의 어머니가 전투장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간 금순이의 두 살 난 동생 김양남이 기적적으로 세상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가 김금순의 동생이라는 것을 맨 처음 포착하고 나에게 그의 경력을 보고한 것은 **김정일**조직비서였다.

그 당시 김양남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기록영화촬영소에서 음악편성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개된 어느 출판물에서 아버지가 민생단으로 처형되었다는 구절을 읽은 그는 자신에게 가해질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며 기를 펴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나는 김양남의 아버지가 민생단이 아니고 견실한 혁명가라는 것을 보증해주었다.

그때부터 김양남은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되어 **김정일**조직비서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하였다. 그는 자기누이 김금순처럼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솟구쳐오르는 망국민의 설움을 풀피리에 담아 처량하게 울리던 어젯날의 목동은 낮과 밤의 구별을 모르고 혁명적인 음악예술의 원전을 복구하는 가곡 창조사업에 심혈을 깡그리 바쳤다.

김양남은 **김정일**조직비서의 직접적인 지도밑에서 만수대예술단을 창립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1류급의 예술단체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공로자의 한 사람이다. 1971년 2월 만수대예술단은 조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서반구 쿠바 땅에서 역사적인 첫 원정공연의 막을 올렸다. 그때 김양남은 정치부단장으로 예술단을 인솔하였다.

김정일조직비서는 김금순의 일가가 남긴 단 한 명밖에 없는 후손으로 2살때부터 남의 집 젖을 먹고 자라나 머슴꾼으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낸 김양남의 과거를 늘 가슴아프게 여기면서 그를 친혈육처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김양남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로 강력한 의료진을 뭇고 낮에 밤을 이어 집중적인 치료전을 벌이게 하였으며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들에 그의 병력서를 보내 효능 높은 고가 약들을 대량 구입해 들이게 하였고 제약공업이 발전했다는 여러 나라들에 특별비행기도 무시로 띄워보냈다. 김양남은 이런 은정속에서 무려 10여 차례에 달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거의 2년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하였다.

김양남이 40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누이에 비해서는 네 곱 이상의 세상을 산 것으로 된다. 하지만 장수자들이 많은 우리 시대의 척도로 보면 너무도 일찍이 끝장을 본 단명의 생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인박명≫이라는 고래의 생활철학이 인생이치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수많은 김금순, 김양남이들을 위해 그 철학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김양남의 둘째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교인 평양음악무용대학 작곡학부를 졸업하고 만수대 예술단에서 예술창조의 첫걸음을 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렀고 고모가 불렀으며 아버지가 부르던 혁명의 노래를 지금은 그가 부르고 있다.

선열들이 피로써 개척한 우리 혁명은 이처럼 대를 이어가며 훌륭하게 계승되고 완성되어가고 있다.

금순이는 죽었지만 그의 기개와 넋은 오늘도 후대들의 심장속에 마촌과 요영구골 안을 뛰어다니던 천진난만한 그 시절처럼 생동하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제9장



북만원정

조선인민혁명군
부자와 가난뱅이
노야령을 넘어
영안땅에 울린 하모니카
천교령의 눈보라
인민의 품

■ 시기 : 1934. 10 ~ 1935. 2

1. 조선인민혁명군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백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 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정치상식이다. 모나코와 같은 특수한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세계의 대소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자체 방위를 위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약소국가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총 몇 방에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수백 년동안 노예살이를 해온 것은 군대가 없었거나 약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구한국의 군대도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내란을 평정할 때는 그렇게도 그악스럽던 군대가 외적앞에서는 대포도 변변히 쏘아보지 못하고 삿대질을 얼마간 하다가 주저앉아버렸다. 우리 나라가 망한 데는 국정이 부패한 데도 있었지만 군력이 쇠약한 탓도 있었다.

망한 나라를 찾아보려고 조선의 선각자들은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민족이 그 국권의 수복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여러 해 동안 무력항쟁을 해왔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창건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철추를 내렸다. 소규모의 비밀유격대로 항일장정의 첫걸음을 떼었던 우리의 무장대오가 이제는 간도 모든 현들에서 연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동기≪토벌≫의 포화가 멎은 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른 지방의 유격대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심중하게 상론하였다. 각 현에 조직되어 있는 유격대의 연대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반일인민유격대 자체 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될 초미의 과제로 나섰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장성강화된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투력을 높이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공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혁명군문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논의에 오른 것은 명월구회의 때였다. 그때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전망문제를 논하면서 유격대를 일단 대대규모로 조직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질량적으로 발전시키다가 때가 되면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자고 결의하였다. 물론 이 문제가 회의에서 기본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장래와 관련된 이 문제를 두고 대표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대부대혁명군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는 오빈과 박훈이었다.

식민지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항쟁무력은 처음에 작은 규모로 조직되는 것이 상례이다. 소규모의 역량으로 무장대오를 조직한 다음 그것을 밑천으로 살금살금 역량을 확대해가다가 조건이 성숙되면 부대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군을 내온다. 멕시코에서 망명을 끝내고 쿠바로 돌아온 초기의 카스트로부대는 82명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12명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시에라 마에스트라산에 들어가 대오를 늘리고 힘을 키우다가 아바나에 입성하여 바티스타친미독재정권을 벼락같이 무너뜨렸다.


카스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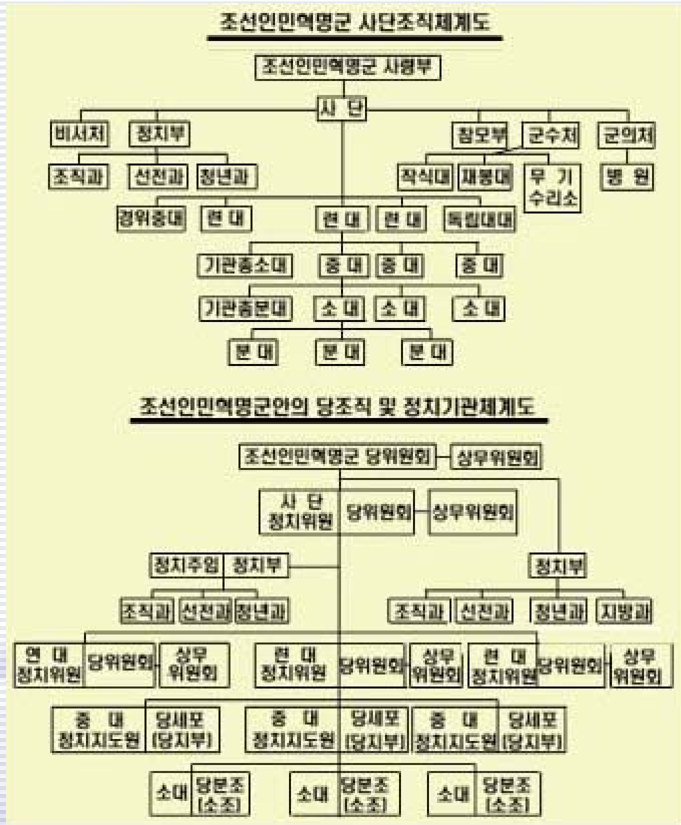
1933년 하반기부터 간도에서는 유격대역량을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단일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상정되었다. 그것은 적의 동기≪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마촌작전과 수천 수만 킬로미터의 판도에서 영웅적 방위전이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작전을 총화하는 자리에서 중대 상호간의 협동문제, 부대의 통합문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한 것은 소왕청 관내에서 9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시종일관 방위전에 참가전에 2중대장이나 3중대장이 아니라 작전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흥권중대장이었다. 한흥권은 마촌작전과 관련하여 자기네 중대가 받은 임무는 노야령을 넘어 동만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견제하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적과 접전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주력부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토론하였다. 말하자면 적이 유격근거지를 ≪토벌≫할 때 자기가 적의 뒤통수를 쳐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흥권의 토론은 자기비판적인 것이었으나 그에게는 사실 비판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면 그가 왜 자기를 의리도 없고 혁명성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지휘관이라고 타매하였겠는가. 그가 총화모임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요컨대 무엇이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흥권이 자기를 근시안이라고 자탄할 때 나는 나대로 그를 지도하는 상급의 자각을 가지고 마촌작전이 남긴 심각한 교훈을 도출해냈다. 그것이 바로 수시로 변화되는 전투상황에 맞게 중대 상호간의 협동을 원만히 조직하자면 그를 총괄할 만한 지휘, 참모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자면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정연한 군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기 위한 방위전의 전 과정에서는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던 유격부대들이 익측과의 협동적 연계나 원조도 없이 고군독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편제도

화룡현의 경우를 보면 적들이 어랑촌 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시작한 것이 1933년 11월 초라고 한다. 이 첫 ≪토벌≫은 강력한 타격을 받고 일단 좌절되었다가 11월 말부터 단 3일 동안 진행된 2차 ≪토벌≫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싸움의 전부라고 한다.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랑촌에 대한 ≪토벌≫은 소왕청에 대한 공격보다 보름 정도나 앞선 것으로 된다. 만일 이런 때 교전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다른 현의 유격부대들이 상호협동의 원칙밑에서 적들의 배후를 타격한다면 어랑촌유격대는 한결 험한 싸움을 했을 것이었다.

연길현이나 훈춘현의 사정도 이와 대동소이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유격구마다 ≪토벌≫을 당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 현과 구에 있는 유격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단일한 지휘체계가 있고 참모기구만 있으면 모든 유격대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어가며 상호협력의 강력한 무기로 싸움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때늦게나마 시사해준다.

그런데 유격대에 대한 지도가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실현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동기 ≪토벌≫ 당시의 유격대 지휘체계가 현실적 요구에 수응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유격대의 지휘는 각급 당군사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한 개 현에 무력이 한두 개 중대밖에 없던 유격운동의 초창기에는 전투도 작은 규모로만 하였으므로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군대를 지휘하는 체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유격대의 대오가 확대되고 적들의 ≪토벌≫역량도 백 단위로부터 천 단위나 만 단위로 껑충 뛰어올라간 형편에서는 작은 전투만 골라가며 할 수도 없었다. 전투란 교전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적들이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해가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조건에서 우리도 맞불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들이 사방에서 무슨 사단, 무슨 여단, 무슨 연대하며 무력을 긁어 모아가지고 대부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뿔뿔이 엎뎌 제가끔씩 뚱땅거리기만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가? 큰 도시나 성시를 치러 갈 때에는 이 현, 저 현에서 인원들을 추려가지고 집중된 역량으로 적을 쳤는데 방어전에서는 왜 현별, 유격구별로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은 마촌작전을 전후한 시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운동은 그 내용과 규모에 알맞은 새로운 그릇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앞에는 현과 구들에 널려 있는 무장부대들을 한 체계에 묶어세울 수 있는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요구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이였다.

요영구에 주둔하고 있던 4중대장의 편지도 같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4중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촌작전 총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기 중대의 총화내용을 편지로 써서 마촌에 보내주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중대장의 전령병으로 일하던 오진우였다. 마촌작전을 총화하면서 나는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게 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진, 양성룡 등과 자주 협의하였다.

어느 날 나는 양성룡이네 집에 가서 기타를 탔다. 내가 기타를 탄 것은 마음이 흥겹거나 편안해서가 아니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의 나의 심경은 대단히 울적하였다. 마촌작전은 비록 승리로 결속되였으나 유격구는 가슴을 파내려는 고통에 울고 있었다. 우리와 생사를 같이하던 수많은 얼굴들이 진토속에 묻혀 일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 한 대의 서까래마저 다 타버린 잿무지 위에서 집들을 다시 일떠세우고 생활을 새롭게 조직해 나간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군사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 양성룡을 찾아갔는데 그도 침울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어젯날의 대대장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구금되였던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보증을 서서 겨우 감옥신세는 면했지만 그는 복직되지 못하였다. 그는 소왕청과 나자구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양식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토벌≫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더 과묵한 사람이 되였다.

내가 대부대 혁명군 조직에 대한 화제를 꺼내자 그는 대뜸 반색을 하면서 범상치 않은 열의를 보냈다.

≪문제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을 통합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오.≫

양성룡은 찬성, 불찬성이라는 말은 일어반구도 하지 않았지만 형식과 방법 문제를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군조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가 제일 걱정한 것은 반≪민생단≫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타적 기분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바로 거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충이 있었고 그러한 난점들을 용의주도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식의 원리와 자막대기로 재고 내려먹이던 ≪국제노선≫이 득세하고 이른바 계급적 이익과 국제적 연대성의 이름밑에 민족적 전통과 지향을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통렬히 공격하던 그 시기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력건설 구상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진도 찬성하였다. 성격이 괄괄하고 대범한 주진은 내가 말을 꺼내기 바쁘게 격렬한 손짓을 해가면서 부대들을 통합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싸움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나는 큼직큼직하게 싸우자는 그 표현이 못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호걸남아 주진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통쾌한 표현이였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혁명군을 내오게 되면 ≪조선연장주의≫ 감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감투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하루속히 일

을 내밀자고 하였다.

동장영과 같은 사람도 우리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그는 동만에 조직되어 있는 반일인민유격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무장력이며 그 구성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땅에서 조직된 것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장영의 이 평가는 조선혁명을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민족주의로 범죄시되던 당시의 실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이홍광

동장영도 정당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동만은 물론, 남만의 이홍광, 이동광, 북만의 허형식, 김책, 이학만, 최용건 등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만주지방의 당 건설에서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군건설에서도 개척자, 주창자, 영솔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을 이루고 있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절대다수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었다.

동장영은 군을 내오되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형식과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중 쌍방간에 다같은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당파견원 반성위도 국제당노선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왕청대대를 함께 이끌던 양성룡으로부터 후에 인민혁명군 독립 1사사장을 했던 주진, 동만특위와 동장영, 국제당파견원 반성위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인식하는데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통합개편된 무장력의 명칭 선택과 그 성격규정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우리는 1934년 3월에 정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목적에도 맞고 그것을 담당 수행하는 정치적 역량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동광

초기에 동만의 일부 지역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공농유격대라고 명명한 것은 그 성격규정에서 계급성 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방에 앞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던 우리 혁명의 성격은 물론,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한 동북혁명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동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각 현에 있는 유격대 대대들을 연대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간도지방 유격대의 총 무력은 5개 연대에 달하였다.

각 연대에는 유격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사명으로 하는 정치부를 두고 작전, 정찰, 통신 임무를 담당한 참모부서와 피복, 양식, 군의 사업을 보는 후방처를 설치하였다.

왕청연대는 동만지방 연대무력의 시초로 되었으며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제 1단계 준비사업이 낳은 산아들 중 첫 번째 산아로 되었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데서 우리가 제 2단계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사단체계를 내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단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마촌작전과정에서였다. 5000명의 대군을 2개 중대역량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세계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소부대에 의한 적후교란전으로 유격구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면서도 줄곧 우리에게 군단은 몰라도 사단급의 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몇 천 명쯤 되는 무력을 가지고 대포를 꽝꽝 쏘아대면서 대부대활동도 하게 되면 얼마나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각 현들에 연대들이 이미 조직되고 또 그 역량도 빠른 속도로 불어가는 조건에서 사단을 조직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시킬 수 없는 최대의 과제였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인민혁명군 산하에 2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선차적으로 꾸리고 그 성과를 확대시켜 장차 수개 사단의 무력을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연길과 화룡에 있는 연대들로 하나의 사단을 꾸리고 훈춘과 왕청에 있는 연대를 기본으로 다른 하나의 사단을 또 편성하기로 하였다.


김책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새로운 당지도기관으로 출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군대 안의 당조직에 대한 지도와 함께 지방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도 동시에 감당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무력의 담보가 없이는 지방당조직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였다. 종전까지는 지방당조직들이 군대 안의 당조직까지 지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1934년 3월부터 5월 사이의 극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이 소식에 접한 유격구역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군대를 지원하고 도처에서 성대한 경축모임들을 준비하였다.

왕청의 여성들은 축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고 공청에서는 아동유희대 축하공연을 마련하였으며 여러 가지 체육경기도 벌였다.

연길의 삼도만 유격구역에서는 적 통치구역 대표들까지 참가한 1,000여 명의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최용건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에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항일혁명전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들을 다졌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넓은 판도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지 않았거나 연대나 사단과 같은 대부대의 군사력을 제때에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암운에 덮인 조국을 밝히며 높이 타오른 보천보의 횃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무송, 간삼봉, 홍두산, 이명수, 대홍단, 홍기하 등 국내와 만주 도처에서 적의 정예부대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연전연승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동기《토벌》에 이어 유격구를 위협하던 악명 높은 위공작전도 파탄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는 무력항쟁으로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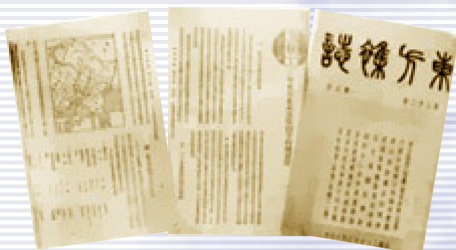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우에 따라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활동하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동북이라는 명칭은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국호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였다.

우리가 조직한 인민혁명군이 ≪만주인민혁명군≫이나 ≪중국인민혁명군≫이 아니라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으로도 활동한 것은 반만항일을 투쟁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중국 동지들에게 있어서도 적합한 것이였다. 결국 동북인민혁명군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사명과 함께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반만항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무력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간도와 동변도 일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전역에서 가장 강대한 무장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길림성 간도에 3천명 있다고 쓴 동방잡지 (1935.3)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취한 원칙적인 입장과 용의주도한 정치적 아량은 그 후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 특히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우리 혁명의 주체노선에 명실상부한 형식이나 명칭만을 고집하였더라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국인민의 광범한 지지성원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훗날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한 다음에도 조중항일연합군의 성격에 맞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할 때에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였고 조선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조선에 나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정황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가며 활동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중 양국 인민의 사랑과 보호속에 살며 싸울 수 있었다.

우리가 운동의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더욱 중시한 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평가해보아도 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원칙적인 견해와 폭넓은 태도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도 투쟁의 민족적 성격과 독자성을 원만히 고수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중국동지들이나 국제당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출판물들은 간도에 조직된 인민혁명군을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썼다.

1935년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동방잡지≫는 동북에서의 빨치산투쟁에 대하여 쓰면서 간도에 조선인민혁명군이 3,000명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국출판사에서 발행한 ≪동북항일열사전≫에 그대로 전재하였다.

후에 동북항일연군이 편성된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2군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성격에 있어서 조중 양국 인민의 국제적인 반일통일전선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제2군안의 조선인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화민족의 해방운동을 국제주의적 기치아래 지원하였다.

간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되어 그 전과를 확대해가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끼고 그 존재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일 큰소리로 떠든 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이였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항일무장력을 그 명칭은 어떻든 ≪**김일성**군≫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후 반일공동투쟁의 성과를 위하여 간도지방에서 공헌영, 채세영, 사충항, 이삼협 등이 이끌던 항일의용군은 제 2군의 군대호를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하였는데 이것을 ≪동북화한인민

혁명군≫(동북조중인민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공정을 거쳐 사실상 동만 땅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벌써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보중은 자기의 글에서 ≪항일연군 제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 … 항일유격전쟁 중 중조인민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선혈로 얽혀져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투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을 격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사람들도 만주, 특히 간도에 조직된 빨치산을 ≪조선인 순혈빨치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우리 동무들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쏘련의 이름 있는 중국 및 조선문제 전문가였던 웨. 랍뽀뽀르뜨는 1937년에 쏘련의 국제정치잡지 ≪태평양≫에 쓴 ≪북부조선지역에서의 빨치산운동≫이라는 글에서 ≪…조선빨치산들의 대부분은 통합되어 있고 자기의 중앙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혁명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썼으며 ≪조선빨치산과 만주빨치산간의 현존하는 연계와 접촉의 확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큰 불안을 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일본은 국경지역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나 실무적인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걸어온 전투적 노정을 총화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유격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오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군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이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최종 소탕전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동기≪토벌≫에서 참패한 관동군 수뇌부와 도쿄의 군부는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소동을 벌이던 끝에 1934년 봄부터 종전의 초토화전술을 재검토하고 보다 악랄한 새로운 ≪토벌≫계획으로 이른바 위공작전이라는 것을 들고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군사적 포위공격과 정치적 폭압, 경제적 봉쇄를 배합하여 유격구를 종국적으로 소멸하려는 악랄한 작전이였다.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이 신발명을 장개석이 중국 소비에트구를 공격할 때 쓰던 봉쇄정책의 재판이라고 보았다.

장개석의 봉쇄정책이 ≪정치공포, 경제공황의 비인간적 세계를 연출하여≫ 공산군으로 하여금 입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위공작전은 유격구의 인민과 군대를 모조리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쏘아 죽이고 태워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이 작전을 위하여 집단부락을 만들어 군대와 인민을 분리시키고 중세기적인 십가연좌법과 오가작통법과 같은 보갑제도로 모든 항쟁세력을 적발 숙청하려고 하였다.

봉쇄정책과 위공작전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장개석의 전술은 ≪온찰온타 조보정책≫이었다. 이 전술은 상대를 포위한 다음 급하게 추격하지도 않고 깊이도 들어가지 않으며 어떤 지점을 점령하면 천천히 그것을 공고화하며 다시 내놓지 않을 방도까지 연구하면서 다음 지점에로의 공격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전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사람들이 고안해낸 ≪보보점령≫전술이었다.

우리 동무들이 이 전술을 두고 ≪일본사람들 신세두 참 가련하게 됐구만, 장개석의 신세까지 지게 되었으니≫라고 한 것은 실없는 우스개소리가 아니였다.

적들은 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1934년 봄부터 유격구 주변에 관동군정예부대들과 조선강점군 부대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위만군부대들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적들이 위공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유격구방어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대규모적인 작전으로 적 후방의 군사정치적 지점들을 연속 타격하여 놈들의 기도를 앞질러 파탄시키는 한편 보다 유리한 지대에 유격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피로써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앙양된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고조에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춘기공세를 벌여 왕청지방에서 적의 주요 배치지들과 소백초구, 대두천, 석두하자와 전각루를 비롯한 집단부락 건설장들을 습격하였다. 훈춘과 연길, 화룡의 동무들도 집단부락 건설장들에 대한 습격으로 적의 위공작전기도를 첫걸음부터 짓부숴버렸다.

우리는 이 공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주동에 튼튼히 서서 위공작전을 완전히 파멸에로 몰아넣기 위하여 곧 하기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공세의 중심적 지향은 유격구역을 안도현 서북부와 왕청현 동북부로 확대하는 것이였다. 적이 위공할 때 우리가 고정된 몇 개 유격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적의 기대에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되며 그들이 기도에 협력하는 것으로 된다.

유격구를 안도현 서북부로 확대하는 것은 인민혁명군 제1사와 독립연대가 담당하고 왕청현 동북부로 확대하는 과업은 인민혁명군 제2사에 떨어졌다. 대전자와 푸르허를 연결하는 이 유격활동구역이 안도현의 생명선이라면 나자구, 노모저하, 태평구, 삼도하자 일대는 훈춘현과 왕청현의 생명선이였다. 이 고장들은 모두 목단령과 노야령을 끼고 있는 유격활동의 이상적인 적지로서 독립운동시기부터 홍범도, 최명록, 이동휘, 황병길과 같은 이름난 무관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우리는 1사 사장 주진과 독립연대장 윤창범으로 하여금 대전자-푸르허 일대에 대한 공격을 선행하게 하여 적의 주의가 그리로 쏠리게 한 다음 나자구 방면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관동군의 시선이 안도현 대전자 일대에 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인민혁명군 2사 4,5연대의 일부와 반일부대들과 함께 나자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삼도하자와 사도하자를 차지하였다. 삼도하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1,500여 명에 달하는 반일부대 장병들과의 연환모임이 열렸다. 이것은 나자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일종의 사상전이였다. 나자구전투에는 반일부대측에서 공헌영부대, 사충항부대, 채세영부대, 이삼협부대 등이 참가하였다.

나자구는 왕청현 백초구, 동녕현성과 연결된 적들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나자구시내에는 문장인 영장이 이끄는 위만군 수백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나자구는 원래 500호 정도의 주민세대를 가진 그리 크지 않은 고장이였는데 9.18사변후 적의 군사적 거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32년 봄부터는 간도임시파견대의 중요한 기지로 되였다. 일제는 이 파견대가 철수하자 증강된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나자구에 상주시키고 그것을 위공작전의 한 개 밑천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가하여 나자구 일대를 장악하는 것은 위공작전의 한 귀퉁이를 깨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유격구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주되는 고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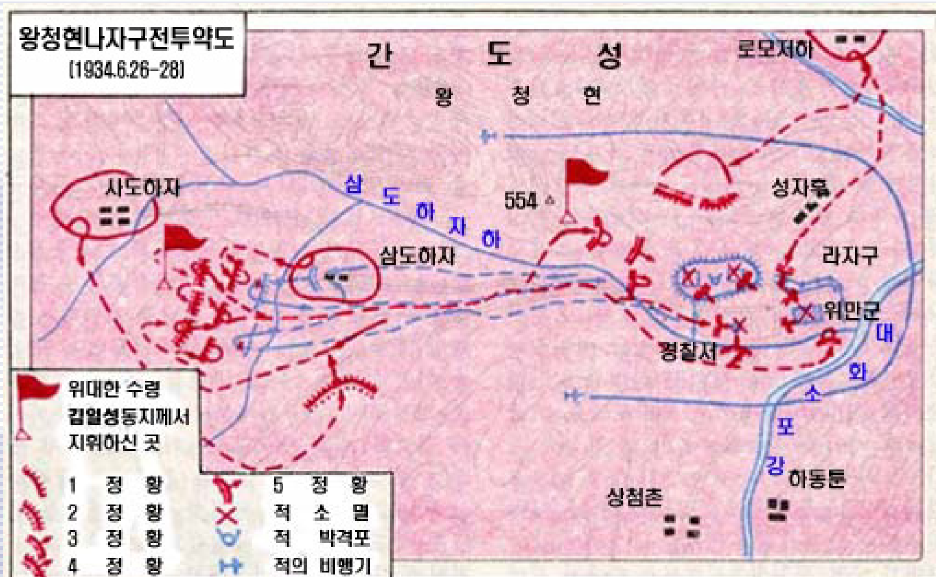
우리는 삼도하자의 이태경노인네 집에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나자구공격과 관련된 작전회의를 하였다.

이태경은 의병과 독립군 경력을 다같이 가지고 있는 우국지심이 매우 강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한 때 최자익과 함께 북로군정서에서 총무로 일한 적도 있었다.

서일이 보통 병졸에 지나지 않는 이태경을 총무로 임명한 것은 그의 뛰어난 사격술과 서예솜씨에 반했기 때문이



나자구시가 전경



라고 한다. 서일이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를 설교하자 이태경은 그에 입교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었으며 김좌진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주장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도 동조하여 그 대가로 권총까지 선사받았다.

간도 대≪토벌≫을 앞두고 김좌진이 북만으로 철수할 때 노인은 상전들을 따라 밀산에 갔다. 그러나 김좌진이 연길현 도목구의 청림속으로 깊숙이 사라진 후에는 그도 동료들과 함께 시도하자 지방에 와서 총을 파묻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태경 노인에 대한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반일부대 지휘관들에게 작전의도를 설명하려고 나자구시가 약도를 펼쳐놓았을 때 바람결에 펄럭거리지 말라고 노인이 그 약동의 창문 쪽 귀퉁이를 돌러 지질러놓던 일이다. 이태경네 집안 사람들은 그 돌을 복돌이라고 하였다. 달걀처럼 매끈매끈하게 생긴 기묘한 돌이었다. 노인의 말이 자기가 십리평에서 북로군정서 총무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죽기 전에 그 돌을 넘겨주었는데 오래 간수하고 있으면 복이 차례진다는 유언까지 남겼다는 것이다.

그 복돌은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태경노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그 돌을 가보로 넘겨주었다. **김일성**장군이 작전지도 위에 놓고 만진 돌인데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1959년에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에 갔을 때 노인의 아들은 그 돌을 우리 답사단에 넘겨주었다.

이태경노인은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나자구반일회장 최정화의 소개로 이 노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33년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백마를 타고 삼도하자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였다. 그 과정에 삼도하자 반일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마을의 좌상인 이태경노인을 망라시켰다. 이 노인이 반일회에 가입해가지고서는 마을 사람들을 잘 교양하였다. 마을의 좌상이며 첫째가는 유지인 그가 하는 한마디한마디의 말을 동리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받아들였다.

마을에 의병이나 독립군 출신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런 마을은 혁명화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태경처럼 무기를 파묻고 투쟁을 중도반단한 독립군들도 거의 다 애국심 하나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핵심이 되어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산에서 고생하는 혁명군을 잘 돕자고 호소하면 누구나 다 ≪그래얍지요≫하였다. 그들

이 나서서 마을에 혁명군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면 ≪떡을 쳐얍지요.≫하든가 ≪소를 잡아야지요.≫하였다. 독립군 출신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절대다수는 말년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을에 가나 독립군 출신 유지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석현에서는 오채희, 서대파에서는 최자익, 마춘에서는 이치백, 동일촌에서는 김동순, 삼도하자에서는 이태경 하는 식으로 독립군 출신 영감들부터 선참으로 찾아가 인사도 하고 목침을 베고 나란히 누워서 시국이야기도 나누었다.


나자구전투때 붉은기를 꽂았던 서산포대의 망루

해방 후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 출신들을 사상이 다르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때였다. 간혹 편협한 사람들이 간부사업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온 통일전선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였다.

나는 그런 경향에 부닥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곤 하였다.

≪사조가 다르다고 독립군 출신들을 배척하는 것은 고약한 짓이다. 독립군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못한 것은 제한성이지 죄가 아니다. 당신들은 혹시 춘향이나 이도령이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애국선배들을 몰라보면 안 된다. 시대마다 다른 사조가 있는 법인데 무엇때문에 배척하고 경계하고 따돌리는가. 그래 남들이 뜨뜻한 온돌방에서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더운밥을 먹으며 살아갈 때 독립군이 생명을 걸고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게 죄란 말인가?

나는 집에서 제 밥벌이나 하며 편안하게 산 사람들보다는 총을 메고 싸운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더 훌륭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독립군을 배척하면 우리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라.≫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경대에 혁명자 유가족학원이 섰을 때 거기에 독립군 출신 인사들이 있으면 그들을 능력에 따라 간부로도 배치하였다. 초대 농민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이었던 강진건선생과 공화국내각의 초대 도시경영상 이용선생도 독립군 출신들이였다.


나자구전투를 지휘하시던 집

우리가 작전회의를 끝내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적들이 선손을 쓰려고 먼저 성시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정찰보고가 지휘처에 날아왔다. 우리는 유리한 지대에 그들을 끌어다가 주력을 소멸한 다음 계속적인 추격전으로 성시공격을 개시하였다. 연합부대는 폭우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녕현성전투와 마찬가지로 나자구전투에서도 제일 큰 암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하여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반일부대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서산포대에서 쏜 박격포탄에 주보중을 비롯한 몇몇 반일부대 지휘관들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주보중은 공헌영 부대의 참모장으로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의 부상으로 사기가 저락된 일부 반일부대들이 나자구를 등지고 무질서하게 퇴각을 시작하였다.

이 퇴각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싸움은 패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서산포대를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나자구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리로 되었다. 서산포대에는 박격포뿐만 아니라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도 여러 정 배치되어

있었다.

이 포대의 화력에 의하여 이미 한흥권중대장이 창자가 쏟아져나오는 치명상을 당하였고 조왈남도 전투능력을 잃어버렸다. 한흥권의 부상이 얼마나 처참하였던지 그는 자기를 쏘아달라고 애원까지 하였다.

나는 좌절상태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포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동무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산포대를 점령하자! 혁명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자!≫

그리고는 싸창으로 적을 쏘아눕히면서 앞으로 돌진하였다. 포대 위에서 기관총탄이 우박처럼 날아와 귓부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떤 탄알은 모자에 구멍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숨을 돌을 사이도 없이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였다. 대원들이 땅을 걷어차고 일어나 내 뒤를 따랐다.


한흥권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서산포대는 30분만에 점령되고 포대 꼭대기에는 붉은기가 휘날렸다.

그 깃발을 본 반일부대 병사들도 신심에 넘쳐 총돌격에로 이전하였다. 그들을 좌절에서 돌격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는 주보중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정신이 큰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주보중은 중상을 당한 몸이였으나 두 팔을 벌이고 동요하는 반일병사들을 막아나서며 서산포대에 휘날리는 저 붉은기를 못보는가고 외쳤다. 그 모습을 본 반일병사들은 퇴각을 중지하고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육박하였다.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나자구를 지키던 문영장과 일본지도관은 관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마지막 전문에서 **김일성** 등 2,000의 합류비에게 6일 5주야 동안의 포위공격을 당하여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탄약은 이미 다 떨어지고 우리들의 운명은 경가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들은 국가를 위하여, 만주건국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음을 떳떳하게 여긴다, 사령관, 이를 용서하라.≫

나자구와 대전자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전쟁에서 이룩한 첫 성과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나자구진공전투는 적들의 위공작전 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이 전투 이후 유격구 주변의 대소 ≪토벌대≫는 오금을 펴지 못하고 겁이 나서 벌벌 떨었다.


차용덕

실로 나자구전투는 왕청유격구 동북부 일대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유격구 확대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으며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자구 전투 후에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였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동만의 혁명군중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도와 나자구 일대에 많이 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여 이 지역을 보이지 않는 혁명근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혁명군은 1934년의 하기공세에서 피도 적지 않게 흘렸다. 대전자의 전승담속에는 화룡유격대 조직자의 한 사람이며 연대정치위원인 노동계급 출신의 신망높은 지휘관 차용덕이 뿌린 피도 찍혀 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된 후 처음으로 전사한 정치위원이었다.

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발사체 《백두산》



90년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후 개최된 당창건 55돌 열병식





2. 부자와 가난뱅이

유격근거지가 우리의 집이고 보금자리인 것은 틀림없었으나 나는 사실상 거기에만 있은 것은 아니였다.

군대가 울타리속에만 갇혀 있는 것은 전술상으로 자멸을 가져오는 길이였다.

인민들이 주는 밥을 축내면서 소왕청골 안을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의 배짱에도 맞지 않았다. 멀쩡한 자기 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죽이는 좌경분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처사도 혐오감을 자아냈다.

나는 짬만 있으면 군대를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반유격구를 꾸려놓은 다음에는 더 자주 나가 돌아다녔다.

군대가 적구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인민들도 좋아하였다. 적구활동을 해야 쌀도 생기고 천도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적들이 아무리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선전하여도 우리가 하룻밤 자고 가면 다 허사가 되었다. 인민들은 적들이 내돌리는 소문보다도 우리의 도덕과 예절에 체현된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더 중시하였다.

적구생활에 재미를 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모두 나를 따라다니겠다고 하였다.

내가 데리고 다니던 부대는 5중대였다. 너무 많이 데리고 다니면 먹는 문제도 곤란하고 흔적도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50-60명만 데리고 다녔다. 병력이 많이 요구될 때에는 1중대까지 불러오곤 하였다. 내가 적구에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는 바람에 2중대를 책임진 최춘국과 3중대의 장룡산이 왕청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요영구방위를 담당한 것은 4중대였다.

5중대는 왕청치고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정예부대였다. 3보 간격으로 걸으라고 하면 3보 간격으로 걷고 숨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큰 전투는 별로 하지 않고 제낄 만한 것만 골라 답새겨 버리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20리, 50리씩 벼락같이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우리의 적구교란전은 적들로 하여금 유격근거지 ≪토벌≫에 전력을 다 할 수 없게 하였다.

해방 후 당선전사업을 맡아보던 일부 사람들은 항일전쟁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적후투쟁 경험 같은 것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경험만 선전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부식시킨 사대주의 병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해방 직후 우리 사람들은 스탈린그라드격전이나 꾸르스크탱크전에 대한 말은 많이 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항일전쟁사에 소왕청방위전과 같은 가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때는 이수복영웅을 가리켜 ≪조선의 마트로소프≫라고도 하였다. 조국해방 전쟁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은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화구를 막은 영웅이 쏘련의 마트로소프라고만 생각하였지 자기 나라의 항일선열들 중에 그보다 먼저 화구를 막은 김진이란 투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요영구방위전투장

우리가 해방 직후 혁명전통 교양만 잘하여도 후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5-6명씩, 15-20명씩 소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도끼나 하나씩 차고 쌀이나 한두 말씩 걷어메고 이산 저산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총이나 몇 방씩 갈기고 삐라나 몇 장씩 붙이고 산에 들어가면 한두 달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교양을 많이 못하다 보니 입지 않을 피해도 더 입었다.

내가 적구활동을 제일 많이 하며 돌아다닌 곳은 두만강 연안의 농촌 부락들이었다. 어느 해인가 기차를 타고 두만강 유역을 자나가면서 건너다보니 옛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산과 골짜기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김진

등하불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의 코밑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 부대는 심지어 도문 뒷산에까지 나와 있었다. 거기에 와서는 모두 사복을 입고 지냈다. 세 봉우리에 보초를 각각 한 명씩 세우고는 수림속에 들어앉아 잠도 자고 책도 보면서 여유작작한 생활을 하였다. 그래도 적들은 자기네 코앞에 유격대가 와 있는 것을 몰랐다.

우리가 두만강 연안의 도문과 양수천자 일대에 나와서 적구활동을 한 것은 1933년과 1934년 두 해 여름이었다. 오의성과의 담판을 치르고 왕청에 돌아와 양수천자 부근에서 군중정치공작을 할 때 나는 지휘부가 있을 만한 곳을 물색하기 위하여 도문지방에 대원들도 파견하고 그 고장 토착민들과 담화도 해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송동산, 북고려령, 초모정자 세 지점을 이상적인 후보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지점들은 지휘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진출목적을 실현하는데서는 적합하지 않은 고장들이었다.

나는 어째서인지 전에 온성으로 드나들 때 평양의 모란봉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만 돌아보던 도문 뒷산으로 마음이 끌렸다.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 우리의 진출목적에도 딱 들어맞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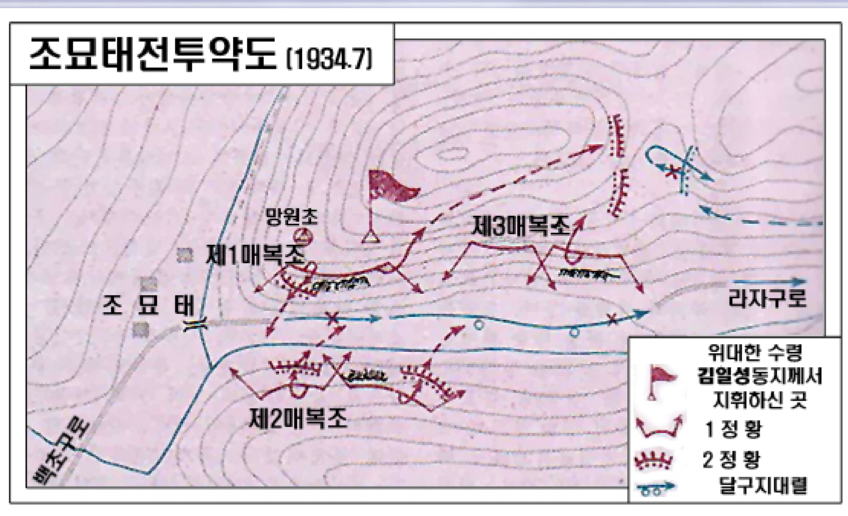
골짜기가 여러 갈래이고 숲이 우거져서 여름 한철 초막이나 치고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이 산 주변에는 1930년 이후부터 우리의 조직이 들어가 박힌 개간지도 많았지만 아직 보습을 대보지 못한 처녀지도 많았다. 우리는 그 처녀지들을 다 혁명촌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나는 원래 나자구전투가 끝난 다음 인차 도문 뒷산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반일부대의 피복과 식량을 해결하느라고 예정되었던 출발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소왕청에서 얼마 동안 지체하였다. 초복이 다된 때였지만 청산 부대 장병들은 헐어빠진 솜동복을 입고 있었고 식량이 거덜나서 참새알만한 감자알을 파먹고 있었다.

그 바람에 부대주둔지 주변의 감자밭들이 결딴났다. 밭 주인들은 청산 부대를 원망하였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니 자연히 상하관계도 나빠지고 부대는 토비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투항하려는 기미까지 보였다. 코산부대나 사충항부대의 실태도 이와 비슷하였다. 코산부대가 아직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청산부대와 함께 가야허를 치고 해결한 식량과 천들을 반일부대들에 나누어준 다음 조묘태의 적까지 치고 나서 도문 뒷산으로 향하였다. 나자구에서 창자가 쏟아져나오는 치명상을 당한 후 유격구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한흥권중대장이 무슨 오그랑수로 병원을 탈출하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중대를 따라오다가 도문 뒷산에 도착하자마자 내앞에 불쑥 나타났다.

한 달 전에 총상으로 밸까지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수술자리를 보니 어느새 다 아



물어 있었다. 다만 봉합사를 뽑은 자리에 핏기가 좀 남아 있을 뿐이었다. 실로 꿰맸던 자리가 터질 것 같아서 병원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자 이 억대우 같은 중대장은 울상이 되어 자기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나는 중대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왕동무에게 지시하여 도문 뒷산에서라도 휴식을 잘 시켜 수술자리가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도문은 본래 회막동이라고 부르던 고장이다. 회막동이란 지명은 조선사람들이 옛날 막을 짓고 석회구이를 한 동네라는데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이 주변은 모두 석회석산이었다고 한다.

9.18사변 후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길회선철도를 조양천에서 회막동까지 연장하고 그 역이름을 도문이라고 하였다. 역 근처의 마을들에 집들을 지어 시가를 만들고 영사관분관, 경찰서, 세관을 설치한 다음 수비대까지 끌어들여 석회와 함께 살아온 시골을 군경들의 성화에 시달리는 번잡한 소비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이 신시가의 이름은 도문으로 되고 서쪽 산 밑의 낡은 마을은 구시가로 되었는데 그 시가의 이름은 조선사람들이 부르던 그대로의 회막동이었다. 도문과 남양 사이에는 미구에 국경철도가 놓였다. 그때부터 도문은 만주대륙에서 일본의 이권을 지키는 동쪽 관문이 되었다.

대안의 남양도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930년대 후반에는 이 지구에서 쏘련침략을 위한 첩보모략기구들이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도문은 군사정치적으로 중시되는 곳이었다.

도문이 우리의 활동거점으로 되고 국내 반유격구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유익한 일이였다.

우리는 일찍부터 회막동에 조직을 박았다. 이 조직은 오중성이네 영향하에 있었다. 나는 1930년 9월에 온성으로 넘어갈 때에도 회막동 동무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듬해 5월에 종성으로 건너갈 때에도 그들의 전송을 받았다. 최금숙이 병중에 있는 내 입맛을 돋우려고 사과, 배를 구하러 왔을 때 그를 도와준 것도 바로 이 회막동 조직이었다.

도문은 온성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계소와도 같은 고장으로서 유격대의 후방물자 공급기지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도문 뒷산에 체류하는 기간 활동의 총적 목표를 적들이 시정 방침으로 내세운 ≪비민분리≫의 책동을 파탄시키는데 두었다. ≪비민분리≫란 그네들이 소위

≪공비≫라고 부르는 혁명군과 인민을 갈라놓는다는 뜻이다. 일제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선포하고 사상공작이니, 집단부락정책이니, 십가연좌법이니, 오가작통법이니, 귀순공작이니 하는 것들을 연방 고안해내 군대와 인민을 연결시켜주는 혈맥을 끊어버리려고 발악하였다.

≪비민분리≫의 폭정밑에서 조직들은 무데기로 파괴되고 민심마저 소란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귀순신청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하였다. 이런 현상이 제일 혹심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두만강 유역의 왕청남단이였다.

우리는 적의 분리주의를 군민단합주의로 타파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중들속에 들어가 조직공작에 착수하였다. 오중흡이 살던 남양촌조직도 그때 복구해주었다. 대립자에는 최씨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들을 새로 내왔다. 주변 마을들에서 조직공작을 끝낸 다음에는 점차 양수천자 방향으로 군중사업 무대를 옮겨 임업노동자들과 농민들속에 침투하였다. 언제인가는 한 개 소조를 데리고 솔골을 거쳐 훈춘현 밀가의 웅기동이라는 곳까지 가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경원(새별), 훈융쪽의 조직도 수습하였다. 이런 과정에 ≪비민분리≫에 울고 있던 인민들을 군민화합으로 웃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숙하신 집(풍인)

도문 뒷산으로 들락날락하던 시기에 나는 국내 여러 지역에 꾸려진 기층당조직들과 혁명조직들에 대한 조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당조직건설사업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육읍 일대에 자주 나왔다.

1930년 10월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이 결성된 후 두만강 연안 일대에는 당지도핵심들인 오중화, 김일환, 채수항, 오빈 등과 정치공작원들이였던 이봉수, 안길, 장금진 등에 의하여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꾸려졌다. 회령, 연사, 웅기(선봉), 무산, 경원(새별), 나진, 부령, 청진 신암동 등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생겨났다.

1933년 8월에는 경원(새별) 박석골에서 지하당사업과 관련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박석골 숯구이막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밑에서 2일간 진행한 강습에는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지하당조직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내가 강의하고 공청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조동욱이, 부녀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박현숙이, 아동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박길송이 각각 맡아서 강의하였다.

우리의 지도밑에 온성에서 국내 당조직 및 혁명조직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였다. 1934년 2월 지금의 온성군 풍인노동자구에 있는 진명서숙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확대하여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적 지도기관을 내오도록 하였다.

이 회의 결의에 따라 전장원을 책임자로 하는 온성지구 당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 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 국내당조직 건설사업을 확대하는데서 전환적인 사명을 수행한 중요한 회의였다.

당시 ≪조선일보≫가 ≪진명서당의 당대회에서 과격한 슬로건 수 항목을 결의하여 인쇄배부≫했다고 쓴 것은 이 회의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였다.


진명서숙

도문 뒷산에서의 적구활동은 흥미 있는 일화들도 많이 남겼다.

그 많은 일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심보 나쁜 지주의 뽕을 빼던 일이다. 그 지주가 살던 마을 이름이 무엇이였던지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조선사람 동네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어느 날 나는 대원들을 도문 뒷산에서 쉬게 하고 사복차림으로 그 지주가 사는 동네에 내려갔다. 그때의 사복차림이란 양장이 아니라 조선바지 저고리 차림이다. 우리는 배낭속에 늘 사복을 넣어가지고 다녔다. 사복을 입지 않고서는 적구공작을 할 수 없었다.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옷을 지니고 다녔다.

그날 나와 동행한 사람은 전령병 이성림과 그밖의 대원 2명이였다.

늦은 오후여서 해질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았다. 나는 우리가 손을 한 번도 대보지 못한 그 마을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두고 산에만 배겨 있자니 한편으로는 갑갑증도 났다. 이 마을 인심이 좋으면 신세도 지고 조직도 박을 작정이였다. 마을에는 일본군경들도 없었다.

나는 이 부락에서 덩지가 제일 크고 번듯하게 생긴 기와집 대문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다. 해가 두발이나 되는 청천백일이였으나 주인들은 웬일인지 안으로 문을 걸어놓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대문을 왈가당 왈가당 흔들어대서야 신발을 끌며 게으름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나이의 사나이가 대문을 열어 언짢은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바로 우리가 뽕을 뺐다는 지주였다.

≪주인님, 우리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갈 곳도 없어 하룻밤 자고 가려고 주인을 찾았는데 신세를 좀 질 수 없겠습니까?≫

나는 예절을 차려 깍듯이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주인은 정신빠진 놈들이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욕지거리부터 앞세웠다. 도덕도 없는 심통이 사나운 지주였다.

≪아니, 여기서 한 5리 가면 여관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염가에 찾아오는 게야, 여기가 뭐 동네집 방앗간인 줄 알아?≫

눈알을 굴리며 욕지거리부터 퍼붓는 본새가 이만저만 고약하지 않았다. 상대가 두 마디 안팎에 우리를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렁뱅이처럼 박대하기 때문에 나는 슬그머니 부아가 동하였다. 그렇지만 꾹 참고 태연하게 또 말을 꺼냈다.

≪주인님, 이거 다리도 아프고 발도 부르트고 해서 더 걷지 못하겠는데 어떻게든지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지주는 입에 거품을 물고 벌컥 짜증을 냈다.

≪아니, 여관이 멀지 않다는데 왜 거머리처럼 자꾸 달라붙는 거야? 초하룻날 장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자 내 뒤에 섰던 전령병이 나를 대신하여 간청하였다.

≪주인님, 여관집에 들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북두칠성도 굽어본다는데 한턱 내는 셈치고….≫

전령병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주는 ≪그럼 우리보구 돈을 내란 말이야. 쥐똥같은 소리!≫하면서 침을 탁 뱉았다. 그리고는 왈카닥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혁명을 10년 가까이 해오는 동안 나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았다. 우리가 지하활동을 하느라고 많이 다니던 중부만주지방에도 부자들이 많았지만 이 지주와 같이 야박하게 구는 사람들은 없었다.

전령병 이성림은 분을 참지 못하고 풀럭풀럭하였다. 자기네 대장이 사람 같지 않은 촌지주한테서 그런 괄시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였다. 그는

분한 나머지 저따위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은 살 자격조차 없으니 쏘아 제끼자고 하였다. 쏘아제끼지 못하면 그놈의 귓구멍에 대고 공포라도 한 방 놓아 기절해 자빠지게 하자고 하였다.

나도 역시 전령병처럼 분노를 다잡을 수 없었다. 이방에서는 동족들끼리 더 친밀해지는 법이다. 고국에서 살 때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이국에서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본도이다. 하지만 우리를 정신빠진 놈들이라고 모욕한 그 지주한테는 도대체 인정이라는 것이 개알만치도 없었다.

나라가 망했다고 인정마저 더러워질 수야 없지 않는가.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정하는 것이 인생이치라고 우리 조상들은 동병상련이라는 성구까지 만들어냈다.


一年만에
穩城勞農事件終結

국내당조직건설 사업과 관련한 당시 신문자료

조선민족만큼 정에 잘 웃고 잘 우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옛사람들도 귀신은 경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하지 않았던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장점이다. 쫓지 않고 재워주는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풍속이고 인심이다. 비록 남의 묘를 봐주고 살아가는 산당지기의 가문이었으나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쌀이 없으면 죽솥에 맹물을 한 바가지 더 부어서라고 끼니를 마련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의 어머니와 삼촌어머니한테는 거죽에 뜬 멀건 물이 차례지곤 하였다.

설사 한 끼나 두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안 여성들은 절대로 시집타발, 신세타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내 눈에 새겨진 조선민족의 참모습이고 참표상이었다.

괴춤에 동전 한 푼 없는 장돌뱅이도 마음만 먹으면 조선팔도를 무전여행으로 죄다 편역할 수 있는 것이 저 아득한 삼국시대에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 나라의 관례였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조선의 여염집에서 손님대접을 받아본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런데 저 야비한 지주놈의 몸에서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인간에 대해 저렇게도 냉랭할 수 있는가.

그 지주는 우선 도덕적으로 볼 때 무뢰한이였다.

국력이 쇠약한 민족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라 없는 백성은 심지어 말과 글과 성까지도 떼울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잃었다고 어찌 인정까지 버릴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저 지주처럼 동족도 몰라보는 돼지가 된다면 조선사람은 조선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조선민족 중에는 저 지주와 같은 인간들이 소수이다.

나는 여기서 부자들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3년 여름에 십리평에 주둔하고 있던 구국군의 한 부대가 석현이라는 고을을 치고 경제모연공작을 위해 어떤 중국 부자의 아내를 인질로 붙들어온 적이 있었다. 전족을 한 여자였는데 속옷만 입은 채로 붙잡혀와서 며칠 동안 십리평에 머물러 있었다. 구국군들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통고장을 보내 아무아무날까지 돈 얼마를 가지고 오면 너희 아내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는 그 돈이면 더 멋있는 여자를 얻어 장가를 다시 들겠다고 하면서 십리평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구국군에 돈을 내고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남편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였다.

심보가 사나운 부자들이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잠자리를 잡아보려고 동네를 또 한 바퀴 돌았다. 이번에는 기와집이 아니

라 초가집에 가서 사정해보자고 하였다. 심보 나쁜 지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래 윗방 문을 다 열어놓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초가집이 보였다.

나는 그 집 토방돌앞에 서서 지주에게 하던 것과 꼭같은 사정을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주인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서 문설주를 짚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여튼 들어와 앉으십시오. 뭐 변변치는 않지만 죽이라도 같이 나눕시다. 다른 것은 없으니 허물하지 마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거 너무 누추해서 안 됐습니다.≫

≪누추하다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가리게 됐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초라했지만 주인들의 언행과 마음씨에서는 비단 같은 인정이 풍겼다.

주인은 아내를 보고 죽이 한 그릇 더 없는가고 물었다. 주인여자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광경을 보니 역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정은 부자의 편이 아니라 평민의 편에 있었다. 둘이나 들어왔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청하니 우리로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들 몫을 우리가 먹으면 댁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나 하겠습니다.≫

나는 밥상앞에 마주앉아도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사양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펄쩍 뛰면서 나를 나무랐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으면 손님대접을 받아야지요.…이거 뭐 맛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정말 없습니다. 여보, 거 파나 두어 뿌리 뽑아오구려. 장 접시두 하나 더 놓구….≫

주인여자는 남편의 분부대로 파와 장을 가져다가 식탁 위에 놓았다.

친혈육 못지 않게 우리를 따뜻이 대해주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밥상앞에 마주앉았으나 동네 밖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동무들 생각이 나서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내 조금 있다가 먹겠으니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아직 동구밖에 떨어져 있는데….≫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나머지 죽이라고 해야 한 그릇뿐인데 손님이 더 온다면 그것도 야단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두 동무가 더 있는데 발이 다 부르트고 걷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님, 이 근처 어디에 여관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있지요. 한 7리쯤이나 될까요. 7리면 10리나 같은데 어떻게 상한 발을 끌고 10리까지 가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실 셈치고 다른 것은 없지만 죽이라도 나누고 어서 주무십시오. 밖에 있는 분들도 데려오시구요.≫

나는 집주인에게 지주의 사람됨됨이 어떤가고 물었다.

주인은 지주를 한마디로 인색하고 심술사나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과는 등을 돌려대고 살면서도 경찰이나 관리나부랭이들 하고는 어지간히 친교가 깊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에 조선에서 친척방문을 왔던 한 청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반주검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 있는데 그것도 지주의 작간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나는 전령병에게 오늘밤은 이 부락에서 지내려고 하니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동무들을 시켜 산에 가서 대원들을 다 데려오게 하라고 하였다.

얼마 후 한흥권중대장이 부대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60-70명이나 한꺼번에 마을로 쓸어들자 변이 났다고 생각한 지주는 우리 동무들앞에 나타나 ≪어른네들, 수고하십니다!≫하고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는 유격대원들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수선을 피웠다. 사람이 저렇게 두 가지 낯가죽을 쓰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속내를 모르는 한흥권은 퍼그나 감동되어 ≪대장 동지, 저 지주는 소왕청에 있는 장지주나 도문지주처럼 싹싹합니다.≫하고 지주를 칭찬하였다. 장지주란 유격대 원호를 잘하다가 소비에트정부의 추방령을 받고 대두천 쪽으로 내려간 사람이였고 도문지주란 반일부대들이 피복 문제를 풀지 못해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요구에 따라 500여 벌의 군복을 만들 수 있는 천과 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방물자들을 해결해준 양심적인 지주였다. 우리는 그 천으로 소왕청지방에 있는 반일부대들에 옷을 다 해입혔다.

도문 지주는 친척들을 만나보려고 십리평에 종종 드나들었다. 그런 내막을 어떻게 알아냈던지 우리 동무들이 한번은 경제모연공작을 하려고 지주를 억류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적구활동을 하고 돌아올 때 지도부의 동무들이 방법이 글렀다고 하면서 그를 놓아주었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유격구 밖으로 달아나는 지주를 다시 데려오게 한 다음 그에게 반일부대의 피복사정을 털어놓고 호소하였다. 지주는 유격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약속을 지켰다.

≪중대장동무, 그놈의 가살에 속지 마오. 그놈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나쁜 놈이오.≫

한흥권은 내 말을 다 듣고나서 어이가 없는 듯 허허 하고 웃었다. 그러더니 주먹을 틀어쥐고 분개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아주 고약한 놈이구만요. 저런 놈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까지껏, 재판을 열구 쏴 제낍시다!≫

나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우둘렁거리는 한흥권에게 손을 저어보였다.

≪그만두오. 그까짓 지주나 한 명 쏴 제껴선 뭘 하겠소. 공연히 세상만 소란해지겠는데… 차라리 조선사람의 양심을 지키라고 따끔하게 일러주는 게 낫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주놈의 뽕을 빼구 오겠습니다. 저따위 개벼룩같은 놈을 그냥 놔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비들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겠소.≫

나는 한흥권이 도수가 넘는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침을 놓았다.

한흥권이 자기 집에 나타나자 약삭빠른 지주는 턱밑에 다가들어 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대장과 그밖의 지휘관 몇 사람만 치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집에 분숙할 터이니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속심이었다. 박정한 인간이니 계산도 매우 빨랐다.

한흥권은 자기를 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이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한둬 달 퍼먹고 가두 끄떡 안할 것 같은데요.≫

≪거뭐 두 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주는 유격대가 자기 집에 정말 두 달쯤 있을 것만 같아서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주가 뭐라건 말건 한흥권은 그냥 시치미를 뻭 따고 상대방이 경풍을 일으킬 아찔아찔한 소리만 하였다.

≪주인님, 거 우리 부하들이 몇 달째 고기를 입에 넣어보지 못했는데 집에 돼지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다른 집들은 몰라두 이 집에서만은 쌀을 한 100가마니쯤 쌓아

놓구 먹겠지요?≫

≪원, 100가마니라구요. 어림두 없습니다. 다른 집들두 죽을 쒀먹으면서 궁상을 떨지만 쌀은 다 있습니다.≫

≪쌀이 있거나 말거나 당신이 한 턱 내야겠소. 당신은 부자인데 그쯤한 걸 가지구 뭘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오. 당신두 조선사람의 양심을 가졌으면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한몫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래 당신과 같은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구 농량이 없어 겔겔하는 가난뱅이들의 쌀독을 퍼먹으란 거요? 농량마저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단 말이오?≫

지주는 한흥권의 엄포에 가가 눌려서 돼지도 잡고 쌀도 퍼주었다. 다른 집들에 숙소를 정한 대원들도 그 집 식량은 다치지 않고 지주의 쌀을 받아다가 밥을 지어먹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었더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흥권은 이렇게 지주를 뽕빼놓은 다음 나의 잠자리를 생각하여 그 집에서 돗자리와 이불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원래 그는 이런 희극을 잘 노는 걸작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보리죽을 권하던 그 순박한 농민의 집에서 한흥권이 가져온 지주집 쌀로 밥을 지어먹었다.

주인은 겁이 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일없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주인을 안심시켰다.

≪주인님, 걱정마십시오. 당신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네야 밥가마를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훗날 지주놈이 걸고들면 유격대가 한 일이니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유격대라면 우리두 마음을 놓겠습니다. 이 미물들이 유격대 어른들두 몰라보았습니다 그려.≫

주인 내외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조선사람의 순박한 예절로서 죽이면 죽, 된장이면 된장을 있는 것만치 같이 먹자고 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에게는 이런 예절도 없었다. 아마 일본순사들이 대문앞에 나타났더라면 방석 위에 모시고 알랑거렸을 것이다.

부자와 평민의 차이란 이런 것이였다. 부자들이라고 하여 인정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였다.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은 대지주였지만 인망이 높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였다. 내가 백과부와 같은 부자를 훌륭한 여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그가 민족의 계몽과 발전을 위해서 금전을 아끼지 않은 인덕이 높은 애국자라는데 있다. 그래서 후세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우리가 만난 그 지주처럼 인색하고 몰인정하였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물론 세상이치에 닿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경우에나 다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보리죽을 권하던 그 농민이 쌀독이 높아서 그런 인정을 베풀었겠는가.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집 쌀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풋바심한 보리가 한 자루 정도 윗목에 놓여 있었을 뿐이였다.

돈주머니가 크고 재물이 많아도 인덕이 없으면 세상의 버림을 받는다. 오막살이에서 살아도 인덕이 높으면 많은 이웃을 가지게 되고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부자가 된다. 인간의 우열을 가르는 척도를 도덕이라고 할 때 우리를 대문앞에서 쫓아버린 그 지주는 도덕적으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가난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인정은 고대광실이 아니라 평민들이 사는 오두막에 있었다.

이봉수 부부는 전에 마창에서 일할 때 발진티프스에 걸린 일이 있다. 이봉수의 부인 안순화는 자기 남편이 원장으로 사업하는 병원에 있었는데 굶어 죽은 아이를 파묻으려고 밖으로 기어나가 가둑나무잎을 덮어주었다.

이봉수는 자기도 아들처럼 인차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순간 혁명동지들

이 며칠 전에 가져다준 새 옷을 벗어놓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서 그 위에 포개놓았다.

≪이 옷은 얼마 입지 않은 것이니 유서를 발견하는 동지는 나를 대신하여 입으시오.≫

이것이 바로 그 지주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혁명가들의 인정세계였다.

이봉수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혁명을 계속하였다. 그가 남긴 ≪유서≫는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문건으로 남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고상하고 뜨거운 인정세계였다.

도문 뒷산에 있다가 유격구로 돌아간 다음 우리는 군대들을 모여놓고 그 마을에서 당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이걸 보라. 계급적 본성이다. 어려운 사람은 죽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데 잘 사는 지주는 죽은 고사하고 문전에서 쫓아버린다. 나쁜 놈이 아닌가. 이런 놈들의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착취사회를 청산해야 한다.


이봉수

그 이야기가 훌륭한 계급교양자료로 되었다.

그 다음부터 잘 사는 지주와 가난한 농사군에 대한 이야기는 두만강 연안 농촌부락들에서 하나의 화젯거리가 되어 돌아갔다. 그 소문을 들은 인민들은 한결같이 지주를 몹쓸 놈이라고 욕하였고 농사군을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우리 사복대들이 부락 근처에 가면 청년들이 찾아와서 누구네 집은 잘 사고 누구네 집은 민회소가 있다고 다 귀띔해주었다.

그 당시 농촌에서는 민회소들을 가져다가 길렀다. 민회소라는 것은 일본이 만주를 강점한 후 반동단체인 민회들에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준 소이다. 농민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 기르면 바치게 되어 있는 그런 소였다. 이것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의 공간이었다. 민회소들은 뿔에 도장이 박혀 있었다.

청년들이 아무 집에 민회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잡아먹어도 좋다는 소리였다.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이 대주는 대로 민회소만 골라가며 잡아먹었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나쁜 놈들뿐이다. 어떻게 공산군들이 민회소가 있는 집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대준 것이 틀림없다고 막 야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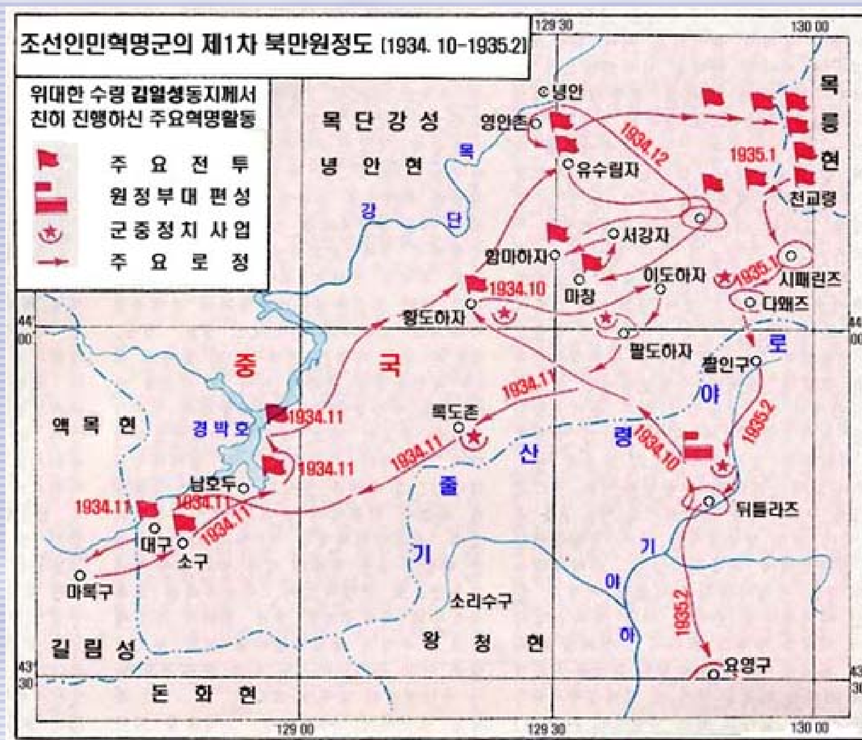
그럴 때마다 농민들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문서가 다 있습디다. 문서를 보고 불러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하고 발뺌을 하였다.

나는 오랜 체험을 통하여 부자들일수록 미덕이 없는 매정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선과 도덕과 등을 진 부 그 자체는 미덕을 낳는 샘이 아니라 미덕을 매장하는 함정이었다. 두만강가의 그 지주가 내 가슴에 단단히 못을 박아놓았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한 인상이 퍼그나 흐려졌다.

나는 그 사건까지 겪고나서 장차 나라가 독립되면 지주, 자본가들이 거들먹거리는 패륜패덕의 낡은 사회를 청산해버리고 만 사람이 빈부의 차이가 없이 한 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세우려고 더 굳게 결심하였다.

우리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남의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노동으로 사회의 부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인덕이 후한 도덕적인 부자들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전이 만능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자본사회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꼭같은 물질과 도덕의 부를 향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인류를 더럽히는 사회악은 깨끗이 근절될 것이다.

3. 노야령을 넘어



적구활동을 마치고 유격근거지로 돌아온 우리는 또다시 배낭을 젊어지고 왕청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만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보중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 방조를 요청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 요청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였다. 주보중은 반일병사위원회 시절부터 나와 깊은 연계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싸워온 친근한 전우였다. 나자구전투를 계기로 나와 주보중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이도 나보다는 10살이나 위였다. 나는 주보중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여기고 북만원정 준비를 다그쳤다.

1934년 10월 하순,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리는 날 왕청, 훈춘, 연길에서 선발된 3개 중대의 역량으로 꾸려진 170여명의 북만원정대는 뒤틀라즈를 출발하여 노야령을 넘기 시작했다.

자연이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이다. 산줄기들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이 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과 현이 갈라지기도 한다. 그 산줄기라는 장벽이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상 층하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된다. 노야령은 동만을 북만, 남만과 갈라놓는 영이며 북간도와 동간도, 동간도와 서간도를 갈라놓는 천험의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의 남쪽과 북쪽은 지세도 대조적이다. 산악이 병풍처럼 첩첩한 남쪽에 비해 북쪽에는 조선의 호남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일망무제의 대평원들이 많다. 노야령 이남 동만지방 사람들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출신들이라면 이북지역 사람들 중에는 경상남북도 출신들이 많았다.

의식수준의 견지에서 볼 때 북만사람들은 동만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져 있는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혁명열도도 동만에 비해서는 높지 못했다. 언제인가 주보중은 북만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계몽이 동만인민들을 계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북만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큰 고충으로 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그것은 동북혁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로 될 것이었다.

우리는 동만과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만과 북만까지도 장차 대부대 활동무대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인접과의 협조,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시종일관하게 주장해온 입장이었다. 우리가 이홍광, 이동광과의 상봉을 남만진출 목적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북만을 돕는다는 것은 곧 이 일대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김책, 최용건, 허형식, 이학만, 이계동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돕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다.

원정대는 첫 출발부터 흥분의 도가니속에 빠져버렸다. 새 고장이란 언제나 무지개 같이 화려한 동경심을 자아내는 법이다. 게다가 원정대원들은 대체로 새것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강한 18-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다. 나도 역시 그들과 다름없는 희열을 안고 대오를 이끌었다.

그러나 원정대가 뒤틀라즈를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발을 비끄러매려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어떤 불안을 무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오가 유격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였다.

나는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이 위공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에 북만으로 가고 있었다. 장기 특별치안공작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하기공세앞에서 쓴맛을 본 일제가 지구전의 방법으로 기어이 위공기도를 실현해보려고 만들어낸 ≪토벌≫대강이었다. 이 대강의 요점은 1934년 9월부터 1936년 3월까지 의 1년 반 사이를 3개의 시기로 나누고 처음에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민혁명군의 마지막 지탱점을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점령지역을 걸음걸음 확대해나가는 ≪보보점령≫의 전술에 ≪토벌≫에 소요되는 절대시간을 늘리는 지구저의 전술까지 겹쳐 위공은 그야말로 혁명을 질식시키는 목조르기로 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 우리가 단행한 북만원정이 일제침략군의 위공기도에 큰 파열구를 뚫어놓는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었다.

적의 위공작전에 못잖게 유격구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은 간도 전역에서 극좌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반≪민생단≫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동만당이 설정했던 본래의 과제와는 달리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던 일부 야심가들과 탐위분자들, 민족배타주의자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됨으로써 혁명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고 유격근거지의 존립을 위협하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다.

인정사정 없는 숙반의 무시무시한 쇠몽둥이는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진실한 혁명가들과 애국적 군중들을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날마다 무더기로 처형하였다. 유격근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군민의 절대다수가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반≪민생단≫투쟁의 예봉이 조선사람, 그것도 당과 군대, 대중단체의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던 핵심간부들과 정수분자들에게로 돌려지고 있는 점이었다. 숙반의 총구는 항상 군중이 신임하고 따르는 선봉적인 일군들과 투사들, 열성분자들을 겨냥하였다. 왕청현당서기 이용국이 ≪민생단≫감투를 쓰고 처형된 것도 그 실예의 하나였다. ≪민생단≫감옥에 갇혔다가 우리의 보증으로 겨우 풀려나온 왕청대대의 대대장 양성룡도 여전히 감시속에 있었다. 간도지방의 일부 야심가들과 책략가들은 이처럼 숙반의 이름을 걸

어 진실한 혁명가들을 모해하였다. ≪민생단≫혐의를 받고 처형 직전에 놓여 있던 현 당군사책 김명균과 1구당서기 이응걸은 유격구를 탈출하였다.

10월말만 되면 만주대륙에서는 폭설이 쏟아져내리고 강풍이 몰아친다. 북관사람들은 그 강풍을 오래전부터 시베리아바람이라고 불러왔다.

우리가 뒤틀라즈를 떠난 그날도 노야령에서는 사나운 설한풍이 행군길을 막아나섰다. 노야령은 활에 화살을 메운 형국이였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면 늙은 할아버지령이라는 뜻으로 된다. 아주 높고 험한 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 이 영을 하루 종일 톺아올랐다. 이성림은 무슨 영이 이렇게도 험한가고 자주 투덜거렸다.

이 영을 넘을 때 고보배가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전우들을 잘 고무해주었다. 동장영이 용정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보배가 우리의 과업을 받고 우정 따기를 하는 방법으로 구류장에 끌려들어가 그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는 큰 장마당의 돈도 잠깐 동안이면 다 털어낼 수 있는 번개같은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손재간만 가지고서도 백만장자 못잖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였다.

이런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혁명의 도가니속에 뛰어든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참으로 찬양을 받을 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손재주는 고보배가 소유하고 있는 특기의 일부일 뿐이였다. 그보다도 더 큰 묘기는 입재주와 어릿광대재주였다. 입에 손만 대면 못내는 소리가 없었고 얼굴을 몇 번 씰룩거리면 눈과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면서 치켜들렸는데 2군군장 왕덕태와 같이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도 고보배가 이런 재주를 부릴 때에는 입이 째지게 폭소를 터치곤 하였다. 그가 한쪽 다리를 까부라붙이고 외발로 뛰어다닐 때는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고보배가 마대를 메고 장타령을 부르면서 다닐 때에는 병신 중의 병신처럼 보였으므로 적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넘길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장기와 변장술을 가지고 도시와 마을들에 자주 내려가 적정을 탐지해오곤 하였다. 이런 일이 거듭되는 사이에 그에게는 고보배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보배처럼 귀중한 인물이라는 뜻이였던 것 같다. 고보배의 전우들 가운데는 그를 본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도 그를 별명으로 불렀다. 그러다보니 고보배의 본명이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그의 고향에 대해서는 함경북도라는 설도 있고 함경남도나 강원도라는 설도 있다. 고보배 자신은 자기의 출신도가 어디인지 잘 몰랐다.

고향이 어딘가고 물으면 그저 조선의 어느 해변가라고만 대답하였다. 젖먹을 때 만주 땅에 와서 자랐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다보니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였다. 어려서부터 노동속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는 못하는 일이 없었다. 야장을 하라면 야장을 하고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짓고, 이발을 하라면 이발도 하였다.

고보배는 한동안 동만과 북만 사이의 연계를 보장하는 통신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선불리 입밖에 내지 않았다. 간혹 어떤 동무들이 ≪보배 동무는 요새 무슨 일을 하오? 유격대원이오?≫하고 물으면 고보배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순시원이오?≫하고 물어도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게 묘한 웃음을 항상 덧붙이곤 하였다. 이것은 자기 직무를 안개속에 묻어두기 위한 고보배식의 독특한 수법이었다.

고보배가 나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존경한 것처럼 나도 고보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사랑하였다.

우리가 노야령 산정에 올라섰을 때 일본군의 쌍엽전투기 2대가 저공으로 날아와 영마루를 누비다가 달아나버렸다. 아마 우리를 따라오던 ≪토벌대≫놈들이 본부에

원정대의 행방을 알려준 모양이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다.

노야령 북쪽 등성이들과 골짜기들은 모두 눈속에 묻혀 어느 것이 어느 골짜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오후부터는 세찬 바람까지 일기 시작하여 북만주지방으로 많이 다녀보지 못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 지형을 자기 집 울타리처럼 휑하니 꿰들고 있던 고보배조차도 향방을 가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지경이 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로부터 80리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잃고 행군을 멈추었다. 대원들은 사정없이 쏟아져내리는 눈과 혹한속에서 내 얼굴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처럼 명랑하던 고보배마저도 사색이 되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내앞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해마다 이 영에서는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눈구덩이속에 파묻혀 죽곤 합니다. 지난해에도 7명인가 8명인가 되는 반일부대 병사들이 이 산중에서 객사하였습니다. 마을이 있는데까지 되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눈바람이 잦은 다음 행군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는 백설로 뒤덮힌 노야령의 북쪽 골짜기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제의하였다.

≪아니오. 그럴 수가 없소. 보배 동무가 며칠 전까지 발이 닳게 지나다니던 곳인데 무얼 겁낼 게 있소. 노야령이 할바령이나 목단령으로 되지 않는 이상 길이 있어도 여기에 있지 어디로 가겠소. 나에게 나침판도 있는데 곧장 북으로만 가면 될 것이니 너무 겁을 내지 마오. 자. 용기를 내시오. 북만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

나의 이 말에 고보배는 힘을 얻었다. 그는 입으로 자동차엔진 소리를 내며 앞장에서 눈을 헤쳐나갔다. 그 엔진소리를 듣고 원정대원들은 일제히 노야령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우리는 다음날까지 행군해서야 겨우 자그마한 중국인 부락을 발견하였다. 원정대가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웃부락에 와 있던 일본군 ≪토벌대≫가 불의에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에서 첫 싸움을 하게 되었다.

북만지방의 일본군 ≪토벌대≫나 위만군은 인민혁명군과 접전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당시까지 그들의 상대란 대체로 일본군의 그림자만 보아도 천 리 밖으로 꽁무니를 빼는 토비나 산림대 같이 조잡하고 무맥한 무장집단들뿐이였다.

약한 상대를 일반적인 추격전으로 쉽게 소멸하는데 습관되어 온 일본군 ≪토벌대≫는 그날도 우리를 토비나 산림대로 알았던지 기세등등해서 마구 접어들었다.

우리는 재빨리 산에 올라가 ≪토벌대≫와 응전하면서 한 개 소대를 우회시켜 적의 뒤통수를 후려치게 하였다. 하도 드세게 답새기니 적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벙벙해 했다. 그 싸움에서 일본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 전투에 대한 소문이 적들의 입을 통하여 북만지방에 널리 퍼졌다. 동만에서 ≪로꼬리≫부대들이 들어왔는데 싸움을 아주 본때 있게 한다.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부대인가. 혹시 동녕현성을 들이쳤다는 **김일성**부대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와짝 꿇었다. 그때부터 벌써 신문들에는 우리 부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그때 적들은 유격대를 ≪공비≫라고도 부르고 공산당이나 반만군이라는 어정쩡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원정대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가는 바람에 밥도 먹을 수 없는 고립무원한 처지에 떨어졌다.

주보중부대를 찾을 때까지 부락에 오래 체류하자면 적정을 알아야 되겠는데 정보망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 다음 단계의 활동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영안유격대의 행방에 대해서는 고보배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마을에서 자지 못하고 이름모를 산골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

음날 고보배와 오대성이 정찰임무를 받고 나가 주보중이 거처하고 있는 산막을 찾아냈다. 나는 그 산막에서 20-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병치료를 하고 있는 주보중을 만났다. 나자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에 맞은 그 상처자리가 화농이 심하여 여러 달이 지나간 그때까지도 채 아물지 않았었다.

주보중은 지팡이를 짚고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막에서 퍼그나 떨어진 곳에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하였다.

≪보시다시피 나는 아직 이런 신세요.≫

그는 지팡이를 들었다 내리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주보중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많이 도와주시오.≫

짤막한 인사였으나 그 음성과 눈빛에는 절절한 기대가 비껴 있었다.

나와 주보중과의 상봉은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변이었다. 이 상봉을 시발점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공산주의자들이 영솔하는 유격부대들과의 전면적인 공동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가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대들과의 합작을 중시한 것처럼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무장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9.18사변 후 장개석의 무저항주의에 반기를 들고 반일부대, 구국군, 홍창회, 대도회 등의 명칭을 가진 각양각색의 항일의용군부대들이 도처에서 태어나 일본의 침략에 도전해 나섰을 때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다같이 그들과의 통일전선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이 얼마나 큰 결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구태여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34년 이후부터 항일의용군의 활동은 점차 쇠퇴기에 들어섰다. 일본군의 공세가 심해지자 적지 않은 항일의용군 지휘관들은 부대들을 데리고 중국관내로 들어갔고 부분적으로는 투항하거나 비적화되었다. 일부세력은 사충항처럼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사상으로 지도이념을 바꾸는 방향전환의 대로에 들어섰다. 적들은 이러한 반일부대들을 가리켜 ≪정치비≫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만주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지도하는 반일인민유격대들과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이러저러한 반일부대들을 연합하여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갖춘 군을 내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주보중은 영안반일유격대의 탄생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중언부언 설명해주었다. 영안반일유격대의 밑천으로 된 것은 그가 나자구를 떠날 때 데리고 온 20명 가량의 반일병사들이었다.

길동국이 해산되고 수녕중심현위가 조직되자 군사부를 책임진 주보중은 그20명을 모체로하여 곧 무장대오를 늘리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오는 얼마 안 있어 5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사람들로 구성된 유격대가 주보중의 부대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부대는 뒤이어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도하자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평남양부대와의 통합을 실현하였다.

주보중은 평남양을 통합부대 대장으로 선출하고 자기는 군사책임을 맡았다.

평남양의 본명은 이형박이다. 이형박이 본명 대신 평남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평남양이란 남쪽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침략군 무력은 영안현 남쪽 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형박은 이 일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일본침략군과의 결전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형박의 무장대오는 평남양부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그 대오의 지휘관인 이형박이도 점차 평남양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이 일화만 보더라도 평남양이 용기가 있고 애국충정에 끓는 호걸남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반일감정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였지만 부하들의 무규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것은 이 부대의 통솔자이고 실권자인 주보중에게도 골칫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나자 주보중은 자기를 대신하여 평남양과의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였다.

≪평남양이 비록 영웅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김**사령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품고 있소.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 조선공산주의자였으니까.≫

내가 그 믿음은 고맙지만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자 주보중은 웃으면서 ≪나는 우사령과 오사령을 설복한 **김**사령의 특출한 감화력을 믿을 뿐이오.≫라고 하였다.

주보중은 반일부대와의 관계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었다.

영안현 일대에는 크고 작은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반일부대들 중 적지 않은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이것은 영안반일유격대의 활동에서 시급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커다란 암초였다.

동경성 서쪽 북호두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은 한때 평남양과 손을 잡았다가 갈라진 반일부대들이었다. 이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는데다가 정안군이 귀순까지 권고하며 쐐기를 박고 있어 그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평이었다.

동경성 서북쪽에서 비적행위를 일삼은 쌍산, 중양 등의 반일부대들도 역시 정안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영안 동쪽의 당도구 일대의 군소 반일부대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강애인 부대도 일본군 13여단의 ≪토벌≫에 혼쌀난 다음부터는 동요하고 있었다.

강애민의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이 그 13여단의 등쌀에 견디지 못해 동만으로 쫓겨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부대들은 식량을 약탈하며 돌아가다가 귀순신청까지 하였는데 우리 동무들이 그것을 겨우 저지시켰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마창 부근에 있는 채세영부대도 이전보다는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영안에서도 왕청의 관부대사건과 같은 점중화사건이 있었는데 그 맹랑한 변고 때문에 자기 부대는 합법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다.

점중화사건이란 주보중이 평남양과의 통합을 실현하기 전에 생긴 불상사였다. 평남양의 부대가 내분으로 복잡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반란자들은 평남양을 위시한 반대파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도주하였다.

평남양도 싸창 없는 신세가 되였다. 평남양은 알몸만 남은 부대를 재건하기 위하여 심복부하들과 함께 귀순을 모색하고 있던 남호두 근방의 점중화부대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리고 그 총으로 자기 부하들을 무장시켰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북만의 반일부대들은 평남양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영안유격대를 적으로 선포하였다.

결국 주보중의 요구는 자기네 부대를 합법화하자면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내가 그 중계자의 역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주보중이 제일 크게 걱정한 것은 영안지방의 혁명운동실태였다. 그는 이 일대에서 혁명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무능이나 불찰에 잇는 것처럼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동만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면 영안은 혁명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지대나 다름없소. 대중의 기세가 왜 이다지도 저조한지 모르겠소. 혁명에 궐기하라고 호소해도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는단 말이오. 이 고장 농민들의 동향이 어떤지 아시오? 지주가 못살게 굴어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 도리가 있다는 거요. 산중에 가면 흔한 것이 땅이요, 그 땅을 일구면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며 고생스레 혁명을 하겠는가 하는거요. 국민의 관점으로 보면 땅이 넓은 것이 흐뭇한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는 장애로 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북만주에 토지가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할지 한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오.≫

주보중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땅이 많은 것이야 4억이나 되는 중화민족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지.≫

주보중도 이마의 주름살을 펴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렇지,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야 만민복지의 원천이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한 것 같소.

김동무, 이상 열거한 것들이 내 고충이니 잘 도와주시오. 영안 땅에서 혁명을 앙양시킬 방도만 찾아도 발편잠을 자겠는데 나로서는 아직 속수무책이오.≫

주보중이 우리를 북만 땅에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것이였다.

나는 주보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난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육체적 조건은 너무도 나빴다. 주보중은 화농이 심한 창상자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수하에는 준비된 핵심역량이 많지 못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의 산막에서 며칠동안 주보중과 함께 북만혁명의 발전방도를 모색하였다.

우리는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돌파구를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데서 찾았다.

인민을 각성시키고 동원시키는 것만이 북만혁명을 침체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자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정치사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유격대의 군사활동을 강화해야 하였다. 무장대오란 전투속에서 커가는 법이며 혁명도 싸움속에서만 성장해 갈수 있는 것이다.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도 적대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킬 수 없고 점중화사건으로 하여 저락된 평남양의 영상도 개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주보중의 산막에 가 있을 때 거기에는 국제공산당 만주특파원인 오평도 와 있었다. 오평은 그때 우리에게 상해에서 가지고 온 항일구국 6대강령이라는 문건을 보여주었다. 6개 항목으로 된 이 문건의 원명은 ≪대일작전에 관한 중국인민의 기본강령≫이였다. 이 문건은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 준비회의 명의로 발표되였는데 거기에는 송경령, 장내기, 하향응, 마상백 등 이름있는 인사들의 서명이 있었다. 문건에 서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의 성원으로 되는데 그 성원수가 벌써 수천 명이 된다고 오평은 설명하였다.

항일구국 6대강령은 일제가 공공연히 중국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무력에 의한 화북강점을 기도하고 장개석이 공산군에 대한 제5차 ≪토벌≫작전의 포문을 연 조건하에서 중국공산당이 내세운 반제통일전선정책을 반영하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지향은 민족역량을 최대한으로 집결시키고 동원하는데 귀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항일구국 6대강령을 시기적절한 문건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10일가량 오평과 마주앉아 폭넓은 담론을 하였다.

나는 오평과의 담화를 통하여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모택동의 전략사상에 따라 장개석의 포위를 돌파하고 북상항일의 기치밑에 2만 5천리 대장정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혁명이 1차 국내혁명의 실패로 인한 퇴각으로부터 부분적인 진공에로 이행하여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중국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북상항일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중국 본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항일구국운동은 동만을 비롯한 만주지방 조중 양국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 수 있었다.

주보중은 공동활동을 위해 우리에게 1개 소대 가량의 병력을 붙여주었다. 원정대는 그 한 개 소대와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을 떠났다.

며칠 후 경박호반의 석두하라는 곳에서는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동투쟁의 첫 총성이 울렸다. 혁명군의 출격소식을 듣고 북호두를 떠난 200여명의 일본군≪토벌대≫가 경박호 복판에서 우리의 기관총 과녁이 되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연이어 방신구 근방에서 일본침략군대에 맵짠 타격을 가하였다. 북만주의 광막한 대자연속에 연전연승만을 아로새기며 거들거리던 무적황군의 신화에는 마침내 금이 가고 때가 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동만유격구들에 대한 일제의 위공작전에도 하나의 뚜렷한 돌파구를 열어놓게 하였다.

영안지방 사람들은 또다시 ≪로꼬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쾌재를 올렸다.

그 소문을 듣고 맨 처음으로 우리한테 달려온 사람이 바로 영안반일유격대 대장 평남양이었다. 우리가 남호두지방에 가서 훗날 우리 왕청부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곳 구당조직의 핵심당원을 만나고 서청구자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주보중의 전령병과 함께 내앞에 불쑥 나타나 자기 소개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하고 연방 탄성을 질렀다.

나는 대오에 휴식명령을 내리고 그와 격식 없는 담화를 하였다.

≪지금 온 북만땅에 **김일성**부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 부하들은 그 소문을 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놈들은 꼼짝 못하게 하는 **김**사령의 손이나 좀 잡아봅시다.≫

평남양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정겨운 시선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부하들이 동경성 북쪽에 가 있는데 정안군아이들한테 혼났다는 정보를 받았수다. 일본군이나 정안군만 만나면 노상 꼼짝도 못하고 골탕을 먹어야 하니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살겠습니까.≫

≪그럼 한 번 정안군과 맞다들어볼까요?≫

≪**김**사령네 부하대하구라면야…. 같이 싸우면 담도 커지고 배우기도 하겠지요.≫

나는 평남양의 소원대로 그가 데리고 온 40명의 가량의 대운들을 우리 원정대오에 합류시키고 그 대신 주보중이 나에게 붙여주었던 1개 소대는 평남양을 안내해온 전령병과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적의 ≪토벌≫로 하여 새롭게 조성된 동만의 긴박한 정세를 고려하여 연길중대 동무들을 간도로 돌려보냈다.

평남양이 나를 찾아올 때 주보중은 동만에서 온 통신원도 같이 보내주었다. 그 통신원이 우리에게 간도소식을 다 말해주었다.

우리는 북호두 부근을 행군할 때 전 대오에 외발자국 행군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의 집결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흔적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다. 외발자국행군이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행군해도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선두 사람이 낸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덧놓으며 나가는 행군법을

말한다.

내가 각 중대들에 임무를 주어 외발자국 행군법 뿐 아니라 발자국을 없애는 법, 분산행군법, 마을에서 숙영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익히게 하는 것을 보고 평남양은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전에 완전히 도통한 군대라고 하였다.

우리는 신안진 부근에서 평남양부대와 함께 다께우찌중좌가 이끄는 2개 대대의 정안군을 요정내고 뒤이어 중양이라는 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대해랑하 강변에서 다른 정안군 부대를 족쳤으며 팔도하자골의 노전가라는 곳에서 정안군 기병중대와 보병 6중대를 타격하였다.

위축되었던 반일부대들이 연이어 우리를 찾아와 원정대에 합류된 것은 이런 전과속에서 이루어진 귀결이었다.

팔도하자의 산막에 돌아와 주보중을 잠깐 만난 우리는 12월 하순에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 반일부대들의 요청에 따라 또다시 목단강을 건너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을 들이치고 위만경찰서를 습격하여 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것이었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군사활동에 참가하여 적들을 연속 답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영안유격대는 반일부대들과 지방의 참군 요망자들로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김**사령, 내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소. 일본군도 정안군도 다 제낄 자신이 있소. **김**사령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과 싸운 그날 평남양은 내 손을 잡아 흔들며 자신있게 말했다.

≪신세랄 것도 없지만 생각이 있거든 적을 많이 치시오. 군대야 싸움속에서 단련되는 게 아니겠소.≫

나는 평남양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그를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원정 과정에 채세영, 강애민과도 만나 반일연합전선 문제를 의논하였다.

일본군 13여단의 공격에 만신창이 되어 갈팡질팡하던 강애민은 나를 만나려고 동만에까지 나갔다가 우리가 북만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로 찾아왔다. 패전을 거듭해온 부대의 지휘관치고는 믿기 어려울만치 명랑하고 혈기왕성해 보였다.

≪**김**대장 부대에 응원을 요청하려고 사실은 왕청에 갔댔는데 방진성이란 사람은 자기네도 형편이 어려워 남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딱해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장, 우리를 좀 도와주시우다.≫

강애민은 대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자기의 고충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방진성은 우리가 북만으로 온 다음 우리 부대의 연대장으로 부임된 중국지휘관이였다.

우리는 평남양 부대와 군소반일 부대들과의 협동작전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득하였다. 원정대가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군사정치적 목적은 비교적 원활하게 성취되어 가는 셈이였다.

훗날 원정을 끝내고 간도로 돌아간 우리는 북만에서 주보중이 영안반일유격대를 기간으로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5군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원정대와 더불어 북만의 설한 속을 누비며 전투적 우의를 두터이 하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이 5군 산하에 들어갔다.

5군의 간부들 중에는 북만원정시절의 나의 지기들이 적지 않았다.

평남양은 제1사 1연대장을 하다가 사장으로 승급하였고 채세영은 제2사장을 하다가 부군장으로 되었다. 강애민은 2사에서 5연대를 지휘하였다. 그 부대들에는 우리와 함께 혈로를 헤쳐온 조선공산주의자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5군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노야령 너머에서 영안 땅을 그려보며 주보중을 축복하였다.

우리의 1차 북만원정은 나자구전투와 함께 적의 위공작전을 파탄시키는 발단으로 되고 기본동력으로 되었다. 우리의 군사적 공세앞에서 영안주둔 일본군 13여단의 주력과 정안군 부대는 괴멸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북만에서 피도 많이 흘렸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연길중대 정치지도원과 꼬마전령병 이성림의 전사였다.

이성림은 우리가 왕청에 가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전령병이였다. 일제의 ≪토벌≫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그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웠다. 옷도 해입히고 글도 배워주었더니 제법 해말쑥한 총각이 되였다. 그는 내 목을 그러안고야 자곤 하였는데 양성룡이 그것을 보다 못해 다 큰 총각이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니 사람구실을 하기는 글렀다고 하면서 아동단학교에서 쫓아보내자고 하였다.


이성림

이성림은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떼질을 썼다.

양성룡이 이성림을 곱지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나에게서 받은 소형 권총을 자랑하느라고 아동단학교를 뻔질나게 찾아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이성림은 우리가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가만이 아동단학교로 찾아가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코흘리개들을 버들방천으로 불러냈다. 권총자랑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가 권총을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는 사이에 쉬는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는데 상학을 시작하려고 교실에 들어온 선생은 깜짝 놀라서 비상소집구령을 내렸다. 권총 구경을 하려고 전령병을 따라나가 아이들이 한 명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양성룡은 나에게 이성림과 같은 전령병을 데리고 다니다가는 큰 사달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른 전령병으로 교체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림은 나와 함께 온성, 종성에도 가고 도문 뒷산에도 오래 가 있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돌하고 용감무쌍한 전령병이었다.

이성림이 전사한 것이 아마 단산자 부근 전투에서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본군과 정안군의 맹렬한 협공을 받고 있었다.

그는 내 명령을 전하려고 평남양 부대로 뛰어가다가 불의에 적과 조우하였다. 이성림이 전사한 다음 싸창을 보니 탄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대신 여섯 구나 되는 적의 시체가 그의 주위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가 죽으면서 피값을 톡톡히 받아냈다.

우리가 이성림을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평남양마저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울었다.

적을 쳐물리치고 승리한 전장에서 이성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단골방처럼 발이 닳게 찾아다니던 왕청아동단학교였다. 그 학교에는 이성림의 소꿉동무들과 죽자살자하면서 지내온 친구들이 많았다.

내 이제 성림이를 북만 땅에 파묻고 왕청아동단원들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괴어올랐다.

전우들이 언 땅을 파고 이성림의 시신을 안장하자고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 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언 흙을 파얹지 못하게 하였다. 박달같이 땅땅 언 차디찬 땅속에 그 어린 것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놈의 영이 이렇게 험한가고 볼부은 소리를 하며 노야령을 넘던 이성림은 오늘도 전우들과 함께 만주광야에 울리는 새 생활의 노래를 들으며 그 기슭에 고요히 누워 있다.

4. 영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인민들한테서 냉대를 받을 때보다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원정대가 노야령을 넘는 첫 순간부터 이런 냉대에 부딪쳤다고 하면 독자들은 아마 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참된 의리의 창조자이고 옹호자이며 대표자인 인민이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는 혁명군대를 외면하거나 푸대접한 적이 있었는가고.

나는 있었다고 말로써 이 상식을 뒤집어놓을 수밖에 없다.

풍요하고 기름진 영안땅이 곡창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원정대가 노야령을 내려 북만지경에 들어선 초기만 하여도 영안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조차 잘 지어주려 하지 않았다. 궁해서 그런 푸대접을 한다면 연민의 정이라도 느끼련만 오해와 불신을 앞세우고 무턱대고 등을 돌려대니 인민의 지지와 환대에 습관된 우리로서는 아찔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설피를 신고 행전을 친 원정대원들이 멀리서 나타나면 이 고장 사람들은 ≪고려홍군≫이 왔다면서 무작정 동네에 나가 돌아다니는 아녀자들을 불러들이고 문부터 닫아걸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우리의 동정을 살폈다. 이런 불미스러운 광경은 우리의 자존심에 험한 상처를 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밥도 한지에서 지어먹고 잠도 한지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간도에서 전혀 체험해볼 수 없었던 생소한 현상이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동만사람들은 떼를 지어 달려나와 북과 징을 두드리면서 박수도 쳐주고 가슴팍에 꽃다발도 안겨주었다. 더운물을 떠주고 풋강냉이를 쥐여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언제인가는 마촌에 솔대문까지 세워 군인들을 축하해주었다.

그런데 영안사람들은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정찰도 파견하고 지하조직도 발동시켜보았지만 우리는 도대체 이 고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동만에서 주보중이나 북만주 왕래가 번다한 고보배를 통해 사전에 요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대우였다.

영안현에는 옥랑하라는 마을이 있었다. 땅이 비옥하고 낟알이 풍족하다고 하여 지명마저 옥랑하라고 했다는 마을이었는데 밥은 고사하고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치사업을 하려고 마을에 나타나서 군중들을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처럼 응해주지 않아 시국강연조차 할 수 없었다. 이성림은 노야령이 험하다고 짜증을 냈지만 이것은 노야령보다 더 험난하고 가파로운 장벽이었다.

어떤 대원들은 영안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런 냉혈인들이라고 단정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장마다 민심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대접을 후히 하고 그들의 편의를 친절하게 봐주는 중국사람이나 조선사람의 미풍양속이 이 고장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정대를 아연하게 한 영안사람들의 인사불성은 어디에 기인되는 것인가.

역사기록에 의하면 영안 땅은 한동안 발해의 수도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였다. 이 유서 깊은 고도에는 한때 10만 명의 주민이 모여 산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개발역사도 비교적 오랜 셈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인민은 근검하고 순박 충실하며 신의가 두텁고 정의와 법도를 중히 여긴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된 이 지방의 공인된 풍토이다.

발해의 수도가 타고장으로 옮겨지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후 인구의 부단한 증감과정이 수세기를 거쳐 되풀이되고 세대도 수십차례 바뀌였지만 영안사람들의 미풍양속만은 퇴색하거나 엷어지지 않고 대대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

영안사람들이 본래부터 차고 야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타당치 못한 것이였다.

어떤 대원들은 영안이라는 지방이 원래 공산주의운동을 할 만한 고장이 못된다는 한심한 주장까지 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논거는 영안사람들이 의식수준이 낮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였고 둘째로는 영안현에 토지가 많은 대신 그것을 경작해야 할 농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계급적 관계에서 적대적 모순이 생기지 않으며 따라서 계급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이런 허무주의적 주장은 즉석에서 강력한 반격에 부딪쳤다. 세상에 공산주의를 할 만한 고장이 따로 있고 하지 못할 고장이 따로 있는가. 공산주의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고장이 있다면 그런 공산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전취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공산당선언≫의 사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주민이 적고 땅이 넓어서 적대적 모순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을 잘 모르고 내리는 피상적인 판단이다. 그런 이론대로 한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독일이 인구밀도가 희박한 러시아보다 계급적 모순도 더 첨예하고 혁명승리도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은 궤변이다 하고 그 논거를 일축해버렸다.

영안인민들이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게 된 원인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방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죄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영안땅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일찍부터 비열한 반공선전을 집요하게 벌여왔다. 정치사상적 계몽이 비교적 굼뜨게 진행되어 온 영안에서 그 선전은 주민들속에 쉽게 먹혀들어갔다.

영안 일대에 조성된 반공풍조의 책임은 파벌행위를 일삼아온 조선의 초기공산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에서 공산당이 창건된 후인 1920년대 중엽에 벌써 화요계의 인물들은 이 지방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는 으리으리한 기관을 갖추어놓고 공산주의라는 신성한 이름을 팔아가면서 판세를 확대하는데 몰두하였다. 순박하고 어리무던한 민중을 향해 조선독립과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을 귀따갑게 외쳐대면서 그들을 무모한 폭동과 시위에로 내몰았다.

좌경의 마이크는 영안인민들을 5 · 30폭동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이 폭동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이 간도에서는 일본의 식민지통치기관들과 중국인 지주들이었다면 영안에서는 한족총연합회와 같은 민족운동단체들이었다. 그러나 현성에서 발달된 시위는 그 서막에서부터 된소리를 면치 못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단행된 1932년 5월 1일의 시위도 결국은 적들앞에 핵심을 노출시키고 영안시가를 피로 물든인 가슴아픈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 모든 모험적인 시위로 하여 영안지방의 혁명조직들은 무더기로 파괴되었다. 5 · 1절 시위를

기점으로 영안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은 급속한 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당 지도부는 무력건설과 유격구건설을 중단하고 목릉, 동녕, 왕청 등지로 제가끔 흩어져갔다. 혁명을 포기한 일부 사람들은 영안현성으로도 흘러들어갔다.

일제와 만주군경들의 무차별적인 백색테러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인상을 무참히 짓밟아놓았다.

투쟁의 끝에 차례진 감옥과 죽음의 공포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전율하였다. 혁명의 종착점은 죽음이라는 생각, 공산주의운동을 했대야 쓸데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의 심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불모지라는 선고를 내리고 떠나간 영안 땅에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재건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들도 역시 혁명 일반에 대한 군중의 냉담한 표정앞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도 영안지방에서 반공독소를 전파시킨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 경신년 대≪토벌≫에 겁을 먹고 러시아에 망명했다가 흑하사변 후 영안으로 돌아온 독립군의 잔여세력은 반소, 반공 선전에 열을 올렸다. 그들은 흑하참변이 쏘련과 결탁된 조선의 망명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헐뜯고 쏘련을 헐뜯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심지어 김좌진이 죽은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작간이라고 하였다. 이런 선전은 김좌진 피살의 진상을 왜곡한 것이었다. 그러나 순진한 인민들은 그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영안지방사람들은 공산주의만 경계한 것이 아니라 군대들도 경계하였다. 그들은 소속과 사명에 관계없이 군대란 군대는 다 싫어하였다. 그 모든 군대들이 쌀독과 돈주머니를 축내는 식객으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과 위만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항일구국을 표방하는 일부 중국인 반일부대들도 인민들에게서 돈과 쌀과 가축을 강압적으로 걷어갔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들도 영안땅에 신민부라는 행정기구를 만들어놓고 군자금과 군량미를 받아냈다. 여기에 걸핏하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토비들까지 무시로 달려들어 성화를 먹였으니 그 모든 식객들의 시중을 고스란히 들어주어야 하는 백성들의 심리가 어떠했겠는가.

이런 역사적 근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영안인민들을 박정하다고 탓할 수가 없었다. 원정대가 물질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가장 심각한 고충으로 되는 것은 북만인민들에게 혁명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한 우리의 중요한 원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인민들이 정녕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면 원정대가 북만을 혁명화하는 길은 영영 막히게 되는 것이다.

영안사람들을 혁명대로에로 불러내자면 어디든지 돌파구를 열어야 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구 당사업을 요해하는 과정에 그곳 구당서기 김백룡을 통하여 영안현의 실태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 김백룡의 말에 의하면 영안경내에서 그래도 그 중 혁명화가 잘된 곳은 팔도하자라고 하였다.


간도국민회 소속 독립단

팔도하자를 일명 소래지팡이라고도 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영안현당도 있었고 구당도 있었다. 팔도하자를 소래지팡이라고 한 것은 화룡현 일대에서 대종교 교주로 있던 김소래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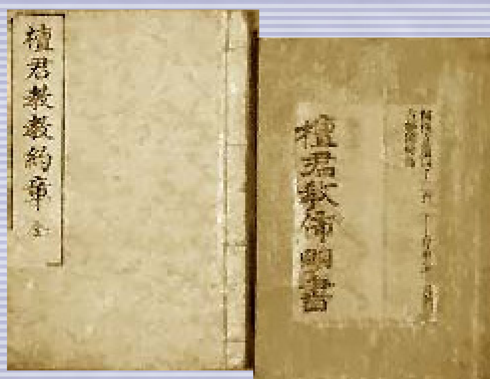
내가 김소래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서중석을 통해서였

다. 그는 한때 김소래가 설립한 화룡의 건원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김소래는 그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었는데 서일과도 연계가 깊었고 북로군정서와 간도국민회의 상층인물들과도 친면이 두터웠다. 반일감정이 강한 그는 건원학교 졸업생들을 홍범도, 김좌진 같은 독립군 맹장들의 수하에 보내는 것으로 구국운동을 후원하였다.

김소래는 독립군이 북간도에서 철수한 후 팔도하자골 안에 와서 토지를 사고 거기에 눌러앉아 지주가 되어 김좌진 독립군에 군자금을 대주었다. 이광도 유격대 초창기에 이 사람한테 와서 여러 자루의 무기를 구해 가지고 갔다.

김소래가 대종교의 교주라는데로부터 영안지방의 혁명가들은 한동안 그를 나쁘게 보았다. 역사를 잘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종교를 일본종교로 오인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종교란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환검을 신주로 하는 순수한 조선종교였다.

김백룡은 팔도하자 골짜기의 길이가 적어도 80-100리는 잘된다고 하였다. 골짜기에는 수많은 산재부락들이 있는데 주민 구성에서 조선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한때 독립군의 후방기지로 번창했던 팔도하자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 영안유격대의 활동거점으로 되었다.



대종교
(단군교 포명서)

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적정도 알아볼 겸 주민들의 동향도 알아볼 겸 김백룡이 알선해주는 팔도하자의 한 부락에 정치공작조를 파견하였다. 그 정치공작조에는 한다 하는 선전선동 명수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인솔해 가지고 주민들속으로 들어갔던 5중대 정치지도원 왕대흥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내앞에 나타났다.

≪또 실패입니다. 아무리 구수한 말을 해두 마이동풍입니다. 영안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바엔 차라리 소귀에 사서삼경을 불어넣는 게 낫겠습니다.≫

그는 이런 보고를 하고 나서 절망적으로 머리를 떨었다.

옆에서 그 보고를 듣고 있던 김백룡은 마치 영안 사람들이 동만손님들을 냉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나 한 것처럼 한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하여튼 영안사람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동만경험을 배우려구 참관단까지 보내면서 공을 들였는데 요지부동이란 말입니다. 참관단이 돌아온 다음 겨우 아동단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50명쯤 모여 오골오골하더니 웬걸 그것두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민이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가들을 외면한다면 그 인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고고의 절벽에 부딪쳐보는 나로서는 생각이 깊었다. 푸르허와 오가자를 혁명화하는 과정이 단순치 않았다고 하지만 그 지방 사람들도 영안인민들처럼 그렇게까지는 냉정하지 않았다.

수수천 년을 헤아리는 우리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인민이 나빠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한평생 인민을 좋은 인민과 나쁜 인민으로 구별해본 적이 없었다.

역사의 오점을 남겼거나 그 역사를 우롱한 것은 한 줌도 못되는 통치배들이었지 인민이 아니었다. 물론 개별적 인간들 가운데는 역적도 있고 수전노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협잡배나 야심가나 패덕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쌀에 뉘만큼도 안 되는 소수자였다.

이 세상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민이라는 거대한 집체는 항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두에서 성실하게 굴려왔다.

그 역사에 거북선이 필요하면 거북선을 만들었고 피라미드가 필요하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시대가 피를 요구할 때 인민은 육탄이 되어 서슴없이 화구앞으로 죽음을 맞받아나갔다.

문제는 영안사람들의 심장부로 통하는 지름길을 발견해내지 못한 데 있었다.

왕대흥이 인솔한 정치공작조도 분명 격동적이 호소적인 반일선전을 하였을 것이다.

영안사람들이 그런 연설을 적게 들었겠는가.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것이다. 독립군도 구국군도 비적들도 그런 연설을 다 한다. 그러니 왕대흥의 정치공작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잘못은 그들이 무작정 인민을 가르치려 한 데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신들을 인민의 선생이라고 여겼고 인민을 자기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던가. 인민을 무지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명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우리가 자신들을 인민의 선생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제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민의 심장 속 깊이에로 침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진심만이 우리의 피와 인민의 피를 하나의 동맥속에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인민의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고 형제가 되어 군중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안 땅에서 영영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왕청아동유희대가 영안에 와서 공연을 할 때에는 매번 공연장소에 군중이 조만원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동유희대도 혁명을 호소하고 유격대도 혁명을 부르짖었는데 왜 인민이 아동유희대는 환영하고 유격대는 외면하였겠는가.

나는 김백룡에게 물었다.

≪우리 아동유희대가 이 고장에 왔을 때 동무들도 공연을 구경했소?≫

≪했지요. 그 애들의 공연이 굉장했습니다.≫

김백룡은 왕청아동유희대가 그때 영안 땅을 들었다 놓았다고 하였다.

≪유희대가 가는 곳마다 초만원이었다는데 공산당선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영안사람들로서야 천지개벽이 아니겠소. 군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비결이 어데 있는 것 같소?≫

≪그 아이들이 이 고장 사람들한테 귀엽게 굴었지요. 유희대공연으로 영안사람들의 혼을 쪽 뽑아놓고는 공산명월처럼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들을 감화시켰답니다. 애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정을 주듯이 정을 주는데 아무리 목석 같은 영안사람들인들 왜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재간둥이들이 왕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오.≫

≪유희대공연도 공연이지만 아이들이 민심을 얻었지요. 그 아이들의 품성에는 나도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도하자 마을 청결은 이 아이들이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는 온 동네를 다듬이돌처럼 반반하게 정돈해 놓지요. 낮이면 밭에 가서 어른들 일손도 돕구요.≫

김백룡이 유희대원들을 연방 칭찬하는 바람에 나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그 애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셈은 다 들었지.≫

≪아이들이 또 사람은 얼마나 따르는지…. 어른들만 보면 십리 밖에서부터 아동단경례를 붙이구 ≪할아버지≫, ≪아버님≫, ≪아재≫, ≪누나≫, ≪언니≫하면서 찰찰 감겨돌아가는데 …하여튼 평이 대단했습니다.≫

아동유희대가 북만사람들의 민심을 틀어잡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정을 준 데 있었다. 우리가 두만강 얼음구멍속에 도끼를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반나절 동안이나 극성스럽게 애쓴 것도 인민에게 바치는 진정의 표시, 사랑의 표시 아니였던가. 우리가 진정을 바칠 대 인민이 그 진정을 거절하거나 우리를 배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왕대흥 정치공작조의 실책은 바로 인민에게 그런 진정을 바치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만사람들을 혁명화해야겠다는 실무적인 목적만 생각하였지 인민들에게 정을 주고 친숙해지려는 궁리는 하지 않았다. 북만인민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였다.

우선 북만사람들과의 접촉을 연설로부터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사람들에게 정을 먼저 주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그 정을 더욱 두터이 한 왕청아동유희대의 활동은 얼마나 교훈적인가.

나는 정치공작의 형식부터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중대 정치지도원들에게 하모니카를 잘 부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오도록 하고 그들이 지휘처에 다 모이자 한 명 한 명 차례로 불어보게 하였다.

연길중대에서 온 홍범이라는 대원은 청중들이 흥이 나서 어깨를 으쓱으쓱할 정도로 하모니카를 재치있게 불렀다. 때로는 하모니카로 손풍금 합주 비슷한 소리까지 냈다. 왕청 5중대 동무도 하모니카를 잘 분다고 하였는데 그에 비하면 떨어졌다.

홍범은 소학교시절부터 하모니카를 불었다. 어떤 단골손님이 집에 놀러왔다가 두고간 하모니카였는데 주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 자연히 그의 애용품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 해를 거듭하여 부는 사이에 재간은 놀랄 정도로 늘어났지만 하모니카는 도금칠이 다 벗겨진 중고품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청만은 옛 그대로였다.

나는 뒤틀라즈에서 원정준비를 할 때 그 하모니카를 보고 새것을 하나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기회가 생기지 않아 북만으로 떠날 때까지 그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간도지방 유격대원들과 인민들 중에는 홍범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보통대원에 지나지 않는 그의 경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화제거리가 되어 동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남다른 하모니카연주술 때문이었다.

하모니카 연주가들은 어디서나 전우들의 사랑을 받았다.

홍범의 고향은 함경북도 종성이었다. 부모를 따라 어려서 간도지방에 건너온 그는 일찍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한때는 적위대에 입대하여 돈도선철도공사를 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 해란구유격구역이 해산된 후 그는 하모니카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왕우구로 옮겨와 거기서 유격대에 참군 하였다.

나는 왕대흥에게 과업을 주어 전날 정치공작조가 침을 뱉고 돌아선 그 마을에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 가서 인민들의 심장을 다시한번 흔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김백룡에게 지하조직을 발동시켜서 하모니카를 있는 대로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이날 인민들에게 배포할 선전문을 마련하려고 영안현 당비서처를 찾았다.

우리가 비서처동무들과 담화를 하고 있을 때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 마을에 나갔던 왕대흥이 희색이 만면해서 내앞으로 뛰어들었다.

≪대장동지, 성공입니다. 그 장승같이 무뚝뚝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왕대흥은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작경위를 조리 있게 말하는 지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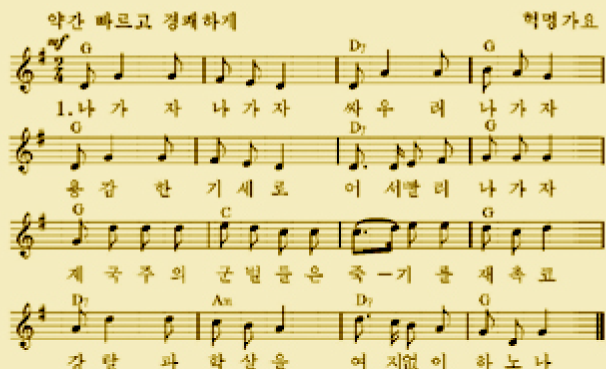
이었다.

혁명군에 심장을 열어주지 않고 무정하게 외면하는 목석 같다던 사람들을 돌려세웠다는 하모니카중주단의 활동경험은 교훈적인 것이었다.

중주단의 활동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어떤 집 마당의 눈을 치는 작업으로 시작되였다. 너렁청한 그 마당에 보조를 세우고 맨 선참으로 펼쳐 놓은 것은 바로 홍범 외 1명이 출연하는 하모니카 2중주였다. 중주단의 나머지 성원들은 그 2중주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러자 가까운 골목에서 팽이를 돌리던 두세 명의 조무래기들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울바자앞으로 달음박질해왔다. 다른 골목에서도 아이들이 바지괴춤을 춰올리며 오락장으로 뛰어왔다.

2중주는 ≪총동원가≫로부터 ≪아동가≫와 ≪어데까지 왔니≫로 얼른 곡목을 바꾸었다. 홍범의 하모니카에서 경쾌한 음향에 홀딱 반해버린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떤 아이들은 동네방네로 뛰어다니며 간도에서 온 ≪고려홍군≫이 댄스를 한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광고를 들은 어른들이면 발치엣 팔짱을 지르고 혁명군의 오락회를 구경하였다. 어떤 어른들은 오락장 가까이에까지 바싹 다가와 ≪고려홍군≫의 ≪풍각쟁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구경꾼들의 수효가 40-50명쯤 되자 하모니카중주단은 ≪아리랑≫을 연주하였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온 동네를 다 불러내고야 말았다. 관객의 수는 100명, 200명으로 불어났다가 다시 300명 계선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런 때에 고보배가 나서서 ≪평안도수심가≫를 불렀다. 그 청승맞은 노랫가락에 흥취가 오른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오락장을 가락지 모양으로 완전히 에워싸고 ≪고려홍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귀를 귀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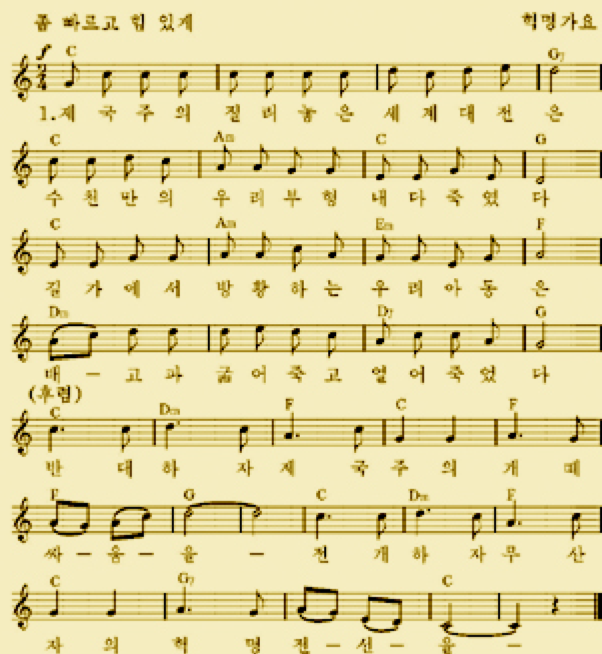
고보배는 노래는 마지막까지 다 부르지 않고 중도에서 툭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좀 신파끼가 있는 억양으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여러 분. 여러 분네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북도라구요. 함경남도, 강원도, 네네, 물론 평안남도 출신도 있겠지요. 제 고향은 구태여 묻지 말아주십시오. 거 뭐 제가 재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온 놈이웨다. 조선은 조선인데 그저 해변가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조선에서 살다가 부모 등에 업혀 강을 건넜는데 두만강인지, 압록강이었던지 그것두 알 턱이 없지요. 네네, 난

원래부터 그런 반편입니다.…≫

사람들은 고보배의 입담에 심취되어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수군수군 소감도 나누었다. 고보배는 간도에 들어와서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자라던 경위와 유격대원이 되어 왜놈들을 요정내던 몇 가지 장면들을 고사처럼 구수하게 엮어대다가 축음기 소리판을 뒤집어 끼우듯이 슬쩍 혁명에 대한 계몽으로 넘어갔다.

≪여러 분,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뭘까요. 그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자니 왜놈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의 오랑캐들을 가만 내버려두어야 하겠습니까? 난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잡구 유격대원이 된 거지요. 왜놈의 씨종자를 없애려고 영안에 두 왔구요. 북만에서 돌아치는 일본군대 더 건방지다지 않겠나요.≫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고보배의 머리에는 난데없이 일본군대의 군모가 척 놓였다. 괴춤에 찔러가지고 간 것을 순식간에 머리 위로 날렸던 것이다.

고보배는 이런 희극적인 차림으로 기지개와 하품을 한바탕 늘어지게 한 다음 뒷짐을 뒤고 턱을 잔뜩 처들고 얼굴을 우습게 씰룩거리면서 오락장을 두어 바퀴 돌았다. 그것은 방금 잠에서 깨어나 병영마당에 나서서 산책을 하는 일본장교의 기분상태를 아주 그럴 듯하게 연상시켰다.

구경꾼들은 처음에 작은 소리로 키득키득 웃어대다가 나중에는 내놓고 포복절도하였다.

고보배는 그 폭소가 가라앉기 바쁘게 구경꾼들 앞을 한 고패 빙 돌아가며 할머니앞에 가서는 노파의 웃음소리, 할아버지앞에 가서는 영감의 웃음소리, 젊은 연인들앞에 가서는 새각시의 웃음소리를 내는 식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각종 웃음소리를 흉내냄으로써 구경꾼들이 배를 그러쥐고 웃어대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게 하였다.

하모니카중주단은 이렇게 마을을 흐물흐물하게 해놓은 다음 다시한번 항일선전을 하고 혁명군 원호를 호소하였다.

하루 전에 정치공작조가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마을에 가서 하모니카중주단이 이처럼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진행한 선전공작의

통속성과 진실성에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경험에 토대하여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영안현의 수십 개 마을을 점차적으로 혁명화하였다. 동만에서 온 ≪고려홍군≫과 영안인민들을 갈라놓고 있던 철의 장벽은 마침내 제거되었다. ≪고려홍군≫이 지나간 고장들에서는 당대열이 늘어나고 공청과 부녀회, 아동단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심장을 활짝 열어제낀 인민들은 혁명군을 지지하고 원호하는데서 최대의 보람을 느꼈다.

그 인민의 군상속에는 천교령목재소의 김노인, 다왜즈의 조택주노인, 옥량하의 중국할머니 맹성복, 남호두의 이노인 등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많다.

맹할머니는 4촌동생과 함께 일본경찰에 붙잡혀 온갖 곤욕을 다 당하면서도 적의 동태를 반영한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원정대에 무시로 제공해주었다.

남호두의 이노인은 적들의 항시적인 감시속에 있는 요시찰인이였다. 적들은 그가 유격대를 원호한다고 8칸짜리 집에 불을 질렀다. 언제인가는 헌병대에 끌어나가 수십 개나 되는 곤장을 먹었다. 그런 졸경을 당하면서도 이노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과 신발을 지고 혁명군의 숙영지로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노인님 무섭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무섭지요. 내가 혁명군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탄로나는 날이면 내 아들 셋은 물론이고 우리 일가가 멸족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지요. 혁명군 어른들이 나라를 찾아주겠다고 변변히 자지두 못하고 자시지두 못하면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일신의 안전만 생각하면서 팔짱을 지르구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이였다.

조국을 사랑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불씨는 북만인민들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불씨의 열도는 동만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다른 것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이 갑절 두터웠을 뿐이며 그 껍질을 통과하는 문턱이 한결 높았을 뿐이다.

인민은 자기를 동정하고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들앞에서는 그가 누구든지 서슴없이 마음의 대문을 열어제낀다.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써 그들을 품어안는다.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토양이 인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배은망덕자들, 인민에게는 자기를 섬겨줄 의무가 있게 자기에게는 그 시중을 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는 건방진 인간들, 인민을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된다고 간주하는 관료배들, 인민을 아무 때나 짜도 우유를 내는 젖소처럼 여기는 착취자들, 인민을 사랑한다고 말끝마다 떠들어대면서도 인민이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슬쩍 지나가는 말공부쟁이들과 위선자들, 건달꾼들, 협잡배들앞에서는 사정없이 빗장을 지른다.

지금은 우리 곁에 1차 북만원정을 회상할 전우들이 한 명도 없다. 170여 명이나 되는 원정대원들 중 광복된 조국에 돌아온 사람은 얼마되지 않았다. 왕청중대에서도 아마 오준옥, 연희수가 돌아왔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영안땅에 갔을 때 강건은 아동단원이었다. 나이로 보아서는 지금까지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도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이 발발되었던 그 해 초가을에 최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당시 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었다.

고보배는 훗날 주보중이 지휘한 5군에서 연대정치위원으로 복무하였다.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쏘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말도 있

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끝없는 우스개와 익살로 온 간도를 노상 웃음의 선풍속에 몰아놓던 재능 있는 낙천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접했을 때 나는 그 소식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낙천가가 가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보배와 함께 북만원정대의 통로를 선두에서 개척한 하모니카중주단의 과반수는 주보중의 요청으로 북만으로 떨어졌거나 귀환 도중의 격전들에서 전사하였다. 나머지 반수의 그 후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그것을 고증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들의 이름조차 삭막하다.

제1차 북만원정이 있은 때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원정 참가자 한 명이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반가운 통보를 받았다. 해당부서 일군들이 올려보낸 사진을 보니 하모니카중주단의 1번수 홍범이었다.

그 눈언저리에는 우리를 위협하던 북만의 사나운 설한풍과 그 설한풍속에서 걸음걸음 힘겹게 뚫아가던 유례없는 고초의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있었다. 세월의 심술궂은 변덕으로 얼굴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왜가리목처럼 쑥 뽑힌 그 유다른 목의 형태만은 반갑게도 옛모습 그대로였다.

이 사람이 정녕 간도사람들의 총애를 받던 그 유명한 하모니카명수 홍범이란 말인가. 1차 북만원정의 직접적인 참가자이고 증견자인 이 보배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내 가까이에 건재해 있으면서 인제와 자기 존재를 알린단 말인가.

나는 해당 부서 일군들에게 사연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다.

홍범이 그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은 것은 지나친 순박성과 겸손성때문이었다.

≪나는 항일혁명에 참가하였지만 자랑할 만한 공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수령님을 모시고 북만에 원정을 갔다온 것뿐입니다. 그나마 북만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삼도만 막바지에서 열병을 앓느라고 유격구가 해산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대오를 찾지 못하여 고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항일전쟁참가자라고 하면 당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보살펴주겠는데 나는 그런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 말년에 이른 항일의 노투사 홍범이 한 말이다.

그때 70고령이었던 그는 전승분주소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었다. 집도 소박한 단칸방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새 세대의 연주가들이 3칸, 4칸 되는 새 집으로 이사갈 때에도 항일장정의 풍랑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유격대 하모니카수는 그 단칸집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홍범은 그 이상의 특대나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의 항일전쟁참가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홍범은 내가 영안에서 사준 하모니카를 일평생 간직해왔다고 한다. 우리 사적일군들이 취재를 위해 집에 찾아갔을 때 홍범은 그 하모니카로 북만원정 때 불던 혁명가요원곡을 연주하였다는데 그 솜씨가 대단하더라고 한다.

그는 당에서 배려해준 광복거리의 새 아파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북만원정이나 고난의 행군과 같이 참담한 시련을 겪어온 투사들은 해방된 조국에 와서도 우리와 함께 오만가지 고난을 다 이겨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고 한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하고도 박력있는 생활의 진리를 귀띔해주고 있는가. 고난과 시련은 만복의 어머니이다.

5. 천교령의 눈보라

우리가 원정대앞에 나섰던 군사정치적 과제를 수행하고 귀로에 오른 것은 1935년 1월 하순이었다. 왕청 뒤틀라즈를 떠날 때 170명이나 되었던 대오에는 50-60명의 인원밖에 남지 않았다. 원정 초기 연길중대가 동만으로 떠나간 후 우리는 훈춘중대도 영안 땅에서 철수시켰다. 적의 위공작전으로부터 혁명의 책원지들을 보위해야 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석달 동안 꼬리를 물고 진행된 전투들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들까지 죄다 안전지대로 후송시키고 나니 대오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우리에게는 대오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었다. 원정대가 머무르는 마을들에서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전부 주보중부대에 넘겨주었다.

주보중은 우리의 귀로를 두고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적들이 지금 **김일성**부대의 종적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친다고 하오. 아마 톡톡히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소. 이 겨울에 그들이 당신한테서 얼마나 혹독한 타격을 받았나 말이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신변이 우려되는구만.≫

내 얼굴을 바라보는 주보중의 눈길에서는 어딘가 불안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노야령 눈보라가 우리를 감싸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튼 무사히 돌아가게 되겠지.≫

나는 우리의 신변을 염려해주는 그의 우정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장 사지판에 들어서야 할 사람이 저렇게 태평이라니까. **김**사령은 여전한 낙천가로구만.≫

주보중은 귀로에 오른 우리의 편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믿음성 있는 노정을 잡아주었으며 우리와 함께 갈 100여 명의 반일부대역량까지 붙여주었다. 그 노정이란 우리가 북만으로 올 때 잡았던 뒤틀라즈-노야령-팔도하자의 정상통로와는 완전히 다른 천교령-노야령-팔인구의 우회로였다. 이 노정은 적들의 배치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발들을 타게 되어 있었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적들이 예측할 수 없는 통로라는 것이었다.

이 통로에 대해서는 주보중보다도 평남양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 팔굽을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교령 쪽으로 빠지면 어느 모로든지 무탈할 것 같수다. 그 고장 목재소들엔 식량이 많지요. ≪토벌대≫놈들도 천교령 쪽에는 잘 오지 않구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수다.≫

천교령이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 아래 다리라는 뜻으로 된다. 산이 다리같이 생긴 아슬한 고지대였다.

우리는 북만 동무들의 권유대로 천교령-노야령-팔인구의 우회로를 타고 간도

에 돌아가기로 하였다. 노야령을 넘는 2-3개의 다른 통로들은 이미 적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북만 전우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며 주보중의 산막을 떠났다.

언 땅에 베개도 없이 누워 있는 수많은 이성림들의 영전에 봉분도 해주지 못하고 묘비도 세우지 못한 채 간도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있으라. 전우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 다시 그대들을 찾아오리라.

지금은 타향만리 언 땅에 그대들을 두고 간다만 해방의 날이 오면 고향의 뒷동산에 업고 가리라. 그대들의 영전에 묘비를 세우고 상석을 깔고 둘레에는 꽃을 심고 년년이 그대들을 조상하리라. 전우들. 그날까지 안녕히.

나는 북만의 황야에 쓰러진 전우들을 위해 전 대오가 모자를 벗고 3분 동안 묵도할 것을 명령하였다.

영안의 이름 모를 봉우리와 골짜기들에 단벌 흩옷차림으로 누워 있는 전우들에게 안식이라도 주려는 듯이 북만의 하늘에서는 그날도 발목을 휘감는 폭설이 물커지게 쏟아져내렸다. 그 폭설은 우리의 발자국을 메꾸어주었다. 은밀히 행방을 감추면서 행군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날씨였다.


이성림

그러나 그 푸짐한 하늘의 선물도 적의 메 눈 같은 감시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감싸주지는 못하였다. 해발 700미터 정도 되는 능선에서 원정대가 북만 동무들이 싸준 점심밥을 먹고 간단한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적 ≪토벌대≫ 무리들이 멀리에서 나타났다.

평남양이 명예를 걸고 절대안전을 담보한 이 천고의 수림지대에서 총구를 우리에게로 겨누고 은밀히 추적해오는 적의 무리를 보는 것은 실로 천만 뜻밖의 일이였다.

원정대원들은 눈이 휘둥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혹시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돌아가는 길에서나 휴식을 좀 할까 했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따라오니 휴식은커녕 또 시끄럽게 되었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서는 부대가 성과적으로 귀로를 돌파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첫 출발에서부터 대원들이 나약해지거나 긴장을 늦추지 않게 좀 훈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이 몇 해 동안 줄창 적의 포위속에서 살아왔다.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옆에도 적이고 지어는 하늘에도 적이었다. 빨치산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적이 있었다.

행군 중에 적의 추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보라. 우리 항일전쟁사에 총성도 없고 백병전도 없는 무탈한 행군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러니 전우들, 우리는 이 행군에서도 결국 싸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 이것은 우리가 포위를 뚫고 간도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원정대원들은 내 말을 듣고 모두 정신을 번쩍 차렸다.

우리는 추격해오는 상대가 어떤 놈들인가를 알아보려고 정찰조를 파견하였다.

그 정찰조가 적을 답새기고 척후병 두 명을 포로해왔다. 포로들의 진술에서는 우리와의 거듭되는 접전에서 여러 번 참패를 당한 정안군 부대장 요시자끼의 이름이 자주 튀어나왔다.

원정대의 공격에 만신창이 된 요시자끼는 패전의 수치를 씻어보려고 거듭 유생

역량을 새롭게 증강하였다. 그 부대가 바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토벌대≫였다.

9.18사변 직후 관동군참모 고마쯔소좌의 지도하에 관동군을 협력하는 특별독립군의 명목으로 조직되었던 정안유격대는 정안군의 전신으로 일만일체의 혼합부대로 편성되었다.

만주국군의 건군과 함께 1932년 11월에 위만군에 편입된 정안군은 사령 후지이쥬로 소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3분의 2가 모두 일본인들이였다.

정안군에는 후보생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원의 대부분이 17-18살의 일본본토 출신의 중학교 졸업생들이였다.

정안군의 병기와 피복류는 관동군이 공급하였다.

팔소매에 붉은 천을 동인 것으로 하여 일명 ≪홍수대≫라고도 하였는데 언제나 싸움터에 있을 것을 강요한 ≪상재전장≫의 정신으로 교육하면서 ≪야마도다마시≫와 함께 악질적인 ≪세이안다마시≫(정안혼)도 고취하였다.

이 부대에 있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자산계급의 자식들로서 모두가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일제의 충견들로 조직된 정안군의 뱃심은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에 유격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정안군의 기본적인 활동목표가 바로 우리 유격대를 소멸하는데 있음을 증명해준다.

조직 초기 정안유격대의 역량은 3,000명 정도였다.

그것은 일본군의 한 개 연대역량을 조금 초과하는 숫자였다.

요시자끼는 바로 이 정안군 보병 제1단 단장이였다.

요시자끼의 부대는 정안군부대들 중에서도 가장 검질기고 악착스러운 부대였다. 이 부대의 ≪토벌≫에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어떤 강자든지 피투성이가 될 것을 각오해야 했다.

요시자끼는 자기 관하의 부대들이 소멸되면 다른 부대들을 인차 갈아대곤 하였다. 그의 수중에는 인민혁명군 원정부대를 연속 타격할 수 있는 예비역량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생자를 대신하여 대오를 보충할 만한 그런 예비가 없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4-5차례씩 추격해오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행군하면 적들도 행군하고 우리가 숙영하면 적들도 숙영하였다. 정말 상대가 혀를 빼물 정도로 지독스럽게 따라다니는 찰거머리 같은 놈들이였다.

주보중이 말한 것처럼 정안군 놈들은 우리 대오가 **김일성**부대라는 것과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천교령 일대와 그 부근에는 우리를 지원해줄 만한 공산군무력이 없다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대가 첩보사업을 아주 잘하였다. 그런즉 우리는 완전히 노출된 싸움을 하는 셈이였다.

그때 적들은 ≪우리가 100명 죽고 공산군 한 명만 잡아도 큰 소득이다. 우리는 100명을 보충할 수 있지만 유격대는 한 명도 보충하지 못한다≫고 떠벌이면서 부단히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였다. 군인의 예비가 많은 놈들이지라 배짱도 이만저만 든든하지 않았다. 정안군의 속심은 자기네 군대 1,000명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간도에서 온 원정대를 전멸시키자는 것이였다. 원정대를 전멸하면 **김일성**의 운명은 끝장이고 **김일성**만 없으면 조선공산군도 반만항일도 일락서산이라는 배짱이였다.

정안군이 이처럼 집요하고 악랄한데다가 그 해따라 눈보라가 얼마나 세차게 일었던지 적아를 식별하지 못할 지경이였다. 어느 한편이 먼저 말을 해야 적아가 구별

되고 싸움이 붙었다.

우리를 따라오던 반일부대 병사들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버렸다. 희생정신이 박약한 반일부대 장병들에게 있어서 꼬리를 바싹 물고 끈덕지게 따라오는 정안군의 추격과 인정사정 모르는 사나운 추위는 감히 맞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도전으로 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해준 셈이었다.

평남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길양식도 인차 거덜이 났다.

우리는 며칠 동안 생눈으로 끼니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야 인적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황량하고 무정한 대지에서 눈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적의 숙영지도 몇 번 기습해보았지만 그들이 노획해가지고 오는 식량으로는 대오를 먹여살릴 수가 없었다.



한흥권

적들도 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어떤 곤란이 있든지 천교령 목재소가 있는데까지만 가보자. 거기에 가면 식량이 많다고 평남양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서로 고무해주고 부축해주면서 꾸준히 행군을 다그쳤다.

나는 먹을 것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것을 대원들앞으로 돌려놓았다. 어떤 날에는 한 되박의 강냉이를 가지고 전 대오가 나누어먹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앞에 차례지는 강냉이알들을 어린 대원들의 입에 넣어주곤 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은 눈으로 요기를 하였다. 그 눈이 무슨 기운을 냈겠는가. 그래도 악을 쓰며 눈보라를 헤치고 비탈길을 톺아올랐다.

한흥권은 그때 눈에도 영양성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일동의 호기심을 끌었다.

나는 그 주장이 대원들의 맹렬한 반박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주장을 엉터리라고 일축해버리는 전우들은 얼마 없었다. 대부분의 전우들은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물에도 영양소가 많을지 모른다는 가설까지 내놓음으로써 한흥권의 발명을 무색하게 하였다.

나도 그 가설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것을 허튼소리라고 하거나 무식한 소리라고 하면 구름장 같이 허황한 가설을 내세우고 그 변론에 열중하는 방법으로 시장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애쓰는 대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다.

밥이나 빵 대신 자기들이 삼키는 눈속에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내놓고 그 가설에 대한 논쟁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극복해나가는 원정대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2만 5천리 장정 때 중국동지들이 가죽띠를 우려먹었다고 한다. 우리도 쌀이 없을 때는 가죽띠를 우린 물이 식량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남비에 넣고 끓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행군이 이렇게 간고하다나니 어떤 날은 길림 시절에 읽은 장편소설 ≪철의 흐름≫에 반영된 생활들을 되그려보며 힘을 가다듬기도 했다.

나는 밤마다 다른 대원들과 꼭같이 보초를 섰다. 위기를 겪고 있는 대오에서 대장이라고 틀을 차리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부대를 움직이는 지휘관의 수완과 통솔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때에 원정대원들은 또 한 차례의 타격을 받게 되었다. 내가 천교령 부근에서 촉한에 덜컥 걸

려 자리에 드러누워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몸이였으니 병마인들 어찌 그런 육신에 쉽사리 달려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온몸을 화독처럼 달구는 무시무시한 고열과 오한은 마침내 나를 눈구뎅이속에 사정없이 쓰러뜨렸다.

처음에 몸이 오슬오슬 떨릴 때에 우등불이라도 쪼였더라면 병이 덧나지 않았을 터인데 전우들이 근심할 것 같아 그냥 내쳐두었더니 손발마저 까드라들고 나중에는 빈사상태에까지 빠졌다. 전우들이 달려들어서 손발도 주물러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어서야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꿀이나 한 사발 마시고 뜨뜻한 구들에서 땀을 쭉 뽑으면 측한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해발 1,000여 미터나 되는 무인지경에서 그런 호사는 바랄 수도 없었다.

한흥권은 대원들과 함께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발구를 만들고 거기에 개가죽을 깔았다.

전우들은 그 발구에 나를 앉히고 이불과 노루가죽으로 내 몸을 감싼 다음 번갈아 끌었다. 제발 이 이상 적들이 더 따라오지 말았으면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내 신변을 걱정하였으나 ≪토벌군≫은 막무가내였다. 한편으로는 추격해오는 적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으로 앓는 나의 발구를 끌면서 험한 산령을 한치 한치 돌파해가는 이 긴장된 활동은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하는 고역이였다.

요시자끼는 우리를 추격하는 ≪토벌군≫의 무리속에 ≪토벌의 왕≫이라고 불리우던 구도의 중대를 새롭게 들이밀었다. 구도는 만주에서 세운 전공으로 하여 죽어서 일본의 ≪군신≫까지 된 자였다. ≪군신≫의 유골은 야스구니신사에 안치된다고 한다. 구도는 천교령 계선에 나타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김일성**은 지금 중병에 걸려 지휘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특별히 전투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되었다. 싸움은 하지 말고 공산군의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추격만 하라. 추격하면서 그저 한 놈씩만 쏴제끼라. 한 놈씩 쏴 죽여도 한 달 안팎이면 공산군을 모조리 요정낼 수 있다.

구도는 이런 뱃심을 가지고 여러 명의 원정대원들을 전투서열에서 떼내었다. 적의 사격 명중률이 대단히 높았다.

내가 빈사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주변에 있은 대원은 도합 16명밖에 되지 않았다.

눈정기를 모으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았대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16명뿐이었다. 다들 어디로 가고 이 동무들만 남았을까. 그 아까운 전우들이 모두 천교령의 눈속에 묻혔단 말인가. 이렇게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왕대흥은 어디 갔소?≫

목 안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나는 이불밑에 놓여 있던 싸창자루로 설자(눈 위에 쓰는 글)를 써 보였다. 그리고는 한흥권중대장의 얼굴을 맥없이 바라보았다.

한흥권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수염이 검숭검숭한 턱밑에서 목젖이 풀떡거리는 것이 보였다.

≪정치지도원동무는 전사했습니다.≫

십리평에서 발진티프스에 걸린 나를 간호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김택근소대장이 울먹거리면서 대답했다. 얼굴을 보니 그도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들이 뚤렁뚤렁 떨어져내리고 있었다.

부대가 적의 포위속에 들자 중대정치지도원 왕대흥은 김택근을 비롯한 몇 명의 전우들로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백병전을 벌였다. 왕대흥은 총창과 총탁으로 다섯 놈의 정안군을 쓸어눕혔다. 그리고는 자신도 눈구덩이에 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왕대흥,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해온 정치군사일군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만사람의 존경을 받아온 날파람 있는 싸움꾼이었다. 왕대흥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어감과 중어를 조선말 못잖게 자유로이 하는 솜씨로 하여 그는 노상 중국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곤 하였는데 사실은 순수한 조선사람이었다. 북만의 군대와 인민을 돕는데서 왕대흥은 뚜렷한 자기 몫을 남겼다. 중어에 능숙한 그는 어디 가서나 중국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보중이 그를 탐낸 것은 다 까닭이 있는 일이었다.

주보중이 달라고 할 때 왕대흥을 떨궈두고 오는 건데… 나는 온몸과 마음이 천만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 같은 통절한 심정을 안고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전우들을 조상하였다.

≪정황이 너무 급해서 정치지도원동무의 시신은 안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분과 회오로 떨리는 김택근소대장의 음성이 다시금 내 고막을 두드렸다.

≪이 북만땅에 눈이야 많지 않은가. 왜 눈으로라도 안장하지 못했소?≫

내 입에서는 하마터면 이런 푸념소리가 튀어나올 뻔하였다.

그런데 이성이 그 목소리를 용케도 눌러버렸다.

김택근인들 왜 그걸 모르겠는가.

그 인정이 후한 사람이 오죽이나 급했으면 안장도 못하고 돌아섰겠는가.

나는 아까처럼 권총자루로 다시금 눈 위에 글을 썼다.

≪왕대흥이 죽은 골짜기를 똑똑히 기억해두었소?≫

≪네, 그걸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김택근의 대답이었다.

≪그러면 됐소. 해토가 되면 와서 묻어주자구.≫

대원들은 내가 눈 위에 글을 쓸 때마다 글자들이 덧놓이지 않게 하느라구 발구를 조금씩앞으로 움직여주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왕대흥의 곁으로 다시는 가지 못하였다.

천교령에는 왕대흥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땅속에 안장하지 못한 전우들의 시신이 여러 구 있었다.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듯한 심정이다. 그 송구스러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겠는가.

해방 후 조기천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탈고되자 원고보따리를 안고 나부터 찾아왔다. 나는 첫 독자가 되어 그가 낭송하는 서사시를 감상하였는데 진주 같은 명문도 명문이었지만 그 내용에서 완전히 심취되었다.

그 서사시에는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참으로 많았다.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열의 영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 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열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이 구절은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압록강을 건너던 철호가 적의 흉탄에 쓰러진 영남이를 안장했을 때의 심리를 반영한 주정토로이다.

그 대목을 낭송할 때에는 조기천이도 울고 나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대목을 들으면서 북만 땅에 묘도 만들어주지 못한 채 두고 온 수많은 왕대흥이들과 천교령들을 생각하였다. 만주의 산야와 강하에는 실로 우리의 선열들과 전우들의 유해가 수없이 묻혀 있었다.



예술영화 -
시인 조기천

나는 전에 내각수상으로 사업할 때 교육성의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이런 여담을 들은 적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떤 교수의 집에 하루는 그의 전우가 찾아왔다. 두 전우는 반갑게 만나서 서로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 교수한테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손님을 그 아이하고도 인차 친숙해졌다.

손님의 무릎에 앉아 옷깃도 만지고 단추도 만지고 약장을 만지던 교수의 아들은 그 손님의 손을 만지다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피도 흐르지 않고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의수였던 것이다.

어린 것은 그 의수를 잡고 손님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손은 어찌다가 이렇게 됐나요?≫

≪전쟁판에서 미국놈들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

≪인민군대두 부상을 당하나요?≫

≪당하구 말구. 때로는 죽기도 하지.≫

교수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분해하였다. 인민군대가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손님의 말은 인민군대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어린것의 생각을 뒤집어놓았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그림책들과 아동영화들은 적이 죽는 것은 많이 그리고 인민군대가 죽는 것은 적게 그렸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인민군대나 항일유격대는 죽지도 않고 부상당하지도 않는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자들과 문필가들은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후대들에게 사실주의적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뇌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으며 항일대전의 승리라는 까마득한 영봉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다.

호소로써도 청원으로써도 테러로써도 통하지 않는 제국의 강적을 격파하는 싸움에서 어찌 희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죽음은 적아를 가리지 않으며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그 죽음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한 명의 죽음으로 열 명을 살리고 열 명의 죽음으로 백 명을 살리며 백 명의 죽음으로 천 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혁명군대의 죽음이다.

왕대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또다시 실신상태에 빠졌다. 온몸을 통째로 불사르는 것 같은 고열이 오고 이어 환각인 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담가를 들고 왕대흥과 함께 오가산령을 넘고 있

었다.

담가 위에는 차광수와 주보중이 팔베개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차광수나 왕대흥이 조금도 죽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뙤약볕이 내려쬐던 여름날 갈 길은 멀고 영은 높은데 우리는 갈증과 무더위로 헐떡거리고 있었다.

고개를 오를수록 갈증은 심해졌다. 나는 참대 못해 길가의 자그마한 물웅덩이로 뛰어가 무작정 고인물을 들이키려고 하였다. 그 순간 어디서인지 ≪아서라!≫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위에 소복단장을 한 어머니가 영주 동생과 함께 고갯마루턱에서 내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서라. 그 물은 독물이니 마시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웅덩이를 들여다본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포도송이 같은 올챙이알들이 물속에 와글와글한였던 것이다. 이 물을 어째서 독물이라고 하실까? 내 눈에는 그것이 꿀물이나 정화수처럼 보였다. 나는 웅덩이앞에 엎드려 물 마실 차비를 하였다. 그때 어머니의 두 번째 경고가 또 날아왔다.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

나는 그 경고에 놀라 소스라쳐 일어났다. 그리고는 고갯마루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동생도 종적을 감추고 없었다.

그것은 분명 꿈이었다. 그런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 꿈을 흔들어 놓았다.

≪성주형, 제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주시오. 성주형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빛을 보지 못해요.≫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누구인가 발구위에 상체를 숙이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길림시절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글도 써주고 시중도 들어둔 왈룡이라는 공청원이었다.

석양의 강렬한 낙조에 핏빛으로 타번지는 수림속의 설경이 천천히 발구뒤로 미끄러져가고 있었다. 저녁어스럼에 물든 차디찬 하늘이 머리 위에서 빙그르르 돌아갔다.

왈룡이는 ≪성주 형≫, ≪성주 형≫하고 눈물을 뚝뚝 떨구며 발구를 따라왔다.

그 다음은 오대성인지 누구인지 또 내 몸에 왈칵 매달리며 외쳤다.

≪대장동지가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합니다.≫

발구의 앞뒤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전우들이 나를 둘러싸고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울지 말라고 타이르고 싶었으나 기력이 없어서 입을 벌이지 못하였다. 아니 나 자신도 그 순간에는 울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혼미상태가 내 몸을 엄습하였다.

다음날 아침 고열에서 잠깐 해방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수림속 공지에 서 있는 발구와 그 주변에 쓰러져 있는 16명의 전우들을 보았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내처 싸움만 하였는데 저 동무들인들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를 살리느라고 고생인들 오죽했겠는가. 우리가 이

몇 해 동안 간도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왔지만 저 사나이들의 얼굴이 저렇게도 축간 적이 있으며 옷이며 신발이 저 지경까지 해진 적이 있었던가.

가슴이 답답하였다.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한데 끌날 같은 저 친구들이 기진해서 다 쓰러졌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들에게 과연 자리를 차고 다시 일어나 왕청으로 돌아갈 힘이 있겠는가. 저들이 저 눈보라속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파묻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살아남아서 무얼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항일의 깃발을 들고 만난을 극복하며 꾸준하게 싸워올 수 있은 것도 저 사람들이 시종일관 나를 지지하고 받들어온 덕이며 내가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덕이다.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수도 없고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내가 일어나야 저 눈속에 파묻힌 전우들도 구원하고 혁명도 하겠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나의 의식은 다시금 몽롱한 안개속에 휘감겨버렸다.

겁을 모르는 불새마냥 창창한 대공으로만 날아다니던 내 한생의 뜻이 여기서 그만 죽지를 꺾이우고 주저앉고 마는가 하는 좌절감으로 하여 가슴은 천만 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쳤다. 나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조선민족의 슬픔은 곧 일제의 기쁨으로 되고 조선민족의 절망은 곧 일제의 쾌락으로 된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일본의 부자들과 군국주의자들밖에 기뻐할 것이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만주 오지에서 우리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절망에 빠져 투항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역사와 시대앞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불효자이다. 한 가정이나 가문의 범위를 뛰어넘어 자기를 낳아 주고 길러준 인민앞에서 불효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효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겁게 내려감기는 눈시울을 눈가루로 문지르고 급하게 줄달음치는 사색을 침착하게 이어갔다.

만일 우리가 혁명군이 천교령의 빙설속에 그대로 매장되어 영영 자취를 감춘다면 우리 인민에게로 쏠리는 일제의 폭압은 대번에 10배, 100배로 강화될 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하고 있는 지금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고 우리 민족을 황민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을 쓰고 있는가.

일제는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후 경제봉쇄로 인한 손실을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로 메꾸려 하고 있다. 1920년대에 사이또총독에 의해 추진되었던 산미증식계획, 면화, 양잠의 증산정책이 조선농촌에서 계급분화를 촉진시키고 이농, 이향의 비극을 격증시켰다면 우가끼 총독시대 조선공업화정책, 산금장려정책, 남면북양정책은 우리 나라의 병약한 경제를 화약내 풍기는 전쟁경제의 유지를 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강철도 석탄도 면화도 면양도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한 제단에 깡그리 바쳐지고 있다.

조선의 말과 글은 비공식적인 방언의 지위에 떨어졌다. 진보적인 서적들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불세례를 받았다. 조국 땅에서 늘어나는 것은 연병장과 감옥뿐이다. 우리 애국자들의 피로 얼룩진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도 수용인원의 범람을 막

지 못해 증축 중이라고 한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일본의 대재벌과 군벌들, 그 번견들은 군국주의의 궤도를 따라 미친 듯이 질주한다. 중일전쟁의 폭발은 시간문제로만 남았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일본군벌들의 결심에 달려 있다. 독일과 일본의 파시스트들에 의하여 지구의 서쪽과 동쪽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을 배태한 검은 구름장들이 전속력으로 밀려온다.

반혁명이 이처럼 게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타승하려고 결심했던 우리가 어찌 한시인들 절망에 잠겨 오늘의 이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겠는가.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동만은 수많은 일거리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내 머리속에서는 문득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반일전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래를 낳은 시상이였다.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 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잿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일어나라 단결하라 노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 아래 백색테러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 높이 만세부르자

나는 발구 가까이에 쓰러져 있던 왈룡이를 흔들어 앉힌 다음 그에게 가사를 받아쓰게 하였다. 처음에는 나와 왈룡이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쓰러졌던 전우들이 하나둘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다.

우리는 아침 10시경에 시패린즈에 있는 어떤 목재소에 들렀다. 강낭죽이라도 먹고 땀을 내자는 것이였다.

그날 나의 체온은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치료방법이란 강낭죽이나 먹고 중국호주에다 홍탕을 타서 먹는 것이였다.

땀을 내야 차도가 보이겠는데 발구를 타고 장창 한지에서 떨며 지내다나니 병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각일각으로 악화되어가기만 하였다. 전우들은 혼수상태에서 고열과 싸우는 나를 지켜보며 이제는 원정대가 구출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누구도 우리가 이 위기에서 솟아나 왕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침통한 기분으로 중대장인 한흥권에게 만사를 일임하고 있었다.

한흥권은 목재소에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김노인에게 강낭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우리 일행은 옹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처음에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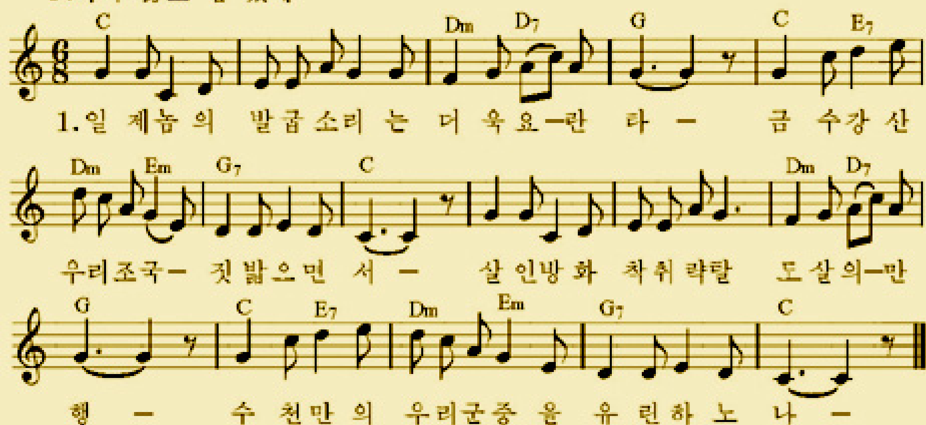
리 동무들은 이 노인을 중국노인을 보았다.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온 조선유격대라는 것을 알자 김노인은 자기를 조선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팔도하자에서 유격대 대장으로 활동하는 김해산이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였다.

김해산은 1931년의 겨울명월구회의 참가자의 한 사람이다. 김 노인은 아들을 유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 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3. 우렁차게 들려 오는 반일전소리
곳곳에서 일어 나는 민중의 고함
반일하는 수천만의 웨침소리는
놈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4. 《왕도락토》세우려는 놈들의 몽상
반역자는 발버둥치며 펄펄들 뛴다
대포 땅크 비행기로 미쳐 날뛰며
일기이기 《대토벌》을 진행하노나

5. 혁명세력 장성함을 보지 못하고
백색테로 겁에 질린 리기분자는
놈들의 포소리에 흔들리어서
혁명을 배신하고 투항을 한다

6. 일어 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 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 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격대에 보내고 여름이면 산에 가서 농사를 지어먹을 것을 벌고 겨울에는 목재소에 내려가 잡일을 하여 소금이나 기름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영감이었다.

일행이 목재소에 들어가서 노인과 인사를 나눈 지 얼마 안 되어 한흥권은 적 ≪토벌대≫가 목재소 근처에까지 접근해왔다는 정찰보고를 받았다.

그때 왈룡이는 뚜껑도 없는 양재기를 부엌 아궁이에 넣고 내가 먹을 물도 끓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내 발에서 벗겨낸 젖은 신발도 말렸다.

그는 대장의 병도 호전되지 않고 포위를 헤치고 나갈 가망도 없으니 이제는 일이 다 틀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길림에서 나를 따라 떠날 때에는 그도 맹세가 대단했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왈룡이가 한창 울고 있을 때 장작개비를 안고 부엌에 들어온 김노인이 그에게 왜 우는가고 물었다.

≪대장은 앓고… ≪토벌대≫는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 한시간 후이면 그놈들이 이 목재소에 들이닥치겠는데 빠질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 답답해서 웁니다. 빠지려면 강을 건너야겠는데 … 큰 강이고 얼지도 않았으니 물로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다리로 건너가야 살 길이 열리겠는데 거기엔 ≪토벌대≫들이 1개 중대나 있으니 이거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해산

김노인은 왈룡이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그에게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묘술을 하나 대주었다.

≪젊은이. 너무 상심 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 우리 주인놈이 만주국 앞잡이인데 얼마 후 여기로 올 수 있네. 그러니까 그 주인놈을 붙잡게. 그 놈을 잘 구슬려 ≪토벌대≫가 목재소로 오지 않게 연락만 하게 하면 당신네들은 저녁때까지 여기서 견딜 수 있네. 그 다음 수는 저녁이 된 다음 궁리해보자구.≫

왈룡이는 김노인이 한 말을 그대로 한흥권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한흥권이 일행을 대표하여 그 노인과 담화를 하게 되었고 그 담화를 통하여 최종적인 탈출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한흥권은 김노인의 처방대로 주인을 비끄러매고 생트집을 걸었다.

≪너 이놈, 누가 너더러 목재소를 경영하라고 허락했는가. 만주국이란건 우리가 승인도 안한 거야. 죄를 씻고 싶거든 우리 군대에다가 의연금을 단단히 내야겠다. 얼마나 내겠는가?≫

주인은 키가 천정에 닿을 만치 허우대가 크고 뚝뚝하게 생긴 한흥권의 외모와 엄포에 위압되어 처음부터 겁을 먹고 설설 기었다.

≪아, 뭐 당신네가 바라는 대로 냅지요.≫

한흥권은 군복이 얼마, 돼지가 얼마, 밀가루가 얼마하고 일부러 주인이 기절해 넘어질 만한 엄청난 수량을 부르고 나서 너 이걸 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나를 살려만 주면 당신네가 여기 있을 동안 ≪토벌대≫가 안 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오게 하겠는지 그 방법을 말해보라.≫

≪당신네 빨치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하면 되지요. 내가 ≪토벌대≫장교들과 가까운 사이니까 그들이 내 말은 신임합니다.≫

≪네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반일이다. 너도 죄를 씻고 반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우리를 협력하라.≫

≪요구대로 하겠으니 어서 나를 풀어만 놔주십시오.≫

그 중국인 목재상도 머리는 명석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물자가 아니라 신변안전에 있고 포위를 무사히 돌파해나가자는데 있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목재상이 대장이 누군가고 자꾸 묻자 한흥권은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장은 나다≫하고 대답하였다.

주인이 나를 가리키며 ≪저 분은 어떻게 앓습니까?≫하고 묻자 그는 몸이 좀 불편해서 누워 있다고 어름어름 넘겼다.

목재상은 약속을 잘 지켰다. 그가 연락을 해 놓은 덕에 ≪토벌대≫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목재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재소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식사도 하였다.

저녁상에는 돼지고기도 올랐다. 입맛을 잃은 나는 갈증을 덜려고 강낭죽물만 조금 먹었다.

저녁식사가 끝난 다음 김 노인은 탈출계획의 제2부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대단한 명안이었다.

이제는 다리를 무사히 통과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든지 당신네들이 전술을 잘 짜야 한다. 우선 얼렁뚱땅해서 경비초소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목재소 주인을 앞세워가지고 다리까지 가서 그 놈의 힘을 빌어 경비병들을 속여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놈들이 접근해서 검색을 하면 날쌔게 답새기고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건너만 가면 김사령을 업고 산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리목에서 20리쯤 내려가면 깊은 골 안이 있고 그 골 안에 자그마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막바지에 조선사람의 집 세 호가 있다. 일본놈들 꼴이 보기 싫다고 비밀리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만주국에 호적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면 **김**사령의 병치료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흥권이 이 계획에 동의해나서자 김노인은 흐뭇해하면서 이런 안을 덧붙였다.

다리를 건늘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소대장이 응전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내 안내를 따라서 움직여달라. 중대장은 키가 크고 힘도 세니 **김**사령을 업고 내 뒤만 따라오라. 다리만 건너가면 그쪽 산발은 내가 다꿰들고 있으니 놈들이 암만 따라와도 문제가 없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면 나하고 주인을 영안현시가지 근방까지 데리고 가달라. 거기 가서는 나를 좀 때려달라. 주인도 움쩍 못하게 위협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은 중대장과 같이 김사령을 모시고 골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한흥권은 그 말까지 듣고 나서 나에게 노인이 내놓은 안을 소개하였다. 듣고 보니 아주 이상적인 안이었다.

노인이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병장도 할 수 있는 대담한 작전가였다. 빨치산 대장의 아버지가 다르기는 달랐다. 노인이 짜준 탈출안은 사실 어지간한 지휘관들도 궁리해내기 어려운 묘안이었다. 그때도 절실하게 체험한 바이지만 우리 인민의 두뇌는 세상의 그 어떤 난사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의 샘이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는 나의 신조는 이런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항일혁명의 말없는 증견자 노야령

나는 한흥권에게 당신한테 모든 것을 맡기니 아무렇게나 하라, 나야 앓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방책이 없지 않는가고 하였다.

밤이 되자 한흥권은 목재소주인을 내세워 다섯 채의 말파리를 준비하였다. 그 목재소에는 말이 많았다. 싸움을 잘하는 김택근소대장이 주인과 같이 앞 말파리에 타고 나는 세 번째 말파리를 차지하였다.

다리를 지키고 있던 일만혼성군 보초들은 우리 일행을 보자 어둠속에서 ≪누구야?≫하고 물었다.

목재상은 우리가 짜준 각본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도 가고 영안시내에 뭘 좀 사러 가는 길이라고 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목재상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보초병들은 말파리 곁에 다가오지도 않고 ≪가라.≫하고 소리쳤다.

다섯 채의 말파리는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말파리밑에서 흔들거리는 나무다리의 진동이 개가죽을 거쳐 내 몸에까지 미쳐왔다. 다리 밑으로는 사나운 강물이 사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강은 목단강으로 흘러드는 큰 원류였다.

≪이제는 됐네! 그러면 그렇겠지.≫

말파리들이 다리를 다 건너서자 김노인은 흡족해서 한흥권을 끌어안았다.

전설이나 정탐소설 같은 이 모험극은 이처럼 통쾌하게 막을 내렸다. 일행은 그 다음 공정들도 계획대로 무난히 치뤘다.

김노인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사경에서 구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원정대는 나와 함께 천교령 오지에서 괴멸되었을 것이다. 그 노인이 사실 큰 은인이였다. 빨치산대장의 아버지답게 우리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훌륭한 분이였다.

생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내앞에는 이상하게도 매번 김노인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나를 사지에서 구출해주곤 하였다. 교하에서 이름모를 아주머니가 나를 체포의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마노인이 나자구등판에서 기한에 떨던 나와 나의 동무들에게 안식의 선물을 마련해준 것처럼 천교령에서는 생면부지의 김노인이 절명 직전의 원정대와 그 지휘관인 나를 천길 나락에서 건져주지 않았던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개중에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애국자들을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는 것은 우연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구태여 어느 것이 옳다거나 어느 것이 그르다고 시비를 가를 생각은 없다. 내 일생에서 은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다면 그 우연은 분명 내 편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을 위해 한 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연조차도 선심을 베푸는 법이다.

우리 유격대가 인간해방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무력이라는 것을 인민이 몰랐더라면 그리고 그 유격대의 영상이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인민들의 망막속에 깊이 심어지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때 천교령에서 김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에 천교령의 전설과 같은 신비로운 전설도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6. 인민의 품


조택주노인

3중으로 된 적의 보초소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우리가 그 운명적인 밤에 선택한 숙영지는 웃섶미가 없고 벽체만 남아 있는 다왜즈골 안의 불탄 집터자리였다. 그 집터자리에서 전우들은 하룻밤과 옹근 하루 낮을 내 간병을 위해 바쳤다. 간병이라고 해야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모닥불을 피우고 여럿이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아 순번을 정해놓고 엇바꿔가며 나의 손발을 주물러주는 것이였다.

16명 중 일부는 만주국에 호적등록을 하지 않고 산다는 조선사람들의 집을 찾으려고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종일 산발을 헤매였다. 그러나 일본 군경들과 만주국 관헌들의 눈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은 한밤중에야 잣나무, 봊나무, 분비나무들이 울창한 노야령 산중턱의 태고연한 수림속에서 귀틀집을 한 채 발견하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속에 다왜즈의 외딴 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조택주노인네 집이였다. 회상실기 ≪부디 만년장수하시라!≫를 쓴 최일화어머니는 조택주노인의 맏며느리이다.

산중턱 밀림속에는 자그마한 물도랑을 사이에 두고 크기와 외형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단칸 귀틀집이 두 채 있었다. 돌아 북쪽 산자락 밑의 귀틀집에서는 조노인 부처가 맏아들 조욱 내외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아홉 식구가 살고 있었으며 도랑 남쪽 귀틀집에서는 조노인의 둘째아들 조경이네 다섯 식구가 거처하고 있었다. 추녀가 너무 낮아서 귀틀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땅굴막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직한 집들이였다. 두 집 지붕에는 흙을 두툼하게 씌우고 잔솔나무들을 여러 그루 심었는데 이것은 집의 존재 자체 비밀에 붙여두려는 일종의 위장술이였다. 우리 정찰조가 제때에 집을 찾아내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한 것은 위장 때문이였다.

노야령을 오가는 길손들은 다왜즈의 이름모를 산중턱에 자기네가 살고 있다는 자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특이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두 집의 주소를 아는 것은 다만 동만과 북만 사이를 오가면서 연락임무를 수행한 세사람뿐이라고 한다.

우리 정찰조성원들이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자 조택주노인은 아들 조욱과 손자

조영선의 등을 떠밀며 **김일성**대장님께서 병환에 계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분께서 촉한 때문에 고생하시다니 될 말이냐. 어서 가서 유격대원들을 모셔오라고 불같은 영을 내렸다. 며느리 최일화더러는 물도 끓이고 미음도 쑤라고 하였다.

조택주노인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는 지름길로 20리가 넘었다. 조욱과 조영선이 정찰조 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숙영지에 당도하였을 때 원정대원들을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혼수상태에 빠진 나를 위해 밥통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나를 업고 조택주노인네 집으로 향하였다. 왈룡이는 후위에서 솔가지로 발자국을 메꾸었다. 소시적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는 조택주노인은 한흥권중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김**대장의 병은 과로와 영양실조, 지나친 냉으로부터 생긴 촉한이라는 중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과 그러나 몸을 덥게 하고 땀은 많이 내면 사흘 안팎에 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데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장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으로 계시는 것은 몸에 혈맥이 잘 통하지 않는데 까닭이 있소다. 혈맥만 잘 통하면 알 도리가 있으니 걱정들 말구 우리 둘째네 집에 가서 푹 쉬오다.≫

노인이 며느리와 함께 내 손발과 팔다리를 주무르며 한흥권중대장을 향해 한 말이었다. 며칠 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가운데 두고 우거지상이 되어 낮아 있던 원정대원들은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얻었다.

원정대원들은 노인의 말대로 조영선을 앞세우고 도랑 건너편에 있는 조경이네 집으로 갔다. 내 곁에는 조택주 일가 사람들과 호위병 두 명만 남았다.

조택주노인은 끓는 물에 꿀을 반사발 가량 타서 나에게 주고 머리맡에 낮아 이마에 손을 대보면서 이따금씩 내 병세를 가늠해보았다. 조금 후에는 꿀물을 탄 미음을 권하였다. 그날 밤 노인과 함께 병시중을 들던 호위병들의 말에 의하면 내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미음을 먹은 다음이며 그때부터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화창한 봄대기마냥 머리 속이 쩡 열리고 몸과 마음은 솜털같이 위로, 위로만 가볍게 떠가는 듯 싶었다. 내 주위에는 개가죽을 깐 발구도 민망스러운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던 수림 속의 설경도 눈보라도 추위도 귓전을 때리던 추격의 총소리도 없었다. 머리를 아프게 탕치던 동통과 오한, 고열은 더더구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를 사지판에 밀어넣고 오만가지 행악을 다하던 병이 이렇게도 깨끗이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붕하는 문풍지소리는 뒤틀라즈를 떠나던 날 노야령 산정에서 맞다들었던 쌍엽비행기의 발동기소리 같기도 하였다. 내 눈은 희슥희슥한 장미밑에서 부드럽게 나를 굽어보는 낯설은 늙은이의 눈과 마주쳤다. 나의 바른편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있는 장악발인 노인의 손에서는 유년 시절의 내이마와 볼에 곧잘 와닿던 만경대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딥니까?≫

나는 나를 굽어보고 있는 수수께끼같은 노인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그 한마디의 물음은 노인의 얼굴에서 말이나 글로써는 다 그려낼 수 없는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늙은이의 입가에 엇비스듬히 비껴 있는 웃음기는 순식간에 볼과 눈가에로 퍼져가 땅과 같이 유순하고 땅과 같이 순박한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일생에서 그처럼 순결하고 미더운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하였다.

노인의 옆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던 왈룡이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원정대원들이 사선을 헤치고 시패린즈의 목재소로부터 이곳 다왜즈의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의 전말을 단숨에 설명해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댁의 덕분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니오다. **김**대장은 하늘이 낸 장수이니 이 귀틀집에 와서 소생한 건 우리 집 덕이 아니라 천명이오다.≫

조택주노인은 그 순간 내 명이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지기나 한 것처럼 머리를 쳐들고 천장 쪽을 쳐다보았다. 노인의 그 말은 내 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하였다.

≪할아버지.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나를 하늘이 낸 장수에 비기는 건 너무 과분한 평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장수가 아니라 이름없는 농사군의 집에서 태어난 인민의 아들이고 손자입니다. 조선의 군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습니다.≫

≪그건 안될 소리오다. **김**대장이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는가 하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소다. 내 비록 이름모를 산골짜기에 와서 부대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몸이지만 동북 3성에서 돌아가는 풍문은 다 듣고 있소다. 애들아. 이 분이 바로 재작년 가을에 조선군대를 거느리고 오사령네 부대하구 같이 동녕현성을 쳤다는 그 유명한 **김**대장이시다. 날래 절들을 하거라.≫

노인은 내가 소생했다는 왈룡의 전갈을 받고 새벽잠자리에서 뛰쳐일어난 유격대원들과 함께 부엌문으로 쓸어들어오는 자손들을 보고 열뜬 목소리로 분부했다.

나는 이불밑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관청의 호적등본에도 오르지 않고 우체부들도 다니지 않는 심산의 귀틀집에서는 때 아닌 웃음소리가 간단없이 울렸다.

≪지금은 이렇게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적의 사면포위속에서 고생할 때는 참말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김택근소대장이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 때문에 동무들이 많은 고생을 했소. 동무들이나마 죽지 않고 남았으니 그것도 천행이오. 내 백발이 될 때까지 동무들의 은공을 잊지 않겠소.≫

나는 그때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전우들의 모습을 깊이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 얼굴들은 나의 기억속에서 50여년 전 그날처럼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름만은 절반 이상 잊어버렸다. 이름 석자만이라고 후세에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녹슨 기억력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

그 16명의 이름 위에는 반세기 이상을 헤아리는 지난날의 노정에서 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러저러하게 인연을 맺은 수천수만의 이름들이 갈래를 찾아낼 수 없게 덧놓였다.

우리 항일혁명사의 심부에 묻혀있는 그 개개의 이름들을 일일이 채취해내자면 역사기록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다. 우리는 그 무슨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항일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될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운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실만으로써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자기를 사지에서 구원해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의 이름을 반수이상이나 망각한 지난날의 빨치산 대장이 아닌가.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인데 이런 막바지까지 쫓겨오셨습니까?≫

나는 핏줄이 시퍼렇게 두드러져오른 조택주노인의 갈퀴 같은 손등에 손을 얹고 옹근 반세기의 정치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노인의 주글주글한 얼굴을 연민의 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내 고향이야 무산군 삼장면입지요. 일본놈들 등쌀에 견딜 수 없어 29살 때 고향 땅을 떠나 화룡땅으로 건너왔소다.≫

조노인의 씁쓸한 대답이었다. 두만강을 건너온 그 해부터 노인은 근 30년동안 꼬박 소작농사를 하였다. 6.10만세사건이 있었다는 다음 다음 해에 노인의 일가는 노야령을 넘어와 일본 도전공사에서 등록해놓은 묵밭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는 조선의 망국사와 더불어 영락된 한 농가의 기구한 수난의 역사가 영화화면처럼 방불하게 펼쳐졌다. 노야령을 넘어온 조택주노인이 처음으로 울짱을 박고 주춧돌을 다듬어세운 마을은 조선사람의 집 세집, 중국사람의 집 다섯 집이 사는 다왜즈라는 동네였다. 그 후 조선사람의 집은 열 집으로 늘어나 이 한적한 벽촌에도 반일자위대, 부녀회, 소년선봉대, 아동단과 같은 조직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9.18사변의 여파는 이 모든 조직들을 한꺼번에 형체도 없이 쓸어버렸다. 토벌에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불타버린 집터자리에 다시 새 집을 짓고 줄기차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1933년 봄에 두 번째 참화가 다왜즈를 휩쓸었다. 집들은 또 다시 화염속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불속에서 재가되었다.

1934년 봄에 조택주일가는 다왜즈에서 30리 가량 떨어진 노야령의 깊은 산중에 귀틀집을 짓고 그리고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꿀물에 탄 좁쌀미음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그 집이었다. 조노인네 아홉식구는 집에서 20리나 되는 골 어귀에 내려가 자그마한 농막을 짓고 부대를 일구었다.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에는 시간을 아끼느라고 온 식구가 그 농막에서 침식을 하였다. 곡식이 익는 차제로 잽싸게 거들어들였다가는 등짐을 져서 산막까지 날라다가 땅굴을 묻어두고 발방아를 찧어 야금야금 먹었다.

소박하고 원시적인 자급자족의 경제였지만 조택주노인은 거기에 만족하였다. 노인네가 쌀짐을 지고 영안시가로 가는 것은 단지 교환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천, 신발, 성냥, 소금, 바느실 따위의 물건들을 구하자면 시장거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밖에는 외계와의 연계가 없었다.

도시문명은 행길도 없고 마차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 외로운 막바지에 감히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였다. 아이들은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조노인의 훈계가 교육을 대신하였고 최일화어머니의 옛말과 열 손가락에도 채 차지 않는 노랫가락이 문학예술을 대신하였다.

≪할아버지, 인적도 없는 이 외진 산중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울분에 가까운 격렬한 감정을 체험하면서 노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조노인은 그 말을 듣지 씁쓸하게 웃었다.

≪적적하다는 거야 더 이를 데가 없지요. 그렇지만 왜놈들 꼬락서니를 보지 않고 사니 살만 푹푹 찌는 것 같소다. 율도국이면 예보다 더 좋겠소다?≫

그 율도국이라는 말에 내 가슴은 아프게 조여들었다.

이 궁벽한 막바지를 어떻게 율도국에 비길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조선민족의 이상이 고작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단 말인가. 일본은 이민을 보내 조선의 기름진 땅을 가로타고 앉는데 우리 동포들은 황량한 만주 땅에 와서까지 이런 쥐구멍같이 답답한 산골짜기에서 살아야 하니 세상에 감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는 감옥이었다. 보통감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수가 없고 울타리가 없는 것뿐이었다. 이 감옥을 지키는 최대의 간수는 일본과 만주국의 군경들이었으며 울타리는 그 군경들로부터 오는 위험이었다. 조노인이 이 감옥을 율도국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자기 위안이었다.

자기를 속박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낙원으로 감수하는 노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저으기 나를 실망케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저마다 조노인 식으로 현실을 감수한다면 조선은 영원히 소생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 여기를 율도국이라고까지 생각할 지경이 되였으니 조선사람의 신세가 참으로 가긍합니다. 정배살이 고장으로 이름난 삼수갑산도 아마 여기보다는 더 적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놈들이 조선과 만주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율도국도 태평성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인가는 이 산골에도 토벌대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노인이 내 말을 듣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심을 툭 터놓고 말했다.

조노인은 눈썹을 씰룩거리며 한참동안 절망에 지쳐버린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악귀같은 놈팽이들이 이 산골에까지 달려든다면 이 세상에는 조선사람이 살 만한 땅이 없지요. 빌어먹을 것. 어느 놈들이 백성의 신세를 이 꼴로 만들어놓았는지. 나는 새 고장에 이사를 갈 적마다 매국 5대신을 욕하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와 조택주노인 사이에 오간 담화는 대체로 이런 것이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병상에서 일어나 산보도 하고 독서도 하였다. 며칠 후부터는 가벼운 손노동도 하였다. 낮에는 군사정치상학을 집행하고 밤에는 대원들과 함께 오락회를 하였다. 오락회가 벌어질 때마다 조택주노인의 집에 거처를 정한 2-3명의 대원들은 나와 함께 물도랑 건너 편에 있는 조경의 집으로 몰려갔다. 이 비좁고 침침한 피난민들의 산막에서도 유격대의 일과는 왕청에 있을 때처럼 어김없이 집행되었다.

사흘인가 나흘이 지났을 때 나는 대오에 출발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다. 14식구나 되는 대가정에 그보다 더 많은 장정들이 얹혀서 화전농의 빈약한 쌀독을 축내며 더부살이를 하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즉석에서 한흥권중대장의 저항을 받았다. 그는 촉한을 앓고 난 후 몸을 차게 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자기는 그런 모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사코 나를 막아나섰다. 지어 그는 내가 수림속에서 산보를 하는 것까지도 반대하였다. 20명 가까운 장정이 하루 세끼씩 먹는 식량은 사실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였다. 지금 식량공급소에서 성인들에게 주는 정량을 가지고 계산하여도 20일이면 4가마니의 쌀을 먹는 것으로 된다. 하여튼 그 집에 식량은 우리가 거의 다 털어먹었다.

그러나 조택주노인은 우리가 끼치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나라 군대를 잘 섬기는 것은 백성의 응당한 도리이고 직분인데 폐는 무슨 폐인가고 하면서 입도 벌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노인이 참말 대범한 늙은이였다.

최일화어머니도 마음시가 무던히 고운 여자였다. 화전농사여서 흰쌀을 없었지만 조, 콩, 보리, 귀밀, 감자와 같은 잡곡으로 하루 세 끼씩 우리 구미에 맞게 밥을 맛있게 해주었다.

때로는 비지도 해주고 밥상에 막두부장도 놓아주었다.

최일화어머니는 병으로 쇠약해진 나에게 고기를 먹이지 못하는데 대하여 못내 가슴 아파하였다.

≪거처가 드러난다구 집짐승을 한 마리두 치지 않았더니 요새는 얼매나 아쉬운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닭 같은 게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얼른 튀를 해서 장군님께 대접하는 건데 100리 밖에 나가서라두 고깃점을 사다가 대접할 생각은 간절하지만 토벌대 미치광이들에게 혼쌀이 날까봐 가지 못합니다. 에구, 세상두 ≫

어머니의 텁텁하고 거칠거칠한 말투에서 풍기는 인정미는 유난히 따뜻하고 웅숭깊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내가 송구스럽습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푸성귀와 시래기국을 먹으면서 자라난 평백성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이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서슬이 없어 두부를 못하고 막두부장만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막두부장과 비지 덕에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평안도남정네들은 성미가 왈가닥뎅가당 하다더니만 대장님은 마음씨가 비단같습니다. 집에 딸자식이래도 하나 있으며 평안도에 시집을 보낼 생각이 다 납니다. 그저 찬새가 없는 밥이지만 푹푹 많이 들고 이집 지붕밑에서 병을 뚝 떼십시오.≫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최일화어머니는 부뚜막앞에 쭈그리고 앉아 가슴을 조이곤 하였다. 밥을 다 들지 않고 중도에서 수저를 놓으면 어쩌나 해서였다.

나는 입맛이 없을 때에도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개다리소반의 밥과 찬을 억지로 다 들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최일화어머니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기가 내비치곤 하였다.

인민이 우리에게 바치는 정이란 참말로 깨끗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만일 그 정을 강물이나 시냇물에 비길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청류≫나 ≪옥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 정은 길이로써도 잴 수 없고 무게로써도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한 것이다.

인민의 사랑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이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인생의 첫째가는 진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진미를 아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고 충복이 될 수 있다.

조택주일가의 꾸준한 지성으로 내 건강을 빨리 회복되었다. 나는 한흥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책을 자주하였다. 어떤 날은 이 집 식구들을 도와 나무도 패주고 발방아도 찧어주었다. 우리가 다왜즈 골 안에 들어와 조노인일가의 지성어린 간호를 받은 때로부터 어언 10여일이라는 시일이 지나갔다. 나는 유격구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왕청을 떠난 것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달수로 따지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유격구에서 무슨 사변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원정대가 왕청으로 돌아갈 때는 유격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겠는지 나로서는 그것이 몹시 궁금하였다. 장래를 생각하면 어쩐지 미심쩍은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팔도하자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동만에서 온 통신원들은 숙반공작 바람에 간도지방 민심이 매우 소연해졌다고 여러 번 암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반민생단 몽둥이에 혁명진지가 다 녹아난다고 푸념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숙청사업이 좀더 본격화되면 유격근거지가 한두해 안팎에 거덜날 것 같다고 하였다.

유격구에 돌아가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으로 하여 빚어진 후과를 하루빨리 수습해야겠다는 결심은 내 마음속에서 나날이 굳어져갔다.

어느 날 수림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던 나는 한흥권중대장에게 그 결심을 알리려고 조경이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중대장은 조경이네 집 근처에 있는 나무등걸

위에 앉아 북녘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앞가슴에 두 팔을 엇가로 모아붙이고 목조품과 같이 뚝뚝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체취에서는 누구도 감히 범접해서는 안될 그 어떤 강렬하고도 애달픈 감회가 느껴졌다. 내가 가까이에 다가가자 한흥권은 급히 눈굽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중대장의 눈언저리가 불그레해진 것을 보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다. 밤 사이에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나 아닐까. 아니면 저 억대우 같은 사나이에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할 그 어떤 고뇌라고 있는 게 아닐까.

≪중대장, 한흥권이답지 않게 아침부터 웬일이오?≫


한흥권

나는 한흥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흥권은 웬일인지 나를 침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중대장은 물기어린 눈을 슴벅이고 나서 한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뜨직뜨직 말했다.

≪수십 명이나 북만에 갔다가 16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으니. 그게 어떻게 꾸린 중댑니까!≫

나는 그와 함께 5중대를 꾸리던 나날들을 뜨겁게 회고하였다. 5중대는 십리평에 주둔하고 있던 왕청 2중대에서 갈라져나온 신설 중대였다.

나는 2중대의 일부 대원들을 데리고 나자구지방에 가서 새로운 청년들로 대오를 확대하였는데 이런 공정을 거쳐 꾸려진 것이 바로 한흥권이 지휘하는 5중대였다.

왕청 5중대는 나의 친솔중대이기도 하였다. 나는 대대와 연대를 지휘하던 나날에도 항상 이 5중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적구교란작전을 진행하였다. 왕청 5중대는 동만의 모든 유격부대들 가운데서도 전투력이 제일 강하고 전투경험이 가장 풍부한 정예부대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중대가 적지 않은 희생을 내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유격구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한흥권이 머리를 움켜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5중대가 당한 손실을 생각하면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오. 하지만 나는 북만 동무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였다는데서 큰 위안을 받고 있소. 하기야 소득도 컸지. 흥권 동무, 피는 헛되지 않는 법이오. 이제 다시 대오를 늘리고 전우들이 흘린 피값을 천백 배로 받아냅시다!≫

내가 한흥권에게 한 이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한흥권은 입술을 꾹 다물고 북쪽 하늘을 그냥 고집스럽게 바라보았다.

한두 마디의 위로로 아물릴 상처가 아니었다. 깊이와 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사나이들의 비애인 것 같다. 한흥권의 침묵은 나를 실망케 하거나 노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배가해주었다.

며칠 후 나는 조택주노인의 만류를 무릅쓰고 대오에 출발명령을 내렸다. 노인에게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귀틀집앞에 정렬해 선 일행의 표정은 자못 근엄하였다.

≪할아버지, 나는 업혀서 이 댁에 왔다가 두 발로 걸어서 유격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댁이 아니었더라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 언제든지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노인 일가에 대한 고마움을 그보다 더 절절한 말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격정의 크기와 언어의 무력은 서로 정비례하는지도 모르겠다.

조노인은 내 말을 매우 송구스럽게 받아들였다.

≪고기 한 점도 대접해드리지 못한 백성인데 칭찬이 너무 과하오다. **김**대장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한스럽소다. 그렇지만 조선을 위해서 빨리 가야 할 걸음이니 굳이 막지는 않게소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두 이 산골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장만 믿소다.≫

≪살 길을 찾아온 이국 땅에서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니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제 햇빛을 보면서 살게 될 날은 꼭 옵니다. 봄이 되면 놈들의 ≪토벌≫이 심해지고 이 골안에서도 총소리가 잦아지겠는데 고생스럽겠지만 나자구 쪽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혁명바람이 센 곳이니 여기보다는 거기가 안전합니다.≫

나는 이런 부탁을 남기고 다왜즈의 골안을 떠났다.

최일화어머니는 그때 우리의 배낭속에 밤새워 조와 보리를 찧고 쓿어서 마련한 3일분의 길양식을 넣어주었고 봇나무 껍질에 고추장과 줴기밥을 사서 도중식사까지 갖추어주었다. 어머니의 맏아들 조영선은 노야령 눈무지를 헤치며 우리를 팔인구까지 안내해주었다.

그 후 조노인의 집 근처에서는 ≪토벌대≫의 총소리가 자주 울렸다. 우리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밤중에 식량과 헌옷가지들을 대충 싸가지고 다왜즈를 떠난 조노인 일가는 태평구로 이사하여 거기서 소작살이를 시작하였다. 나는 그 해(1935년) 6월 태평구에서 이 일가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았다. 노흑산에서 악질적인 정안군 부대를 괴멸시킨 동만의 원정부대는 그 때 태평구 건너 편 마을인 신툰자에 머물러 있으면서 맹렬한 군중공작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는 태평구 마을에도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왜즈골 안에서 조노인일가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우연히 조택주노인을 만나보고 나에게 그 사연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날로 조택주노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반년 전에는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업혀서 노인의 집에 갔던 나였다. 내 곁에는 북만의 광야에서 지칠대로 지친 16명의 대원들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16명이 아니라 대부대를 거느리고 원기왕성한 몸으로 노인을 찾아갔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람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살뜰히 돌봐준 생명의 은인들, 그런 은인들한테로 가는 걸음치고는 우리의 행장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홀가분하였다. 내 수중에는 몇 근의 고기와 한 두달동안의 농량을 보탤만한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다. 그 몇 근의 고기가 몇 십마리의 가축이 되고 그 몇 푼의 돈이 한 달구지의 금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하겠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덕을 덕으로 풍족하게 갚지 못할 때의 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가슴을 쭉 펴고 활기있게 걸음을 재촉하였다. 보따리는 빈약해도 우리는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행운을 지니지 않았는가. 나도 무사하고 조노인 일가도 죄다 건재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인가.

가난의 자취가 역력한 초라한 사랑방, 그 사랑방에서 헌누더기를 걸치고 비비닥거리는 여라문 명의 대식구, 궁상은 극에 이르렀건만 나를 맞이하는 이 일가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떨기떨기 피어났다. 나는 토방돌 위에 걸터앉아 노인과 함께 회포를 나누었다. 노인의 호기심은 정안군을 요정낸 혁명군의 전과에 쏠렸고 나의 관심은 조노인 일가의 경제적 궁핍에 쏠렸다.

≪할아버지, 소도 없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땔나무는 어떻게 해옵니까?≫

이것은 내가 다왜즈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걱정하던 문제였다.

≪인력으로 해내오다. 14명 모두가 소가 되고 말이 되어 가대기도 끌구 나뭇짐도 집지요.≫

60평생 등에 짊어지고 다닌 가난을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예사롭게 말하는 조노

인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대범해보였다.

≪이 많은 식구를 먹여살리느라고 고생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고생이야 막심합지요. 그렇지만 땅을 뚜지는 고생이 아무리 큰들 김장군이 겪는 간난신고보아야 더 크겠습니까. 요새는 못 먹구 못 살아두 어깨가 으쓱해서 다닙니다.≫

≪무슨 경사라도 생겼습니까?≫

≪**김**장군군대가 왜놈들을 연거푸 답새기니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럽지요. 혁명군이 자꾸 이긴다는 소문에 배고픔 같은 것쯤은 꿈만해지오다. 다왜즈에서 **김**장군을 바래줄 때만 해두 난 눈앞에 캄캄했소다. 우리 집 식구만큼밖에 안되는 군대를 가지구 무슨 일을 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어제 노흑산에서 개선하는 것을 보니 **김**장군의 군사가 몇 백명이 되더란 말이오다. 그래서 난속으로 ≪이제는 됐다. 조선이 이겼다!≫고 무릎을 쳤소다≫

다왜즈에서 살 때만 해도 민생문제를 많이 논하던 조노인이 그날은 놀랍게도 혁명군의 전과와 관련된 한 가지 화제에만 관심을 표시하였다.

세월은 그를 반년 사이에 딴사람처럼 변모시켰다. 그는 세상을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선 무기력하고 무저항적인 은둔자로부터 자기가 결별하고 떠나간 생활의 한복판에 다시 돌아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낙천가로 변하였다.

(군대가 싸움을 잘하면 인민의 배짱이 커지는구나!)

이것은 그날 조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아안았던 충격이었다.

나는 노인의 집을 떠날 때 살림에 보태쓸 수 있는 용돈을 얼마간 남기고 다음날에는 대원들을 파견하여 노흑산전투에서 노획한 백마 한 필을 보내주었다. 좀 여윈 말이기는 하지만 살을 잘 찌워서 역축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었다. 조노인일가가 나에게 바친 정성에 비기면 너무나도 빈약한 보상이었다. 돈이나 재물 같은 것만으로는 이 일가에 진 빚을 후히 갚을 수 없었다.

파란많은 운명의 숨바꼭질은 그 후 나와 조택주일가를 연결시켜주고 있던 혈연의 실마리를 끊어놓았다. 그 당시의 나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백두산지구였다.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로는 태평구마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내가 조노인의 일가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은 1959년 가을이었다. 중국동북지방에 파견되었던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답사단이 영안 땅에서 최일화어머니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나에게로 날아왔다.

수십 년동안 행처를 몰라 안타깝게 수소문하던 은인 중의 은인들이 비록 지구의 다른 지경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서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당장이라도 영안 땅에 뛰어가 은인들에게 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선열들의 꿈이 꽃피고 있는 조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세월의 이끼에 뒤덮인 지난날의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며 쌓이고 쌓였던 그리움을 한껏 터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와 그 일가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복잡한 절차와 수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봉! 하지만 이런 장애도 그 상봉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리는 나의 열정에 찬바람을 끼얹지는 못하였다. 나는 단 몇 달동안만이라도 보통여권을 가진 평민이 되어 빨치산 시절처럼 지하족을 신고 행전을 치고 배낭을 메고 줴기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무릎을 치는 강하도 건너면서 초목에 묻힌 지난날의 격전장도 돌아보고 전우들의 무덤에 잔디도 떠옮기고 나를 목숨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준 은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싶었다.

평민생활에 대한 동경과 향수는 어떤 정객에게나 다 있는 모양이다.

국가관리를 책임진 수반이 평민생활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조금도

없다.

해방 후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쏘련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만주와 쏘련의 중앙아시아지방에는 내가 만나보아야 할 전우들과 은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수반이라는 공식적 직무는 매번 나로 하여금 방문일정에 사사로운 것을 포함시킬 수 없게 하였다. 나의 온 신경을 항일, 항미의 두 대전에서 파괴되고 영락된 조국을 재건하는데로만 쏠렸다.

내가 만일 보통공민의 자격으로 쏘련이나 중국을 방문하였더라면 항일전쟁시기의 연고자들을 그닥 어렵지 않게 만나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씩 평민생활을 동경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나라를 영도하는 국가수반이 일상생활에서 구속을 느낀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릴 것이다. 내가 어느 지방에 현지지도를 가려고 하면 어떤 일군들은 ≪수령님, 그 지방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내가 아무아무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겠다고 하면 ≪수령님, 그쪽은 진펄이니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나를 위한 걱정이고 염려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정한 구속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택주노인의 며느리 최일화

이듬해 최일화어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조택주노인의 화룡행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일가의 지긋지긋한 방랑생활이 마침내 60풍상의 피어린 곡절을 거쳐 그 후손들의 평양행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독립된 조국, 자유의 조국, 폐허속에서 자립의 깃발을 들고 우람하게 일떠서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조씨일가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최일화어머니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세계가 명명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역사적인 격동기였다. 이 격동적인 흐름을 타고 조씨일가 사람들도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 당시 최일화어머니의 연세는 67살이였다. 다왜즈골 안의 음달에 쌓여있던 장설이 그대로 얹혀졌는가. 어머니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한 백설로 덮여 있었다. 양세봉의 부인처럼 그도 처음에는 내 손을 붙잡고 울기만 하였다.

≪어머니, 이 기쁜 날 왜 우십니까.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을 훔쳐드리려고 손수건을 꺼내자, 최일화어머니는 눈언저리에 옷고름을 가져다댔다.

≪수상님께서 촉한 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내 고생이야 고생이랄 게 있습니까. 진짜 고생이야 어머니하고 조택주할아버지가 했지요.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조국이 해방된 다음 만주에 사람들을 보내서 일가분들을 그냥 찾았습니다. 우리가 태평구에서 헤어진 게 아무 1935년 여름이었지요? 토벌이 심해서 영안으로 가셨다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마를 가지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그것으로 명줄을 이었습지요. 수상님께서 주신 그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다 굶어죽을 뻔 했습니다.≫

≪백마가 은을 냈다니 나도 기쁩니다. 조택주 할아버지가 195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내내 수상님 말만 했습니다. 미국 비행기들을 평양을 폭격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면 ≪**김일성**장군님께서 무고하셔야겠는

데≫, ≪장군님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하면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조택주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건강을 축원했다는 최일화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인민의 정이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에게 바치는 인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내일로 승화되며 그 어떤 역경이나 환난속에서도 퇴색하지 않고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영원한 것이였다.

≪7년만 더 살아계셨으면 조국에 오시는 건데 조택주할아버지가 정말 애석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다왜즈의 그 귀틀집을 생각하곤 합니다. 거기에 더러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산골에 다시 가서 살 것 같지 못합니다.≫

≪그 산골에야 왜 다시 가겠습니까. 일평생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자식들덕도 보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지요. 내가 어머니의 집을 잡아주겠습니다.≫

1961년 4월 15일 나의 생일 49돐을 축하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최일화어머니는 나에게 만년필 한 대를 선물하였다. 그때 그는 몹시 수줍어하면서 자기가 마련한 기념품에 이런 주석을 달았다.



조택주노인에게 노흑산전투에서 노획하여 보내주었던 한필의 말은 1961년 4월 15일에 만년필이 되어 돌아왔다

≪수상님, 수상님께서 우리 집에 주신 그 백마가 이 만년필로 되었습니다. 수상님 분부대로 백마를 살찌워 농사를 지었는데 놈들이 군마로 끌어갈까봐 소와 바꾸었습니다. 그 소 덕분에 온 집안이 먹고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 소를 합작사에 넣었습니다. 조국으로 나올 때 소값을 찾아서 이 만년필을 샀습니다. 수상님께서 보시는 일이 잘되고 부디 만년장수하시라고 만년필을 드리오니 저의 성의로 아시고 받아주십시오.≫

나는 백마가 만년필로 되기까지 조택주 일가가 걸어온 노정 위에 압축되어 있는 우리 인민의 수난많은 민족사에 대하여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더듬어보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의 부탁대로 오래오래 살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그 해 8월 15일은 온 나라 가정들이 광복절 16절을 기념하고 있을 때 나는 대동강 기슭에 자리잡은 최일화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신접살림에 청신한 기운이 강하게 풍기는 방들에서는 명절을 즐기는 이 일가 아이들의 방울을 굴리는 것 같은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 집은 작가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을 위해 나가 직접 터를 잡아주고 설계도면까지 보아준 아파트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평양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아파트가 없었다.

평양사람들은 최일화어머니의 집이 자리잡고 있는 이 경상동 일대를 달걀 노른자위에 비기고 있다.

≪어머니, 집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구 말구요. 내 평생에 이런 좋은 집은 처음입니다.≫

최일화어머니는 새 집의 전망을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대동강 쪽으로 면한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강바람이 서느럽게 불어들어와 고생속에 세어버린 어머니의 흰머리 오리들을 가볍게 들추어놓았다.

≪한평생 두메산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이기에 강기슭에 집을 잡아주었는데 혹시 산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 대동강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변살림에 살이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지 알겠습니까. 다왜즈가 사람 못살 막바지이긴 했지만 공기야 좋았지요. 산공기가 그리워질 때면 모란봉에랑 올라가십시오. 산을 그리워할 것 같아서 모란봉 가까이에 집을 정했으니 산보랑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지으면 어머니는 새 집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수상님, 저희들은 이 집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수상님 가까이에서 살면 됩니다.≫

최일화어머니는 현관 밖까지 따라나와 나를 바래주었다. 내가 작별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어머니는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수상님, 수상님 곁에 용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맥락도 없는 그 물음에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의사들이야 많지요. 왜 그러십니까?≫

≪수상님께서 촉한 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런 몹쓸 병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설사 그런 중병이 다시 온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촉한을 잘 고치는 최일화어머니가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최일화어머니와 헤어진 나는 명상에 잠겨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는 수도의 중심거리들을 오래오래 돌아보았다. 2만 세대 운동의 봉화가 타올랐던 승리거리, 인민군거리와 함께 평양의 중심거리들은 품격있는 공공건물들과 다층 아파트들로 자기의 면모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전후 여덟해 동안 수만 명의 수도시민들이 토굴집에서 나와 복구건설의 교향곡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파트들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건설은 아직 첫 시작을 뗀 데 불과하였다. 수도시민의 과반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명 이전의 초라한 움집들과 단칸집들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항일, 항미의 불바다속에서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온 사람들이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찬바람을 많이 맞고 끼니를 많이 굶어본 인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집들을 더 많이 짓고 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고 좋은 학교들과 휴양소들과 병원들을 더 건설하자. 그리고 이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을 더 많이 데려오자. 이것이 나를 촉한에서 구원해주고 사지에서 건져준 인민을 위해 내가 할 한 생의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일화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이미 고인이 되어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우리를 팔인구까지 안내해주던 어머니의 아들 조영선과 물심부름을 해주던 딸은 벌써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후반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양에서 다왜즈까지는 수천 리이다. 장설로 덮였던 그 한적한 골짜기에 작별인사를 남기고 떠난 때로부터 어언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나운 설한풍으로부터 조노인의 외로운 산막을 보호해주던 밀림의 설레임 소리는 오늘도 내 귓전에서 쉬임없이 울리고 있다.